제 1 장

1

항구의 해가 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가싶게 먼 해구로부터 시꺼먼 먹장구름이 우우— 바람소리를 내면서 뭍쪽으로 밀려들었다.

산더미같은 파도가 방파제를 들이친다. 그 물갈기에 질겁을 한듯 갈매기들이 아츠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울부짖는 바다와 노호하는 구름장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손을 뻗치면 기슭에 닿을듯한 섬마을— 형형색색의 판자집들과 초가마가리들이 위태위태해보이는 영도는 이미 먹물을 토하는듯한 먹장구름속에 삼키워버렸다.

바다에서는 대륙의 교두보, 대륙에서는 대양의 출구라고 일컫는 오랜 력사의 항구도시 부산시가도 소리치며 밀려드는 그 먹장구름앞에 부르르 치를 떠는가싶다.

젖소의 젖통처럼 바다로 삐죽삐죽 내밀렸다고 하는 항부두에서는 더우기 아우성이다.

짐들을 만재한 기선들은 물론 방금 빈배로 밀려들었던 큰 짐배들이 더우기 겁을 먹고 우왕좌왕 헤덤빈다.

아직 기차구경조차 못했다는 외진 산골녀인들의 가냘픈 손가락에 끼였던 은가락지, 동가락지는 물론 시아버님 밥상에 정히 닦아올리던 놋숟가락, 놋저가락까지 말짱 빼앗아 실어내가는 항구이고보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자연의 노호에 겁을 먹을만도 했다.

멸망을 앞두고 침략과 략탈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1944년, 그 한해동안에 조선의 철광석만도 550만톤, 선철 54만톤, 강재 11만 1천톤을 략탈해가려 획책했으니 항차 떙떙 얼어붙는 겨울도 아

니요, 산천이 한창 살찌고 무르익는 가을철이고 보면 부두마다 에 쌓이고 덧쌓인 이 나라 재부가 어이 철광석이나 선철, 강재뿐이랴. 일본본토와 태평양전선으로 실어간다는 산악처럼 줄줄이 쌓인 쌀가마니더미들은 물론 목화, 콩, 담배, 석탄, 원목… 삼천리 이 땅안에 있는것이라면 안실려온것이 없는데 그 아비규환의 살풍경속에 더우기 사람들의 가슴을 긁는것은 넓으나넓은 부두에조차 더는 자리를 낼수가 없어 바다가해수욕장쪽으로 쑥 내밀어놓은, 한산한 모래불에서 울리는 소떼의 처량한 영각소리였다.

폭풍아, 벼락을 쳐라. 바다여, 더 노호하라. 우죽뿌죽 일어선 저 부두가의 기중기라도 콱 자빠뜨려라. 굶주린 악마처럼 철덕철덕 기슭에 달라붙는 짐배들을 뒤엎어 바다속에 처넣어라!…

밤이 깊어가자 항구는 물론 온 부산시가는 더우기 숨막히는듯한 질곡속에 빠져들었다. 도시상공을 꽉 채우고 짓누르는 먹장구름때문인지 어느 골목에든 인적이 끊어지고 사람의 가슴을 끓이던 모래불의 소영각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는다. 부두가 터지게 찼건만 아직도 무엇을 끌어들이는지 기관차의 거쉰 기적소리가 몸서리치게 꽤—액 꽤—액거리고 도대체 그 탁성에는 어울리지 않게 어느 양옥에선가 울리는 앵앵거리는 샤미센소리와 함께 간드러진 왜년들의 간지럼타는 소리가 딴세상처럼 터지군 할뿐이다.

지척을 분간할수 없는 그 어둠의 질곡을 쫙쫙 헤가르며 두줄기의 눈부신 불줄기가 골목골목을 미친듯이 헤집더니 시가지 한복판에 달팽이잔등처럼 우뚝 두드러진 공원입구로 쑥 들어섰다.

찌르는듯한 불줄기속에 공원의 잔디밭에 솟아난 이채로운 집, 주런이 늘어선 군용풍막이 드러났다.

몰풍스럽게 승용차문 여닫기는 소리가 탕탕 밤공기를 뒤흔드는것과 동시에 절그럭거리는 군도소리, 무엇인가 차던지는것 같은 무거운 구두발소리가 어지럽게 일었다. 뒤미처 세네줄기의 군용전지불이 번쩍거리는데 제일 가까운 천막앞에 서있던 감때사납게 생긴 군졸 하나가 쇠꼬치를 삼키기라도 한것처럼 꼿꼿해졌다.

전지불줄기들은 군졸의 눈섭이라도 셀듯이 꼼꼼히도 비춰본다. 이어 전지불들은 다른 천막을 향해 얼른거리고 묵직하게 위협적으

로 뚜걱거리는 구두발소리는 매 천막의 보초병들앞에서 한참씩 멎군 했다.

천막주위를 일일이 다 돌면서 경비정형을 알아본 군용전지의 주인들은 선택검열이기라도 한듯 가까이 있는 한 천막앞에 이르러 다짜고짜 《나들문》을 홱 잡아제꼈다. 캄캄한 풍막안을 전지불로 쭉 훑었다. 형형색색으로 배좁게 드러누운 청장년들을 하나하나 세여보기라도 하듯 얼굴들을 비쳐보던 전지불이 문득 한 청년의 얼굴에 멎었다.

깊은 잠에 곯아떨어진듯 꼼짝도 않는 얼굴에 잠시 멎었던 전지불은 이내 다시 그옆의 몸체 다부진 젊은이한테로 옮겨졌다가 껌벅 꺼져버렸다. 이어 볼장을 다 본 모양 전지불을 끈채 들어올 때처럼 홱 돌아서서 급히 군용승용차에 올라탔다.

승용차는 무엇이 못마땅한지 한참이나 부르릉거리며 발동소리를 요란스레 냈다. 한동안 그렇게 부르릉거리면서 곱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을 험창스레 짓뭉개놓고서야 윙— 하고 사라져버렸다.

보초병들은 발끝이 패일만큼 안도의 숨을 내쉬고나서 목덜미의 땀을 씻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절그덕거리는 군도소리와 위협적인 구두발소리는 천막안의 공기도 바짝 긴장시켰었다. 비몽사몽간에도 고향집뜨락에 쓰러져 땅을 치며 통곡하던 늙으신 부모님들과 동구까지 맨발로 따라나오며 몸부림치던 철없는 아이들, 안해들 모습에 터져나오던 흐느낌도 뚝 끊어졌다.

천막들에는 지금 징병으로 끌려가는 수백명의 청장년들이 누워있었다. 이미 중국동북지방의 100만 관동군은 물론 태평양전선의 력대 해군장군들도 꺼져가는 운명에 직면하자 놈들은 부랴부랴 본토사수의 발악적전략을 폈으니 《특별수상근무부대》의 명목으로 경상북도 대구, 영천, 성주일대에서만도 6천여명의 조선청년들을 오끼나와전선에 강제로 끌어갔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번에 또 수백명의 청장년들을 몰아가고있었는데 그들이 부산에 도착한것은 하루전이였다. 부산항에서 배에 실려야 할 인원은 그들뿐이 아니였다. 오끼나와전선뿐이 아닌 일본본토의 여러 전선들은 물론 계

속 증파해야 할 태평양전선의 징병자들도 며칠째 항구안의 림시숙박소며 야외천막속에 감금되여 허덕이고있었다. 어찌 징병으로 끌려온 청장년들뿐이랴. 징용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수는 또 얼마인지 모른다.

결국 부산항에서 배에 실려야 할 연체품은 결코 부두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산뿐이 아니였다. 그 《인체의 연체품》들, 방금 전지불빛이 비쳐들었던 천막속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장철석도 있었다.

2

천막밖에서 군용전지들이 번쩍거리고 구두발소리와 군도소리가 절거덕거릴제 소스라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들도 있었지만 장철석은 그 전지불빛이 별스레 자기의 얼굴을 핥을 때에도 오히려 입술을 꾹 짓씹으며 끙하고 모로 돌아누웠다.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몸체에 밀리워 리순철이라는 옆의 청년이 또 그옆의 청년의 배우에까지 밀려날 정도였지만 그는 모른체 했다.

그는 그저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마음뿐이였다.

래일아침 아니, 오늘밤중에라도 배에 실리우게만 되면 만사는 끝장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했다. 자동차와 기차… 장장 천여리길을 끌려오면서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여기 부산항 막바지에서 과연 성사할수 있을가?

번잡스러운 시내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기회가 생기려니 했는데 벌써 눈치를 챘는지 놈들은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죄인몰듯 하면서 다짜고짜 경비조건이 좋은 이곳 낯설은 공원공지에 숙소를 정하고 사방에다 수십명의 보초를 세워놓았다.

목숨이 붙어가지고 놈들의 배에 실릴수는 없다. 사생결단하고 그

전에 마련을 보아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징병, 징용에 끌려가다 도망을 쳐서 산속에 들어가 나라가 해방될 날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는가. …
죽어서도 안된다.
해방의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왜 죽겠는가.
살아서 혜영이도 만나고 우리 조직 성원들도 만나야 한다. 참, 그들은 어떻게 되였을가? 나처럼 또 징병, 징용에 걸려들지는 않았을가?
오만가지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덧 자정이 넘었다.
에라, 될대로 되라 하는 축들도 있었지만 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뒤라 천막안은 괴로움과 고통의 잠바다속에 잠겨버렸다. 어느 구석에선가는 코고는 소리까지 났다. 뒤미처 옆에 바싹 붙어누운 순철이도 가볍게 코고는 소리를 냈다.
장철석은 한숨을 한번 내쉬였다.
리순철.
사리원에서 기차에 오른 청년이였다.
린산 어느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징병에 걸려들었다고 했다.
순박하고 양순해보이면서도 어딘가 강기와 결패가 느껴지는 청년이였다. 일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치만은 여간 빠르지 않았다.
일행에 누구나 같았지만 특히 더 걱정과 시름이 얼굴에 꽉 차있었다. 너나없이 같은 사정이라 별로 사연을 묻는 사람도 없었지만 어쩌다 간단히 한마디씩 묻는 말에조차 씨원히 대답을 안했다. 하면서도 웬일인지 장철석을 은근히 따르고 의지하려는 태도만은 확연했다. 하긴 이 고행길에 서로 마음의 의지가 될 사람을 찾는거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아마 그래서 오늘밤도 철석의 옆에 와 누웠는지 모른다.
정녕 순철이도 그래 여기 청년들이 다 함께 도망을 칠수는 없을가?
철석은 또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누구인가 어둠속에서 조심스레 손더듬을 하더니 철석의 손을 꼭 잡아쥐였다. 순철이였다.

손은 힘있게 잡았지만 코고는 소리는 여전했다.

철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순철이는 《응.》하고 잠꼬대같은 소리를 내며 철석이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리고 제 입을 철석의 귀에 바투 갖다대면서 소곤거렸다.

《형님, 난 형님을 믿어요.》

철석은 까딱 안했다.

순철은 뜨겁게 입김을 내불었다.

《형님, 용서해요. 난 내내 형님을 살펴봤어요. 형님 도망치자고 하지요?》

철석은 여전히 옴짝 안했다.

순철이 더 바싹 다가붙었다.

《형님, 나도 도망칠래요. 죽어도 왜놈땅에 안가겠어요. … 난 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순철은 괴춤에서 선뜩하는 쇠붙이를 꺼내보였다. 농촌에서 조나 수수이삭을 자를 때 쓰느라 부러진 낫날을 벼려서 만든 한뽐정도되는 칼이였다.

순철이는 오늘밤을 놓치면 안된다고, 날이 흐려서 주위가 온통 캄캄하니 둘이서 보초놈을 한놈 제끼고 공원의 나무숲속에만 뛰여들면 그만일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구체적인 행동방안까지 내놓았다.

철석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그럴듯 했다. 순철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에 탄복했다.

그러고보면 그는 날이 어둡기 전부터, 아니 마을을 떠날 때부터 기어코 도망을 할 결심이 확고했었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찌르르했다. 철석은 저도 순철이쪽으로 돌아누우며 그를 꽉 껴안았다.

《고맙소. 순철이, 같이 해보자구!》

3

순철이 역시 보통키에 농사일에 다져진 사람답게 다부진 체격이였다.

첫눈에는 어리숙해보였지만 도드라진 되박이마에 눈꼬리가 량옆으로 어지간히 쳐들린 모색은 결코 어리무던하지만은 않은 인상이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앉아 반소매베적삼을 벗어 보자기처럼 똘똘 말아 허리에 둘러띠였다. 그리고 간편하게 바지괴춤안으로 깊숙이 밀어넣어 웃옷을 벗은것처럼 보이게 했다.

철석이도 그가 하는대로 했다.

준비가 다되자 철석이가 약속대로 좀 높은 소리로 말했다.

《여, 오줌누러 나가지 않겠어?》

《으ㅡ음.》

순철의 피로에 젖은듯한 목소리.

《혼자선 떨려서 그래. 같이 좀 나갔다오자구.》

다음행동으로 넘어가자는 신호였다. 혹시 아직 자기들처럼 잠들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예고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비칠거리면서 천막을 나섰다. 천막을 나서기 바쁘게 부러 보초놈앞으로 다가갔다. 오줌이 무척 마려와 급해난것처럼 안절부절했다. 웃동을 벗은채 제놈의 앞에서 바지괴춤을 내리고 오줌을 누는것을 보자 보초놈은 낯짝을 찡그리며 돌아섰다.

먼저 괴춤을 올린것은 순철이였다.

철석은 온 정신을 모아 순철을 살피면서 한껏 늦장을 부렸다.

바지괴춤을 올리고 허리띠를 끙끙 졸라맨 순철이 어느새 비호처럼 달려들어 보초놈의 목을 틀어안았다. 어둠속에서 칼날이 번뜩하더니 놈의 가슴에 박혔다. 순철이 어떻게나 놈의 목을 비틀어

안았던지 놈은 끽소리 한마디 치지 못했다.

순철의 손에서 또 한번 칼빛이 번쩍했다. 보초놈은 그의 팔에 안긴채 맥없이 스르르 무너지며 어푸러졌다.

《빨리요!》

순철의 속삭임과 함께 그들은 바람처럼 이미 약속했던 해당화가 무성한 떨기나무숲을 향해 내뛰였다. 인공바위들이 듬성듬성 놓여있는 해당화숲뒤에는 대나무숲이 우거졌다.

어둠속에서 손들을 억세게 마주쥔 그들이 대나무숲에 뛰여들었을 때에야 천막주변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호각소리가 길게 울리고 연거퍼 쏘아대는 놈들의 총탄이 새빨간 포물선을 그으며 어둠속 사방으로 날아갔다.

총탄이 날으는걸 보면 놈들은 아직 대나무숲을 죽기내기로 달리고있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였다.

그들은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리였다. 뛸내기에서는 장철석도 어지간했지만 제먼저 사생결단의 결심을 했대서인지 순철이를 당하지 못했다.

어차피 순철의 손에 끌리여 뛰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순철이는 마치도 힘센 말이 마차를 끌듯이 억세게 냅다끌었다.

한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더 멀리 달리면 그만큼 살 길이 더 넓어진다는 오직 그 한생각밖에 없었다.

방금전 저들이 뛰쳐난 그 천막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다. 총소리에 놀라 깨여난 청년들이 불난 집에서처럼 천막밖으로 뛰쳐나온것은 물론 뒤늦게야 사태를 짐작한 그들 역시 산지사방으로 내뛰였다는것도, 놈들이 사정없이 갈겨대는 총탄에 여라문명의 끌끌한 청년들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다는것도 알수가 없었다.

먼저 쓰러진것은 순철이였다.

아무리 억대우같은 힘이라도 저만 못지 않은 장철석을 내내 잡아끌며 뛰였으니 어이 지치지 않으랴.

그가 쓰러지는것을 보자 철석이도 더는 움직일수가 없었다. 그

는 순철의 몸우에 엎어지듯이 그옆에 퍼더버리고앉았다.
　사방은 여전히 캄캄했다.
　멀리 하늘 한끝이 희읍스름히 트이기 시작했다.
　목이 타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속에서도 철석은 그것이 동녘하늘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려명이 밝아오고있었다.
　려명!
　철석은 자기들이 얼마나 달렸는가를 생각했다. 네댓시간을 정신없이 달렸다는것을 알았다.
　정신을 가다듬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들을 콱 파묻고있는 어둠은 지난밤 부산앞바다로부터 무섭게 밀려들던 그 먹장구름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주위사방은 온통 나무숲이였다. 울창한 나무숲이 어둠의 장막을 드리웠던것이다. 그 장막—나무가지들사이로 하나둘 새벽별들이 반짝이였다.
　철석은 저들이 지금 경상산줄기의 무성한 산림속에 들어섰다는것도 알지 못했다.
　갑자기 순철이가 손을 내저으며 헛소리를 쳤다.
　《난 아니요, 아니예요.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죽이지 않았단 말예요!》
　철석은 순철을 와락 잡아흔들었다.
　《순철이, 정신차려. 정신차려, 순철이!》
　순철이는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나앉았다. 땀이 벌창인 얼굴이 해쓱했고 두눈에는 충혈이 졌다. 충혈된 그 눈속에서 공포의 빛이 떨고있었다.
　한동안 철석을 멍청하니 바라보던 순철은 돌연히 또 뒤로 펄쩍 물러앉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아니,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철석이 불안을 사이없이 그자리에 푹 꼬꾸라졌다.
　《순철이!》
　철석은 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철을 여겨보았다.
　이 사람이 과연 바람처럼 달려나가 왜놈보초를 찔러눕히고 수십

리 먼먼 산판길을 내내 저를 끌고 달려온 순철이가 옳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긴 그때는 순간에 생사가 판가리되는 때였으니 그럴수 있었지… 하는 생각에 다시금 목이 꺽 메여올랐다.

《순철이!》

또 한번 피타게 부른 철석은 저도 그만 그옆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말았다.

미구하여 날이 활짝 밝고 숲우로 둥실 떠오른 아침해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따스한 빛으로 그들을 다정히 어루쓸었다.

4

《난 말이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오. 유복자였거든.》

장철석은 제먼저 앞장서 걸으며 말했다.

사흘전, 한시간나마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다가 가까스로 깨여난 그들이였다.

한잠 푹 자고난것처럼 심신이 풀리고 머리도 맑아졌었다.

빨리 더 멀리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은 여전했다.

이틀밤 사흘낮째 줄창 산속을 헤맸다.

산판은 들어갈수록 험산이였다.

해마다 쌓이고 덧쌓여 시꺼멓게 썩은 나무잎들과 이끼들에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한껏 자라다 저절로 쓰러진 진대나무들이 거창한 동물의 등뼈처럼 널려져있었다.

그들은 지금 한창 태백산줄기를 타고 간다는것도 몰랐다. 무작정 북쪽을 향해 더 울창하고 더 깊은 수림속으로만 들어갔다. 산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편안하고 배심도 든든해졌다. 왜놈들이 아무리 지독스럽다고 한들 이 산속까지야 따라오랴. 한가을철이라 산속에는 입에 넣을것도 적지 않았다. 머루, 다래, 돌배,

산복숭아… 때로는 주먹같은 왕밤알들이 수두룩히 떨어져있는 밤나무도 만났다. 어제는 뜻밖에도 골개천을 만나 시원하게 미역을 감았다. 강바닥에 가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래간만에 가재구이까지 했다. 순철이도 이제는 공포에서 퍼그나 벗어났다. 얼굴에 한결 혈색이 돌았다.

공포에서 벗어나니 더 다부라지는감이 나서 걱정이였다. 순간도 철석의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철석은 그것이 더 미덥고 정이 갔다.

그는 일은 차라리 잘된셈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심이 확고했던것이다.

이제 자기가 일하던 구창광산에 들려 조직성원들이나 만나보고는 그길로 곧장 두만강을 건늘 결심이였다. 이제 더는 구창광산에 발을 붙일 형편이 못되였다. 두만강을 건너 **김일성**장군님 항일유격대를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몇해전 구창광산에 발을 붙였었다. 지난해에는 광부들속에 반일조직을 내왔다.

평양은 물론 국내의 곳곳에 반일조직들이 조직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됐던것이다. 제가 직접 여러곳을 다니며 이름난 활동가들의 투쟁소식도 들었다. 다른 곳에서처럼 《형제계》라는 합법적인 명칭을 붙였지만 조직의 성격은 철저히 반일이였다. 일본놈들의 동태를 살피고 정세를 연구하면서 조직을 확대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웠다. 일본은 반드시 망할것이다. 짐승같은 왜놈들이니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발악을 할것이다. 빨리 조직을 확대하고 광부들을 단합시켜야 한다.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광부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면서 태업, 파업 등으로 대륙침략을 위한 놈들의 전시생산계획을 파탄시켜야 한다.… 하는것이 총적인 투쟁목표였다. 사생결단의 폭동도 예견했다. 이를 위해 무기도 마련하고 식량과 의약품도 마련해둘것을 계획했었다.

그렇게 사전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일단 유사시가 도래하면 온 광산이 들고 일어나게 할 전망이였다.

그에게는 그럴만한 확신과 신심이 있었다. **김일성**장군 항일유격

대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적부터 누구보다 많이 들어왔던것이다. 더우기 1937년 여름의 보천보전투소식은 당장 왜놈세상을 뒤집어엎고 조국해방을 맞이하게 될것 같은 흥분을 일으켜주었었다. 그는 광부들속에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김일성**장군님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주군 했다. 《형제계》의 대부분 성원들이 철석의 그 이야기에 제일 심취되군 하던 광부들이였다. 그래서 철석이 그들에 대한 믿음이 컸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진심으로 장철석을 조직의 책임자로 내세우며 따랐던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도 생겼었다.

남갱에서 《친목회》라는것이 조직됐는데 까닭모르게 걸음걸음 《형제계》의 활동을 걸고들면서 《형제계》성원들을 시기증상했던것이다.

회장이란 사람은 마흔살전후의 중년이였으나 열네댓살 소년이라고 할만큼 키가 작고 체소했는데 작아도 고추라고 되알지고 야무지기 그지없었다. 아이적에 저보다 4년이나 우인 밥술이나 먹는다고 우쭐거리는 한 아이한테서 귀뺨을 몇대 얻어맞은적이 있었는데 한달이상이나 매일같이 얻어맞고 코피가 터지면서도 량손에 제주먹보다 더 큰 차돌을 한개씩 들고 복수를 하겠다고 따라다녀 종당에는 어른같이 키가 크고 힘이 센 그 아이한테서 두손 바짝드는 항복과 함께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받아냈다고 자랑하는 악발이였다.

반일감정과 투쟁목적도 같은것만큼 두 조직을 합치든가 합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화목해지자고 장철석이 몇번이나 《친목회》를 찾아갔지만 무슨 심산에서인지 당초에 마이동풍이였다.

충돌은 나날이 더 격화되여 어떤 날에는 패싸움과 같은 집단폭행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장철석이 《형제계》성원들부터 만류하여 가까스로 떼여놓군 했는데 그것이 또한 일부 《형제계》성원들속에서 불만을 터치게 했다. 《형제계》가 무엇이 모자라서 《친목회》것들한테 머리를 숙여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생각같아서는 장철석이 제먼저 《친목회》회장의 귀뺨이라도 후려갈기고싶었지만 같은 처지의 같은 광부들이라는 생각에 꾹 누르

군 했었다.

그런데 장철석으로서도 더는 참을수 없는 일이 생겼다. 《형제계》성원 한명이 밤작업에 나가다가 아무 리유없이 《친목회》성원들에게 걸려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고 의식을 잃은채 지나가던 사람들의 등에 업혀왔던것이다.

장철석이 끝내 왈칵해서 뛰쳐나갔다.

야밤삼경에 홰불을 날리며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다. 온 광산이 잠을 깼고 경관들까지 달려와서야 량쪽은 다같이 네댓명씩의 피투성이 부상자들을 둘쳐업고 헤여졌다.

장철석은 싸움의 주모자로 경찰에 붙잡혀갔다.

얼음장같이 차고 물기가 질벅거리는 구류장바닥에 앉아서야 장철석은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쳤다. 욱―하는 성미?… 아니, 사실상 싸움은 《친목회》에서 먼저 걸었는데 구류는 자기가 되지 않았는가.

틀림없이 어떤 놈의 의식적인 작간이다. 어떤 놈이 무슨 목적에서일가? 분명 어떤 놈한테 어처구니없이 속히웠다는 생각에 자신에 대한 환멸이 덮치면서 구토감이 치밀었다.

주먹으로 차디찬 널마루를 내리치며 몸부림을 쳤다.

그는 얼굴은 물론 온몸에 피멍을 입으면서 이틀동안이나 억울하게 닥달을 받고서야 놓여나왔다.

육신의 아픔보다도 치욕과 모멸감에 며칠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통쾌하기라도 한듯 《친목회》에서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것은 장철석으로 하여금 틀림없이 어떤 사연, 내막이 있다는것을 더욱 확신케 했다.

어떤 내막인지 알수 없는것이 안타깝고 속상했다.

무슨 쪼간으로 《친목회》가 저러는지 기어이 그것부터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속에서 불이 일게 했다. 《친목회》성원들도 다같이 같은 처지의 광부들인데 서로 옳게 리해만 한다면 화목해지지 못할게 뭐겠는가.

장철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친목회》성원들이 어떻게 나오든 자신을 다잡으면서 방도를 찾

기에 애를 썼다.

한데 전혀 예상치 못한채 쥐도새도 모르게 놈들한테 붙잡혀 징병징집의 화물차에 던져지게 될줄이야…

어차피 구창광산을 떠나야 할 몸이고보면 더 달리 갈게 뭐랴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졌다.

그래, 장군님의 유격대를 찾아가야 한다.

혜영이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앓고있는 어머니와 남동생때문에 그럴수가 없었다.

이제 떠나는 길이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길이고보면 어쨌든 만나는 보고 떠나야 할것이였다.

순철은 보나마나 저를 따라나서리라 믿었다.

그 역시 제 살던 마을에 얼굴을 내밀수가 없지 않는가.

이제는 제가 그의 손우형이 되고 힘이 되여주어야 한다는 자각이 확고해졌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싶었다. 생사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사이에 서로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려주고 알게 되는것도 하나의 례의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또한 지쳐 쓰러질것 같은 순철이의 걸음속도를 높이는데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장철석은 껍질이 다 벗겨지고 군데군데 마른 버섯들이 붙어있는 진대나무를 타고넘느라 얼마간 사이를 두었다가 시작한 말을 계속이었다.

《난 내가 어디서 태여났는지도 모르오. 다만 우리 어머니가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저 간도의 어느 외진 산간마을 조밭고랑에서 나를 낳았다는것밖에 모르지. 한여름날의 뙤약볕아래서 남의 집 조밭김을 매다가 날 낳았다는거요. 내가 열세살 나는 해에 난 그 어머니마저 잃었소. 새해를 며칠 앞둔 날이였지. 어머니는 자꾸 기침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폐염에 걸렸댔던가보오. 새해전이란 대체로 그렇듯이 어찌도 추웠던지… 그날밤 우린 너무 추워서 어느 낮모를 집 소외양간에 들어가 잠을 잤댔소. 아침에 깨여나보니 어머닌 이미 숨이 져있지 않겠소. 제 옷을 다

벗어서 나한테 덮어주고 말이요. 이런 제길… 무슨 놈의 깔따구가 이리도 성화람!》

장철석은 손을 홰홰 내젓고나서 눈굽을 찍었다.

어디서 사람의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지 대낮인데도 정말 눈을 뜰 수 없을만큼 깔따구떼가 기승스럽다. 순철이도 같이 손을 저으며 깔따구떼를 쫓았다. 장철석의 말에 호기심이 끌린듯 두눈에 생기가 반짝거렸다. 걸음도 씩씩해졌고 깔따구떼를 쫓느라 휘젓는 팔에도 힘이 있어보였다.

하긴 지옥의 문턱에서도 이제는 멀리 벗어나지 않았는가.

순철이 생기를 띠자 장철석은 사기가 올라 더 승이 나서 말했다.

《나라없고 부모없는 몸이고보니 어떠했겠소. 그저 앞이 캄캄할 수밖에 방법이 있었겠소. 류랑걸식의 길에 나서는 길밖에. … 에—에… 그 얘길 다 해선 뭘 하겠소. 그건 그렇구,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늘쌍 외우던 고향이란 곳이 가슴에 꽉 차더란 말이요. 어머니의 고향이 무슨 산자가 붙은 곳이라는거였소. … 와짝 더 마음에 불이 달린건 37년도 여름 보천보전투소식이였소. 참, 그 소식 들었소?》

《나도 조선사람인데 귀를 막고 살았겠나요!》

《하긴 그래. 굉장했지. 조선경내는 물론 중국동북지방에서도 떠들썩했소. 들리는 말이 일본 본영에서도 정신이 나갈 지경이였다더구만.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거느리구 조선땅으로 욱 밀고 나가실것 같더란 말이요. 나가자! 하구 떠났는데 에—에—… 하여튼 몇년이 걸려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보니 산자가 붙은 고장이 어디 한두곳이요? 철산, 곽산, 운산, 토산, 원산, 혜산… 제기랄!》

장철석은 또 손을 홰홰 내저었다 .

《정말 그렇구만요. 한데 조선에 나온건 언제였나요? 방금 몇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몇년이 잘 걸렸지.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으니까. …사실 결심 품고 떠난건 어머니를 잃은 다음인 1931년도 겨울이였는데 정작 두만강을 넘어선건 10년이 지난 후였소. 고국을 한번 떠나면 되돌아

가는 길이 무척 힘들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가 보오. 10년이 어디요, 10년이!》

장철석은 무성한 나무가지들사이로 거울쪼각처럼 보이는 하늘을 추연히 올려다보다가 계속했다.

《조선이 어느쪽이냐고 물으며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이 내 나이도 어느새 열일곱살이 되였댔지. 지금처럼 키가 별로 크지 않아서 나이는 열일곱이지만 사람들은 열네댓살정도로밖에는 보지 않았던가 보오. 하루는 어느 정거장의 나무걸상우에 드러누워 정신없이 자고있는데 누군가 깨우지 않겠소. 안경을 낀 웬 중년사나이였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좋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거였소. 밥도 거저 먹여주고 잠도 거저 재워준다는 말에 무턱대고 따라나섰지. 정거장앞에 풍차가 한대 서있었는데 그 차가 무슨 차였던가 하니… 북주하라는 시가지 한 변두리에 자리잡고있는 양주공장차였소.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아우? 원래는 중국사람이 경영하던 퍽 오랜 공장으로서 그 아근에서는 퍼그나 알려진 술공장이였소. 그런걸 일본의 한 자본가가문의 맏아들 이찌가와 노리아끼란 놈과 그 동생인 이찌가와 마끄도란 놈이 강제로 빼앗아 타고앉았었지.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구 왜놈들을 냅다 족치시자 그 공장 로동자들도 파업을 일으켰소. 세번씩이나 파업이 련속되자 공장주놈은 하루아침에 공장로동자들을 전원 해고시켜버렸소.》

장철석은 지독스럽게 달려들던 깔따구 한마리가 끝내 눈속으로 날아드는 바람에 또 한참동안 눈을 비비고나서 계속했다.

《참, 그 해고선풍을 누가 고안했는지 아우?

이찌가와 마끄도—동생놈이였소. 이거 아무래두 그놈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만.》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같은 소리가 들렸다.

장철석은 순철이부터 붙안으며 한포기의 다박솔뒤에 몸을 숨기였다.

머리우로 난데없이 검은 그림자같은것이 휙 지나갔다. 날개를 활짝 편 광주리만한 독수리였다.

실하게 자란 나무들사이로 재빛토끼 한마리가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방금 독수리한테 덮치웠댔던 모양 등허리털이 한줌이나 뽑혀져있었다.

눈에 달이 오른듯한 독수리가 또 산토끼한테로 급강하를 했다.

《저런 고현놈같으니!》

장철석이 무작정 앞으로 뛰여나갔다. 마침 팔뚝같은 몽둥이 하나가 눈에 띄였다.

장철석은 숨을데가 없어 굵은 소나무밑굽에 바싹 붙어앉아 바들바들 떠는 산토끼한테로 달려가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건 또 웬 놈이냐는듯 사나운 독수리는 산토끼가 아니라 장철석에게로 달려들었다. 철석이도 이놈봐라! 하고 기회를 노리면서 몽둥이를 단단히 틀어쥐였다. 그 기상에 눌리운 모양 독수리는 철석의 머리우를 몇바퀴 돌더니 저 남쪽하늘가로 날아가버렸다.

산토끼도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장철석은 좀 맹랑한감을 느끼였다.

《퉤! 그놈 신통히도 쪽발이놈들 심보거든!》

철석은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다시금 독수리가 사라진쪽을 바라보며 손을 툭툭 털었다.

순철이한테로 돌아가니 그는 재미나는 놀음이라도 구경한것처럼 시물시물 웃고있었다.

처음보는 웃음이였다.

순철이 웃는걸 보니 철석은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

순철이는 제법 제가 먼저 장철석의 팔을 끼며 물었다.

《그래서요? 그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장철석이 벌씬 웃었다. 흥미있소? 하는 눈길로 순철을 일별하였다. 이어 그는 생색이라도 내듯 부러 뜨직뜨직한 목소리로 계속 이었다.

《그 양주공장을 무작정 강압적으로 빼앗아낸 이찌가와 노리아끼란 형놈은 생긴것부터가 우악스럽고 성질이 승냥이같은 놈이였소. 이미전부터 조선총독부를 등에 업구 조선과 중국동북지방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돌아치던 놈이였지. 이찌가와 마끄도—동

생은 어떤 놈이였는가. 심리학자랍시고 지성인인체 하는 위선자였소.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에 대한 멸시사상은 제 형놈 찜쪄먹을 놈이였소. 심리학, 특히는 아동심리학연구로써 세상을 들썩 놀래우겠다는 개꿈을 꾸고있던 이놈은 형놈의 공장에서 파업이 자주 일어나자 무릎을 치며 북주하로 달려왔다고 했소.》

《그럼 한개 공장을 두놈이 같이 경영했다는거예요?》

순철이 좀 조급해난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철석은 또 한번 순철을 슬쩍 여겨보았다.

얼굴에는 더 크게 웃음이 벙실거렸지만 내색을 않고 여전히 한본새로 이야기를 끌어나갔다.

《아니, 그렇지는 않았소. …아동심리학자라는 동생놈의 주장이 뭐였던지 아오? 양주공장이란 기술자 몇명만 있으면 소년로동자들로써도 얼마든지 돌릴수 있다, 아이들이란 잘 얼려만 놓으면 시키는대로 하는것이니 어른들을 다 내쫓고 소년공들로 공장을 운영해보자, … 하고 형놈을 와짝 든장질했다는거요. 왜? 조중소년들의 심리를 연구해서 〈황국신민화〉정책에 이바지하는 그 무슨 굉장한 심리학책을 쓰려 했다는거였소. 정말 개꿈이였지. 동생놈이 무슨 속심이였는지를 알수 없는 우직스러운 형놈은 〈좋아. 그럼 공장일은 네가 한번 해봐라. 난 다른 돈구뎅이를 파야겠다.〉했다는거요. 그때 노리아끼놈은 일본령사관을 등에 업고 양주공장에는 비할바없는 큰 광산 하나를 또 타고앉을 꿍꿍이를 하던 참이였소. 당장 성인로동자들 해고바람과 함께 소년공모집바람이 불었소. 중국동북지방 곳곳에 강가의 조약돌처럼 흔한것이 류랑아들인지라 며칠동안에 300명이상의 소년인부들이 모집됐소. 허참… 그 소년공들의 이야길 다 하자면 끝이 없소. 내 평생 잊을수 없는게 누구들인가 하면… 곽영무라는 숙감과 그의 녀동생 영옥이, 김봉빈과 또 그의 녀동생 봉순이, 곽영무의 어린시절 친구인 관길이라는 동무였소.》

장철석은 한동안 말을 끊고 묵묵히 걷기만 했다. 순철이는 갈증을 만난 사람처럼 입술을 감빨며 더 바싹 그에게 붙어서면서 귀를 강구었다.

장철석은 저로서도 참으로 잊지 못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시절이라 한동안 그렇게 걷기만 하다가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펼쳐나갔다.

… …

곽영무는 장철석이와 같은 열일곱살이였지만 체격이 류달리 우람차고 어른들처럼 무척 듬직한 청년이였다. 힘이 장사같고 인정이 많아 대뜸 이찌가와 마끄도의 눈에 들었다.

그의 고향은 북주하에서 수천리 떨어진 조선의 황해도 봉산이였다. 세살잡히는 해에 고아가 됐다.

아버지는 그가 태여나던 해 한밤중에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뛰여든 어느 한 의병대원과 함께 집을 떠난 후 몇해가 지나도록 종무소식이였고 산후탈로 고생하던 어머니마저 끝내 저세상으로 갔던것이다.

너무 철없는 나이에 부모를 잃게 되자 봉산에서 수백리 떨어진 덩두골이란 산골마을에 시집을 가서 일찌기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살던 고모가 어린 영무를 데려다 아들처럼 키웠다.

덩두골에는 곽영무보다 한살 아래인 관길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영무는 그애와 각별히 친하게 지내며 자랐다.

관길이는 산간벽지 무인지경의 덩두골에 첫기둥을 박아세운 좌상로인의 손자였다. 엉뚱한 생각을 곧잘 해내는 능청스럽고 락천적인 소년이였다. 생활은 어렵지만 세상물정을 알바없는 그들은 강가로, 풀언덕으로, 산기슭으로 뛰여다니며 즐겁게 자랐다.

산골안 음달진 곳에는 아직 눈무지들이 더미더미 그대로 쌓여있는 초봄 어느날 아침이였다. 그날아침 그들은 뜻밖에도 눈물속에 헤여지게 됐다. 일제의 토지조사바람에 관길이네가 하루아침에 땅을 떼우게 됐던것이다. 관길이네는 어쩔수없이 덩두골을 떠나게 됐다.

한편 이때 덩두골에서 백리나마 떨어진 어느 한 산골마을에서도 그들에게 못지않는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그 마을에는 영무와 동갑나이인 봉빈이라는 소년이 병약한 어머니와 두 녀동생과 함께 살고있었다. 그 소년이 손아래동생 봉순이

와 같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유혹하는 뚜쟁이한테 속히워 이름도 모를 곡마단으로 팔려가게 되였던것이다.

한해후에야 뚜쟁이한테 속히웠다는것을 알게 된 봉빈의 어머니는 앓는 몸이지만 네댓살난 막내딸 봉옥이를 데리고 아들딸을 찾아 집을 떠났다. 생사를 알길 없는 아들딸을 찾아 방황하던 어머니는 그만 길가에 쓰러졌다. 세상에 참 이런 기이한 인연도 있을가. … 숨이 지기 전에 봉빈의 어머니는 뜻밖에도 영무 아버지를 만났던것이다. 영무 아버지는 일제놈들에 의해 해산된 조선군대병사들과 독립군들로 조직된 의병부대에 들어가 싸우댔는데 그만 그 부대가 일본 수비대놈들에 의해 전멸됐다. 부대가 전멸되자 영무 아버지는 가족들을 먹여살릴 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광산에 들어가 광부가 됐던것이다.

운명직전 봉빈의 어머니는 길가에서 만난 낯선 광부한테나마 자기 집 기막힌 사연을 호소하면서 의지가지할데 없는 어린 딸을 부탁했다.

봉빈의 어머니로부터 너무도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된 영무 아버지는 불쌍한 봉옥이를 양딸로 삼고 이름도 영옥이로 고쳐주었다. 얼마후에는 그애와 함께 덩두골을 찾아갔다. 생사여부를 모르던 아버지를 만난 영무의 기쁨은 온 세상이라도 안은듯싶었다. 아버지와 고모는 영무에게 어린 영옥이를 안겨주면서 이앤 네 동생이다, 엄마가 앓기때문에 아버지가 업어다 키운 애란다 하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영무는 영옥이를 진짜 친동생으로 알고 끔찍이도 고와했다.

또 불행이 들이닥쳤다. 영무 아버지가 왜놈들과 싸울 때 다친 상처가 심하게 도진데다 고모가 빚값에 몰려 지주집 머슴으로 끌려갔던것이다. 이미 자기 병이 기울어졌다는것을 알게 된 영무 아버지는 죽기 전에 영옥이한테 친오빠와 언니라도 찾아줄 결심을 했다. 하여 영무와 영옥이를 데리고 곡마단을 찾아 평양으로 떠났다.

곡마단이라고 하면 평양이나 서울에 있을테니 우선 평양에서부터 찾아볼 생각이였던것이다. 가는 곳마다에서 일본놈들의 구박

과 멸시를 받던 영무 아버지는 그만에야 어느날 저녁 모란봉의 청류벽밑 자연동굴속에서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상처도 상처지만 나라잃은 원한이 그를 더 살수가 없게 했던것이였다. 영무는 그때부터 영옥이와 함께 류랑의 길에 나섰으며 다음해에는 중국동북지방으로 물밀듯이 밀려가는 류랑민들을 따라 두만강을 건느게 되였다.

…

어디선가 와당탕 퉁탕… 하는 소리가 났다.

장철석은 향방없이 뻗어나가는것 같던 이야기를 뚝 끊으며 흠칫 놀랐다.

퍼그나 경사가 급한 오른쪽 산기슭에서 물동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껑충껑충 뜀박질을 하듯이 굴러내려왔다. 그 웃쪽에서 코끼리상아같은 버드렁이발이 량쪽으로 쑥 삐여져나온 중소만한 메돼지 한마리가 저로서도 놀라운듯 두눈이 퀭해서 굴러내리는 돌덩이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먹이감을 찾아 묵은 나무잎들을 뚜지며 돌아가다가 돌밑굽을 잘못다친 모양이였다. 무인지경의 산중이라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는가보았다.

장철석은 후두둑 뛰는 가슴을 누르며 순철이를 돌아다보았다.

어찌나 이야기에 심취됐던지 그는 메돼지의 실수같은것은 알아채지도 못한 모양 두눈이 초롱초롱해서 철석을 쳐다보고있었다.

장철석은 빙긋이 웃었다. 제 말에 그렇게 귀기울이는데 나쁠게 뭐랴, 영무네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있을가?… 하긴 생사를 예측할수 없는 방랑아들의 기구한 운명담이 아닌가.

전기불도 꺼진 양주공장의 캄캄한 합숙방—한장씩밖에 차례지지 않는 헌 군용모포만으로는 너무도 얼어드는 추위를 막을수가 없어 몇명씩 조를 무어 모포를 겹쳐덮고 서로서로 꼭 붙안고 누워 잠을 청하던 밤 곽영무가 조용조용 들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어딘들 안가봤겠니. 연길, 훈춘, 돈화, 심양… 목재판에도 들어가봤구 말몰이군도 해봤다. … 안되겠구나, 어디든 정착을 해야겠다 하고 깨달은건 7～8년이 지나 내 나이도 열여섯살

이 되여서였다. 여기 현소재지에 이른건 지난해 초봄이였어. 마침 혼자 사는 마음 무던한 어머니 한분을 만났구 그 어머니의 주선으로 읍거리 인력거군자리를 하나 얻었단다. 그때부터 인력거를 끌면서 우리 영옥이를 키웠어. 열일곱살 애젊은 놈이 숱한 사람들이 보는 네거리길로 인력거를 끌고다니는 일이 고되고 창피스럽긴 해두 제 잠자리를 정하구 우리 영옥이 하나라도 하루 세끼 배곯지 않게 먹일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든줄을 모르겠더구나.》

철석이도 그렇고 모두들 울면서 들었다. 영무오누이의 방랑생활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보다는 그 방랑생활이 신통히도 듣는 아이들모두의 생활과 류사했기때문이였다.

절망과 설음만이 꽉 찼던 암담하던 방랑생활의 아픔으로 하여 장철석이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걷기만 하자 순철이가 더 바싹 다가붙으며 물었다.

《그다음엔요? 형님은 정거장에서 안경낀 중년사나이를 만나 양주공장에 들어갔는데 영무는 또 어떻게 공장에 들어갔어요? … 봉빈이네 오누이는 어떻게 됐구요?》

두눈에 더 큰 호기심이 어렸다.

장철석은 또 싱그레 웃었다. 까짓거 다 말해주자, 바쁜 일도 없는데. … 하긴 이 고행길에 객담이나마 서로 나누어야지 말없는 벙어리걸음만으로야 힘겨워 어이 가내랴!

하면서도 철석은 넌지시 물었다.

《거 뭐 소시적 시시껄렁한 얘긴데 그냥 듣겠소?》

순철이는 펄쩍 뛰듯 하며 입을 열었다.

《시시껄렁한 얘기라뇨, 나라잃고 살길 막힌 백성들의 피와 눈물에 젖은 원한의 자욱자욱들인데. 이제 왜놈세상이 뒤집히고 나라가 독립되면 하나하나 다 력사책에 기록해서 자자손손 전해줘야 할 얘기지요.》

장철석은 입을 항 벌렸다.

《가만, 자네 거 보통 유식하지 않구만!》

순철은 얼굴이 벌개졌다. 이어 손을 홰홰 내저었다.

《원 형님두, 별 말을 다… 농사군한테 유식이 다 뭐예요. …

8도강산 하도 돌아다니다나니 풍월루 좀 주어들었던 끄트모랭이지요.》

《허허허…》

장철석은 소리를 내여 웃었다. 아무튼 기분은 흥그러워졌다.

그는 순철이를 옆에다 꼭 당겨끼기까지 하면서 《곽영무가 양주공장에 들어가게 된건 말이요.》하고 끊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 …

현소재지에 류랑의 닻을 내리고 인력거군이 된 영무는 어느날 정거장에 나가 손님을 기다리다가 우연히도 신사차림의 일본인—이찌가와 마끄도를 인력거에 태우게 되였다. 실은 우연이 아니였다. 곽영무의 어른다운 성품과 힘장사같은 체구에 눈독을 들이고 정거장을 드나들 때마다 여러차례 눈여겨 살피던 이찌가와 마끄도가 부러 우연인체 하면서 그의 인력거에 올라앉았던것이다.

인력거를 타고 가면서 영무의 고향이며 살림형편을 친절히 알아본 마끄도는 무척 후더운 동정을 표하면서 자기가 힘껏 도와주겠으니 영옥이까지 데리고 양주공장에 들어오라고 권고했다.

공장에는 이미 관길이가 들어와있었다.

덩두골을 떠나 여기저기 떠살이를 하던 관길이네는 부전강으로 가면 살길이 열린다는 조선총독부의 광고에 유혹되여 부전강발전소 건설장으로 갔었다. 죽음의 함정과도 같은 그 발전소 건설장에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혈혈단신이 된 관길이 역시 류랑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영무와 관길은 눈물겹게 만났다.

관길이까지 잡아끄는 통에 영무는 영옥의 손을 잡고 마끄도를 찾아갔다. 마끄도는 쾌재를 부르면서 영무를 합숙숙감으로 임명하고 300명 소년직공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는 《신임》까지 베풀었다.

300명 소년직공들의 눈물겨운 생활들을 알게 된 영무는 그들의 친형이 되여 동생들처럼 돌봐주면서 때로는 마끄도에게 엄청난 요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불여우같이 깜찍하고 교활한 마끄도는 영무의 요구를 들어주는척 하면서 그를 리용하여 소년직공들을 나날

이 더 고역에로 내몰았다.

이럴 때 양주공장에 또 한명의 소년직공이 들어왔다.

연길유격근거지에서 양주공장 소년직공들속에 소년선봉대조직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받고 들어온 봉빈이였다.

뚜쟁이한테 속히웠다는것을 늦게야 알아차린 어머니가 행처를 찾아 헤매일 때 그들오누이는 서울의 어느 한 곡마단에서 지옥에서와 같은 학대를 받으면서 교예훈련을 강요당하고있었다.

봉빈이는 말타는 교예를 배우고 봉순이는 바줄타는 교예를 익혀야 했다.

아득한 공중에서 바줄을 타야 하는 봉순의 고역은 더 말할수 없었다. 채찍, 욕설, 벌… 동생을 죽일것만 같아 가슴을 조이던 봉빈이는 어느날 중국동북지방으로 살길을 찾아 떠나는 한 류랑민을 알게 되여 그 사람의 도움속에 봉순이와 함께 곡마단을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낯설은 이역땅에서 류랑의 길을 헤매던 봉빈이네 오누이는 어느 깊은 산속에서 유격대지하공작원을 만나 유격근거지로 들어갔고 봉빈이는 소년선봉대 대장으로 성장했던것이다.

그 과정 역시 근 10년세월이였다.

뒤늦게야 공장에 입직을 한 봉빈이는 장철석이 일하는 알탄작업장에 배치됐다. 좀 헐한 작업공정들에는 이미 로력이 다 차고 나중에 들어온 소년들은 제일 힘든 알탄작업장에 내몰렸던것이다.

공장안에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봉빈의 활동은(물론 그때 공장소년공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소년들을 보호하려는 영무한테 부딪쳐 걸음걸음 속을 태웠다.

영무때문에 속을 태우면서도 봉빈이는 그가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고있는 영옥이가 자기의 친동생이라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영옥이 또한 봉빈이가 세살때 헤여진 자기 친오빠인줄을 알지 못했다. 영무는 나날이 더 경계하면서 못마땅해하는 봉빈이는 물론 관길이까지 미워했다. 봉빈이가 이미 영무와 제일 가까운 관길이부터 돌려세웠던것이다. 영무는 관길이까지 배척해버렸다.

그무렵 공장에는 야수와 같은 또 한놈의 일본놈이 나타났다. 의사의 탈을 쓴 일본륙군소속 특수연구소 연구사 오야마 고로였다.
도꾜군부의 뒤받침을 든든히 받고있는 이놈은 손쉬운 방법으로 생체실험대상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검진의 구실밑에 소년공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이자는 이미 10여년전에 새 마취제연구실험을 위해 조선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숱한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병신을 만들어놓은 놈으로서 산골마을의 봉빈이와 영옥의 잔등에도 지울수 없는 상처자리를 남긴 놈이였다.
검진과정에 봉빈이와 영옥의 잔등의 상처자리를 발견한 오야마 고로는 미칠듯한 호기심을 느끼며 이 사실을 이찌가와 마꼬도에게 알려주었다.
가뜩이나 봉빈이를 수상쩍어하던데다 야수의 본성에서는 결코 짝지지 않는 두놈은 영옥이를 죽음에로 몰아가는 생체실험의 첫 대상 《모르모트－1번》으로 정했다. 봉빈이와 영무의 관계를 리용할 몸서리치는 계획까지 세웠다.
비인간적이며 살인적인 이 음모를 아는 사람이 딱 한명 있었다. 이찌가와 마꼬도가 도꾜의 자기 집에서부터 충실한 하녀로 키워온 미쯔꼬라는 소녀였다.
미쯔꼬는 원래 조선소녀였다. 간또대지진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희생된 후 이찌가와 마꼬도의 가문에서 애완용동물처럼 키워낸 하녀였다. 자기를 철저히 일본아이로 알고있을뿐아니라 이찌가와가문의 《은덕》에 멸사봉공하도록 교양받은 소녀였다.
이찌가와 마꼬도는 조선아이로서 나날이 일본화되여가고있는 미쯔꼬를 《황국신민화》정책실현의 표본처럼 자랑하며 동북지방에까지 데리고갔던것이다.
이찌가와 마꼬도와 오야마 고로는 영무와 영옥이, 봉빈의 관계를 무척 흥미있게 지켜보면서 때로는 영무가 영옥이한테 쏟아붓는 사랑을 봉빈이를 극도로 미워하게 하는데 리용하기도 하고 영옥이를 살리기 위해 영무가 제놈들에게 더 충실하도록 교묘하게 계교를 꾸미기도 했다.

놈들의 이 잔인성의 진모를 미쯔꼬가 더 깊이 알게 됐다. 그는 영무와 영옥이에 대한 동정과 함께 자기 《주인》들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됐다.

생체실험대상으로 뽑힌 영옥이가 힘든 일도 하지 않았지만 나날이 더 쇠약해져 영무는 미칠지경이 됐다.

영옥이를 비롯한 실험실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신체상의 이상한 점들을 제일먼저 알아차린것은 봉빈이였다. 영옥이한테 접근해보려 했지만 그애는 좀처럼 곁을 주려하지 않았다. 미쯔꼬가 분명 그 비밀을 알수 있다고 짐작했지만 항시 이찌가와 마끄도와 감독들의 경계속에 있는 애여서 그와도 접촉할수가 없었다.

많은 생각끝에 봉빈이는 유격근거지에 있는 봉순이를 보내줄것을 제기했다. 얼마후 봉빈의 요청대로 현소재지 지하조직선을 통하여 봉순이가 공장에 들어왔다.

봉순이는 인차 영옥이와 가까와지고 미쯔꼬와도 사귀였다.

드디여 미쯔꼬는 봉순이에게 영옥이가 인차 죽게 될것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면서도 아직 오야마 고로의 실험실내막까지는 말하지 못했다.

영옥이를 극진히 돌봐주던 봉순이는 뜻밖에도 그가 그처럼 그리워하던 친동생이라는것을 알게 됐다. 했으나 분명 제 동생으로 알고 온갖 사랑을 다 쏟고있는 영무때문에 이름 한번 부르지 못했다.

봉빈이와 봉순이, 영무와 관길이가 정성을 다 쏟았으나 영옥이는 끝내 눈을 감고말았다.

영무는 반정신이 나가버렸다. 오야마 고로를 의심하며 기어코 그의 실험실내막을 밝히려 했다. 실험실내막이 드러날 위험에 빠지자 이찌가와 마끄도와 오야마 고로는 영무를 가차없이 죽여버릴 흉계를 꾸몄다.

이 음모 역시 미쯔꼬가 알아차렸다.

그무렵 미쯔꼬는 오야마 고로와 이찌가와 마끄도가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조선아이라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미쯔꼬는 위험을 무릅쓰고 놈들이 영무를 죽이려 한다는것을 봉순이와 봉빈이에게 알려주었다. 봉빈이는 사생결단으로 영무를 구

원하고 놈들의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영무는 비로소 영옥이가 봉빈의 친동생이였으며 자기가 그처럼 미워하던 봉빈이가 소년선봉대원이라는것을 알게 됐다. 자기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한 놈들한테 속히웠댔는가를 알게 된 그는 즉시 소년선봉대에 입대하고 관길이와 함께 봉빈이를 대신하여 소년공들의 파업을 조직했다.

10대의 소년들, 혈혈단신 소년공들의 파업은 곧 폭동으로 넘어갔다. 닥치는대로 들부시고 짓마스는 소년공들의 폭동에 이찌가와 마끄도는 그만 손을 들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응해나섰다.

어른들은 3차례의 파업뒤끝에 모두 해고를 당했지만 물불을 모르는 소년공들은 첫날 첫 투쟁에서 크게 승리했던것이다.

이 폭동은 중국동북지방은 물론 일본전역의 신문, 방송들과 본영의 군부까지 크게 흔들어놓은 하나의 사변과도 같은것이였다.

… …

해빛도 잘 스며들지 않는 울창한 밀림이 끝나고 저앞으로 훤하게 트인 개활지대가 나타났다.

장철석은 이마의 땀을 씻으며 큰숨을 몰아쉬였다.

철석의 이야기를 듣느라 곁에 바싹 붙어걷던 순철이도 숨을 헐썩거렸다.

철석이 땀을 들이느라 한동안 말을 끊고있자 순철이는 제사 흥분해서 말했다.

《거참, 어른들도 못해낸 일을 아이들끼리 해냈단 말이구만요. 대단한데!》

머리를 기울기울하며 찬탄하던 그는 갑자기 두눈을 불꽃처럼 반짝이며 물었다.

《아, 그러니 형님은 그때 벌써 쪽발이놈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참가했댔구만요!》

철석은 손을 홱 내리그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소릴…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럽소.》

그는 한숨까지 후— 내쉬였다.

순철이 의아해서 물었다.

《왜요?》

머리우에서 인기척에 놀란 산비둘기 한마리가 화드득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철석은 또 한대의 진대나무를 타고넘느라 얼마간 사이를 두었다가 씁쓸하게 이었다.

《운명의 길이란 참, 아 글쎄 그날 공장에 불을 지른 영무와 봉빈이네는 주저없이 다 유격근거지로 들어갔는데 난 왜 그들을 따라갈 생각을 못했겠는가 말이요. **김일성**장군님 유격대에!… 그저 또 어머니가 들려주던 고향, 조선으로 나갈 생각밖에 못했댔거든.》

《야, 거 그때 그들과 함께 갔더라면 정말 항일유격대가 됐을걸 그랬구만요. …지금처럼 징병에 끌려다니는 고생도 않구.》

순철이는 항일유격대라는 말을 힘주어 하면서 부럽기라도 한듯 철석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철석은 머리우에 드리운 소나무의 삭정이를 뚝 꺾어 내던졌다.

순철이는 괜히 아픈곳을 찔렀다고 생각했는지 얼마간 잠자코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그 노리아끼인지 마꼬도인지 하는 놈들은 어떻게 됐어요?》

철석은 찔 흘기기라도 하듯이 순철을 쳐다보고나서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마꼬도인지 말꼬리인지 하는 그놈은 그날 공장과 함께 불에 타죽었소. 무슨 심리학기록부인지 하는걸 건져내겠다고 제놈의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지붕이 무너지는 통에… 제 갈대로 갔지. 한데 사람의 일이란 참… 내 구창광산에서 이찌가와 노리아끼놈과 다시 만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순철이도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그럼 그놈도 조선으로 나왔어요?》

철석은 퍽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놈이 〈동척〉의 주요인물로서 중국동북지방뿐아니라 북

부조선의 탄광, 광산들도 여러개 제 손아귀에 걷어넣었다는거요. 뭐 총독부는 물론이구 일본본영에도 마음대로 드나든다나보오.》

《보통 큰놈이 아니구만요.》

《돈벌이에서는 큰놈일런지 몰라두 속통은 되게두 쪼물짝한 놈이요. 그놈이 구창광산에 처음으로 나타난 날 어떻게 했는지 아오?》

구창광산의 광주는 새로 모시게 된 이찌가와 노리아끼에게 첫 인상부터 좋게 보이기 위해 심부름군소년을 시켜 그놈이 타고온 승용차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했다. 산골광산에서 차청소를 해보지 못한 소년이 청소를 제대로 할리 없었다. 차창에 얼룩점이 몇군데 생겼던것이다. 신통히 이찌가와 노리아끼를 닮아 포악하기 이를데 없는 운전사가 노발대발해서 소년의 귀쪽을 잡아비틀었다. 그리고도 모자라 놈은 마당가에 쌓여있는 장작더미에서 홍두깨같은 장작개비를 들고 달려들었다.

광산사무실에서 나오던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그 모양을 보자 짐승같은 소리를 빽 내질렀다. 운전사가 주춤하는 사이 승용차안에서는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호신용으로 끌고다니는 말같은 개 한마리가 달려나왔다. 노리아끼놈이 소년을 가리키며 뭐라고 한마디 하자 개는 사정없이 소년을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순간에 피투성이 되여 쓰러지는 소년을 보며 놈은 더 미친 놈처럼 부르짖었다.

《조선놈이나 새끼들 모두 독종들이다. 북주하양주공장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끼친다. 조선놈아이새끼들이나 모두 저렇게 물어뜯고 불태워죽이면 씨원하겠단 말이다!》…

철석의 말을 듣던 순철이는 얼굴이 새하얘서 치를 떨었다.

《짐승같은 놈, 아니, 그놈을 가만뒀어요? 그 광산엔 로동자조직도 없었나요? 우리 농촌에두 농민조합이란 조직이 있었는데…》

이번엔 장철석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어렸다. 괴롭게 고개를 돌리면서 혼자소리처럼 한마디 했다.

《그 조직책임자가 바로 나였소.》

순철의 두눈이 사발만큼 커졌다.

철석은 더 아픈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방법이 없었소.》

사실 그때 장철석은 어쩌는 방법이 없기도 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너무도 뜻밖에 마주치게 된 이찌가와 노리아끼이기때문이였다. 북주하양주공장에서의 고역의 나날들이 한꺼번에 다 떠오르면서 오싹 전률이 일었던것이다. 야수같은 이찌가와 노리아끼도 모여드는 광부들속에서 비수처럼 섬찍하게 날아드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였다. 서리발같은 눈길의 젊은 청년의 얼굴도 얼핏 스쳐보았다. 하지만 불쌍한 소년—조선아이앞에서 터져오른 야수같은 복수심에 미쳐 놈은 그 얼굴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어디선가 낯익혔던듯한 그 얼굴을 되살려낸것은 그로부터 몇시간이 지나 광산을 돌아보면서였다. 광차를 밀고나오는 장철석을 다시 띄여보았던것이다. 동행하던 광주와 십장놈들을 통해 장철석의 경력과 함께 《형제계》조직자라는것도 알게 되였다.

《요시!》

놈의 이발이 금시 부스러지기라도 할듯이 무섭게 갈렸다.

마침 놈은 총독부 경무국의 요직인물 모리무라 다다시와 한창 친교가 무르익는중이였다.

하여 구창광산에 이미 침투했다는 모리무라 다다시의 첩자도 알게 되였다. 그 첩자의 끄나불이 《친목회》에 박혔다는것도 알았다.

사랑스러운 영옥이의 여린 생명을 쥐고 영무와 봉빈이를 우롱하는데서 쾌락을 맛보던 이찌가와 마끄도와 오야마 고로의 본성 그대로인가, 늙다리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낯짝에도 음충스러운 미소가 떠돌았다.

놈은 어쩌다 광산에 나타나면 극비밀리에 다다시의 첩자부터 만나군 했다. 물론 누구도 범접을 못하는 숙소나 식당의 어스크레한 구석방에서였다.

《형제계》와 《친목회》가 벌린 머리가 깨지고 코피가 터지는 싸움도 입귀가 귀쪽까지 째져돌아갈만큼의 만족과 통쾌감속에 지켜보았다.

어느 글에서였던가?

한사람이 언덕에 앉아 늪가의 풀숲에 하나둘 돌을 집어던질제 개구리 한마리가 닁큼 일어나며 성이 나서 했다는 말.

《여보, 제발 좀 던지지 마오. 당신은 심심풀이로 던지지만 그 돌에 맞으면 우린 목숨을 잃는단 말이요. 죽음!》

울안의 동물싸움을 지켜보듯 하던 이찌가와 노리아끼는 그에도 인차 싫증이 느껴지자 가차없이 《형제계》성원들을 징용, 징병으로 몰아가도록 돈뭉치까지 아끼지 않고 뿌렸던것이다. 이후 모리무라 다다시를 만난 자리에서는 여담삼아 대일본제국을 위해 본영의 대조선정책사에 길이 남을 거사라도 치른듯이 그 일을 열이 나서 자랑까지 했다.

한갖 심심풀이같은 늙다리의 허세였지만 모리무라 다다시는 자리를 차며 일어날만큼 흥분했다.

이게 웬일이냐!

당장 그날밤으로 구창광산을 비롯하여 자기 관할지역안의 주요 지점들에 박아넣었던 특수밀정들을 극비밀리에 한명씩 긴급호출하였다.

아직은 이렇듯 총독부 경무국안에서 어떤 모략이 꾸며지고있는지 알수 없는 장철석과 리순철은 지옥의 사자앞에서 뛰쳐나온듯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자기들앞에 어떤 운명의 가닥가닥이 놓였는지는 더우기 생각지 못한채 초행길에 만난 생면부지의 길손들이라 서로 소개하고 리해하려는데 마음쓰면서 걸음걸음 북행길을 다그치고있는것이였다. …

순철의 놀람에 장철석은 더우기 아픈 가책의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뇌이였다.

《정말이지 그때는 어쩔 방법이 없었소.》

순철은 여전히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듯싶었다. 새삼스럽기라도 한듯 한참이나 철석을 찬찬히 여겨보다가 무작정 그의 앞을 떡 막아섰다.

《글쎄…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형님,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요!》

철석은 쑥스러워 손을 저었다.

《됐네, 됐어. …너무 이러지 말라구. 항차 지금이야 다같이 징병에 끌려가다 도망친 몸이 아닌가.》

《그래두 어디 그런가요. 한배에 까났다구 다 수닭은 아니지요.》

《됐다니까, 어서 가자구.》

철석은 제먼저 덜썩덜썩 앞서 걸었다.

또 누구도모르게 붙들리던 일이 생각났다.

그날 하루일을 마친 장철석은 전에없이 급히 걸었다. 날이 어두우면 《형제계》성원들의 모임을 열기로 했던것이다. 되게 못되게 구는 싸리갱감독놈을 내쫓는 투쟁을 벌려 광부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초보적인 로동조건이나마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려는 모임이였다. 《형제계》가 조직되여 벌린 첫 파업—대중투쟁이였다. 10년전 북주하양주공장에서의 폭동이 생각났다. 항차 10대 소년시절에도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 지금에야!

이제는 뜻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동지들의 회합인것만큼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중국동북지방에서 가슴 설레이게 듣군 하던 항일유격대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어 이번 투쟁의 불길이 되고 기발이 되게 해주려고 했다.

흥분에 들뜬 그는 누구인가 뒤를 따르는것도 몰랐다.

어느 한 골목을 돌아설무렵 돌연 두세놈이 덮쳐들었다.

미처 손쓸 사이없이 사지를 맞들리다싶이하여 밖을 내다볼수 없는 풍차에 올리던지웠다.

풍차가 씽하고 바람을 일구며 떠났을 때에야 군복차림의 한놈이 꾸깃꾸깃 꾸겨진 징집령장을 내보이며 뭐라고 씨벌거렸다.

차안에는 열댓명의 청장년들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있었다. 조금이라도 돌아앉으려 하면 즉시에 돼지멱따는 소리같은것이 터졌다.

풍차가 정거장에 닿고 정거장에서 기차에 실리울 때에야 장철석은 먼발치에서나마 이미 끌려와있는 여러명의 《형제계》성원들을

알아볼수 있었다.

다행히 한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며 귀속말로 알려주었다. 모두 장철석처럼 불의에 붙잡혔으며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간다는것이였다. 장철석은 비로소 심상치 않음을 느끼였다.

《형제계》성원들이 모두 붙잡혔는가?…

《형님, 저게 뭐요?》

순철이 갑자기 철석의 팔을 끌고 아름드리 소나무뒤에 붙어섰다. 그가 가리키는 오른쪽경사지에 깎아지른듯한 돌벼랑이 솟았는데 그 돌바위에 일제를 저주하는 글자들이 씌여져있었다.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다가 도망친 사람들이 써놓은게 분명했다. 하다면 여기 어디에 그들이 있다는것이 아닌가.

숨죽이고 살폈지만 인적기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얼마후에야 터질듯이 들뛰는 가슴을 두손으로 감싸안으며 조심조심 바위께로 다가갔다.

5

돌벼랑밑에 여라문명은 넉근히 들어가앉을만큼 너름하고 길지 않은 굴이 있었다.

그들은 환성을 올렸다. 군침이 돌도록 노랗게 구운 강냉이이삭들이 굴벽 한 곳에 주런이 놓여있었던것이다. 무명천으로 정히 지은 자그마한 주머니도 있었다. 풀어헤치니 한사발가량의 소금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겨끔내기로 구운 강냉이이삭을 뜯기 시작했다. 욕심스레 소금도 집어먹었다. 며칠만에 맛보는 소금이여서 소금알갱이들이 사탕처럼 달았다.

한이삭한이삭 다 뜯어먹은 송치들은 그것대로 한옆에 나란히 줄맞춰놓았다. 그 강냉이를 구워놓은 주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

였다.

어찌 구운 강냉이뿐이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주인모를 도움을 한두번만 받았던가. 어떤 곳에서는 깨끗이 손질해놓은 콩청대자리를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골짜기에서는 두세가마니는 실히 될 밤송이들을 구워놓은걸 발견하기도 했었다. 징병, 징용기피자들이 한 소행이였다. 물론 저들이 먹기 위한것들이였다. 허나 그들은 저들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저들이 도움을 받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하기사 1940년부터 1943년사이에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친 청년들, 그에 응하지 않고 기피한 청년들의 수가 수십만명, 철석이네가 도망을 치던 바로 그 10월의 열흘어간에만도 놈들이 극력 줄여서 발표한 자료로 만여명이나 되였으니 이 나라 산중에 숨어든 청년들이 과연 얼마였으랴!

마음이 훈훈했다.

결코 구운 강냉이와 소금을 먹어서만이 아니였다.

저들도 무엇인가 장한 일을 한것같은 긍지와 자부에서였다. 그래 조선사람이, 이 나라 청년들이 다 죽은줄 알았더냐!

마냥 제집의 뜨뜻한 온돌방에라도 들어와 앉은것처럼 기분이 흥해진 철석은 네활개를 쭉 펴며 돌바닥우에 드러누웠다.

그는 곧 만사태평처럼 잠이 들었다.

오래간만에 다릉다릉 코까지 골았다.

얼마쯤 그렇게 달게 잤을가?

철석은 갑자기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앉았다.

《혜영이가 누구슈?》

순철이 미안스럽게 물었다.

철석은 어줍게 웃었다.

《내가 잠꼬대를 했소?》

순철은 한발 더 들이짚었다.

《색시요?》

철석은 부러 기지개를 한껏 켜고나서 말했다.

《아직 색시는 아니요. 그저 날 무척 생각하는 처녀지. … 집에는 랭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님이 계시구 열두살나는 남동생이 있소.》

《예—》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순철은 마침 생각난듯 바위벽에 세워놓았던 긴 참대통같은것을 조심스레 들어다 권했다.

《물이예요. 밖을 좀 살펴보러 나갔댔는데 이 바위뒤에서 샘줄기가 졸졸 흘러내리지 않겠나요. 꿀처럼 달아요. 어서 마셔봐요.》

굵은 벌싱아줄기를 칼로 잘라 만든 물통인데 둬사발의 물은 실히 들어간듯싶었다.

목이 컬컬하던 참이라 철석은 정신없이 마셨다. 정말 꿀처럼 달았다.

시원하게 물까지 마시고나니 정신이 버쩍 들었다. 그는 또 한번 기지개를 켜고나서 다시 돌바닥에 드러누웠다. 하염없이 나무가지들사이로 어룽거리는 가을하늘을 바라보았다. 한참 그러고있다가 순철이쪽으로 돌아누우며 물었다.

《참, 순철인 고향이 어디요?》

순철은 시무룩이 웃었다. 이어 괴롭게 입술을 씹고나서 말했다.

《난 아까 형님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내내 울었시다. 꼭 내 얘길 하는것 같아서 말이예요.》

그는 또 괴롭게 한숨을 쉬고나서 이었다.

《나도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우.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얼굴도 모르구요. 우리 어머닌 날 낳자마자 남의 집 대문밖에 버렸대요. 그 집에서 날 키웠는데 또 이집 손에 넘어가고 저집 손에 넘어가다보니 어느 집에서 진짜 날 정들여 키웠는지도 모르우. 나중에 자란 집이 어느 잘사는 집이였는데 뭐 그집 양아들이라는겁니다. 글쎄 먹구 입는것 걱정은 없었는데 날마다 일본사람들과 묻어다니면서 일본공부하고 왜놈말 배우라고 하는게 딱 싫더군요. 하긴 그 덕에 일본글과 일본말을 좀 배우긴 했지만… 하여튼 그게 왜 그렇게 싫던지, 난 그만 그집에서 뛰쳐나오고말았지요. 못해본 일이 없수다. 바다가에 나가 조개도 캐봤구 구들놓는 사람들도 따라다녀

봤구요. 산판에 들어가 나무도 찍구 사냥몰이군도 돼봤어요. 그러다 나같이 불쌍한 한 처녀를 만나 내손으로 머리를 얹어줬지요. …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농사가 제일입디다. 그래 그 사람하구, 색시말이우다. 이제부턴 어디 가서 정착을 하구 둘이서 농사나 짓자구 했지만 어디 땅이 있소. 다행스럽게두 우리 그 사람네 외숙 한분이 린산이란데서 산다기에 찾아갔지요. 올여름에 말이우다. 외숙분의 노력으로 거처할 집두 얻구 땅뙈기두 생겨서 이젠 좀 사람답게 사는가부다 했는데… 허참,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에ㅡ그, 불쌍한게 나 없으면 죽겠다고 울고불고 하며 따라왔댔는데… 그꽁한게 정말 목이라도 매지 않았는지 모르겠수다.》

순철은 흐흑 흐느끼였다.

철석은 홍이 다 깨져버렸다. 홍그럽던 가슴이 매운재를 들쓴것처럼 쓰리고 저렸다.

한동안 덤덤히들 있었다.

얼마간 그러고있다가 철석이가 물었다.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할 생각이요? 다신 그 마을에 돌아갈수도 없잖소?》

순철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철석이 조용히 일어나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난 말이요. 이길로 북간도로 가자는거요.》

순철이는 뚫어져라고 그를 쳐다보았다.

철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순철이, 나랑 같이 두만강을 건너가자구. 집사람도 데리고 말이요.》

순철은 얼굴이 해쓱해서 마주보기만 했다.

철석은 그의 두손을 더 힘있게 모아쥐며 말했다.

《이것 보라구, 순철이. 일본놈들은 꼭 망해. 사람들 하는 말 못들었소? 어린애들 꼭지숟가락까지 빼아가는걸 보면 왜놈세상은 다된 세상이라고 하는 말 말이요. 그건 그렇구… 이미 이딸리아가 손을 들었구 도이췰란드도 쏘련군대한테 얻어맞구 쫓겨가기 시작했다지 않소. 쓰딸린그라드란데서 되게 얻어맞구 말이요. 일본

이라구 무사하겠소?》
철석은 얼른 동굴밖을 살피고나서 계속했다.
《지금 두만강건너에선 말이요, **김일성**장군님 항일유격대가 왜놈들의 마지막숨통을 조일 준비를 단단히 하고있다고 하오. 이제 왁 밀고나올 날이 멀지 않다는거지. 이런 때 피가 한동이씩 끓는 우리 젊은것들이 가만 있어 되겠어? 항차 이제는 산속에서 숨어지내야 하는 우린데… 무슨 일이든 마지막대목이 더 힘들다는데 10년나마 산에서 싸우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겠어? 유격대들도 그렇구… 같은 값이면 우리도 거기 찾아가서 하다못해 쌀배낭 하나라도 져다주는게 옳지 않아? 어때?》
순철이는 얼굴이 희다못해 파래져서 경풍을 만난 사람처럼 떨었다.
철석은 의아해서 물었다.
《순철이, 왜그래?》
순철은 한걸음 물러앉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아니, 난 그런 일은 못해요. 난 그저 농사나… 그런 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건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어, 양주공장얘기. 나와 함께 일하던 영무, 봉빈이, 관길이, … 뭐 특별한 사람들인줄 알아? 다 우리처럼 못살구 천대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글쎄, 난 못해요. 총쏘구, 사람죽이구… 에이!》
순철이는 몸서리를 쳤다.
철석은 성을 왈칵 냈다.
《젠장, 그 염통가지구 왜놈보초는 어떻게 죽였어?》
순철은 금시 벼락이라도 맞은것처럼 질겁을 했다.
《그 말 하지 말아요. 제발!》
철석은 그만 그앞에서 물러앉았다.
새삼스럽게 고개를 떨구고있는 순철이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하긴 그렇지. 사람이 사생결단을 할 순간이면 못하는 일이 없지. 도망치던 쥐도 막다른 골목에 들면 고양이를 문다지 않는가.
《에잇!》

손을 홱 내저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됐어, 그만 가자구.》
철석은 제 먼저 굴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말한마디 없이 걷기만 했다.
순철이 저 사람이 진짜 발끝까지 무장한 왜놈보초를 칼로 찔러눕히고 향방조차 알수 없는 생소한 부산시가지에서 나를 이끌며 사지판을 헤쳐나오던 그 사람이 옳은가싶었다.
한 십리쯤 그렇게 내처 걷고있을 때에야 철석은 끓던 가슴이 좀 가라앉았다. 걸음발을 늦추고 뒤도 가끔씩 돌아보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오던 순철이는 더더욱 죄스러워 고개를 못 들었다.
철석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저 없으면 죽고 말겠다고 울면서 따라왔다던 안해를 눈앞에 둔 순철이고보면 그 심정도 리해해야 할게 아닌가.
철석은 저으기 걱정스럽게 물었다 .
《이제 마을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려오?》
순철은 한동안 갑자르다가 대답했다.
《그사람 만나면 빨리 짐을 꾸리라 하구… 어느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화전이나 해먹을 작정이예요.》
철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우. 절대로 붙잡히지 말구. … 이제 잡히면 주리를 틀자고 할게요.》
또 한동안 침묵속에 걸었다.
아득히 보이던 등성이우에 올라서니 또 끝없이 이어진 첩첩 메부리였다.
시원한 바람에 목덜미의 땀을 식히고났을 때 이번엔 순철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두만강을 건늘래요?》
철석은 순철은 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무슨 생각엔가 골똘하던 순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턱대고 강을 건너간다구 그 어른들을 찾겠어요?》

철석은 저도모르게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봉빈이네 오누인 어린 나이에두 유격대를 찾았다지 않소.》

순철이는 더이상 말을 않고 어디서 뜯었는지 모를 분지나무 잎의 동글동글한 이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던졌다. 잎사귀를 다 뜯어던지고 앙상하게 남은 잎줄기를 살살 돌리고있던 순철이는 무슨 결심이 생겼는지 철석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저… 형님, 형님 결심이 정 그렇다면 두만강쪽으로가 아니라 상풍광산을 찾아가보우.》

《상풍광산?》

《예. 실은 내가 올여름 린산으로 가던 길에 기차에서 사귄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요, 상풍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인정많고 세상물정에 환한 사람인데 날더러 저의 광산에 가서 함께 일하자는게 아니겠소. 그 사람두 형님처럼 왜놈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함께 손잡고 싸우자고 합디다.》

철석은 눈이 번쩍 띄였다.

《그래서?》

순철은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목소리가 낮아지는 대신 얼굴빛이 긴장해지면서 눈에서 강렬한것이 번쩍이였다.

《형님.》

그는 또 한번 주위를 살피고나서 말했다.

《솔직히 내 지금껏 형님한테 말을 안했는데…

이제야 뭘 숨길게 있겠어요. 그 사람 말이 그 광산은 일본놈들의 군수생산에 필요한 광석을 캐는데기때문에 징병, 징용도 뽑지 않는다고 합디다. 사실이 그렇기도 하지만 난 알아차렸어요. 그 광산에서 반일조직을 크게 뭇고 싸우기 위해 그런다는걸 말이예요. 그 사람 거기서 뭔가 큰 일을 하는게 분명해요. 항일유격대이야기랑 이제 그 유격대가 조선땅으로 왁 밀고나올것이란 말이랑 했는데… 분명 강건너와 련계가 있는것 같았어요. … 틀림없다니까요.》

장철석은 뚫어져라고 순철을 마주보다가 물었다.

《그 사람이 정말 강건너와 련계가 있단 말이요?》

순철은 제사 더 흥분하여 대답했다.

《글쎄 틀림없다는데두요.》

순철은 어떻게 그 말을 믿게 할가 생각하는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손으로 제 무릎을 치며 말했다.

《옳아요. 기차가 어느 역에 거의 이르렀을 때… 밤중에 떼를 타고 강을 건너가군 했다는 말을 얼핏 했는데… 급히 차안을 살피면서 몹시 긴장해하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급해했겠나요.》

장철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저도모르게 급히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요?》

이번엔 순철이가 철석의 두눈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솔직하게 말해줘도 일없을가 하는 눈치였다.

장철석이 나무람을 썼다.

《자 이런, 그렇게 못미더울것 같으면 그 사람 말을 꺼내긴 왜 꺼냈소.》

순철은 얼마간 더 바재이고서야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박상이, 박상이란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요.》

철석은 이깔나무사이를 왔다갔다했다.

순철이는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깨끗이 다 털어놓는다는듯 확신있게 말했다.

《그 사람 말이 뭐 나같이 죽을 고생을 다한 사람들이 반일전에 나서야 한다나요. 특히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멀지 않아 일본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될텐데 그땐 나같이 천대받고 못살던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면서… 말하는 품이 벌써 다르지 않아요.》

철석은 제앞의 이깔나무밑둥을 탕 쳤다.

옳다, 순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큰 인물이다. 상풍광산이라면 압록강대안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얼마든지 강건너와 련계가 있을수 있다. 순철이 거짓말을 할수 없다. 하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걸 두고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걸가? 좋아, 우선 상풍광산부터 찾아가보자. 박상이, 박상이란 말이지. …

철석은 순철의 손을 힘있게 쥐며 말했다.

《고맙소. 내 꼭 거기부터 찾아가보겠소.》

순철은 얼굴이 환해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미안스레 말했다.

《고맙기까지야 뭘… 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내 혼자만 속으로 생각하며 선뜻 말을 못했수다. 열번도 더 가고싶었지만 이젠 절대 다른데 안가겠다던 집사람때문에… 하여튼 나도 정 못견딜 형편이면 그리로 가겠어요. 형님까지 거기 있게 될텐데.… 징병, 징용을 뽑지 않는다니 그것만으로도 맘놓을수 있잖아요.》

철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의논해보우.… 어서 가자구.》

그는 제먼저 성큼성큼 등성이를 내려갔다.

6

꿈속에서보다 깨여난 후의 잔몽이 더 어수선하는 법이다.

장철석은 지나간 한달어간이 통털어 악몽과도 같았다. 도저히 현실로는 믿어지지 않을 일들이 연줄연줄 꼬리를 물었으니 어느것이 현실이고 어느것이 꿈이였던지 선명칠 않았다.

부산까지 끌려갔다가 사생결단을 하고 뛰쳐나온 사람과 정작 헤여지자고 하니 또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이제 다시 만나게 될가?

저도 같이 린산이라는데까지 따라가서 아주머니도 만나보면서 다문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헤여질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서운하고 미안한 생각에 다시금 진심으로 약속했다.

《내 꼭 상풍광산부터 찾아가보겠소. 박상이라고 했지?… 만약 거길 뜬다고 해도 내 꼭 그 광산에서 행처를 알리겠소.》

순철은 눈물을 글썽 머금었다.

《고마와요. 내 성의를 그렇게 받아주니… 사실 내가 형님을 위해 할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또 그 소리… 내 먼저 가 자릴 잡을테니 여차하면 따라오라구. 내 자릴 뗘두 임자네 오기 전엔 안떠.》

그건 좀 지나친 약속이라는 생각에 더 다른 말을 안했다.

철석은 제먼저 돌아섰다.

정작 헤여지고나니 점점 더 순철이와 함께 부산시가공원에서 밤중에 왜놈보초를 칼로 찔러눕히고 도망을 치던 일부터가 현실로 믿어지질 않았다. 그처럼 걱정하던 안해를 만나기도 전에 또 붙잡히지는 않을가?

철석은 다시 네댓새동안 산발을 톺아서야 구창광산에 이르렀다. 해가 퍽 기울어진 저녁무렵이였다. 마침 마른 삭정이를 주으려 산탁에 올라온 마을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를 통해 《형제계》성원 한명을 그들만이 아는 페갱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다.

마을소년의 련락을 받고 《형제계》성원이 달려온것은 두시간 가까이 기다렸을 때였다.

눈물이 글썽해서 철석이와 마주앉은 그의 말은 이미 예견했던 그대로였다.

《밀정이 있은것 같아요. 글쎄 매 갱안의 우리 〈형제계〉성원들만 쌀함박에서 뉘 집어내듯이 말짱 골라서 징병, 징용으로 끌어가지 않았겠소. 집식구들도 모르게 감쪽같이 말이예요.》

한달전에 《형제계》에 든 예닐곱명의 성원들은 다행히 밀정의 눈에 뜨이지 않았는지 무사하다고 했다.

《거 남갱의 말더듬이 있잖나요. 그놈이 밀정인것 같다는 말이 있어요. 형님네랑 끌려간 다음 인차 없어졌어요. 사람들 말이 사실 그놈은 말더듬이가 아니였대요. 어떤 땐 아주 청산류수같이 말하더라는거예요.》

장철석은 한참이나 눈을 감고있었다.

캄캄한 밤 홰불방망이들을 휘두르며 싸우던 일이 눈앞에 선했다.

《쳐라!》

《때려엎어라!》

《우리 〈친목회〉의 본때를 보이자!》

유난히 챙챙하던 목소리.

장철석은 분명 향방없이 펄펄 뛰는 《친목회》성원들 뒤에서 미친듯이 웨쳐대는 그 말더듬이의 악청을 알아들었었다. 전혀 더듬는데가 없는 쨍쨍한 목소리였다.

말이 막혀 안타까와하는듯 하던 그놈의 낯짝과 함께 돌연히 음충스럽고 험상궂은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슴이 철렁했다.

비로소 그는 일본의 중국동북강점때부터 제놈들의 령사관에 붙어 특수정보활동에도 적지 않게 관여했다던 노리아끼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하다면 그 늙다리의 모략?!…

내 왜 그에 각성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가슴을 썰었다. 그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듯 《형제계》성원의 말이 계속됐다.

《〈친목회〉사람들도 이젠 정신을 바로 차렸어요. 말더듬이가 왜놈들의 끄나불이였다는걸 알았거던요.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라요. 다 화해하구 우리 계와 합쳤어요. 형님얘길 많이 했어요.》

그 소식은 기뻤지만 혜영이네 집 소식은 장철석을 더욱 아연케 했다.

《형님이 행방불명이 된지 대엿새째되는 날 갑자기 경찰주재소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달려들었수다. 혜영이를 비롯해서 열댓명 처녀들을 마구다지로 끌어다 차에 실었는데… 무슨 군수공장이란데로 데려간다는거지요. 일본으로 갔다는 말도 있구, 〈위안부〉로 배를 태워 남양군도로 끌어갔다는 말두 돌아 며칠동안 온 마을이 울음판이였지요. 에―쌍, 개놈의 새끼들!》

철석은 어떻게 그와 헤여졌는지 몰랐다.

일본놈들은 꼭 망하게 되니 조직의 초지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혜영이네 식구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만을 남겼을뿐이였다.

《우리 해방된 날 꼭 다시 만납시다. 량심에 가책될 일없이 떳떳하게 말이요!》

그렇게 떠난 길이 또 네댓새 걸렸다.

그 네댓새의 길은 한달어간의 고행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다.
특히 더 가슴을 옥죄이며 찢듯이 아픈것은 혜영이의 운명이였다. 《위안부》, 남양군도란 말이 귀전을 칠 때마다 온몸의 피가 얼음덩이처럼 짱짱이 얼어붙는것 같았다. 어디든지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박산을 내고 뒤집어놓고싶었다.
이놈들, 짐승같은 놈들이 무슨짓을 벌렸단 말인가!
혜영! 도대체 살아있기나 할가?…
랑림산줄기는 태백산줄기보다 더 험하고 무성하고 깊어보였다. 과연 이 산속에서도 사람이 살긴 할가 하는 생각이 들군 했다. 호랑이도 향방을 잃고 겁이 나서 따웅따웅한다는 천고의 산지이고보면 가슴떨리는 전설인들 한둘뿐이랴!…
상풍광산은 인간세상과는 천리담을 쌓은듯한, 구름마저도 산굽에 내려감기군 하는 장엄하고도 숭엄하고 무엇인가 두려움도 자아내게 하는 무인지경의 대산림지대에 마치도 하나의 종처자국처럼 움푹 패이게 자리잡고있었다.
산은 험해도 강계와 원산, 함흥, 평양을 지나 남포방향으로 나가는 길들이 나졌고 비록 협궤이긴 해도 기차길이 놓이였다. 전기가 들어와 선광장의 와르릉거리는 동음이 앞산뒤산 봉우리마다 메아리쳐 지심깊이 파고든 그 어떤 괴물의 신음소리같은 괴상한 소리가 즈르릉즈르릉 울렸다.
광산입구에서 1키로메터쯤 내려오면 꽤 널직한 골안이 나지는데 어느 군급 도회지 못지 않을 번창한 시가지가 들어앉았다.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남 세 방향으로 또 골안이 패였다. 그 골안들을 따라서도 제나름의 인가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끝을 헤가릴수 없었다.
2층, 3층 벽돌집도 두간두간 보이는 시가지에는 상점, 전당포, 려인숙, 식당, 사진관, 경찰서, 면사무소, 우체국 등 인간세상에서 볼수 있는것은 다 있었다. 산지가 하 높고 깊다보니 칼소리 절그럭거리는 경관들과 헌병, 수비대, 게다짝을 딸가닥거리는 흉한 옷차림의 왜년들만 없다면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선게 아니랴싶을만큼 눈에 익으면서도 각별히 이채로운감을 안겨주었을것

이다. 시가지는 물론 도로들에 이르기까지 구창광산에 비하면 그 규모부터가 엄청나게 커보였다.

광산마을어구에 들어선 장철석은 문득 이 깊은 산지에서 어떻게 광맥을 찾아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창광산의 유래가 생각나서였다.

구창광산은 30여년전까지만 해도 그 지대에 금이 묻혀있는줄은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 골안마다 드문드문 살길을 찾아 숨어든 류랑민들이 초막같은 집들을 짓고 화전을 일구며 살았는데 한번은 금전판에 나다니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젊은이가 어느 친척을 찾아 왔다고 했다. 별로 할 일도 없는 젊은이라 기껏 늦잠을 자고 일어나 집앞에 흐르는 구창강에 나가 세면을 하댔는데 뜻밖에도 물속에서 번쩍거리는 누런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하고 성큼 뛰여들어가 파내보니 큰 메주덩이만한 자연금덩이였다.

젊은이는 누가 볼세라 토목수건에 그 금덩이를 싸서 감추고는 그날로 친척집을 떠났다. 일약 횡재를 한 젊은이는 이곳저곳 놀음판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했는데 그만에야 경찰의 주목을 끌게 되였다. 어디서 돈을 훔쳤느냐고 짓조겨대니 곧이곧대로 토설을 하고말았다. 그 사실은 곧 조선총독부로, 총독부를 거쳐 일본본토에 알려졌다. 가뜩이나 굶주린 승냥이처럼 기름진 조선땅에 코를 벌름거리던 《동척》이 하루아침에 들이덮쳤었다. …

구창광산이 그렇게 되여 일본놈의 손에 들어갔다면 상풍광산은 어떻게 이렇게 거창해졌을가?

물론 이곳도 《동척》산하일테지, 하고 생각하며 스적스적 시가지길을 걷던 장철석은 이상한 눈길로 저를 살펴보는 중년의 한 사나이와 마주쳤다.

늘씬한 키에 힘꼴이나 쓸만한 체격인데 물이 다 날은 밤색캡을 쓰고 손에는 무명보자기에 싼 둥실한 밥곽을 들었다. 역시 색이 다 날고 실밥이 툭툭 터지기 시작한 일본산로동화가 돌가루물에 허옇게 젖은걸 보면 하루일을 마치고 갱에서 나오는 광부가 분명했다.

꾹 다물린 입과 순해보이면서도 어글어글한 눈이 어딘가모르게 믿음이 가게 했다.

가까이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철석은 스스럼없이 그앞에 다가섰다.

《말 좀 물읍시다. 혹시 박상이라고 모릅니까?》

사나이의 눈길이 대뜸 꼿꼿해졌다.

그는 급히 주위부터 살펴보았다.

이어 바싹 더 긴장한 눈길로 철석을 깐깐히 뜯어보고나서 되물었다.

《길손은 어디서 오시오?》

철석은 여기서도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닌가? 하고 같이 긴장됐지만 태연스럽게 사실대로 말했다.

《실은 그 사람 친구의 소개를 받고 일자리를 하나 얻어볼가 해서 찾아오는 길입니다.》

《친구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

철석은 주저하다가 순철의 이름을 솔직하게 댔다.

《순철이요?… 리순철이라…》

사나이는 두세번 곱씹었다.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나는지 고개를 기울기울하고나서 또 뚫어져라고 철석을 뜯어살폈다. 이어 퉁명스레 한마디 했다.

《하여튼 날 따라오우.》

시가지복판을 꿰질러나간 꽤 넓은 길을 한참 걸어내려갔다. 이따금 마주치군 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지만 사나이는 별로 반가이 받지도 않았다.

철석을 소개하는 일같은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듯싶었다.

어느 려인숙이나 숙박소같은데를 알선해주려는가부다 했는데 경찰서와 수비대병영이 빤히 마주보이는 어느 한 개인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장철석을 마당에 세워둔채 집주인과 몇마디 수군거리고나서 여전히 툭한 소리로 《오늘밤은 이집에서 묵소. 별로 갈데도 없는가본데…》하고는 휭하니 돌아가버렸다.

선녀갱에서 일한다고 하는 집주인은 나이 40이 넘었을가 했는데 침착하고 무척 무던해보였다. 벙어리가 아닐가싶을만큼 전혀 말이 없는 안해와 여라문살안팎의 오누이를 데리고있었다. 저녁밥상을 물리자바람으로 그의 안해는 아무말없이 아들딸을 앞세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방안에는 장철석과 집주인만이 남았다.

장철석은 자기가 다행스럽게도 이곳 광산의 지하조직선에 면바로 들어왔다는것을 직감했다. 박상이를 찾아왔다고 하니 바싹 긴장한게 분명했다.

검토!

혹시 길가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박상이 본인은 아닐가?

이곳 조직이 여간 째이고 세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은 오히려 안정되고 기뻤다.

철석은 무한히 솔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다 털어놓고 빨리 믿음을 받아야 했다. 집주인과 마주앉은 철석은 자기 경력과 함께 지나간 인생사를 될수록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놓으려고 애썼다. 그러다나니 자정이 훨씬 넘었다.

다음날 밤도 그렇게 새우다싶이했다.

이틀밤을 지내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야 길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나이가 집주인과 함께 나타났다.

《이거 안됐수다. 나와 함께 가기요.》

첫 검토는 통과구나 하는 기쁨에 철석은 서슴없이 따라나섰다.

형형색색의 사택지구를 꿰질러 시가지길을 빠져나온 사나이는 동쪽골안으로 굽어든 돌서덕길에 들어섰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키돋움을 하듯이 나란히 서있는 산기슭에 동기와를 얹은 나지막한 집 한채가 있었다. 집둘레에는 굵직굵직한 통나무들을 세워 통나무울타리를 쳤는데 철늦은 떡호박줄기들이 얼기설기 뒤엉켜있었다.

몇차례의 서리를 맞아 볼품없이 된 그 떡호박줄기만 아니라면 마당도 반반하고 바람벽에 흙매질도 뽀얗게 새로 해서 퍽 깨끗해 보일 집이였다.

기다렸던듯 부엌문이 열리면서 깜장치마에 하얀 당목저고리를 입고 탐스러운 외태머리끝에 자주색갑사댕기를 유난스레 드린 곱살한 처녀가 뛰쳐나왔다.

《오빠, 이제 오셔요?》

무작정 반가와하다가 뒤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는 철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나이는 말없이 들고있던 점심밥곽을 내밀었다.

여전히 인사소개도 없이 무엇이라 눈짓을 했는데 처녀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는 인차 부엌으로 들어갔다.

철석은 이윽토록 처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첫눈에 인정을 끌어당기는 눈매며 작을사하면서도 약간 도톰해보이는 입술, 귀염성스러운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던것이다.

어디서 보았을가?

사나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채 토방에 걸터앉아 로동화를 벗고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철석이도 따라들어갔다.

방안 역시 별로 값진 물건들은 없었지만 깨끗하게 손질했다. 뒤주를 대신하는 나무궤에는 하얀 종이를 발랐고 그우에 얹은 두채의 이불도 깨끗이 빨아 꾸몄다. 몇군데 궤창이 났던 곳을 새로 엮은 자리가 헨둥하긴 해도 퍽 오래 깔아온 구름노전 역시 노란물을 들인것처럼 깨끗했다.

사나이가 박달나무를 파서 만든 목침만한 담배함을 들고 철석과 마주앉았다.

철석이 아직 담배를 안배웠다고 사양하자 그는 제 혼자 천천히 엽초를 말며 다시 물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됐다구요?》

장철석은 단도직입적인데가 더 마음에 들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곳 조직의 책임자라는 확신에 보다 더 솔직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지었다.

장철석의 이야기를 듣는 사나이의 표정에는 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있다는 빛이 력연했다. 장철석의 이야기를 도간도간 끊

으면서 요점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찔러보군 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사나이는 불현듯 사이문을 열며 처녀를 불러들였다.
《인사들 하우. 이앤 영옥이라구 내 동생이요. 내 이름은 한인준이구.》
철석이도 자기 소개를 했다.
분명 어디서 보았던가? 영옥이… 영옥이란 이름도 귀에 익은데… 하는 생각이 더 확고해져서 다시금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영옥이가 부엌으로 나가자 인준은 퍽 진중하게 말했다.
《일자리는 내가 알선하겠소. 내 로무과장을 좀 주물러놨소. … 하긴 지금 사군데서 징용으로 뽑은 인부들까지 와짝 들이미는판이요. 한데… 다시는 박상이 그 사람을 찾지 마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차 알게 될거요. 미리 알아둘건 그 사람은 일본경찰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고있던 사람이 분명하다는거요. 그 사람 찾아온걸 알면 일자리는 고사하고 류치장신세부터 지게 될거요.》
옳다!
순철의 말이 옳았어!
철석은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긴 합니까?》
한인준은 또 뚫어져라고 철석을 마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사람은 잘못됐소. 두달전에.》
장철석은 한대 맞기라도 한것 같았다.
그는 저도모르게 다그쳐물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한인준은 대답대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있다가 돌연히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얘야, 저녁밥이 다됐냐?》
《예.》

대답소리와 함께 사이문이 열리면서 두사람 겸상으로 차린 밥상이 올라왔다. 흰쌀알이 셀 정도로 섞인 조밥 두그릇에 갓김치, 도라지무침, 버섯볶음이 산골음식의 독특한 맛을 돋구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났을 때 한인준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자리걱정은 말구 오늘밤은 우리 집에서 마음 푹 놓구 쉬도록 하우. 내 래일 로무과장을 만나겠소. 그리구 일자리가 잡히면 숙소도 하나 따로 정해야겠소. 믿을만한 집이 한집 있으니 거기에 거처를 정하도록 하우.》

박상이에 대해서는 더 묻지도 말며 대답도 안하겠다는 뜻이 명백했다.

허나 마음은 무등 기뻤다.

비로소 이곳 조직이 저를 신임하며 믿어준다는 신심과 확신에서였다.

하기사 박상이란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순철이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북받쳤다. 뭐 날 위한 일이 이 일밖에 없다구!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을가? 약속대로 여기로 오지는 않을가?

정성스레 지은 저녁밥을 먹고 오래간만에 따뜻한 온돌방에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철석은 오히려 더 정신이 새록새록해서 잠을 잘수가 없었다.

순철이!

박상이!

남정네들때문에 방안에 들어오지 않고 부뚜막에 앉아 밤을 새우는 영옥이를 보려니 또 혜영이 생각이 가슴을 허볐다.

그는 어데로 갔을가?

어데 가서든 죽지만 말아야겠는데…

아! 이 나라 백성들이, 앞날이 구만리같은 이 땅의 끌끌한 청년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듯 상처투성이 피눈물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가슴을 끓이던 그 생각은 다시 부뚜막에 앉아 밤을 새우는 저 처녀를 어디서 만났댔을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제 2 장

1

한인준은 세번째로 비밀련락장소에 갔지만 오늘도 허탕을 쳤다.

그는 이곳 지구 조국광복회 조직책임자였다.

광산의 반일지하조직은 지난해 **김일성**장군님부대에서 파견되여온 국내정치공작원 강동무의 지도밑에 조직되였었다.

한인준도 그렇고 누구도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만나는 첫날부터 자기를 《강동무》라고 소개했다. 늘 그렇게 불러줄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지하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라고도 했다.

그가 책임진 국내공작조는 상풍광산뿐아니라 중부지대로 나가 국내반일조직들을 무었다고 했다.

늘쌍 봐야 농사군처럼 수수한 인상인 그가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척척 해놓는지 놀라왔다.

하긴 그는 구수하게 이야기도 잘하고 사람을 끔찍이도 귀해했다. 그 인품이 만나는 사람마다 마주앉기만 하면 속을 터놓게 하고 마음을 다 주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의 공작조가 지난해에 국내로 나온것은 단지 각곳에 혁명조직들을 내오기 위해서만이 아니였다.

보다 중요한것은 각 지방의 혁명조직들과 련계를 맺고 징병, 징용을 기피했거나 끌려가던 도중에 도망쳐서 산속에 숨어지내는 청장년들을 비롯하여 국내의 반일력량들로써 조직적거점으로서의 혁명근거지, 림시비밀근거지를 만들고 무장대를 조직하는 일이였다.

강동무가 꼭 찍어 말은 안했지만 한인준은 그들이 이미 조선중부지대의 여러곳 깊은 산중에 이미 꾸려졌던 근거지들을 확대하면서 적지 않은 무장부대를 조직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고있었다.

강동무는 국내의 깊은 산중에 비밀근거지를 만들고 무장부대를 조직하는것은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미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이 박두해옴을 확신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사상적준비를 더욱 튼튼히 완성하는것과 함께 조선국내에 강력한 조직적거점으로서의 혁명기지를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중에서도 랑림산줄기일대를 매우 중시하셨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국내에 나오시여 두무봉회의를 여시고 조국해방3대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다시금 천명하신것은 국내반일력량으로써 전인민적봉기준비를 다그치는데 큰 힘과 신심으로 되였다.

김일성장군님의 그 로선과 작전적구상을 받들고 강동무를 비롯한 그의 국내공작조원들은 랑림산일대에만도 한두곳에만 비밀근거지를 꾸려놓지 않았었다. 그중의 하나가 삼송근거지라고 명명한 림시비밀근거지였다. 여러 지역의 비밀근거지를 통합지휘하는 본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강동무자신이 주로는 삼송근거지에 거처를 정했었다. 지형학적으로 볼 때도 적들이 쉽게 찾아낼수 없는 깊은 산중이면서도 여러 비밀근거지들과 련계를 취하기 쉬운 지역적중심인데다 특히는 상풍광산과 목재소를 비롯하여 농촌반일조직들의 후원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도 했다.

상풍광산에서만도 여러차례 식량과 피복, 신발, 화약, 소금과 비누 같은 생활필수품들과 군수물자들을 적지 않게 마련하여 보냈다. 물론 한인준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희생을 무릅쓴 공작으로 해서였다.

언제인가 강동무는 이제 조국해방작전이 시작되면 **김일성**장군님께서 비행기로 항일유격대원들을 태워다 락하산으로 투하하실 작전까지 구상하신다고 하면서 여러곳에 락하산투

하장소까지 마련한다고 했다. 꿈같은 일이였다.
한인준은 근거지에 대한 후원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면서도 그 근거지가 어디에 있으며 그안의 성원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비밀엄수를 위한 원칙이면서 또한 한인준자신이 스스로 엄격히 지켜야 할 요구이기도 했다.
근거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오직 강동무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와 직접 만나지 못할 때에는 비밀련락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비밀련락장소를 리용하는것도 철저히 한인준자신이 하게 되여있어 그 장소는 그외 다른 사람은 일체 몰랐다.
한인준에게 있어서 그 련락장소로 가는 날은 명절날과도 같았다.
한데 두달전 8월 어느날 그는 뜻밖의 상면호출을 받았었다.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강동무가 소환명령을 받고 부대로 돌아간다는것이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바는 아니였다.
여러곳의 비밀근거지들과 지하조직들의 활동을 정력적으로 지도하던 강동무가 지난 겨울 대한추위때 그만 강설의 밀림속에서 심한 동상을 입었던것이다. 원래 속탈이 심했던 그는 그때 비밀근거지들에 나갔다 돌아오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댔는데 특히 두발과 두다리의 동상이 더 심해서 먼길 걷기를 무척 힘들어했었다. 본인자신은 극력 숨기면서 표현하려 하지 않았지만 사정을 알게 된 부대에서는 즉시 밀영병원으로 그를 불러주었던것이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였지만 정작 그가 부대로 철수한다는 말을 들으니 한인준은 앞이 막막해지는것 같았다.
철부지가 부모와 헤여지는 심정이였다.
한인준의 그 심정을 헤아린 강동무는 힘주어 말했다.
《너무 그러지 마오. 부대에서는 이제 나보다 더 유능한 공작원을 보내줄거요. 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이 실현될 날이 박두해오고 있지 않소. 장군님께서 이 랑림산일대를 매우 중시하신다는걸 잊지 마오.》
한인준은 기어코 제가 국경대안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다. 이 해

에 들어서면서 국경일대경계가 몇배로 강화된것도 문제이지만 잘 걷지 못하는 국내정치공작원을 혼자 보낼수가 없었던것이였다.

강동무는 펄쩍 뛰였다.

《정신있소? 동문 조직의 책임자요. 조직책임자!》

한인준도 물러서지 않았다.

《글쎄 이번만은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언제 공작원동지의 말을 한번이라도 거역한적이 있습니까?》

《안되오. 절대로… 동무가 정 그러면 난 이 시각부터 나의 행동을 일체 비밀에 붙이겠소.》

한동안 더 어성까지 높이다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타협안이 합의됐다. 조직책임자인 한인준은 절대 나설수 없다는 강동무의 드팀없는 주장에 한인준의 1대리인인 부책임자 박상이를 따라보낸다는 안이였다.

사선을 헤치며 국내로 들어와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조국해방작전구상실현의 력사적준비사업을 빛나게 실현한 유능한 국내정치공작원 강동무는 이튿날 오직 한인준만의 바래움을 받으면서 박상이란 한사람의 호위와 부축임밑에 조용히 떠나갔다.

한데 이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라구야.

지정된 국경대안을 향해 가던 두사람은 전혀 뜻밖의 외진 골안에서 놈들의 잠복에 걸려들었다는것이였다. 박상이는 접전시작에 벌써 숨이 졌고 잘 쓰지도 못하는 다리에 또다시 치명상을 입고 어쩔수없이 붙잡히게 된 강동무는 수류탄을 안고 자폭했다는것이다. 박상이를 단방에 쏘아눕힌 놈들이 기어코 강동무를 생포하려고 달려든걸 보면 당초에 그를 노리고있었던게 분명했다. 적기관에 깊숙이 들어가 활동하는 조국광복회특수회원 《참나무》가 통보해준 소식이니 정확한 사실이였다.

《참나무》는 조국해방작전개시의 시각이 다가옴과 함께 적들의 발악이 발광적단계에 들어서는 사정과 관련하여 될수록 빨리 적기관에 우리 사람을 넣어야겠다는 강동무의 지시를 받고 한인준이 사생결단하고 묻어놓은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였다.

《참나무》에 대한 소식을 들은 강동무는 조국광복회조직을 또 하나 새로 내온것만큼이나 기뻐하였다. 절대로 로출시키지 말고 적들의 신임을 최대로 받도록 하며 결정적순간에만 움직이되 기본임무는 조직의 눈과 귀가 되여 놈들의 동태를 빠짐없이 살피면서 중요정보들을 입수통지하는것이라고 하였다.

한인준이 《참나무》로부터 강동무의 너무도 뜻밖의 희생소식을 받은것은 참상이 벌어진지 이틀후였다. 정신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지하투쟁규범상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미처 못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너무 억이 막혀 가슴을 쳤다. 짐승같은 놈들은 두사람의 시체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형체도 없이 불태워버렸던것이다.

땅이 꺼지는것 같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아, 내 력사앞에, 겨레앞에 죄를 졌구나!

한인준은 주먹이 터지게 땅을 치며 통곡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에야 그는 송곳처럼 찌르고드는 생각이 있었다.

이곳은 국경수비대의 관할구역도 아니였다.

몇년가다 사냥군들이나 한두명 찾아들어온다는 무인지경 골안의 외통진 곳이였다.

어떻게 놈들이 이곳에 앞질러와서 매복해있었는가?

정신이 버쩍 들면서 온몸에 전률이 일었다.

강동무의 철수와 그 로정에 대해서는 오직 세사람, 강동무 본인과 박상이, 한인준뿐이였다. 강동무와 박상이는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니였다. 설사 그들이 살았다고 해도 저들이 죽자고 비밀을 루설했겠는가.

하다면 이 한인준?!

머리칼이 곤두섰다.

혹시… 잠꼬대라도?!

그는 한길이나 펄쩍 뛰였다.

내 지금 무슨 벼락맞을 생각을 하는가. 설사 내가 잠꼬대를 했

기로서니 그걸 들었다면 누가 들었겠는가. 영옥이가?!…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는가? 인정?
적후의 지하투쟁에서 무원칙한 인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특히 조직을 뭇고 확대하는데서 사람을 잘 가려보아야 한다고, 만날 때마다 강조하군 하던 강동무의 말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영옥이를 처음 만나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아니, 아니야. 원 당치도 않은 생각! 아무렴 내가 영옥일 의심한단 말인가?…
점점 더 오리무중속에 빠져든 한인준은 그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지럼증까지 났다. …
한인준은 오늘 한가닥 희망을 걸고갔던 비밀련락장소에서도 또 허탕을 치자 생각의 갈래가 더욱 복잡해졌다.
나를 믿지 못해서 비밀련락장소도 피하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럴수도 있다. 너무도 엄청나게 큰 손실이 아닌가. 너무도 예상밖의 큰 손실!
정말 어떻게 된 일일가? 놈들이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을가? 우연일가?
만약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놈들의 마수는 이미 오래전에 광산의 비밀조직안에도 뻗쳐들었다는게 아닌가.
하긴 놈들이라고 가만 있을리 없다. 우리도 놈들속에 《참나무》를 깊숙이 묻어놓지 않았는가.
하다면 이놈들이 혹시 우리 조직은 물론 품들여 꾸린 깊은 산중의 비밀근거지에까지 손을 뻗친건 아닐가?
놈들의 목표는?!
가슴이 철렁했다.
점점 더 속이 떨린 한인준은 광산어구에 채 못미쳐 길가의 너설바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조직원 한사람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구창광산으로 보내여 장철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했던 조

직원이였다.

그는 길가에서 한담을 하는것처럼 한인준의 옆에 퍼더버리고 앉으며 정형보고를 했다.

장철석이 구창광산에 있은것이 사실이며 누구도모르게 붙잡혀서 징병으로 끌려간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 광산에서 〈형제계〉책임자로 활동한것도 사실입니다. 의리가 있고 신망이 높았다고 합니다.》

《친목회》성원들도 그앞에 죄를 졌다고 무척 미안해한다는것, 저들이 청맹과니가 돼서 밀정놈을 가려보지 못하고 놈들의 모략에 놀아났다고 통분해하더라는것, 인정이 깊어 혜영이라는 처녀네 집의 어려운 생활을 도와주다가 정분이 났다는것 등 그곳에서 알게 된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때로 좀 소심해지군 하는 부족점은 있지만 대신 꼼꼼하고 침착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결심이 되면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부러지는줄도 모르고 기어코 해내는 성미랍니다. 일본놈 미워하는 정신은 누구보다 강하구요. 중국동북에 있을 때 유격대를 찾아가지 못한 일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 보천보전투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북주하양주공장에서 헤여졌던 동무들과도 만나게 되겠는데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겠다고 늘 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믿을수 있다는거겠소?》

《믿다마다요. 아, 우리보다 썩 전에 동북바람까지 맞아본 사람이 아니나요. **김일성**장군님이야기도 직접 들은데다 소년선봉대의 지도도 받았댔구요. 압록강을 다시 건너가겠다는 심정이 리해돼요.》

한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동무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먼길 갔다온 조직성원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변변히 못했다.

멀리 시장어구에서 저자바구니를 옆에 낀 영옥이가 사람들속을 빠져나와 집쪽으로 종종걸음을 놓고있었다.

한인준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오늘이 지난해에 세상을 떠난 안해의 제사날이라는 생각을 했다.

2

조직성원을 돌려보내고도 한인준은 얼마간을 더 너설바위에 앉아있었다.

앞산마루에서 스러져가던 잔광은 어느새 재빛어둠속에 녹아버렸다. 시가지쪽으로 점점 커져가던 산그늘과 나무숲속에서 어룽거리던 보라빛황혼은 이미 무거운 어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집집의 들쑹날쑹한 형형색색의 굴뚝들에서 맥없이 솟아오른 연기가 그 어둠과 무엇을 하소하기라도 하는듯이 어우러져 이 산 저 산 산굽이들을 감돌며 서서히 숲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한인준은 멀지 않은 저의 집앞으로 강줄기처럼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연기를 따라 눈길을 더듬었다. 그 연기발이 사라진 소나무숲속에 안해를 안장했다.

한인준이 나이 서른이 넘어 만난 사람이고보면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한 안해였다. 몸이 너무 체소하고 병약해서였던지 살림을 편지 4～5년이 넘어서도 잉태를 못해 여간 마음쓰지 않았었다.

하면서도 한인준이 조금이라도 기분상할세라 언제나 웃는 얼굴이였다. 한인준이 광산의 반일지하조직책임자인줄을 알게 된 날부터는 며칠동안이나 잠을 안잤다. 한인준이 먼길을 갔다오거나 비밀모임으로 늦어서 집에 온 날이면 문밖에 나가 온밤을 뜬눈으로 새우기도 했다. 남편한테 무슨 위협이 닥뜨리지 않을가 장밤 문밖에서 보초를 서는 그 연약한 녀인이고보면 심장의 박동인들 오죽 세찼을가!

그렇듯 눈썰미 빠르고 남편을 위하는 마음 하늘에 닿았던 안해가 너무도 뜻밖에 절명을 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한인준은 버섯음식을 좋아했다.

특히 마가을철이면 연한 보라색갓을 쓰고 통통하게 살쪄오르는, 이 고장 사람들이 《보라버섯》이라고 이름지은 그 버섯구이를 무척 좋아했다. 이글이글 피여나는 참나무숯불화로에 적쇠를 올려놓고 소금에 잘 다져진 버섯송이들을 올려놓았다가 노랗게 구워진 다음 한모금의 술과 함께 입안에서 굴리는 맛이란 참!

그런 날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안해의 눈빛!

한데 바로 그 버섯때문에 안해가 잘못될줄이야!

한해전의 바로 오늘 그 《보라버섯》을 따러갔던 안해가 열길도 넘는 벼랑밑으로 굴러떨어졌던것이였다.

한인준은 고개를 버쩍 들었다.

《한동무, 내 한동무한테만 조용히 하는 말인데 아주머니가 단순히 부주의로 해서 잘못됐다고만 생각해선 안되겠다는거요. 내 그 벼랑우를 다시 가서 깐깐히 살펴봤소. 뭐 별로 버섯이 많지도 않습디다. 아, 아주머니가 정신이 돌았다구 탐나는 버섯밭들을 옆에 가뜩 두고 굳이 그 위험한 벼랑우에 올라가 버섯을 땄겠는가 말이요.》

안해의 장례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나서 귀띔하던 박상이의 말이였다.

한인준은 온몸의 피가 굳어지는듯 했다.

타살?!

왜?… 무엇때문에??

한인준은 도리를 저었다.

일종의 신경과민이 아닐가 생각했다.

설사 벼랑우에 버섯이 없었다고 해도 안해가 그곳으로 올라갈수 있는 사연이야 한둘이겠는가.

임신도 못하는 병약한 몸이고보면 어떤 약초를 찾아 올라갔었을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일은 그것으로써 덮어두고말았었는데 지금 다시 칼끝처럼 페부를 찌르며 떠오르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정녕 내가 경각성이 없었는가?

박상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부터 벌써 내 주위에는, 아니 우

리 주위에는 어떤 알지 못할 검은 그림자가 맴돌고있었다는것이 아닌가.

한인준은 산소결핍증환자처럼 가슴이 답답해났다.

뜻밖의 안해의 죽음과 더불어 강동무와 박상이의 가슴아픈 희생이 또 미칠것처럼 정신을 휘—휘둘러놓았다. 이 모든것이 놈들의 그 어떤 마수에 의한것이라면 광산은 왜 아직도 바람한점 없듯이 조용할것인가? 정말 그 모든것이 우연일치일가?

한인준은 종시 결론을 못찾은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마당에 들어서니 안해가 생전에 영옥의 배필로 점찍어놓았던 차창일이 영옥이와 함께 설설 끓는 물에 닭 한마리를 튀다가 닁큼 일어났다.

당상갱에서 일하는 조직성원이였다.

젊은 나이인데 량쪽귀밑으로 구레나룻이 시커먼 저 사람한테 영옥이는 언제 그렇게 정이 들었는지 놀랄 정도였다. 생전에 안해가 점찍어주어서일가?

차창일이 태여난 곳은 동해바다가의 어느 한 어촌마을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가 아홉살나는 해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잘못됐다고 했다.

그후부터 어머니가 전복이며 굴, 성게, 문어잡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바다가마을에서는 보기드물만큼 얼굴이 곱고 몸매도 좋은데다 제주도해녀들처럼 자맥질을 뛰여나게 잘했다는것이다.

그 미모가 종내 일을 당했다. 어느해 여름 성게잡이에 정신팔고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왜놈망종녀석들이 네댓놈이나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바다가 젊은녀인의 결사적인 항거에 끝내 수욕을 채우지 못한 망종놈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연약한 녀인을 시체로 만들어 바다물속에 던져버렸다.

뒤늦게야 소식을 들은 차창일이 달려갔을 때 외진 벼랑굽이 바다가에는 어머니가 늘 차고다니던 싸리바구니와 피묻은 창칼 하나가 모래불에서 나뒹굴뿐이였다.

그때부터 차창일은 거칠대로 거칠어졌다. 왜놈집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돌팔매질을 했고 왜놈아이라면 무작정 두들겨팼다. 잡히기도 수태 했고 매도 수태 맞았다고 했다. 언제인가는 왼쪽팔이 부러져 한달이상이나 고생을 했다고 하였다.

사방 떠돌아다니다가 나이 스물이 넘어서야 어디든 정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상풍광산에 류랑의 닻을 내렸다는 것이다.

성미가 거칠고 폭발적으로 과격하긴 해도 저처럼 어렵게 자란 사람들한테는 인정이 헤펐다. 마음만 동하면 아끼는것이 없었다.

안해의 고민을 제일먼저 알아준것도 그였다. 그 고민을 풀어주자고 총각의 몸으로 몇십리밖의 의원들을 찾아간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 인정에 안해도 그렇고 영옥이도 정이 들었는지 모른다.

《이제 오십니까?》

한인준을 먼저 알아본 차창일이 닭털묻은 손을 바지에 썩썩 문지르며 좀 어줍은 미소를 지었다.

영옥이도 귀뿌리가 발개서 방그레 웃어보이며 손을 털고 일어선다.

《저… 저이가 닭을 사가지고 와서…》

한인준은 헌헌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있는대로 차리지 닭까지 뭘!》

한결 마음이 훈훈해져서 토방에 걸터앉았다.

영옥이와 창일은 다시 이마를 맞대다싶이하고 마주앉아 닭털을 뽑았다.

부엌처마밑에 매달아놓은 등불에 비추인 두 청춘의 얼굴이 부러울만큼 무르익었다.

한인준은 또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옥이가 그만하면 배필을 잘 만난셈이다.

아무렴, 그래야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저 애인가.

3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말이 있다.

장철석이 한인준의 집에 발을 들여놓던 첫 순간 어디서 보았던가고 안타깝게 생각을 굴리면서도 종시 기억해내지 못했던 한영옥은 10년전 북주하양주공장에서 오야마 고로의 실험실살인내막을 밝혀내고 곽영무를 살리는데 결정적역할을 했던 미쯔꼬, 이찌가와 마꼬도가 《황국신민화》정책실현의 표본으로 내세우겠다고 하던 그 하녀였다.

피덩이같은 어린시절부터 류달리 기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오던 영옥이가 한인준을 만난것은 다섯해전, 그의 나이도 열일곱살이 되던 해 겨울이였다.

열두살로부터 열일곱살!

항차 조선말조차 제대로 번지지 못하던 철부지소녀의 고생을 한두마디 말로야 어떻게 다 표현하랴.

남의 집 아이봐주기, 물긷기, 김매기, 빨래질… 그것마저 차례지지 않으면 깨여진 바가지쪼박이나마 주어들고 밥동냥을 했다.

피눈물의 류랑걸식의 길에도 얼굴은 왜 그리 곱게 피는지 심술궂은 사내녀석들의 단련 또한 여북하지 않았다.

때로는 일본말 몇마디로 데설궂은 녀석들이 혼비백산을 하여 줄행랑을 놓게 할수도 있었고 며칠동안 먹을 걱정 안할 돈푼을 손에 쥘수 있는 기회도 생겼지만 죽어도 일본말은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조선아이다! 조선사람이다! 조선으로 가야 한다!

조선으로만 가면 따스한 집도 있을것 같고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후더운 인정의 구원도 받을것 같았다.

욕을 먹어도 조선사람한테 먹으면 억울한줄을 몰랐다. 매를 맞아도 조선사람한테 맞는 매는 아픈줄을 몰랐다. 영무, 봉빈이, 관

길이, 봉순이… 자기처럼 너무도 일찌기 량부모 다 잃은 고아들이면서도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며 구김살없이 살아가는 그 인정의 바다에 난생처음 저도 깊이 몸적시기 시작해서였던지 모른다.

그렇게 그들과 마음을 맞추고 기어이 그들을 따르리라 마음을 모질게 다듬어세우니 조선말도 빨리 배웠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영옥이라고 했다. 양주공장에서 불쌍하게 죽은 영옥이를 대신하고싶은 마음에서였다.

왜놈들이 점점 더 판을 치는 세상이라 왜놈말을 아는것이 결코 해되는것은 아니였다.

북주하로부터 도문을 거쳐 두만강을 건느면 기차로 하루길도 채 안되는 길이건만 그가 조선땅에 들어선것은 다섯해후였다.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땅에 들어섰던것이다.

망국의 비운이 숨막히게 뒤덮인 땅 어디에 따뜻한 집이 있고 후더운 인정이 있으랴.

하지만 여기가 바로 조선땅이라는 말에 열일곱살의 처녀는 인생의 숙원이 풀리기라도 한것 같은 반가움으로 눈물을 왈칵 쏟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가 양주공장의 잊지 못할 영무오빠, 관길오빠, 봉빈오빠, 봉순언니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고향도 이 땅에 있겠구나.

이 땅 어디가 그들이 그렇게도 못잊어하던 고향일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 ……

영옥이와 봉순이가 밤마다 손잡고 눈물겹게 부르군 하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렇듯 향수에 들뜬 처녀에게 제일먼저 손을 뻗친것은 사각모자를 쓰고 어깨에 스키들을 멘 두명의 대학생들이였다.

어린시절 도꾜에서 흔히 보군 하던 대학생들이라 가슴이 철렁했다.

좀 서툴긴해도 그들도 조선말을 하는걸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반가움의 눈물을 머금었다.
눈길에서 꽁꽁 언 그를 위해 불을 피우고 저들의 볼에 둘렀던 따스한 털목도리도 목에 둘러주었던것이다.
저녁에는 어느 려관으로 데리고갔다.
려관에 가서야 그는 그 대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조선으로 탐방려행온 일본인들이라는걸 알았다.
두 대학생은 더욱 친절하게 따뜻한 욕실에서 목욕을 하게 하고 기름진 료리들로 저녁도 대접했다.
보기만 해도 포근한 비단이불이 기다리고있는 아늑한 침실도 마련해주었다.
너무도 고마움이 큰 그는 잠자기 전에 인사라도 하려고 두 대학생이 거처한 방으로 갔다.
방문을 두드리려던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미닫이문안에서 두 대학생이 일본말로 주고받는 말을 가려들었던것이다.
《…그래, 이젠 어떻게 하려나?》
《어떻게 하긴, 익힌 열매는 먹기마련이지, 오늘밤부터 실컷 재미를 보세나.》
《그다음은?》
《겁이 나나? 걱정말라구. 일본군 있잖나. 굶주린 수개같은 그것들한테 주어보지.》
《너무 잔인하잖나?》
《잔인? … 자네 몸에 혹시 조선사람의 피가 섞인건 아닌가? 이봐,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자면 피부터 순수해야 해. 우리 일본의 피, 야마도 다마시정신… 알겠나? …자, 이젠 가보자구. 난 더이상 참을수 없어.》
그는 어떻게 그 려관을 뛰쳐나왔는지 몰랐다.
캄캄한 밤.
광란하는 눈보라.
그는 비로소 자기가 함정도 무서운 함정에 빠졌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니, 조선이건 중국동북이건 이 세상은 어딜 가나 지

옥이고 함정이라는것을 알았다.
짐승같은 일본야만들이 어딜 가나 뒤덮여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지고 앞이 캄캄했다.
살고싶지 않았다. 울며울며 산속을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울고 달리고 어푸러지고… 다시 일어나서는 또 울며 달리였다.
종시 쓰러지고말았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것은 산중의 볼품없는 초막안에서였다.
한겨울 이와실이를 하던 한인준이 다 죽게 된 그를 발구에 실어왔던것이다.
이것은 한인준이 광산으로 들어오기 한해전 일이였다.
한인준은 불쌍한 그를 친동생으로 삼아 그의 이름에 자기의 성을 달아주었었다.

4

창문 하나없이 네면벽에 온통 하얀 타일을 붙이고 천정구석에만 통풍구를 낸 방의 무리등에서는 우유빛의 네온등빛과 함께 등색과 연한 비취색의 장식등빛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은은히 흘러내리고있었다. 방가운데는 역시 고급타일로 장식을 한 널직한 욕탕이 타원형으로 길게 누웠는데 옯은 물김이 가물가물 피여올랐다. 조선중부와 북부지방에서는 손꼽히는 온천의 온탕이였다. 각종 피부질환과 특히는 관절염, 허리병을 비롯한 신경병에 아주 특효가 있다는 온천이다. 무슨 옴병을 두세번의 온탕에 말끔히 고쳤다느니 오사까의 어느 앉은뱅이가 두달치료에 완쾌되여 십리길이나 훨훨 걸어서 나갔다느니 하는 광고들이 온천정문앞에 주런이 나붙어있었다.
무성한 소나무림과 기묘한 절벽들로 이루어진 인가 100리나 떨어져있는 깊은 산중의 이 온천을 처음 발견한것은 일본 척무

성소속의 어느 측량대였다고 한다. 척무성에서 발견을 하고 《동척주식회사》가 개척을 한 온탕이고보면 산중을 뚫고들어오는 도로부터가 도꾜 히비야공원의 소로길못지 않게 잘 다져진것은 물론 여러동의 목조건물들과 벽돌집들도 흔히 볼수 없는 현대미를 돋군것들이였다.

물론 조선사람은 얼씬도 못하는 조선땅안의 《내지》였다. 건물관리성원들과 봉사성원들도 모두 일본사람들이였다. 특히 봉사성원들은 본토에서 각별히 골라 뽑아온, 《봉사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젊은 녀성들과 미모의 토실토실한 처녀들이였다.

하고보면 본토의 유지들과 총독부의 관리들, 도청, 군청세력자들이 사철 찾아드는것은 단지 병치료나 《정책모의》때문만은 아니였으리라.

일장기의 모형을 딴 표찰판에 《1》자를 새겨붙여 《1호동》을 알려주는 목조건물의 고급무리등불빛이 은은한 욕탕—온천물안에는 지금 세 알몸뚱이들이 들어앉아 잠이라도 든것처럼 기척이 없었다.

몸집은 그닥 부하지 않지만 체육선수처럼 근육이 다져진데다 코수염과 두눈섭이 숱지게 만들어붙인것처럼 유난스러운 사람은 총독부 경무국의 손꼽히는 실력자 모리무라 다다시이고 그와 정면으로 네활개를 쭉 펴고 만족스럽게 드러누운, 털뽑은 황소처럼 거방진자는 도경찰부장 구로지마 가메도이다. 꾹 감은 두눈과 주름살이 밭고랑같은 이마우의 총이 센 머리가 백발인, 축 늘어진 량쪽볼과 군턱 못지 않게 털이 부시시한 가슴근육이며 팔근육, 더우기 물함지같은 배의 근육들이 다 풀자루처럼 맥이 풀렸건만 기상만은 한 욕탕안에 든 두 젊은이들을 아주 풋내기처럼 나지리 여기는품이 뚜렷한 늙은이는 얼마전에 구창광산과 함께 상풍광산까지도 타고앉은 《동척》의 거물 이찌가와 노리아끼였다.

그들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 퍼그나 지나 새뽀얀 가슴이 다 드러나게 움푹 파놓은데다 엉치만 겨우 가리우고있는 엷은 여름옷차림의 통통한 봉사처녀들 셋이 줄무늬 어룽어룽한 목욕수건들을 두손에 받쳐들고 인형들처럼 욕탕옆에 나란히 서서 이런 때는 응당 그

래야 하듯이 기계적으로 방실방실 웃음을 머금으며 기다리는줄을 뻔히 알면서도 일체 모른체 했다.

먼저 욕탕바닥을 차며 일어난것은 모리무라 다다시였다.

《어 좋다. 이 온천 자랑할만 하다.》

다다시는 익숙된 솜씨로 수영빤쯔만을 입은 자기 알몸뚱이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고 바닥에 철철 끌리는 포근한 타올수건을 어깨에 걸쳐주는 처녀의 잘 익은 복숭아쪽같은 볼을 톡톡 다독여주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간절하게 애무를 기다리는 처녀를 활 밀어내면서 옷갈아입는 방으로 나가버렸다. 그런 처녀들의 봉사야 지금 아닌들 목마를텐가.

미구하여 세사람은 창가림을 무겁게 드리운 응접실에 마주앉았다.

이 좌석에서는 다다시가 노리아끼는 물론 구로지마 가메도를 멸시하고 지어 경멸하기라도 하는 자세였다. 비록 옷차림은 수수한 양복차림이지만 그의 왼쪽가슴 안주머니속에 깊숙이 간직된 총독부 신분증이 다 같은 알몸뚱이로 온탕안에 들어가앉았을 때와는 다르게 했던것이다.

하긴 그것은 그 신분증때문만은 아니였다.

다다시는 중학시절부터 코난 도일의 샬로크 홈스에 미쳐돌아갔다. 군사복무기간도 주로 그 분야에 열성을 다했다. 그 공로로 만주의 일본령사관에 뽑히였다. 간도륙군특무기관에도 손을 뻗치고 제노라고 자부하는 령사경찰도 여러명 양성했다. 특히 그는 왕청현을 비롯한 동만의 여러 현들에 특무과를 가진 경찰서강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을뿐아니라 백초구, 대두천, 량수천자등 지대의 특무와 밀정망형성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워 동료들의 질투를 사기에 충분한 표창과 신임을 받았다. 점점 더 상승일로로 승진의 길에 오른 그는 지난해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소환되여 조선중부와 북부경내의 정탐모략망들을 일괄장악해볼뿐아니라 중국동북일대에까지 련계가 깊은 세력자로 되였었다.

그렇듯 기세등등한 다다시이고 보면 비록 지난날 척무성을 등에 지고 만주일대는 물론 조선경내의 많은 탄광, 광산들을 손에 쥐고

엄청나게 돈주머니를 불군 이찌가와 노리아끼도 한갖 자기 인생을 다 산 돈버러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가 제아무리 《동척》의 손꼽히는 자산가라 해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역신으로 몰아 교수대에 매달수도 있고 어느 벼랑밑에 굴러뜨려 승냥이먹이로 만들수도 있다는 자신이 만만한 다다시였다.

그가 이번 걸음에 이찌가와 노리아끼를 특별히 만나려 한것은 랑림산일대의 새 작전에 알든모르든 그 늙다리가 이미 개입되였기때문이였다. 더우기 구창광산은 물론 상풍광산까지도 그 늙다리의 손에 들어간것이 찜찜했다. 돈이라면 체질적으로 환장이 되는 로마같은 늙다리가 이미 공들여 박아놓은 첩자들의 활동에 뜻밖의 난관을 조성하고 거사를 망칠수도 있다는 불안이 날로 더 변질된 음식을 먹은것처럼 속을 께름하게 했던것이다.

구창광산의 《형제계》와 《친목회》싸움을 대일본제국을 위한 그 무슨 영웅적인 대거나 되는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로망자이고보면 상풍광산에서 또 무슨 뚱딴지같은 일을 벌려놓을지 아니아니했다.

그래서 부러 총독부 경무국으로 특별히 불러 구창광산의 거사를 높이 찬양은 하면서도 때가 때인것만큼 그런 일은 자의대로 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상풍광산일대는 이미 총독부 경무국의 직접적인 그물망안에 들어있는것만큼 아는것도 될수록이면 모르는척하는것이 호상 편안할것이라고 넌지시 침을 놓았다. 넌지시 하는 말이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는 로마가 그 뜻을 모를리 없었다. 제편에서 먼저 자기는 돈밖에 모르는 늙은이인것만큼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고, 경무국에 부담이 될 일이라면 자기는 일체 그쪽 방향에 발길조차 돌리지 않겠노라고 단호한 립장을 표명했다. 《뭐 그렇게까지야…》하는 말이 혀끝에 매달렸지만 모리무라 다다시는 마침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고개를 크게 끄덕여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면서 대일본제국을 위한 충정에 탄복을 표하기까지 했다.

더욱 명백해진것은 무덤가에 다 이른 늙다리의 체내에서 끓고있는 조선사람에 대한 병적인 증오심과 함께 필요한 때에는 그것

을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수 있다는 자신심이였다.
　한편 이찌가와 노리아끼는 지난날 아무리 척무성의 입김에 불려 때로는 대본영출입도 서슴없이 했다 해도 현하목전의 정세하에서는 밸이 뒤틀리긴 해도 어차피 다다시같은 풋내기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개올릴 때는 개올리는것이 현명하다는 립장이였다. 내 어쩌다 이자의 낚시에 걸렸노 하는 후회와 함께 이런 작자들과는 될수록 멀리하는것이 상책이라는 생각도 했다. 생각같아서는 언제 상종을 했더냐 싶게 싹 잘라버리고 돌아서고싶었지만 제놈들의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총리대신의 목에도 올가미를 걸자고 접어드는 무지한것들이라 그저 곰상곰상해서 손해볼것이 없다고 제딴의 방략을 세운 로마였다.
　우직스러운 메돼지같은 구로지마 가메도는 그저 만족스러운 기분이였다. 그도그럴것이 갑작스레 내려온 옛동료 다다시를 이 온천으로 《모신》것이 그였던것이다.
　나들문이 소리없이 열리면서 신통히 온탕안에서의 처녀들과 꼭같은 형태(색갈만은 검은)의 옷차림을 한 처녀가 따끈한 홍차잔들을 들고 들어와 세사람앞에 놓아주었다.
　구로지마 가메도가 방금 무엇인가 놓쳐버리고 아쉬워하던듯한 음욕이 끓는 눈길로 입이 헤— 해서 처녀의 다 드러난 하얀 젖가슴을 들여다보자 다다시는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빨리 사라지라고 처녀에게 손짓을 했다.
　처녀가 사라지자 다다시는 김이 몰몰 피여오르는 향기로운 차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긴박하오. 우리끼리니 말이지 태평양전선은 이미 기울어진지 오래오. 해군대장이하 수하장병들이 천황폐하앞에 다진 맹약은 훌륭하지만 전쟁이 맹약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이딸리아가 이미 항복을 함으로써 3각군사동맹은 자연 허물어졌소. 더우기 모스크바부근까지 갔던 도이췰란드군은 오히려 쏘련전역에서 물러났소. 에또-정세는 한마디로 말하여… 이렇소.》
　다다시는 마치 신문독보라도 하듯 눈길 한번 팔지 않고 듣고

있는 차잔에만 박은채 억양변화도 없이 잔잔하게 내리엮었다. 이찌가와 노리아끼도 구로지마 가메도도 제나름의 통로들을 통해 알고있던 소식이여서 놀라는 기색없이 묵묵히 듣고있었다. 그 침묵에 야릇함을 느낀 다다시는 누구에게라없이 비웃는 표정을 지어보이고나서 자기 말을 계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천황폐하앞에 〈대동아공영권〉을 다짐한 우리 대일본제국이 이딸리아처럼 쉽게 손들고 물러앉을수 있는가? 천만에! 우리는 더욱 강대해져야 하며 더욱 용맹해야 하며 더욱 무자비해야 하오. 싸움이란 일진일퇴가 있기마련이요. 대일본제국은 반드시 더 강해져서 전아시아땅에 일장기를 날릴거요!》

다다시는 제풀에 흥분해서 들고있던 차잔을 집어던지듯이 상우에 내려놓았다. 잔에서 넘쳐난 차물이 뻘건 기름처럼 차대우로 흘러내렸다. 다다시는 그 차물에서 무엇을 음미하기라도 하듯 두눈을 쪼프린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단단한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며 말했다.

《문제는 뭔가?… 저 남쪽의 태평양전선도 그렇지만… 보다는 중국동북의 광야에서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사령관의 유격대요. 39년도까지 대부대로 활동하던 부대가 어디로 종적을 감추었는가?…에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작전을 바꾸고 보다 맹렬한 타격전을 벌리고있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리무라 다다시는 돌연 콱 찌르기라도 하듯이 구로지마 가메도에게 눈총을 쏘았다. 가메도는 찔끔하여 당황해했다.

다다시의 얼굴에 또 로골적인 비웃음이 드러났다.

사실 구로지마 가메도는 다다시와 같은 해에 군복을 입고 중국동북전선으로 탄원하여 몇해동안 령하 40도의 광란속에서 돌덩이처럼 언 날고기덩이도 같이 갉아먹어봤었다. 한여름 숨막히는 무더위속에서 지독스럽게 달려드는 모기떼의 단련도 받아봤다.

그때 다다시가 가메도에게서 받은 인상은 사람을 물어메치는 데서는 놀랄 정도의 음모군이라는것이였다.

자기한테 기압처벌을 주었다고 하여 자기 소대장을 한달도 안되

는 사이에 《공비내통분자》로 몰아 총살을 하게 할 때에는 아연하기에 앞서 전률을 느끼였다. 다다시는 앞으로 자기가 일본의 현대 샬로크 홈스가 될 때에는 저런 인간도 필요할것이라 점찍어두었었다. 한데 소대장총살사건이 있은지 얼마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었다. 본토에서 큰 회사사장을 한다는 아버지가 얼핏 부대에 나타났댔는데 돈냥이나 뿌린 모양이라는 말이 수군수군 돌아갔다.

다다시는 침을 뱉고 돌아섰다.

배신이라도 당한것 같아 언제든지 만나면 면상을 답새겨놓으리라 결심했다.

그런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기 쉽상이여서 인차 기억속에서 지워버리고말았다.

총독부 경무국의 한개 중요부서 성원이 되여 자기 관할구역산하 인사실태를 료해할 때 그의 이름을 보면서도 그가 그 음모군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총독부는 물론 일본본영에서까지 초점을 모으고있는 이곳 랑림산일대가 속한 도안의 치안을 맡아보는 경찰부장이 바로 그 무지스럽고 혐오스러운 음모군이리라고는 더우기 믿지 못했었다.

근 10년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만나고보니 그 음모군도 용하리만큼 승진의 길을 걸었었다. 병졸의 그 옛시절에는 별로 몸이 나지 않았댔는데 지금은 징그러울만큼 기름이 지고 비대해졌다.

몸나는것과 머리도는것은 반비례관계라더니 며칠 대상해보니 음모군으로서의 야심은 옛시절그대로이지만 우직스럽기는 메돼지 한가지였다.

하긴 지금세월에는 곰처럼 우둔하고 우직스러운자도 적중히 쓸데가 있었다.

다다시는 일체 내색을 않고 그를 처음 만난날 밤에는 량껏 회억의 술을 마시고나서 저가락장단을 쳐가며 《반다노 사꾸라와 에리노 이로…》(가지마다 사꾸라는 노을의 빛갈…) 하고 중국동북의 광대한 수림속에서 휘영청 떠가는 달을 바라보며 부르던 향수의 정 불러일으키는 처량한 일본민요와 군가를 부르기도 했었다.

그날밤의 일이 떠오른 다다시는 또 미묘한 웃음을 한번 짓고 나서 부러 정색하여 말했다.

《**김일성**사령관 유격대의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의 이행… 이 전략, 작전을 알자면 우선 **김일성**사령관의 초지의 구호를 리해해야 할거요. 수천만조선동포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나라를 독립해야 한다고 한 그 구호를 말이요. 결국 뭔가? 힘겨워지는 태평양전선으로 해서 일시 조성된 경난을 리용하여…》

다다시는 자기의 견해가 옳은가를 다시 정립해보듯 이마에 손가락들을 얹으며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아주 확정적인 어조로 계속하였다.

《옳소. 난 그렇게 생각하오. 바로 이 기회를 리용하여 중국동북일대의 군사적력량과 함께 조선경내의 반일력량들을 총규합하여 일정한 시기에 와짝 들고일어나자는거요. 이를테면 총적방향을 조선경내로! 지금 온성, 회령, 서수라(당시)를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조선국내로 항일유격대 무장소조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매일같이 총독부로 올라오고있소.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뻔하지 않소… 하다면 압록강연안 이곳 북부조선일대는 무사하겠는가?》

다다시는 또한번 찌르듯이 두눈을 껌벅껌벅하고있는 가메도와 어디 실컷 지껄여봐라 하듯이 무표정해서 앉아있는 노리아끼를 쏘아보고나서 열을 올렸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뭔가? 징병, 징용을 포기하고 뛰쳐나 곳곳의 산속에 무리를 지어 숨어있는 반도의 청장년들이요. 대일본제국의 바보같은 식충이들이 놓쳐버린 그 기피자들 …4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동안에 도망친 수자만도 근 25만명이나 된다고 하오. 25만명! **김일성**사령관의 지향대로 항일유격대 소부대성원들이 조선경내로 와짝 들어와 이들한테 무기를 쥐여줘보오.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해도 이들자신이 비록 원시적무기이긴 하지만 칼이나 창 같은것을 벼려들고 우리 일본사람 한사람씩만 죽인다고 해보오. 어떻게 되겠는가. 에?》

다다시는 몽툭몽툭한 손가락으로 차탁모서리를 땅 쳤다. 다다시 자신은 물론 구로지마 가메도도 백전로장같은 이찌가와 노리아끼도 소스라치며 전률을 했다.

다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풀에 흥분해서 씩씩거렸다. 누가 엿듣기라도 할가본듯 나들문을 활 열어보고나서 다시 차탁앞으로 돌아와 다 식어버린 차를 맹물마시듯 마시였다. 그리고는 돌연히 창가림이 무겁게 드리워진 창문쪽을 손가락질하며 역증을 냈다.

《난 이 땅의 저 울창한 산과 숲이 가증스럽단 말이요. 저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겠는가, 무슨 호랑이들이 자라는지, 에?》

다다시는 쓰러지듯이 제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였다.

입이 쓰거웠던지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마른기침을 흠흠 톺았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비웃음이라는것을 알아차린 다다시는 입술을 짓씹으며 감았던 눈을 가느스름히 떴다. 아버지벌되는 년장자앞이라는 자각에 홍두깨처럼 올리미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면서 짐짓 사죄를 했다.

《제가 버릇이 없었다면 용서해주십시오. … 내 몇번째 반복하는 말이지만 구창광산에서 그 …반일감정이 농후한 〈형제계〉패들을 징용, 징병으로 뽑아내던진 일에 탄복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몇놈들을 뽑아던진것이 그리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것은 바로 그 정신입니다. 우리 일본사람들이 지니고 지켜야 할 그 정신, 나 역시 그 정신을 본받아 대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해 어느때든지…》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제꺽 두손을 펴들어 다다시의 말을 막으며 부러 뜨직뜨직 한마디했다.

《그 기백은 아무때든 표창을 받을것입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다시는 깍듯이 허리를 굽혔다. 진심으로의 감사였다. 노리아끼의 혀끝에 침바른 찬양의 말도 말이지만 내심 기쁜것은 구창광산사건이 불러일으킨 심장이 터질듯한 흥분과 함께 몇밤을 새

워 빈틈없이 짜고든,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는 이 랑림산줄기일대의 새 작전이였다.

(역시 쓸모있는 령감이야!)

제풀에 흥그러웠지만 내색을 않으려고 퍼그나 진정된 목소리로 하던 말을 계속 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김일성**사령관 유격대의 항일전의 화살표가 조선경내로 그어졌다면 군사적요충지로서 충분한 이 일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것입니다. 우리가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사령관은 이 랑림산과 구월산일대에 대일전의 중요요충지를 마련할 최종작전중이 분명하다는 결론입니다.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는 예측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로 반드시 큰 인물이 움직일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김일성**사령관까지도 …내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두분과 극비에 마주앉은것은 바로 그 문제때문입니다.》

갑자기 말투와 억양까지 달라지는 바람에 구로지마 가메도는 물론 이찌가와 노리아끼도 바짝 긴장해졌다.

다다시는 저으기 침착하게 자기 말을 계속했다.

《만약 우리의 예측이 틀림없다면 … 이건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면해서는 **김일성**사령관부대 무장소조가 움직일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다다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가급적으로 **김일성**사령관부대 무장소조가 이 지역으로 나온다면 첫째로 어디를 노리겠는가? 상풍광산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로는 상풍광산이 이 지역에서 그들이 제일 중시하는 로동계급—무산자들의 집결처이며 둘째로는 그들도 사람인 이상 먹고 입고 써야 할게 아닌가. 초보적인 생계조건보장 … 그래서 우린 이미전에 〈모모〉라는 첩자를 그 광산에 깊숙이 박아넣었댔습니다.》

다다시는 《모모》가 그만 정체가 로출될 위험이 조성되여 부득이 누구도모르게 감쪽같이 소환하고 다시금 치밀한 작전을 펴서 《모모—2》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모》의 작전은 말그대로 탐정력사에 오를만한 선견지명의 대작이라고 그는 긍지롭게 자부하였다.

《모모》라는 대호부터 아주 의미심장하게 달았다고 상급들도 흡족해했다.

생각같아서는 일본의 상징인 《사꾸라》나 《부사산》이라는 대호를 달아주고싶었다. 그만큼 그는 자기의 첩자들을 크게 믿었으며 귀중히 여겼었다. 그럴만큼 보통의 품을 들여 키운것이 아니였다.

《왜 당신의 대호를 〈모모〉라고 하는가?》

다다시는 첩자를 상풍광산에 침투시키기에 앞서 흥분한 어조로 일장연설처럼 설명했었다.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진달래와 함께 살구꽃, 복숭아꽃을 좋아한다. 당신은 철저히 조선사람으로 되고 《조선화》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꽃도 조선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을 좋아해야 한다. 그러되 모모—복숭아꽃은 한철 피였다지지만 당신들 일본의 《모모》는 《대동아공영권》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누구도모르게 계속 피여야 한다는것을 뼈에 새겨야 한다. …하고 열을 올렸었다.

기대와 믿음대로 《모모》는 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활동했다. 상풍광산지하조직안에 깊숙이 들어가앉았으며 드디여 **김일성**사령부와 직접 련결된 큰 인물의 움직임을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뜻밖의 그 소식을 긴급비상전화로 통보받았을 때 다다시는 자기의 심장이 터져나가는줄 알았었다.

한데 다 잡았다고 장담했던 그 **김일성**사령관부대 국내공작원을 상면 한번 해보지 못한채 시체로 만들줄이야!

그는 틀림없이 이 지구가 보통 심상치 않으며 반드시 보다 큰 인물이 움직이게 되리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그 인물을 손에 넣기만 하면 이 일대뿐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의 반일조직들을 쉽게 색출하여 일망타진할수 있다고 장담했다. 제아무리 사상과 신념이 강철덩이같다고 하는 항일유격대이지만 리종락이나 림수산 같은자들도 있지 않았는가.

다다시는 《모모》의 위장을 위해 상풍광산의 반일지하조직의 활동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말을 각별히 강조하고나서 그 지하조직책임자의 이름만을 구로지마 가메도에게 넘겨주었다.

《아직은 절대 다치지 마시오. 마음대로 꼬리를 치게. 좀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토끼를 던져 호랑이나 사자를 잡아야 합니다. 호랑이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자면 첫째도 둘째도 첩자들을 잘 위장시켜서 잘 써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주만공격에서 일격에 대전과를 거둔것도 결국은 첩보활동의 승리가 아니였습니까. 난적대국의 탐정이긴 하지만 조르개앞에 탄복합니다.》

다다시는 자기의 말에 스스로도 만족한듯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풍광산지하조직의 움직임을 낱낱이 장악할 방법과 함께 도내 경찰들과 첩보원들의 활동을 일체 랑림산일대로 집중시키기 위한 자기의 구상을 한시간가까이 력설하였다.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과도 같은 중대사변이 당장 터지기라도 할것처럼 긴장해서 낯색이 컴컴해진 구로지마 가메도의 어깨까지 툭툭 두드려준 다다시는 이어 이찌가와 노리아끼앞으로 돌아앉았다.

아주 정중한 태도로 이곳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대일본제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풍광산 하나쯤은 반일지하조직의 입에 넌쩍 물려주는 일도 서슴지 말아야겠다고 당부하였다.

이찌가와 노리아끼는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소름이 끼치게 이발을 빠드득 갈고나서 악청으로 부르짖었다.

《알겠소. 난 이미 10년전에 북주하의 양주공장에서 불에 타죽은 내 동생의 시체를 붙안고 조선놈과 중국놈들은 씨종자까지 없애버려야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요. 지금의 반도안의 젊은것들이 안중근이나 리봉창, 윤봉길이 같은 녀석들과는 다르다는것두 알구. 나 역시 대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비록 늙은 몸이지만 서슴지 않을 각오요.》

그는 늙은이, 더우기는 좌석의 좌상답지 않게 도가 넘게 흥분했다는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였다. 젊은이들같은 흥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더 무게있다고 생각하며 아주 실무적인 어조로 결

연히 이었다.

《나 역시 대일본제국을 위해서라면 광산이 아니라 이 늙은 몸을 서슴없이 바치겠다는걸 다시한번 맹약하오. 일전에도 말했지만 내 걸음이 경무국이나 도경찰부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일체 그 광산걸음도 끊겠소. 나도 아오. 예빈 고기를 잡는것보다 살지은 고기를 낚는 재미가 더 크다는걸!》

모리무라 다다시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경계하는지도 다 안다는 나름대로의 긍지스러워하는 말이였다.

다다시는 속으로 흥 하고 코방귀를 뀌면서도 이번에도 연거퍼 고개를 숙여보이고나서 무척 쾌활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렇게 뜻이 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 호랑이를 한번 잡아봅시다. 호랑이를!… 어항속의 금붕어가 어떻게 꼬리치는가부터 보잔 말입니다. 하하하.》

다다시는 제풀에 웃몸을 제끼며 통쾌하게 웃음까지 터뜨렸다.

5

사시절 만년설로 덮여있다는 백두산이 가까운 지맥이여서인지 벌방의 들판이나 최뚝에서는 아직 파란 풀밭들이 소나 양들을 불러내고있으련만 압록강상류의 고산지대에는 벌써 첫눈이 무릎을 치게 내렸다. 단풍진 잎들을 채 떨구지 못한 가지들과 다래와 오미자덩굴에도 눈이 더미로 쌓여 소슬한 바람에도 사태처럼 쏟아지군 한다. 토끼며 다람쥐, 오소리들이 눈사태에 놀라 향방없이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그 모양이 우습다는것인지 아름드리고목에서 청더구리며 산까치들이 이 가지, 저 가지 넘나들며 제나름의 청을 뽑는다.

밀림의 그 눈바다를 헤치며 두사람이 씨원스럽게 걷고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숫눈길이건만 무척 몸에 익은 걸음새이다. 등에는 이 계절이면 흔히 보군 하는 이와실이군들처럼 가는 새끼로 촘

촘히 엮은 망태들을 졌는데 천으로 둘둘 감은 톱이며 도끼, 바줄들이 유난하다.

강동무를 대신하여 국내공작임무를 받고 나오는 김봉빈과 곽영무다.

봉빈이는 강동무가 이미 마련한 랑림산일대의 비밀근거지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그 일대 각곳의 조국광복회조직들과 련계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무장부대들을 더 튼튼히 준비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나오는 길이며 영무는 서울과 강원도일대까지를 포괄하여 조선서부와 중부지대에 나가 국내혁명조직들을 상대로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정세를 구체적으로 정찰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어제밤 국경을 넘어선것이였다.

10년전 북주하양주공장을 불바다로 만들어놓고 유격근거지로 들어간 이후 헤여지기도 많이 하고 감격적으로 만나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는 련대적으로도 손꼽히는 정치일군으로, 군사지휘관으로 성장한 그들이였다.

그들의 이번 걸음은 특히 여러날동안 사령관동지를 만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받은 련대장으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고 떠난것으로 하여 더욱 신심에 넘쳤다.

그들은 뜻밖에도 같이 국내공작을 나오게 된 일도 감격스러웠지만 더우기 가슴울렁이게 한것은 밀영어구까지 바래주면서 하던 련대장의 말이였다.

《다시 반복하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주력부대들은 신속히 국내에 진출하며 지구별로 산중을 차지하고 이미 조직한 각 지방조직의 지도핵심들과 련계밑에 징용, 징병을 기피하여 산중을 헤매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찾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광범한 애국청년들을 부대에 받아들여 그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 최후결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소. 여기에 배합하여 전인민적봉기를 불러일으켜 일거에 적들을 요정내고 나라를 해방하는것이라고 하셨소. 승산이 확고한 작전이요. 문제는 결정적시기에 전체 인민을 항쟁에 불러일으키는것인데 그것도 어려울게 없소. 3. 1인민봉기때 독립만

세를 부르느라 수백만이 떨쳐나섰는데 이제 우리가 최후결전을 한다고 해보오.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항쟁마당으로 달려나오겠는가. 동무들의 이번 걸음이 참으로 중요하오.》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물론 그들의 국내걸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첫걸음은 사령관동지를 직접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으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 참가할 때였다. 그날의 감격과 격정을 눈을 감은들 잊을텐가!

이후에도 무산, 웅기(당시), 경흥쪽으로 여러차례 국내공작과 정찰을 나왔던 그들이였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 고향과 잇닿은 랑림산줄기를 타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그래서 더 가슴이 뛰고 목이 메여오르는 그들이였다.

배고파 우는 어린 동생들에게 꿀방망이꽃잎을 뜯어먹이던 고향마을의 최뚝은 어디고 류달리 꿩이 많아 봄철이면 해퍼지는 아침녘부터 꿩경꿩경 장끼의 울음소리 유난하던 덩두골은 어디 바루!

배고파 우는 어린 동생들에게 꿀처럼 달달한 꿀방망이꽃잎을 한잎 또 한잎 뜯어 입에 물려주군 하던것은 봉빈의 어릴 때 일이였다.

그의 집은 보잘것없는 산간마을에서도 띠오리같은 돌투성이 오솔길을 따라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외진 산밑의 오두막같은 초가집이였다. 한여름이면 풀속에 묻히다싶이 하는 그 집옆에도 자그마한 내가 흐르고 내가뚝에는 아름드리미루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해마다 이른봄이면 까치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군 하여 헌바구니같은 까치둥지가 네댓개나 층층이 얹혀진 미루나무였다.

봉빈이가 여덟살잡히는 해 봄 어느날이였다.

철바뀔 때마다 운신을 못하고 더 괴로와하는 병약한 어머니곁에 매달려 칭얼대는 봉순이와 봉옥이를 보다못해 봉빈이는 한 애는 등에 업고 또 한 애는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때없이 나와 놀군 하던 미루나무밑의 부자집 떡돌만한 어펑바위우에 두 동생을 나란히 앉히였다.

동뚝에는 자주색방망이같은 꿀방망이꽃이 많았다. 봉빈이는 꽃송이들이 실한 꿀방망이꽃 하나를 따들고 두 동생과 마주앉아 이애 입에 한잎, 저애 입에 한잎 꽃송이를 물려주었다.

봉순이는 맛나게 쪽쪽 소리를 내며 꽃송이를 빨았지만 세살잡이 봉옥이는 새가 났던지 도리질을 하며 그냥 떼질이였다.

머리우에서 까치 한쌍이 깍깍거렸다.

봉빈의 머리에 피끗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까치가 알을 낳지 않았을가? 열알만 낳았으면 닭알처럼 삶아서 동생들한테 먹이고 어머니한테도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가. 어머니가 한알만 먹어도 병이 뚝 떨어질것 같은 생각에 봉빈이는 미출한 미루나무밑등을 어떻게 톺아올랐는지 몰랐다.

내려다보면 눈앞이 아찔한 아득히 높은 미루나무우의 해묵은 둥지들에까지 일일이 손을 넣었지만 까치알은 한알도 없었다.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에 맥이 빠진 봉빈이는 한동안 기운을 가다듬고서야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기여올랐던 나무가 내려올 때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랐다.

아름드리인데다 어른키 세길은 넘을 밑둥에 이르렀을 때는 겁이 덜컥 났다. 도무지 내려갈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아래는 우죽뿌죽한 돌판과 나무그루터기들…떨어지기만 하면 순간에 만신창이 되리라는 생각에 온몸에 땀이 쫙 났다.

마침 옆으로 미루나무굵기 못지 않을 소나무 한그루가 나란히 서있었다. 서까래감으로도 충분할 가지 하나가 봉빈의 발밑으로 뻗어지나갔다. 굵은 옹이들이 있어 그 소나무로는 오르내리기가 한결 쉬워보였다.

봉빈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다람쥐처럼 날쌔게 소나무가지로 날아내렸다.

너무 긴장하고 혼백이 빠진 봉빈이는 땅에 내려와서도 한동안 정신을 잃다싶이 했다. 그자리에 퍼더버리고앉은채 눈도 뜨지 못했다. 《얘야.》하고 누군가 불러서야 정신을 차렸다.

빈대껍질처럼 납작하게 생긴 밤색모자를 쓰고 승마바지에 까만 명주조끼를 받쳐입은 낯선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봉

빈이를 찬찬히 뜯어보고있었다.

수건을 꺼내여 땀벌창이 된 봉빈의 얼굴을 친절히 닦아준 그 사람은 큼직한 가죽가방에서 불룩한 사탕봉지를 세개씩이나 꺼냈다. 봉빈이와 봉순이, 봉옥이한테까지 하나씩 안겨주었다.

무지개처럼 갖가지 색줄이 엇바뀌며 돌아간 사탕알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고마움이 북받친 봉빈이는 아직 봉옥이가 태여나기 전해 겨울날 일본사람들의 강제에 못이겨 사냥몰이군으로 끌려갔던 아버지가 어느 험한 벼랑에서 떨어져 억울하게 숨이 진 사연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이 묻는대로 가정형편을 죄다 이야기했다. 쯧쯧 하고 연방 혀를 차던 그 사람은 봉순이와 봉옥이를 한아름에 안고 제사 앞서서 어머니가 누워있는 봉빈이네 집으로 들어갔다.

어른들끼리 의논할것이 있으니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라고 봉빈네 오누이를 방안에서 내보냈다. 봉빈이는 그 사람이 서울의 어느 곡마단에서 바줄타는 재주를 배워줄 나어린 처녀애 하나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아가는 뚜쟁이라는것을 알수가 없었다.

어머니도 몰랐다.

그 사람은 다음날도 찾아왔고 사나흘 지나서도 찾아왔었다.

세번째로 찾아왔던 날 저녁에는 깜짝 놀랄만큼의 돈뭉치를 놓고 갔다.

어머니는 그날 밤에야 도회지에 내다 공부도 시켜주고 달마다 월급도 후하게 준다는 곡마단으로 봉순이를 보내기로 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안돼요, 요 쪼끄만 앨 어떻게!》

봉빈이는 당장 봉순이를 빼앗기우기라도 할것 같아 제품에다 꼭 껴안으며 도리질을 했다.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러나 어쩌겠니. 우리 집 사정이 당장 떼죽음이 날 판인데… 생각다못해 널 함께 보내기로 했다. 네가 같이 가면 봉순이도 돌

봐주고 또 너한테도 공부를 시켜주겠다는구나. 한해에 둬번씩 집에도 보내주구.》

어디에 있는 어느 곡마단이라는것은 후에 다 알게 된다면서 그저 이 산골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희한한 도회지라고만 말했다고 했다.

봄비가 한여름의 장마비처럼 출출 내리는 날 아침 봉빈이는 어린 봉순이와 함께 삐그덕거리는 낡은 마차에 올라앉아 눈물을 흘리며 몇십리 멀고먼 정거장을 향해 고향마을을 떠났다.

그날 어머니와 영영 헤여져 파란곡절의 길에 나서게 되는 길일줄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눈속의 길은 아름드리참나무 한그루가 무성한 등성이길과 이어졌다.

등마루에서는 세갈래의 오솔길이 갈라져나갔다.

참나무밑에는 주먹만큼씩한 돌들이 쌓여 무둑하게 무지를 이루었다. 돌무지우로 무겁게 늘어진 참나무가지마다 빨갛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파랗기도 한 갖가지 천오리들과 종이오리들이 매달려있었다. 이 등마루로 오르고내리는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사연들을 남모르게 하소했을 모습이 눈앞에 어리여 가슴이 저려났다. 이것이 어렸을 때 흔히 보군 하던 내 나라, 내 땅의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영무도 목이 메이고 눈굽이 찌릿했다.

그가 고모와 함께 살던 덩두골의 덕대봉마루 고개길에도 이런 참나무가 있었고 돌무지가 있었다. 드문드문 고모와 함께 그 고개길을 넘을 때면 어린 영무도 고모를 따라 길가에 딩구는 제 주먹만한 돌을 주어들고가다가 그 돌무지에 던지군 했다. 고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군 했던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고 물었을 때 고모는 그래야 앓지도 않고 앞으로 커서 잘살게 된다고 했다. 진짜 그렇게 믿기야 했으랴만 앓지 말고 건강해서 부디 잘살기를 바라는 고모의 마음이였으리라 생각하니 영무는 코언저리가 찡했다. 지주집 머슴으로 끌려간 고모가 지금 살아계시기나 할가?

저 앞쪽 갈림길목에서 봉빈이가 뜻많은 눈길로 영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무는 깊이 새겨두기라도 하련듯 참나무가지들을 찬찬히

살펴보고나서 성큼성큼 봉빈이한테로 걸어갔다. 거쿨진 몸이 더 진중하고 무게있어보인다.

봉빈이는 말없이 영무의 얼굴을 여겨본다. 그 눈길에 정이 끓고 념려의 빛이 물결쳤다.

영무도 말없이 봉빈이를 마주보았다. 그 눈길에도 역시 이름할수 없는 정이 끓고 기원의 뜻이 번쩍이였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돌리며 련련히 뻗어내린 산발너머로 아득히 사라져간 산길을 바라보았다. 각자 이제 헤여져가야 할 공작의 길이였다.

봉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몸 조심하시오. 제발 흥분하지 말구!》

《알겠소. 동무도 조심하오. 련대장동지도 말했지만 이전 동지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걸 보면 여기 형편이 심상치 않은것 같소.》

《걱정마오. 남의 땅에서도 죽지 않았는데 아무러면 제 나라 땅에서 잘못되겠소?》

《하긴 그래. 하지만 개놈들이 마지막발악을 한다는걸 명심하오. 원래가 미친 놈들이 아니요.》

《글쎄 걱정말라니까. 내 동무가 돌아오길 기다리겠소. 돌아가는 길에 꼭 들렸다가야 하오.》

《그야 련대장동지의 명령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면 그냥 갈텐가?》

《원 무슨 말을!》

《하하하.》

《하하하…》

그들은 손을 맞잡으며 크게 웃었다.

한참 그렇게 웃고나서 진중히 두손을 힘있게 쥐여흔들었다.

더이상 말을 안했다.

말없이 또 한번 마주쥔 손들을 힘있게 잡아흔들고는 씩씩하게 눈길을 헤치며 헤여졌다.

6

장작을 패는 도끼질소리가 어찌도 야무진지 집앞으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며 혀를 차군 한다.

까만치마허리를 노끈으로 꼭 졸라매고 저고리팔소매를 살짝 걷어올린 영옥이는 도끼를 내리찍을 때마다 도톰한 입술을 꼭 옥물군 했다. 기둥감을 잘라놓은것 같은 통나무토막들이 두쪽으로 쩍쩍 갈라질 때면 발갛게 상기된 얼굴이 꽃송이처럼 활짝 웃군 한다.

장철석은 토방에 앉아 한없이 정찬 눈으로 그의 장작패는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여느 처녀들이라면 기어코 달려들어 보란듯이 제가 힘뽐기를 했으련만 오늘은 부러 끝까지 지켜보기만 할 심산이다.

아니, 영옥의 그 담차고 여무진 일솜씨가 눈물나게 보고 또 보고싶었던것이다. 저 처녀가 정말 10년전 조선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녕하시니까?》하고 발음이 분명치 않은 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군 하던 그 《미쯔꼬》란 말인가?

세상일도 참!

그 정상이 생각할수록 눈물겹고 그 성장이 바라볼수록 목이 메였다.

제 이름을 스스로 영옥이라고 고쳤다니 그 한 소행에만도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영무가 이 소식을 안다면 얼마나 목메여할가. 그 착하고 고운 마음이 짓밟히기는 또 얼마나 모질게 짓밟혔던가.

우리 조선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렇게도 착하고 마음이 곱고 웅심깊은데 이놈의 세상은, 왜놈의 종자들은 어이 그리 모질고 악착스럽기만 할가!

한인준으로부터 영옥이가 10년전의 《미쯔꼬》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매일이다싶이 갱으로 오며가며 그의 집에 들려보군 하는

철석이였다. 마침 그의 하숙집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철석은 하루일을 마치면 자연 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그는 한인준의 약속대로, 그의 소개로 광산 북갱의 광부로 들어갔었다.

이 광산은 범갱, 선녀갱, 당산갱, 북갱으로 갈라져있었다. 네개의 갱들은 다 제나름의 깊숙한 골안에 들어앉았다.

장철석은 같은 값이면 한인준이 일하는 선녀갱에서 그와 함께 일하고싶다고 했다. 한인준은 첫마디에 도리를 저었다. 물론 자기도 그러고싶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여기 상풍광산도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손에 들어갔다. 동무의 말을 들어보면 그놈이 동무를 알아보았을뿐아니라 《형제계》에까지 손을 뻗쳤던게 분명한데 이제 그놈이 여기 나타나면 동무를 몰라본다고 장담할수 있겠는가고 했다.

북갱은 광산사무실에서도 십리나 멀고 험한 곳이여서 광주도 조만해서는 발길을 들여놓지 않는 곳인데다 그 갱에는 아직 조직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못한것만큼 한번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보라고 권고하였다.

조직에서도 물론 경각성을 높이고 관심을 돌리겠지만 혹시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나타나는 경우 절대 로출되여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인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장철석이 입갱을 한지 아흐레째되는 날 진짜 그놈이 나타났다. 하루일 끝내고 갱을 나서려는데 낯모를 한 청년이 갱어구에서 팔을 잡아끌면서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나타났으니 내려가지 말라고 알려주는것이였다. 걱정보다 먼저 속이 울컥하여 광산사무실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바위투성이의 산마루로 올라갔다. 다행히 그놈은 사무실에만 들렸다가 해떨어지기전에 인차 차를 타고 돌아가버렸다.

한인준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했지만 내가 왜 저놈을 피해야 하며 더우기는 숨어지내야 하는가 하는 울화만은 여전했다. 저놈이 우리 《형제계》성원들을 징병, 징용으로 다 뽑아보낸게 분명하단 말이지 하고 생각하면 언제든 돌벼락이라도 콱 안기고싶

었다.

한인준의 보증으로 그는 인차 광산반일지하조직성원이 되였다.

그는 이곳 조직이 구창광산에서 제가 조직했던 《형제계》와는 비할바없이 째이고 규률이 엄격한데 점점 더 탄복했다. 규률중에도 특히 엄한 규률은 비밀엄수였다. 조직망과 그 규모는 한인준외에는 누구도 몰랐다. 《형제계》에서는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전체 성원들이 다 모여앉군 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어떤 때는 두세명, 제일 많이 모여서 예닐곱명정도인데 철석은 그 사람들이 다 일정한 지역을 담당한 소조책임자들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기 조직밖의 성원들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알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백번 옳은 일이였다.

《형제계》도 그렇게 했더라면 놈들이 《뒤집어내듯이》 그렇게 말짱 골라 징병, 징용으로 끌어가지 못했을것이였다.

하긴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정치공작원이 직접 나와 조직하고 지도한 조직이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소조책임자들은 태반이 광부들이였지만 때로는 농사군청년도 보이고 손바닥에 송진이 꺼멓게 배인 벌목공도 있었다.

장철석은 비로소 이곳 조직이 광산뿐아니라 린근의 각곳에 그 산하조직을 두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였다.

오긴 면바로 찾아왔다. 어서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공작원을 만나게 될 날만을 고대했다.

한데 그 공작원이 박상이와 함께 잘못되였다지 않는가!

그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된 날 밤 철석은 제사 더 펄펄 뛰였다.

밀정, 옳다!

틀림없이 밀정이 있다. 나도 그런 놈때문에 열물같은 고배의 쓴맛을 볼대로 봤다. 늙다리 승냥이같은 이찌가와 노리아끼놈이 이 광산이라고 그런 끄나불을 박아넣지 않았겠는가. 그 밀정놈을 잡아내기 전에는 아무 일도 못한다. 당장은 그놈부터 적출해야

한다 …하고 열을 올렸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그만 한인준은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 자주 모이던 소조책임자들의 모임도 열지 않았다.

참다참다 못하여 철석은 한인준과 마주앉았다.

어쩌자는것인가? 지내 겁을 먹은건 아닌가?

책임자가 움직이지 않는 조직은 사실상 죽은 조직이나 같지 않느냐고 했다.

《이것 보오. 내 일생에 두가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말이요. 북주하양주공장에 있을 때 숙감 영무를 보면서 찾은 교훈이 뭔가? 일본놈들한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거요. 깜찍하기 이를데 없는 족속들이란 말이요. 난 강동지가 희생된 후에도 놈들이 입김 한번 내불지 않고 잠잠해있는게 무척 불안하고 이상하오. 분명 무서운 꿍꿍이를 하는것 같단 말이요.

두번째 교훈은 내가 나자신한테서 뼈저리게 찾은것이요. 놈들과의 싸움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은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한다는거요. 좋은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소. 내 그때 양주공장에서 말이요. 에－에, 생각할수록 분하거든, 왜 그렇게 철이 없었댔는지…》

한인준은 조용히 웃기만 했다. 전혀 탓하는 기색이 없었다.

장철석은 열이 더 와짝 났다.

끝내는 이곳 조직이 정 그렇게 주저앉아 맥을 놓고있게 되면 자기는 원래계획대로 국경을 넘어가겠다고 했다.

한인준은 신중해졌다. 구창광산에 갔다와서 하던 조직성원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원래는 소심한 성격이였다. 그 성격을 고치고 강해지려고 무척 마음썼다. 일단 결심이 서면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부러져나가는줄도 모르고 기어코 해낸다. …

그러니 이제는 반대쪽, 다른켠으로 탈선이 된다는것인가?

믿음만은 더욱 뜨거워졌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말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는 통보만으로도 그랬다.

《형제계》도 장군님에 대한 말을 듣기 제일 좋아하는 광부들로

조직했다지 않는가.

옳다, 중국 동북지방바람을 직접 맞아본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가.

마음은 뜨거웠지만 한인준은 부러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것 보오 철석동무, 사람은 물론 결단성도 있고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하는거요. 하지만 무분별해서는 안되오. 무분별해서 초래되는 후과가 더 엄중한 때도 있는거요.》

한인준은 열에 들뜬 장철석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그 신통한 묘안이라도 찾듯 잠시 마주보기만 하다가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다.

《우리 주위에서 밀정이 움직이고있다는 말은 물론 옳소. 방금 철석동무가 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하는게 분명하다고 했는데 그 말도 옳소. 강동지를 생포하려던 놈들이 그 비밀음모가 실패했는데도 왜 잠잠한가? 모략도 보통모략을 꾸미는것 같지 않단 말이요. 속이 떨리지 않소? …그래서 우린 더 신중해야 한단 말이요. 철석동문 아직 잘 모르는것 같은데 우리 조직은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구상을 받들어나가는 혁명조직이요. 우리 조직의 활동을 장군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해야 한단 말이요. 알겠소? 제멋대로 흥분하고 제 마음내키는대로 할 권리가 없소.》

《아, 내 말은…》

《또 덤비는군, 진정하구 듣소.》

한인준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다.

《새 공작원은 꼭 올거요. 지금의 정세가 그걸 증명해주지 않소. 놈들이 허둥거리는걸 좀 보오. 철석동무도 부산항에서랑 제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지 않았소. 어떻게 해야겠는가? 침착해서 기다려야 하오. 본격적으로 조직을 확대해나가야겠소. 경각성을 바짝 더 높이면서 …이건 강동지가 떠나면서 몇번이고 신신당부한거요. 마지막당부, 알겠소?》

철석은 말이 막혔다.

한인준의 말은 가슴의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질을 한 셈이였다.

만약 그의 말대로 조국해방작전이 당장 눈앞에 박두하고 그를 위해 새 공작원이 온다면 굳이 앉아서 기다릴게 뭔가 하는 생각이였다.

혹시 봉빈이나 영무, 관길이, 기철이들이 압록강건너 어디까지엔가 와서 장군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하고있는건 아닐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잤다.

공작원들이 반드시 또 온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압록강건너 가까이에 분명 장군님부대가 와있다는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매양 여기서 우물우물 할게 있는가.

강만 건너가면 틀림없이 그 부대를 만날것 같았다. 설사 부대를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해도 그곳에도 혁명조직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 조직선만 타면 얼마든지 소원성취를 할수 있을것이다…하고 하루밤에도 몇차례나 천리성만리성을 쌓아보군 했다.

고맙게도 그 심정을 지지하고 무작정 따라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차창일이였다. 어떤 날에는 저이상 흥분하기도 했다.

《옳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밀정놈을 잡아낼수 없어요. 그건 놈들의 모략에 말려드는거나 같아요. 아이들싸움에서두 상대가 미처 묘술을 생각해내기 전에 답새겨놓아야 이긴다는 말이 있잖나요. 명백한건 우리가 움직여야 그놈들도 움직인다는거예요. 안그래요?》

새 공작원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사전에 그놈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느냐고 윽윽했다.

《좋아요. 인준형님이 그런 립장이라면 난 철석형님을 따르겠어요. 가자요. 우리 둘이서라도 압록강을 건너가자요!》

장철석은 영옥이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차창일은 혁명을 하는데 사랑때문에 발목을 잡혀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따라나서면 같이 가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방이 되는 날까지 여기서 오빠의 투쟁이나 잘 도와주면서 기다리면 될게 아니냐는것이였다.

단호한 그 성미 또한 마음에 들었다.

인정과 혁명 … 어느것을 앞세우고 어느것을 희생시켜야 하는가를 새삼스레 깨달으면서 차창일이 오랜 혁명가처럼 돋보이기도 했다.

다시금 북주하양주공장에서 봉빈네를 따라가지 못했던 후회와 함께 그래도 자기한테는 사람복이 있는게 아닐가 하는 긍지감도 생겼다.

부산까지 끌려갔다가 순철이를 만난것도 그렇지 않는가.

참, 그는 어떻게 됐을가? 또 붙잡혀가지는 않았을가? 그가 진짜 약속대로 여기로 올가?

혜영의 생각도 터질듯이 가슴을 끓이였다.

장철석에게는 이즈음 전에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무작정 접근하여 동정을 살피는것이였다. 세상형편을 알려는 갈증에서였다. 혹시 혜영의 소식을 안고오는 사람은 없을가? 혜영이 아니라도 놈들에게 끌려간 다른 처녀들의 소식이라도 듣고싶었다.

그는 정말 어떻게 됐을가?

생각은 이래저래 속불을 와짝 더 지피고 그 불길은 그만큼 또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겠다는 곬으로 굽이쳤다.

혼자 떠나든 차창일과 같이 떠나든 어쨌든 한인준은 만나야 했다. 조직의 규률이기 전에 인간적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인준과 마주앉아보려고 찾아왔는데 웬일인지 그는 날이 퍽 저물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새 장작을 다 팬 영옥이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장한듯이 방싯방싯 웃어보였다. 내처 패놓은 장작들을 아름아름 안아다가 부엌문앞에 쌓기 시작했다.

그 일에는 철석이도 팔을 걷고나섰다.

둘이 한창 장작을 날라다 쌓고있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차창일이 성큼 들어섰다.

영옥이는 좀 긴장해했다. 요즈음 이 집 걸음이 전에없이 찌우뚬해졌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던것이다.

오빠때문이라는것도 알고있었다.

며칠전 차창일이 제 성미대로 영옥이앞에서 한인준의 우유부단성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일이 있었다. 그때 영옥이는 처음으로 당돌하게 나무람을 했었다.

《글쎄 잘 모르긴 하겠지만 난 오빠가 옳다고 봐요. 난 한번도 오빠생각이 잘못되고 오빠하는 말이 그릇된것을 본적이 없어요. 거기선 …우둘쩍거리며 덤비군 하는게 탈이예요.》

차창일은 귀뺨을 맞은것처럼 아연해했다. 부끄러움에 앞서 자존심이 상했다. 가뜩이나 속이 끓던 때라 영옥이한테 화를 왈칵 냈다.

《좋아. 거기서 그렇게 본다면 … 난 더 할 말이 없지!》

그랬던 차창일이니 철석이까지 앉아있는 마당에서 영옥이를 대하는 품이 고울리 만무했다.

아니나다를가 영옥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첫마디부터 퉁명스러웠다.

《인준형님이 내포국집으로 빨리 오래요.》

밑도끝도 없는 말이였다.

철석은 그저 의아해서 창일을 쳐다보았다.

차창일은 또 무엇이 못마땅한지 여전히 철석이와 영옥이는 보지 않은채 장작개비들을 와락와락 안아다 부엌문앞에 부지런히 가려쌓았다.

영옥이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옷고름만 매만졌다. 금시 울음이라도 쏟을것 같았다.

(헛참, 사람두…)

사랑다툼은 칼로 물베기와 같다는 생각에 조용히 웃음을 머금었다. 차창일이 영옥이가 진짜 미워났으면 제사 저렇게 장작을 안아다 가려줄텐가.

장철석은 그제서야 한인준이 자기를 내포국집으로 불렀다는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한인준이 할 일이 없어 내포국이나 먹자고 사람을 띄웠겠는가.

새 공작원이 도착했는가?

아니, 아니야.

도리를 저었다.
새 공작원이 도착했다면 창일이 저 량반 얼굴이 왜 저렇게 비린 콩 씹은 인상이겠는가.
여하튼 만나야 할 사람이기에 장철석은 괜히 옷자락을 툭툭 털며 대문을 나섰다.
내포국집이란 시가지 한쪽끝의 조용한 유축에 자리잡은 개인이 영업하는 식당이였다. 광산거리식당들중에는 그중 조용한 곳이여서 한인준은 단골손님이라할만큼 그 식당을 자주 리용했다.
늦저녁이여서 식당안에는 사람들이 퍽 많았다.
한인준이 늘 앉군 하던 시가지쪽을 환히 다 내다볼수 있는 창문곁의 식탁에도 낯모를 사람들이 둘러앉아 막걸리사발을 돌리고 있었다.
장철석을 알아본 식당주인이 소리없이 다가와 주방칸이 달린 안쪽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했다.
내포국집주인이라면 얼굴에 기름이 지고 몸이 실하기 쉬우련만 이 집주인은 그저 보통의 몸집에 수수끔한 얼굴인데 손님을 맞고 바래고 하는 동작만은 얼마나 날랜지 모른다.
손님접대는 서른을 갓 넘긴 안주인이 직접 맡아한다. 집주인보다 퍽 젊어보이는 그 녀자는 날씬한 몸에 얼굴이 갸름한데 늘쌍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두내외가 내포국집이나 운영하며 살아갈 사람같지는 않다고 인끔을 치하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내외는 오히려 더 식당영업에 극성이였다.
김이 몰몰나는 내포국사발을 들고 주방문턱을 넘어서던 안주인이 철석을 알아보자 인사먼저 얼른 주위부터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더냐싶게 총총히 손님들한테로 달려갔다.
식당주인은 아랑곳없이 주방칸 안쪽문을 열어주었다.
철석은 문앞에 굳어졌다.
그리 넓지 않은 살림방에서 한인준과 마주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형님!》하면서 마주 달려나왔던것이다.
《순철이!》

철석이도 신발을 벗지 못한채 팔을 벌리며 달려오는 순철을 와락 붙안았다.

《형님!》

《순철이!》

더 힘껏 그러안았다. 이 사람이 진짜 왔구나! 하는 기쁨에서였다.

순철의 입에서 신음같은 소리가 새여나왔다.

《?!》

철석은 품에 안았던 순철을 풀어놓으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이마를 무명천으로 감았다. 왼쪽팔에도 두툼하게 천을 감았다.

《왜 이렇게 됐나? 응?》

순철은 철석의 앞에 풀썩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땅바닥을 쳤다.

《형님, 난 죽지 못해 형님을 찾아왔수다. 죽지 못해서.》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야 이미 여기서 만나자구 약속하지 않았댔나.》

대답대신 방구석에서 흐느낌소리가 났다.

젊은 녀인이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며 돌아앉았다.

한인준이 녀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처일세. … 인사들 하라구.》

녀인이 곱게 일어나 절을 하고는 또 북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해 얼굴을 가리며 돌아앉았다.

철석이는 순철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엉? 말을 좀 하라구.》

순철은 너무 억이 막혀서인지 꺽꺽 메이는 소리를 하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형님과 헤여져서 저 사람과 만난 날로 산속으로 들어갔댔어요. 반토굴집이나마 짓고 겨울날준비를 꽤 했댔는데 글쎄 간수놈이…산림간수놈이 어떻게 냄새를 맡고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당장 쇠고랑을 채우구 집에다가는 불을 놓습디다. 참을수가 있습니까. 사생결단하구 달려들었더니 치구차구 …글쎄 손에다 쇠고랑을 찼으니 당할수가 있습데까. 할수없이 끌려갔지요. 저 사람은 그

냥그냥 울면서 따라오구 …그러다가 벼랑길을 만났는데 죽기내기로 그놈을 머리로 냅다 받고 벼랑밑으로 밀어던졌지요. 어이구 … 난 또 사람을 죽였수다.》

순철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다.

철석은 격해서 부르짖었다.

《그랬으면 됐네. 그깐놈 죽어싸지. 개같은 놈!》

그는 순철의 안해쪽으로 돌아앉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그만 하슈, 차라리 잘됐습니다. 여기다 짐을 푸슈, 실은 나도 걱정이 많았수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는데 오지는 않지 … 무소식 희소식이란 말이 있지 하면서도 어찌나 궁금하던지 … 썩 잘됐어요. 여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철석은 말을 뚝 끊었다. 방문이 열리고 식당녀주인이 저녁밥을 날라오기 시작했다. 언제나와 같이 웃는 얼굴이였지만 철석은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차게 느껴졌다.

모두 밥상에 불러낸 한인준이 화제를 돌리련듯이 한마디 했다.

《갱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데 철석동무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더구만. 그래서 만나보니 이 사람들이더라니… 자, 이젠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구 여기서 새살림을 펴라구. … 우선 밥부터 먹구, 뭐니뭐니 해두 배가 불러야 해요. 자 어서.》

한인준이 그렇게 권했지만 겨우 몇술 뜨다가 말고 먼저 물러난 사람은 순철의 안해였다.

또 얼굴을 가리고 돌아앉아 어깨를 떨었다.

눈물에 젖고 시름에 젖은 그 모습을 보니 철석은 문득 혜영이 생각에 밥먹던 목이 꽉 메였다. 그 부끄럼 잘 타는 얌전데기가 지금 어디 가서 제대로 먹기나 하며 지내는지 …

제 3 장

1

마침 한인준의 집이 있는 동쪽골안에서 환하게 마주 들여다보이는 서쪽골안 초입에 몇달전에 락반사고로 남편을 잃은 녀인이 젖먹이아이를 등에 업고 친정으로 떠나가서 순철이네 내외는 그 집에 들게 됐다.

이미 떠날 결심을 했던 녀인이 살던 집이라 손질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였다.

땅땅 얼어드는 북방의 12월이고보면 울바자와 토방, 우물길같은것은 겨울난 다음에 볼일이라 쳐도 불을 지피면 연기가 굴뚝으로보다 아궁으로 더 많이 쏟아져나오는 부엌부뚜막과 구들은 당장 마련을 봐야 했다.

다행히 순철이가 떠돌이살이를 할 때 온돌공들도 따라다닌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였다.

산림간수한테 상했다는 팔에서 아직 붕대를 풀지 못해 그는 손으로보다 《입일》을 더 많이 했다. 그러다보니 부뚜막수리와 온돌수리에 전혀 생소한 장철석이 몇배로 땀을 흘렸다. 가끔 한쪽손으로 진흙덩이를 뭉그려다가 불구멍의 경사각도를 조절하고 개자리의 바람구멍도 막고 하면서 저이상 없는 기능공인양 잔소리를 거듭 할라치면 철석은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루품을 다 들여 부뚜막을 다시 쌓고 구들매질까지 반듯이 해놓고나서 아궁에 불을 지피니 언제 불이 냈던가싶게 구들골로 불길이 잘도 들어갔다. 온 하루 역사질을 하고도 불이 안들면 어쩌랴 했던 장철석은 신기해난듯 아궁에서 눈길을 떼

지 못했다.

《보라구요. 구들놓는 일이 하찮아뵈두 다 리치가 있지요?》

순철이 만족해서 자랑했다.

장철석이 못지 않게 가슴을 조이던 순철의 안해도 얼굴이 환해서 가마에 물을 붓고 속새풀뿌리를 묶어만든 수세기로 가마안을 와왁 닦아냈다.

줄창 걱정과 수심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우울해서 지낼 때는 몰랐는데 활짝 웃는 얼굴을 보니 별로 환하고 해사해보였다. 무엇인가 끌어당기는듯한 애교와 함께 천성적으로 타고난것 같은 귀염성스러움도 느껴졌다.

저 미모에 반해서 순철이 그렇듯 애간장을 태우군 했는가!

순철의 안해는 무슨 낌새를 챈 모양 귀뿌리를 붉혔다.

이어 또 귀인성스러운 애교를 살짝 머금으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저…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게 어때요?》

뜻밖의 말에 장철석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던듯 순철이도 무릎을 치며 철석이한테 다가앉았다.

《맞아. 저 사람 마음도 그런데 그렇게 하자요.》

장철석은 펄쩍 물러앉았다. 너무도 당치 않은 일이여서 말을 못하고 손사래만 쳤다.

순철은 아예 앉은자리에서 아퀴를 지으련듯 바짝 더 다가붙었다.

《남의 집에 하숙을 하느니 우리 집에서 죽이든 밥이든 같이 먹는게 더 낫지 뭘 그래요. 상이형님도 없구 외롭기만 한 우린데…아 이젠 한형제나 같은데 네쪽 내쪽 가릴게 있어요?》

철석은 가슴이 뭉클했다.

한편 박상이와 강동지를 정말 어느 놈이 밀고했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철석은 말머리를 돌리려고 우정 큰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입갱을 하려나?》

순철이 손을 저었다. 한참이나 섭섭해하다가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에— 거 형님과 한갱에서 일했으믄 좋갔는데…》

순철은 이미 한인준이네 선녀갱에서 일하기로 락착이 되였었다.

한사람이라도 막장안에 밀어넣지 못해 눈이 벌개진 로무과장이건만 그한테만은 별로 까다롭게 굴었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징병, 징용 징집령장을 받고 도망친것은 아닌가. 색시는 어데서 데려왔는가. …가슴 철렁하게 하는 일들을 꼬치꼬치 따지고나서야 선심을 쓰듯이 《선녀갱!》하고 메뚜기다리처럼 류달리 껑충하게 긴 다리에 행전을 올리친 키다리녀석에게 소릴 쳤다.

물론 철석이도 순철이와 한갱 한막장에서 일하고싶었다. 사선을 헤치고 함께 도망쳐온 그들인데 함께 한막장에서 일을 하면 마음의 의지도 될게 아닌가.

하지만 여차하면 자기는 이 광산을 떠나야 할 형편이고보면 철석은 차라리 일이 잘된셈이라고 생각했다.

철석은 순철의 어깨를 힘있게 잡아주며 뜻있게 말했다.

《인준형님을 잘 도우라구.》

이어 물이 설설 끓는 가마를 가리키며 순철의 안해에게 세수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했다.

순철의 안해가 제 손가락을 담갔다 꺼냈다하며 물의 온도까지 맞춤하게 맞추어 떠다주는 소랭이의 물에 세수를 하려니 장철석은 또 느닷없이 혜영이 생각이 떠오르며 가슴이 알싸했다.

이즈음 때없이 별찮은 일에도 불쑥불쑥 가슴을 치면서 그의 생각이 떠오르군 하는것은 무슨 까닭일가?

그의 신상에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긴건 아닐가?…

2

수백수천년전에 말라버린 강이나 호수바닥을 파느라면 간혹 흥미있는 현상을 볼수 있다.

땅걸층을 파제끼면 자갈층, 그밑에 모래층, 진흙층과 또 자갈이나 모래층… 그 층의 두께가 때로는 1메터가 넘는것도 보게 된다.

장철석이 일하는 막장은 땅속 80메터깊이의 암석에 있는 하나의 그 진흙층과 같은것이라고 할지 모래층과 같은것이라고 할지.

광맥의 높이는 제일 높은 곳이 1.5메터, 각도 30도정도의 경사를 이루면서 거대한 암반속으로 퍼졌는데 그 폭과 길이가 100메터를 나가면 끝날지 1 000메터를 더 나가면 끝이 날지 몰랐다.

10년나마 광석을 캐내고 또 캐내여 마치도 넙적한 바위에 고임돌을 고이고 또 그렇게 거창하고도 넙적한 바위를 올려놓은것처럼 통짬이 생겼는데 아무리 밝은 간데라불로도 그끝을 비쳐내지 못했다.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1.5메터, 낮은 곳은 사람의 몸이나 겨우 빠져나갈수 있는 돌짬이여서 해종일 가도 일어서서 허리를 펼수는 없고 정 허리를 펴야 할 사정이면 암반바닥에 엎드리거나 드러누워야 했다.

조선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왜놈들이고 보면 다른 막장이라고 로동보호조건이 나을리 있으랴만 이 막장은 더우기 가슴을 조이는 곳이였다.

그도그럴것이 사방 끝이 보이지 않는 돌짬에 기껏해서 울바자말뚝같은 동발목들을 드문드문 세웠는데 그것은 마치도 넙적한 떡돌을 다 썩은 절구공이로 받쳐놓은것처럼 위태위태했기때문이다.

사방으로 자꾸 파나가기만 한다면 어느때든지 거창한 암반이 쿵하고 무너져앉을것은 뻔한데 그것이 오늘일일지 래일일일지 모르는것이였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광부들은 채찍에 몰리우고 생계에 밀리워 입술을 깨물며 들어와서는 땅속의 열기보다도 순간순간 가슴을 조이는 긴장감때문에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지만 한여름의 삼복더위때처럼 땀이 좔좔 흘러서 너나없이 알몸뚱이가 되다싶이 하고 일을 했다.

뜯어낸 광석들을 경사면을 리용하여 아래쪽으로 캐내는쪽쪽 내리떨군다. 그러면 아래쪽 광차길이 닿는곳에서는 역시 옷을 다 벗어던지다싶이한 인부들이 땀벌창이 돼서 쏟아져내려오는 광석을 광차에 퍼담아서는 수직권양기가 있는 곳까지 날라간다.

장철석은 광차에 광석을 실어나르는 일을 했다.

그의 잔등이며 가슴으로도 기름같은 땀이 물흐르듯 했다.

이즈음은 몇갑절 더 힘이 부친 그였다.

결코 로동이 고되서만이 아니였다. 모든것이 주저앉은것만 같은 좌절감에서였다.

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 이 광석덩이 하나하나가 일본본토로 실려가 총알이 되고 포탄이 되고 대포와 땅크, 비행기와 군함을 만드는데 쓰이게 될것이 아니냐. 생각하면 복통이 터지는것 같았다. 그 대포와 비행기, 포탄과 총알이 누구를 겨냥하는것인가? 아, 그 총알이 조선인민혁명군인 잊지 못할 옛동무 봉빈과 영무, 관길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게 되는건 아닐가고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굳어지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더우기 가슴철렁하게 하는것은 놈들이 최종적으로 겨누는것이 항일유격대 사령부라는 말이였다.

길을 가다가도 소스라치군 하였다. 역적짓이 다른거냐 하는 생각에서였다.

내 징병을 피해 사선을 헤치며 도망을 쳤건만 결국은 스스로 징용, 징병의 길에 나선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박상이를 만나면 눈이 번쩍 뜨일 일이 생길것 같아 찾아온 길이

결국은 헤여나기 힘든 함정에라도 빠진것 같아 속이 부글부글 괴여올랐다.

한데 한인준은 대관절 어쩌자는것인가?

조직의 주위에서 틀림없이 밀정이 움직인다고는 하면서도 무작정 새 공작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만 하니 참!

며칠동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끝에 북주하양주공장에서 찾은 교훈까지 이야기했는데 귀담아듣지부터 않았단 말인가?

《또 덤비는군. … 내 말을 마저 듣소.》하고 윽박지르기라도 하는것 같던 그의 목소리가 새삼스레 귀전에 울렸다. 그러니 이 장철석이 아직 어리다는 말인가?

속이 울컥해난 철석은 광차를 콱 밀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광차가 앞으로 코박이를 했다. 탈선이였다.

꺾인굴의 굴길에 들어선줄도 모르고 울뚝해서 그냥 앞으로 콱 내밀기만 했던것이다.

차라리 잘됐다.

장철석은 레루길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마쯤 있으려니 안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탈선이요?》

철석은 대답을 안했다.

안쪽에서도 마침 잘됐다는 모양 삽자루와 곡괭이들을 내던지는 소리가 났다. 인차 뒤따라와야 할 광차들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수직권양기가 있는쪽에서 간데라불빛이 번쩍했다.

철석은 천천히 일어나며 굴벽을 더듬었다. 굵직한 쇠장대—지레대를 찾아들었다. 탈선이 자주 되는 구간이기에 언제나 쓸수 있게 준비해놓은 지레대였다.

장철석은 지레대를 탈선된 바퀴쪽의 대틀밑에 밀어넣고 끙하고 힘을 썼다. 젊고 단단한 육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힘은 순간에 광차를 들어 레루우에 덜컥 올려놓았다.

왜놈십장이 오기 전에 광차를 올려세운 철석은 무슨 일이 있었더냐싶게 끙하고 광차를 밀었다.

《누구야? 어느 놈이 탈선이야?》
십장놈은 간데라불로 철석의 얼굴을 쫙 비쳤다.
흔히 당하는 일인데다 가뜩이나 심사가 뒤틀렸던 철석은 본체도 않고 광차만 더 힘껏 내밀었다. 손바닥안에서 소가죽을 꼬아만든 채찍채가 꿈틀거렸지만 십장놈은 장철석이 너무도 아닌보살을 하는통에 어쩔수가 없는지 이발만 빠드득 갈았다.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이 뒤따랐다.
철석은 피발이 곤두섰지만 참는수밖에 없었다.
참자니 또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안되겠다. 더는 못참아.)
갱에서 나가면 다시 기어코 한인준부터 만나리라 결심했다.

3

장철석은 이틀째 별렀지만 한인준을 만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장철석은 아침교대이고 한인준은 중번(낮교대)이였던것이다. 장철석이네 북갱은 선녀봉골안에 있는 한인준네 선녀갱과는 반대쪽인 북쪽의 십리도 더 먼 제일 험한 산골안에 있었다. 광산사무실에서도 한시간은 나마 걸어들어가야 하는 곳이라 교대시간에는 좀처럼 만날수가 없었다.
장철석이 한인준과 한갱에서 일하고싶었던 마음은 갱이 먼데도 있었지만 한영옥이가 10년전의 미쯔꼬였다는것을 안 다음부터 와짝 더했었다.
한인준은 장철석이 그 마음을 터놓을 때마다 오히려 일은 잘된셈이라고, 북갱에서도 반일지하조직망을 넓혀나가야겠는데 로무과장이 쪽발이족속이긴 해도 인사사업은 우리편에서 하는게 아니냐고 끄떡않은채 우스개소리까지 하군 했다.
사실 광산의 지하조직은 기본력량이 한인준이 일하는 선녀갱

에 있고 북갱과 범갱, 당상갱에는 소조책임자를 포함하여 몇명씩밖에 되지 못했다.

한인준은 장철석에게 구창광산에서 《형제계》를 무었던 경험도 있을테니 북갱의 로동자들속에서 우선 조직에 받아들일만한 대상을 잘 료해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라고 만날 때마다 당부하군 하였다.

북갱에도 일본놈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끌끌한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장철석은 우선 그들과 가까와지는 일로부터 시작하려고 부러 입갱도 같이했고 동발목도 함께 메고 광차도 같이 밀군 했다.

이즈음에 와서는 그 일에도 뜨아해졌다.

그 일이 오히려 여러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히우는 일같이 생각되였던것이다.

가뜩이나 그렇게 마음이 들썽했던 장철석은 오늘 해종일을 긴장과 흥분속에 보냈다.

아침에 있은 뜻밖의 일로 해서였다.

오늘은 기어코 한인준을 만나리라 결심한 장철석은 아직 날도 채 밝기 전인 이른새벽녘에 그의 집으로 찾아갔었다. 중번교대는 밤 12시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내려오군 했으니 단잠자는 사람한테 미안하긴 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새벽잠을 곤하게 자고있으리라 생각했던 한인준은 방금 어데론가 떠나가고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영옥이가 무척 미안해하며 그를 맞아주었다.

《어쩌나. 떠나신지 반시간 좀 남짓한데…》

《어디 간다는 말은 없었소?》

《글쎄, 한 이틀 걸릴거라고만 하셨어요.》

영옥의 눈빛이 전혀 모르는게 분명했다.

오빠가 하는 일을 일체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또 알아서는 안된다고 여기는 그였다.

(젠장!)

장철석은 맥이 풀려 토방에 걸터앉았다.

갱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퍼그나 있어서 얼마쯤 앉아있던 그는 벌떡 일어나 눈가래를 찾아들었다. 마당 한귀에 산더미처럼 무져놓은 눈더미가 있었던것이다.

영옥이 놔두라고 몇번이나 말렸지만 대답도 않고 꾸둑꾸둑하게 얼어든 눈무지를 눈가래로 푹푹 떠내서는 통나무울타리밖으로 넘겨뿌렸다.

큰 봉분만 하던 눈무지를 말짱 다 없애고 마당비로 그 눈자리까지 깨끗이 쓸고났을 때 면도를 못해서 구레나룻이 전에없이 시꺼매보이는 차창일이 불쑥 나타났다.

《형님 계시오?》

아침인사도 없이 장철석에게 물었다.

장철석은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방금 영옥이한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외웠다.

《에잇— 내 걸음이 짧았구만.》

차창일은 두주먹으로 제 무릎을 치더니 앞치마에 물묻은 손을 씻으며 나오는 영옥은 본체도 않고 다짜고짜 장철석의 팔을 잡아끌었다.

《형님, 나 좀 봅시다.》

장철석을 대문밖으로 끌어낸 차창일은 더욱 흥분해서 말했다.

《형님, 우리 당상갱에서 한번 들고일어나보자는거우다. 개놈의 새끼들!》

당상갱에서는 이틀전에 큰 락반사고가 일어나 한꺼번에 일곱명이나 인명피해를 입었다. 몇달전부터 위험구간을 알려주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광산측에 요구했지만 다 썩은 동발목 몇대만 들여다세우고 그냥 내버려두었던것이 끝내 그런 엄청난 사고를 냈던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일곱명씩이나 죽이고도 광산측에서는 몇푼 안되는 위자료로 굼때고 넘어가려고 했다는것이였다.

《어제밤 토론들이 있었수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고 모두 웅웅들 해요. 좋은 기회지요. 로동조건개선도 문제지만 난 이번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어떤 놈들이 맴돌고있는지 그

걸 알아내자는거요. 틀림없이 움직일거예요. 그러니 형님네 갱에서두 각성있게 좀 살펴주. 범갱과 선녀갱에도 사람을 띄웠어요.》

장철석은 가슴이 뛰였다. 현훈증이 일 정도였다.

옳다.

일이 되려는가부다.

무엇인가 불안하기도 했다.

한인준, 그와 토론없이 일을 벌려도 될가?

숨가쁘게 들뛰는 가슴을 안고 한동안 서성거리던 그는 좀 주저하듯이 물었다.

《일없을가?》

장철석의 말뜻을 알아차린 차창일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우리 갱사람들 스스로가 들고일어나는거우다. 사람들 말이 우리 당상갱에서 들고일어나면 다른 갱들에서도 가만있지 않을거라는거요. 우물쭈물할게 있소? 까짓거, 우정 조직이라도 할려니 한판 겪어볼판이지. 잘하면 한팔매에 독수리나 새매를 두마리 떨굴수도 있잖소.》

장철석의 눈앞에는 북주하양주공장 소년직공들이 폭동을 일으키던 일이 떠올랐다. 창문을 들부시고 압력계들을 깨버리고 빈병상자들을 내동댕이치고… 알탄, 증자, 발효, 보이라실… 작업장마다에서 쇠장대며 몽둥이며 손에 잡히는대로 찾아들고 와와 소리치며 이찌가와 마끄도한테로 달려가던 소년직공들.

알탄작업장에서 알탄빚는 일에 시달리던 장철석이도 그때 석탄삽을 둘러메고 목이 터지게 구호를 웨치는 소년들속에 섞여 병세척장의 처녀애들과 합세를 했었다.

그때 누가 장철석에게 싸움에 나서라고 귀띔이라도 했던가? 아니였다. 관길이며 기철이… 같이 일하던 소년직공들이 들고일어나는데 같이 격분하여 목이 터지게 구호를 웨치고 주먹을 내두르며 따라서지 않았던가.

밀랍처럼 질린 낯짝으로 소년직공들앞에 나서서 요구조건을 무

조건 다 들어준다고 울음을 터뜨리듯이 선포하던 이찌가와 마끄도, 기세충천하여 터뜨리던 승리의 환성!…

장철석은 두눈을 감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늘을 찌를듯이 승리의 함성 터뜨리던 소년직공들의 모습은 이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조선놈의 새끼들은 모두 불태워죽이면 씨원하겠다고 악을 쓰면서 말같은 개를 내몰아 심부름군아이를 물어뜯게 하던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승냥이같은 낯짝으로 바뀌였던것이다.

《형제계》의 책임자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기만 하던 장철석! 그래, 그때도 난 소심했댔어. 나약했었지.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내 몇번이나 강마음을 다졌댔던가.

순간이나마 또 (일없을가?) 하고 주저하던 일이 생각나며 얼굴이 화끈했다.

차창일이 눈치채지 않았을가?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것 같았다.

그래,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다. 싸움은 력량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기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것도 그만 못지 않게 중요한거야. 갱사람들스스로가 분격하여 들고일어나는 일이 쉽게 생길텐가. 이야말로 조선사람이 다 죽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줄 때다.

장철석을 더욱 든장질한것은 어차피 저는 이 광산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가만히 떠날수는 없었다.

이미 이곳 조직성원으로서 반일의 길에 나선 몸이고보면 무엇인가 한가지 거사를 치르고 떠나는것도 남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밀정놈이라도 한놈 들춰내여 목대를 꺾어놓는다면 떠나는 걸음도 떳떳할수 있지.

차창일의 속심도 그런게 아닐가? 그래서 저렇게 흥분하는게 아닐가?

구레나룻이 시커먼 사람은 배짱이 세다더니 창일이 제구실을 하는가봐!

리성은 이미 광란의 난파에 뛰여올랐다.

《좋소. 거기서 들고일어나면 우리 북갱사람들도 가만있지 않을거요.》

그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손들을 힘있게 잡아흔들고 헤여졌다.

한데 당장 광산이 들썩 뒤집히게 될줄 알았던 그 일은 어떻게 됐는지 하루일을 끝내고 막장을 교대할 때까지 잠잠했다.

실패인가? 아니면 또 밀정놈이 먼저 움직여 모두 붙들려가기라도 했는가?

4

갱밖으로 나온 장철석은 소식이 무척 궁금하고 초조하기도 했으나 부러 느럭느럭 걸으면서 옆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여러 갱들로 갈라져가는 광산사무실앞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소식은 한마디도 얻어듣지 못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막힌 골안에 밭을 일구면 3정보는 잘될 평지가 있었다. 광산사무실은 바로 그 평퍼짐한 평지에 들어앉았다. ㄷ자형의 2층벽돌집을 짓고 그 주변에는 크고작은 목조건물들을 가뜩 덧붙여놓았다. 산이 깊고 나무가 많은 고장이여서인지 쩍하면 목조건물을 짓군 하는 왜놈들이였다. 2층벽돌집이 사무실이고 크고작은 목조건물들은 제놈들만이 리용하는 식당, 숙소, 목욕탕, 격검과 유술을 한다는 체육실과 춤도 추고 영화도 보군 한다는 오락실들이였다. 건물들로 울타리를 친 그가운데는 운동장을 넓게 닦았는데 제놈들끼리 개싸움을 하듯이 으르렁대기 잘하군 한다는 야구장도 있었다.

얼마전부터 광산사무실주변에는 수비대 한개 분대가 밤낮으로 경비를 섰다.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도경찰부장과 총독부 경무국의 모리무라 다다시라는자와 같이 광산에 나타났다 사라진 후

읍거리의 수비대 한개 독립소대력량을 독립중대력량으로 증강하고 광산사무실에다도 한개 분대의 경비력량을 새로 배치했던것이다.

장철석의 눈앞에는 불현듯 또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낯짝이 떠오르면서 속에서 불기둥같은것이 욱 치밀었다. 어쩐지 그놈과 무슨 인연이라도 맺어진것 같아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그놈이 여기서도 어느 밀정놈과 손을 잡은건 아닐가? 그래서 경비력량도 더 보강한건 아닐가? 아니, 오늘의 일을 이미 눈치챈건 아닐가?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장철석은 오늘따라 사무실경비가 더 엄엄하게 느껴졌다.

낯짝이 쭈그러진 조롱박처럼 작고 못나서인지 불룩한 개털모자가 유난스럽게 커보이는 정문보초한테 괜히 눈을 흘기고나서 스적스적 당상갱쪽의 경사지길로 걸어올라갔다.

교대가 끝난지 오래서 이미 광부들이 다 내려오고 드문드문 한두사람씩 마주치군 하는데 모두 낯이 설어서 함부로 사연을 물어볼수도 없었다.

당상갱쪽으로 한 절반쯤 갔을 때 무릎까지 내려오는 시누런 털솜옷을 입었지만 머리에는 여름에 쓰던것 그대로인 족도리같은 군모를 쓴 헌병 세놈이 마주왔다. 별로 살기가 등등해보였다.

놈들은 대뜸 장철석의 아래우를 무섭게 훑어보았다. 조선사람이라고 하면 무작정 의심부터 하고 주리를 틀지 못해 몸살이를 하는 족속들임에야.

놈들의 눈에서 어찌나 독기가 뿜겼던지 장철석은 속이 철렁했다.

세놈은 그저 한번 그래봤던듯 별다른 시비는 없이 지나가버렸다.

장철석은 기분이 잡쳐서 돌아서고말았다.

스적스적 걸어 다시 광산사무실앞에 이르니 그 얼굴 쪼끄만 보초가 추위에 못견디겠는지 처녀애들처럼 발을 콩콩 구르고있었다. 총은 메였어도 나이는 퍽 어려보였다. 문득 저런 애숭이까

지 군복을 입혀 끌어왔으니 네놈들이 정말 망할 날이 멀지 않기는 않은 모양이구나 하는 통쾌감이 들었다. 한편 이 깊은 산골 광산에 보초까지 끌어다 세운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낯짝이 다시 떠오르면서 몸서리가 쳐졌다.

사람의 일이란 참!

내 어쩌면 이곳에서 또 그놈과 마주치게 됐을가.

갈수록 더 그 일자체가 불쾌하고 불안하면서 빨리 이곳을 떠야겠구나 하는 조급한 생각이 겹쳐들었다.

광산사무실앞을 지나 시가지로 향하는 큰길을 얼마쯤 걸어내려가는데 《형님!》하고 찾는 소리가 났다.

길옆의 굵은 전나무뒤에서 차창일이 얼굴만 내밀고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깎아지른듯한 절벽밑을 지나 산등성이로 뻗은 오불고불한 오솔길로 겅중겅중 걸어올라갔다.

장철석은 얼른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나무군이나 사냥군들이 한두명 다녔을 오솔길은 무릎을 치게 눈이 깊었다.

장철석은 한동안 눈길을 톺아서야 숨을 헐떡이며 차창일을 따라잡았다.

차창일은 펑퍼짐한 너럭바위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장철석은 숨을 헐썩이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어지간히 노염이 섞인 목소리였다.

차창일의 대답은 왕청같았다.

《철석동지.》

전에없이 《동지》로 존대하는 바람에 철석은 어리둥절했다. 어딘가 좀 이상스러운감도 들었다.

차창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철석동지, 우리 이길로 떠납시다.》

철석은 차창일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만 했다.

그러다 저도모르게 물었다.

《떠나다니, 어디로 말이요?》

차창일은 감때사나울만큼 낯을 찡그리면서 퉁명스럽게 내뱉았다.

《어디긴 어디겠어요. 강을 건너가잔 말이예요.》

장철석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분명 상서롭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오히려 마음이 진정되면서 침착해졌다.

그는 웃사람답게 여유있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방금전에 난 그쪽 갱에서 내려오는 헌병들을 만났댔소.》

《헌병이요?… 그까짓 헌병놈들이야 뭐…》

차창일은 코바람을 흥 내불었다. 또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한참이나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땅속이라 일할 시간이 림박할 때까지 갱입구에 모여앉아서 갱안으로 들어가기를 힘들어하는것은 광부들의 공통된 심리다. 약속대로 여느날보다 일찍 갱앞에 모여앉은 광부들은 긴장과 함께 흥분된 속에서 누구인가의 지시를 기다리고있었다.

차창일도 그속의 한사람이였다.

이윽고 광부들이 술렁거렸다.

오늘 싸움을 제일먼저 호소했을뿐아니라 자기가 직접 선도할것을 맹세한 당상갱 좌상아바이가 나타난것이였다.

과묵하고 의협심이 많은 그는 나이도 나이지만 광산일 경험이나 인품으로 하여 갱사람들은 물론 광산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웃사람대접을 받고있었다.

한데 광부들앞에 이르러 하는 그의 말은 너무도 뜻밖이였다.

《오늘 계획했던 일은 참아야겠소. 일체 다른 말들 말구 입갱들하자구요.》

아바이는 제먼저 간데라불을 켜들고 천천히 갱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광부들의 옆에 앉았다가 아연해서 일어서는 차창일의 앞으로 가까이 오더니 못쓰게 된 광차(지하조직성원들이 광부들과 짜고들어 파괴하고 못쓰게 만든것들이였다.)들을 끌어내다 쌓아놓은

파철무지쪽을 눈짓했다.

눈을 들쓴채로 있어서 앙상한 나무등걸들을 되는대로 무져놓은것 같은 파철더미뒤에 입김을 훅훅 내뿜는 한사람이 서있었다. 좌상아바이 못지 않게 틀이 진데다 나이도 그만한 반일지하조직 선녀갱소조책임자였다.

차창일은 그가 좌상아바이의 결심을 돌려앉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한동안 벌둥지를 뒤엎어놓은것처럼 웅성거리던 광부들은 어느 사이 어웅하게 뚫린 갱안의 여러 막장들로 잦아들었다.

방금전까지 긴장과 숨가쁠만큼 흥분으로 일렁이던 갱앞에 혼자 남게 된 차창일은 맥이 풀린 걸음으로 선녀갱소조책임자앞으로 걸어갔다.

선녀갱소조책임자는 한때 정주, 선천, 룡천, 신의주일판에서 손꼽히는 씨름군이였다고 했다.

씨름군의 몸과 어울리게 얼굴도 동으로 부어놓은것처럼 단단해보이는데 그 얼굴이 전에없이 컴컴했다.

그는 차창일과 마주서자바람으로 직판 추궁조로 물었다.

《동무 조직성원이 옳소?》

차창일은 례절만은 공손히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설명했다.

차창일의 말을 참을성있게 듣고있던 선녀갱소조책임자는 손을 홱 내저으며 그의 말을 중등무이시켰다.

《그러니 동문 그 밀정놈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모한 싸움에 나가도록 하자는거였겠소? 글쎄 동무의 생각대로 밀정놈이 나 여기 있소 하고 진짜 꼬리를 드러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보, 일본놈들과의 싸움이 그렇게 제 감정나는대로 읏읏 들고일어나서 이길수 있는거요? 그래서 이길 싸움이라면 3.1인민봉기두 그래 6.10만세시위투쟁도 그래… 숱한 싸움들이 왜 피만 흘리고말았겠소?》

선녀갱소조책임자는 차창일이 응당 좌상아바이와 같은 좋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해서 조직이 준 과업대로 조직망을 더 확대하는데 노력할 대신 무슨 왕청같은 일을 벌려놓으려 했느냐고, 조

직앞에서 단단히 총화받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맵짜게 비판했다. 크게 기대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차창일은 갱으로 들어갈 생각도 않고 해종일 산속에서 딩굴었다.

결국 강건너로 향하던 마음이 와짝 더 끓어 제잡담 준비를 갖추고 이제나저제나 장철석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는것이였다. …

장철석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차창일 본인의 말만 듣고는 아직 무엇인가 석연치 않았던것이다.

아침녘부터 극단에서 극단으로 오간다고 할만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연거퍼 빚어놓으니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속히우고 얼리워 넘었던것 같은감마저 들었다. 정신차려 장철석!

철석은 바위앞을 몇걸음 거닐다가 저도모르게 한마디 물었다.

《글쎄, 가는건 가는거고… 영옥인 만나봤나?》

차창일은 당황해했다. 그는 장철석의 눈길을 피하면서 어름어름 대답했다.

《고건, 그저… 가도 오빠를 꼭 만나보구 가라는 말뿐이지. 뭐 제 오빠가 어서 가십사 하구 내 등을 떠밀어라두 줄줄 아는지.》

여전히 짜증과 신경질, 불평스러운 어조였다.

하긴 그랬다. 장철석이 몇번이나 결심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뜨지 못하고있는것도 한인준때문이 아닌가.

장철석은 눈을 헤치며 바위굽을 왔다갔다했다.

문득 압록강을 건느겠다고 먼저 말을 한것이 자기인데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바위굽을 몇바퀴 돌았다.

(그래, 기회란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것이 아니지. 두번 세번 다시 찾아오는것도 아니고. 때가 오면 여기 사람들도 리해해 줄거다.)

북주하양주공장에서 봉빈네와 헤여져 뿔뿔이 흩어져가던 일이 또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김일성장군님 항일유격대 대원이 되여 이 광산에 다시 나타날 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는 결연히 차창일의 앞으로 다가섰다.

《좋소. 같이 떠나기오.》

차창일이 껑충 뛰며 장철석의 두손을 잡았다.

《형님, 정말이요? 정말 떠나자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하는 생각에 장철석은 다시금 차창일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아직 내가 미덥지 못하단 말인가? 하긴 다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길이니까!

철석은 부러 힘있게 고개를 끄덕여보이면서 롱말을 한마디 던졌다.

《여보, 가더라도 거 수염이나 좀 깎고 갑세. 젊은 사람이 그게 뭔가.》

차창일은 탓하지 않고 그냥 환성이다.

《야, 내 형님 이러실줄 알았소. 믿었다니까!》

다짜고짜 장철석을 닁큼 들어안고 몇바퀴나 빙글빙글 돌고나서 그대로 눈우에 풍덩 넘어졌다.

둘은 아이때처럼 한바탕 서로 눈끼얹기를 하였다.

한참 그렇게 웃고 딩굴고나서 장철석이 조용히 일어나앉으며 말했다.

《한데 사람이란 어딜 가든 마무릴 깨끗이 해야 하지 않소. 내 이 광산에 와서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주인집에 인사두 하구 더우기는 순철이를 만나보구 떠나야 하겠소.》

《거야 물론 그래야지요.》

차창일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형님, 그럼 난 볼일 다 봤으니 이길로 내처 매골 숯구이막에 가서 기다리겠수다. 매골을 알지요?》

차창일은 눈우에 매골로 가는 길과 숯구이막의 위치를 그려보였다.

《알겠네. 그럼 래일아침에 만나자구.》

그들은 곧 서로 뜻많은 눈길을 남기고 헤여졌다.

5

마음무던한 하숙집주인내외와 저녁밥까지 함께 나누고나서 며칠동안 다녀올데가 있으니 누가 찾으면 적당히 대답하라 이르고 그 집을 나섰을 때는 도회지본을 따서 경찰서에서 번을 세운 야경군이 땡땡 징을 울리며 골목골목을 한바퀴 돌고난 다음이였다.

갑자기 어디로 수색을 떠나는지 아니면 야간훈련을 하는지 배낭이며 총기류들을 다 갖춘 수비대놈들이 대렬을 지어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고있었다. 이집 저집의 마루나 대문간에서 떨고있던 수십마리의 개들이 거리가 떠나가게 짖어댄다. 거리가 소란하면 잠들었던 사람들도 일어나 불을 켜기마련이건만 점점 더 어수선하고 기승스러워지는 세월이라 방금전까지 그물그물하게 등잔불이 얼른거리던 창문들마저 일시에 캄캄해졌다.

수비대놈들의 어지러운 구두발소리가 잦아들자 길옆에 바투 붙은 탁배기집에서 붕붕 문풍지우는 소리와 더불어 돌덩이같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왜 왔던고 왜 왔던고…》를 목메여부르는 주정군의 갈린 목소리가 무슨 항변처럼 눈가루날리는 시가지의 밤바다를 처량하게 울렸다.

다른 집들에서는 태반이 불을 껐건만 한인준의 집문가에는 오히려 더 불빛이 밝았다.

영옥이 장밤 오빠를 기다려 불을 끄지 않는 모양이였다.

장철석이 무척 조심하느라 했건만 영옥이 어느 사이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문을 벌컥 열며 뛰여나왔다.

《오빠예요?》

무척 미안해하는 장철석을 알아보자 저도 미안해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장철석은 갑자기 말구멍이 막혀 마른기침만 련발했다.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내 이제 오빠도 안만나고 떠나려 한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놀라고 민망해할것인가. 하긴 차창일이 이미 떠난다는 말을 했다니 이 처녀가 한밤중에 찾아온 사연을 다 짐작하고있는건 아닐가? 아니나다를가 영옥이는 저고리고름을 손가락에 감았다풀었다하며 무척 바재이는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오빤 꼭 오셔요. 늦어도 새벽까진 꼭 오셔요.》

장철석은 속이 떠끔했다.

《그래, 오구말구. 오빤 꼭 올거요.》

얼결에 영옥의 말을 받아외우고는 마치도 한인준이 돌아왔는가를 알아보려고 들린것처럼 흔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난 가겠소. 앓지 말라구.》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문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영옥의 그 연약한 손에라도 잡히우면 더는 움직일수가 없을것같아서였다.

그래. 영옥이한테까지 아픔과 걱정을 안길 필요는 없지. 순철이한테 부탁하면 될텐데… 하고 생각하며 그의 집쪽으로 걸어가는 장철석은 두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한 영옥이가 대문밖에까지 따라나오며 그의 모습이 어둠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냥그냥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6

펄쩍 뛸줄 알았던 순철은 오히려 덤덤한 표정이였다. 한동안 말없이 장철석을 마주보는 그의 눈빛에는 나야 부산에서 도망칠 때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란걸 알고있었던걸요! 하는 빛이 력연했다. 굳이 말리지도 않았고 부산도 피우지 않았다.

기둥뿌리가 뽑히기라도 한것처럼 놀라서 울상이 된것은 그의 안해였다. 너무 뜻밖이여서인지 얼굴이 하얘서 말도 못하고 자꾸 옷

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어질어보이기만 하던 순철이가 소리를 꽥 질렀다.
《내인이 새빠지게 무슨 눈물이여, 먼길 떠나는 사람앞에!
어서 부엌에 나가 물도 끓이고 밥도 지으라구요.》
장철석이 이러지 말라고 막아나서자 순철이는 눈물이 그렁해서 사정을 했다.
《형님, 이제 헤여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 않소. 오늘 밤만은 우리 내외 하자는대로 좀 해주, 예? 그래야 우리도 형님 떠난 뒤 마음이라도 편할게 아니요.》
눈굽이 찌르르했다.
순철은 잠간이라도 눈을 붙이라면서 아래목에 이불을 펴고 강다짐으로 철석을 끌어다눕혔다.
사람의 일이란 참 예측하기 힘든것이다.
순철의 강다짐에 몰려 이불안에 들 때까지만도 잠이야 무슨 잠을 자랴 했는데 장철석은 그만에야 저도모르는새 깜빡 잠이 들었었다.
정신없이 잠나라에 빠졌다가 사이문열리는 소리에 펄떡 일어나니 순철이가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왔다. 잡곡밥이긴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에는 놋주전자를 대신하는 사기주전자에 따끈히 데운 소주도 놓여있었다.
둘이 술잔을 나누는 사이 순철의 안해가 음식보따리를 싸기시작했다. 아직 김이 문문 피여나는 통닭도 한마리 있었고 추울 때 마실것이라는 술병도 있고 마른 음식도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장철석이 놀라서 물었다.
《이 사람, 한밤중에 어디서 이렇게?…》
순철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안해가 싸는 보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다가 퍽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낮때만 알았어두 저렇게 약소하지는 않았겠는데… 밤중에 가게방문을 두드리자니 좀…》
《무슨 말을 하나!》

《그저 우리 내외 성의인줄 알아주. 두사람분으로야 너무 작지.》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장철석은 또 속이 뭉클하여 순철의 안해앞으로 돌아앉았다.

《아주머니, 이집 사정으로 봐선 내가 이런걸 받으면 안되겠지만 받는것도 인사일테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어디 가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자, 이러다 날밝겠수다. 우린 술이나 마저 마시자구요.》

순철이 부러 너스레를 떨며 제먼저 술잔을 들었다. 장철석도 술잔을 들어 입에 댔다. 입안에 들어간 술이 목안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술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돌연히 두눈굽으로 뜨거운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순철이도 울고 그의 안해도 벽쪽으로 돌아앉으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7

한인준은 캄캄한 밤길을 어떻게 걷는지 몰랐다.

몇번이나 눈구뎅이에 빠져 허우적이였는지도 모른다.

온통 눈투성이가 되여 눈사람처럼 되였다. 그래도 좋았다. 눈구뎅이에 빠진채 네활개를 쫙 펴고 한동안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희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밤바람이 차도 추운줄을 몰랐다. 온밤 눈덮인 산발을 끝없이 걷고 또 걷고싶기도 했다.

드디여 국내공작원 김봉빈과의 첫 상면이 이루어졌던것이다.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그의 호출을 받은 한인준은 어떻게 약속된 장소로 달려갔던지 몰랐다.

초면인 공작원이였지만 두손을 마주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었다.

얼마나 기다리던 동지인가. 그 누가 목이 타고 가슴이 탔단들 한

인준 그 이상 더 탔을텐가!
상면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다.
전반적인 국제국내정세분석, 일본관동군과 조선경내의 군대, 경찰, 헌병들의 움직임, 그에 대처한 **김일성**장군님의 대담하고 령활무쌍한 전략전술과 작전적구상… 김봉빈은 마치도 오래동안 품들여 준비한 강의내용을 론리정연하게 체계별로 설득시키듯이 침착하게, 마치도 생활담을 나누듯이 자연스럽고도 류창하게 통속적인 말로 이어나갔다. 한인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아주 세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공작원이라는 믿음에 감격하였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공작원을 보내줄것이라고 하던 강동무의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마치면서 눈굽이 화끈화끈했다.
정신이 버쩍 들고 눈앞이 환해졌다.
명백히 멸망에 직면한 일제가 조선과 중국동북전역에 거미줄처럼 뒤덮어놓은 밀정망들을 총 발동하여 어떻게든 패망의 폭풍을 막아보려고 최후발악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에 특히 가슴이 서늘해졌다.
강동무와 박상이의 희생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인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조직의 심장부에 적의 마수가 뻗쳐들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누구일가? 어느 놈인가?
귀로는 봉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앞에는 광산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선녀갱을 비롯해서 각 갱들의 소조책임자들은 광산의 오랜 본토배기들과 같은 사람들이여서 어느 면에서든 믿음이 갔다. 놈들이 밀정을 박아넣었다면 십중팔구 최근 몇해어간에 새로 나타난 인물일것이다. 내엽에 새로 나타난 인물—장철석, 차창일, 한영옥, 리순철과 그의 안해 그리고 내포국집내외…
도리를 저었다.
아무렴 그들이 밀정이겠는가.

《참나무》조차 아직 이렇다할 단서를 잡지 못한걸 보면 놈들도 보통 로숙하고 세련된 놈들이 아닌 모양이였다.

상면은 결코 무거운 걱정으로만 이어지지 않았다.

광산지하조직의 활동정형과 조직체계에 대한 만족과 치하의 말을 들을 때에는 목안이 뜨거워올랐다. 장철석과 차창일의 불같은 성화를 고집스럽게 눌러놓으면서 끝까지 침묵속에 조직망을 확대하는데 힘을 넣은것은 적들의 모략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놈들을 불안과 초조속에 몰아넣은 주동적이면서 장한 작전이였다고 김봉빈이 치하를 할 때는 무엇인가 울컥 치밀기도 했다.

《장철석이, 그가 정말 북주하양주공장에 있던 친구란 말이요?》

김봉빈이 입을 항 벌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있을 때는 제사 한무릎 다가앉기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공작원동지 이름이랑… 곽영무라고 숙감과 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랑 얼마나 눈물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영옥이 그 《옛날》의 미쯔꼬이며 그 미쯔꼬가 어떻게 되여 한영옥으로 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나서는 봉빈공작원도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원 세상에… 세상일도 참!》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여서 몇번이나 혀를 찼다.

정과 정이 조직과 투쟁이라는 하나의 도가니속에서 뜨겁게 융합된 한인준은 자기의 속생각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모든 면으로 보아 전 앞으로 철석동무를 저의 1대리인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일부 결함들이 있긴 하지만…》

《그의 부족점이 뭐요?》

김봉빈이 신중히 물었다.

한인준도 신중해져서 솔직하게 말했다.

《과격하다고 할가, 덤빈다고 할가… 예상밖으로 놀랄만큼 욱 할때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모순적인데도 느껴집니다. 일생의 교훈탓인지…》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김봉빈이 파고들듯이 물었다.

한인준은 좀 무춤했다가 침착하면서도 진지하게 말했다.

《철석동문 북주하양주공장에서 공작원동지랑 따라가지 못한 일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건 자기가 혁명적자각과 의식이 부족했던것과도 관련되지만 보다는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했기때문이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여러명이 공작원동지네를 따라나섰는데 그들이 다 혁명성이 강했구 조직적으로 준비되였겠는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쩍하면 압록강을 건너간다고 울컥울컥하군 하는데… 어쨌든 그 정신만은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김봉빈은 무척 신중한 표정으로 한인준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무엇이든 확확 빨아들일것 같은 눈길은 어서 계속하라고 독촉했다.

한인준은 아주 자신있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제가 특히 장철석동무를 믿는것은 일련의 성격상 결함은 있지만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불같은 지지와 흠모심입니다. 우리가 알아본데 의하면 구창광산 광부들속에서 장군님에 대한 선전을 아주 실감있게 잘했다고 합니다. 〈형제계〉성원선발기준을 장군님이야기와 장군님유격대이야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했다는 그 하나만 보아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선이 똑바로 서고 대가 확고한 동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끌어주면 진짜배기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봉빈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확신성있게,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소식 알려주니 고맙습니다. 철석동무에 대해서는 나도 인상에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는 양주공장에 있을 때도 평시에는 조용하고 별로 나타나지 않았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옥의 죽음을 비롯해서 일본놈들의 교활성과 비인간적인 야만성을 폭로하면서 투쟁을 호소했을 때 제일먼저 곽삽을 휘두르며 뛰쳐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따라나서지 못한걸 일생의 교훈으로 삼는다는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 한마디만으

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너나없이 단 한번만이라도 조선땅에 가보고싶은것이 불같은 희망이였습니다. 난 인간적으로 그를 보증합니다. 그를 광산지하조직책임자의 1대리인으로 삼겠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준은 김봉빈의 두손을 힘있게 모아잡으며 기뻐했다.

이야기는 차창일에게로 돌려졌다.

김봉빈이 먼저 말머리를 돌려놓았던것이다.

《내 보기에는 철석동무가 차창일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인준은 봉빈을 맞바로 쳐다보기만 하다가 얼마후에야 좀 자신없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차창일이 철석동무를 〈형님형님〉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 하는데… 그러고보면 철석동무가 최근에 별로 더 욱욱하는것도 창일이 그 사람 성미를 닮는것 같기도 합니다.》

《성미까지 닮는단 말입니까? 뭘 그러기까지야 하겠습니까. 나이도 있는데…》

김봉빈은 소리를 내여 웃었다. 하면서도 한인준을 보는 눈길은 예리하였다.

한인준은 역시 정치공작원이 보는 눈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에 더 바싹 긴장해졌다.

김봉빈은 더욱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차창일의 고향이 바다가마을이라고 했던가요?》

《예.》

한인준은 그가 태여난 곳이며 어떻게 되여 고아가 되였는가에 대해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세심히 다 듣고난 김봉빈은 역시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면서도 찌르는듯이 물었다.

《그 바다가마을에 직접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인준은 입을 반쯤 벌렸다. 차창일도 그렇고 태반의 조직성원들의 고향과 과거지사는 다 본인의 입을 통해 알고있는것들이였다.

《됐습니다.》

봉빈은 한인준을 딱한 사정에서 이끌어내려는듯 서글서글하게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일일이 다 알아볼수는 없습니다. 우선 본인을 믿어야 합니다. 차창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젠 다른 얘길 합시다.》

한인준은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광산래왕정형은 물론 특히 장철석에게서 그놈에 대해 들은 말들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다.

《음!》

김봉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구창광산에서 철석동무를 알아봤단 말이지요?… 모리무라 다다시와 결탁됐다… 이건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우선 철석동무가 다시는 그놈의 눈에 띄우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그에 대해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웠다면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직성원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겠습니다.》

김봉빈은 여러 갱들이 멀리 떨어져있는 조건에서 비상긴급련락체계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세히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들을 빨리 세우도록 하였다.

한인준은 또한번 강동무 못지 않게 유능한 공작원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훈훈해져서 광산실태와 그동안 조직의 활동정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날이 퍽 저물어서야 그들은 봉빈이 마련해가지고 온 쥐기밥을 한덩이씩 나누어먹고 헤여졌었다. …

한인준이 무릎까지 치는 눈길을 헤치며 광산마을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올라선것은 새벽별이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릴무렵이였다.

마을은 아직 캄캄 밤중이였다. 지하투쟁을 하는 사람에게는 낮보다 밤이 더 좋구나 하는 생각에 자못 긍지가 부풀었다.

희미한 불빛 몇개가 가물가물 조으는 집들중에 동쪽골안의 저의 집이 눈에 띄였다.

영옥이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는가?

장철석이 거처하는 집에는 아래웃방이 다 캄캄했다.

한인준은 한껏 웃음을 머금었다.

(철석동무, 기뻐하오. 동무가 기다리는 공작원이 왔소. 누군줄 아오? 봉빈동지요, 김봉빈동지!)

그는 큰 숨을 한번 쉬고 더욱 흥분하여 마음속으로 외웠다.

(다음번엔 꼭 동무를 데리고오라고 했소. 동무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소.)

한인준은 다시금 활활 눈을 걷어차며 등성이길을 내리걸었다.

8

매골 숯구이막은 해마다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만 사람이 있고 겨울동안은 비워두군 했다.

겨울에는 숯생산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여러개의 숯가마옆에 큰 바위를 의지하여 초막형식으로 지은 막이 한채 있는데 가끔씩은 사냥군들이 리용하군 했다. 이 근래도 몇명의 사냥군들이 밤샘을 했던 모양 사방 눈천지에 사람의 발자국들이 여러갈래로 흩어져있었다.

순철의 내외와 헤여진 장철석이 숯구이막에 이른것은 새날이 훤하게 밝을무렵이였다.

숯구이막안에서는 빨갛게 타는 불빛이 비쳤다.

밤새 우등불을 피운 모양인데 이제는 불덩이들만이 남아 점점 사위여가고있었다.

차창일은 불무지를 등지고 초막어구에 꼬부리고 누워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온밤을 뜬눈으로 새우다가 날이 밝아오니 마음의 탕개가 풀려 쓰러진게 분명했다. 생나무도 얼어터진다는

12월 마감의 강추위속에서 밀림의 눈속에 묻혀 혼자서 밤을 새우려니 오죽했을가!

장철석이 숯가마들을 들며 마른 나무토막들을 주어다 불무지우에 놓는데 차창일이 와닥닥 놀라 일어났다.

《아, 왔구만요!》

그는 환성부터 내지른다.

장철석은 조용히 웃어보이고는 불담에 입김을 훅훅 불어 불을 살구었다.

차창일은 얼굴에 피곤이 가뜩했지만 기지개를 힘차게 하며 부쩍 사기를 냈다.

《야, 이거 혁명군훈련이 보통아닌데요.》

자칭 혁명군이라는 말에 장철석은 또한번 미소를 지어보이고 나서 순철이 내외가 싸준 음식꾸레미를 풀었다.

《자 이런, 어디서 이런 진수성찬이 생겼소?》

차창일은 두손을 썩썩 비비며 군침부터 삼켰다.

불길이 황황 일어 초막안이 훈훈해지기 시작했다.

《시장할텐데 어서 들라구. 그렇지. 우선 한모금 마시고 보게나.》

장철석은 자그마한 보시기에 술을 부어 권했다.

차창일이 형님부터 마시라고 너무 고집을 부려 장철석은 할수없이 제가 먼저 술보시기를 받아들었다.

한데 술보시기를 입에 가져다대던 장철석은 순간적으로 덮쳐드는 이상한 예감과 함께 머리카락이 곤두서는것을 느꼈다.

먼산의 동녘하늘은 훤해졌어도 높은 벼랑바위와 우중충한 산림들로 꽉 차있는 골안의 눈바다우에는 아직 어둠의 장막이 채 걷히지 않았는데 장철석은 그 어둠이 갑자기 얼음장벽처럼 굳어지면서 무겁게 짓누르는것 같았던것이다.

차창일도 무엇을 예감했는지 낯색이 재빛으로 변했다.

미처 자리에서 일어날 사이도 없이 초막밖에서 일시에 벼락치는것 같은 고함소리가 터지면서 시퍼런 총창들이 눈앞에서 번쩍했다.

둘이 다 화닥닥 놀라 일어났다. 총창들은 어느새 그들의 가슴을 면바로 겨누었다.

방금 눈더미속에서 헤여나온것 같은 세놈의 수비대놈들이였다.

눈앞이 아찔하면서 하늘땅이 꺼꾸로 서는것 같았다.

장철석은 차창일을 꽉 붙안으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 황군이나 밤새껏 눈속에서 떨었는데 이자식들 아침진지가 그럴듯한데!》

세놈중 코밑에다 유난스레 검은 털벌레같은걸 붙인 두눈이 퉁방울같은 놈이 시까슬렀다. 그리고는 그중 날파람있어보이는 놈에게 무엇이라 소리를 꽥 질렀다.

《하!》

두놈은 제마끔 장철석과 차창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섰고 날파람있어보이는 젊은 놈이 제꺽 수갑을 꺼내여 그들의 손목에 절컥절컥 채웠다.

수갑을 채우고도 안심치 않았던지 하얀 포승끈으로 두사람의 몸을 꽁꽁 묶고 한줄에 련결시켜놓았다.

놈들은 그러고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총들을 거두고 방금 장철석이 펴놓은 음식에 달라붙었다.

장철석은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었다.

분통이 터져오르면서 그대로 달려들어 놈들을 물어뜯기라도 하고싶었다.

하지만 두손목에 수갑을 찬데다 차창일과 한끈으로 묶어져있으니 도저히 마음대로 움직일수가 없었다. 또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낯짝이 떠오르면서 눈앞이 아뜩했다.

(이것도 그놈의 모략이 아닐가?… 아, 내 정녕 동북땅에 들어서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마는가?)

막 태질이라도 하고싶었다.

한편 아무리 날고 뛰는 놈들이라 할지라도 차창일과 단둘이서 작전한 일을 이놈들이 어떻게 알고 숯구이막으로 달려들었을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제밤 어데론가 급히 달려가던 놈들이 생각났다. 그중 몇놈

이 이 산판을 헤매다가 초막을 발견한건 아닐가?
아니, 아니야.
방금 퉁방울눈놈이 지껄인 수작을 보면 놈들은 밤새껏 눈속에 잠복해있은게 분명했다.
하다면 내가 온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는게 아닌가. 그래서 혼자 밤을 새우는 차창일을 까딱 다치지 않고 기다렸단 말인가?
돌연히 국내공작원 강동지와 박상이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놈들의 잠복에 걸렸다던 일이 눈앞을 아찔하게 했다.
같은 수법, 같은 방법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움직임까지 그렇게 낱낱이 알고있는 놈은 과연 어떤 놈일가?
문득 어제저녁 너럭돌앞의 하얀 눈판에 차창일이 매골로 들어오는 길을 그려보였던 일이 생각났다. 그것이 놈들의 눈에 띄운것은 아닐가?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순간에 다 떠올랐다.
주인집내외에게 한 당부와 인사, 한영옥이 대문밖에까지 따라나오던 모습, 순철의 내외와의 작별… 초저녁부터 광산마을이 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며 달려가던 수비대놈들과 당상갱쪽에서 거들먹거리며 내려오던 헌병대놈들… 나어린 보초병까지 다 떠올랐다.
만약 헌병대나 수비대에서 이미 알고 움직였다면 굳이 초저녁부터 그렇게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차창일이나 자기가 무슨 큰 인물이라고.
통닭이며 술이며 마른음식들까지 말짱 들짱을 낸 놈들은 만족스레 입언저리를 씻으며 일어났다.
차창일과 장철석은 초막밖으로 끌려나갔다.
날이 다 밝고 동쪽의 거무틱틱하던 산봉우리너머에서는 아침해가 떠오를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걸어!》
놈들은 또 총창으로 위협했다.
한놈이 앞에 서고 두놈은 뒤에서 몰아댔다.

어쩔수없이 걸어야 했다.

《창일이,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은 바로 차려야 한다는 말이 있소.》

장철석이 눈길에 비칠거리는 차창일에게 귀띔했다. 창일은 좀 의아해하더니 인차 고개를 끄덕였다.

눈길은 몹시도 미끄러웠다. 몇번이나 둘이 한덩이가 돼서 딩굴었는지 몰랐다.

그러면 앞뒤놈들이 달려들어 꽥꽥거리고 총탁이 날아들군 했다. 등어리가 얼얼했고 얼굴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들은 몇걸음만에 또 넘어졌다.

결코 눈길이 미끄러워서만이 아니였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였다.

이대로 광산으로 끌려내려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한인준, 순철이, 영옥이…

이놈들이 정말 어떻게 알고 이 골안에 나타났을가 하는 생각에 또 가슴이 탔다.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퉁방울눈놈도 그래 다른 두놈도 어인 까닭인지 차창일이 보다는 자기한테 더 관심을 두는게 분명하다는 생각이였다.

그래, 분명 놈들의 눈길은 나한테 더 집중됐어.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행동을 이미 아는 놈이 있은게 확실하다는것이 아닌가.

차창일이 저 사람을 미행하던 놈이 있은건 아닐가?

생각할수록 눈앞에는 점점 더 몸서리치게 이발을 갈군 하던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낯짝이 얼른거렸다. 설마하는 생각과 함께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도리를 저어도 그놈의 낯짝이 더 크게 확대되는것은 어인 일인가?

장철석은 문득 자기들의 행동이 옳았던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하였다.

또 한인준의 얼굴이 눈앞을 꽉 채웠다.

내가 왜 그와 만나지조차 않고 서둘렀던가 하는 생각에 가슴

이 째지는것 같았다.

분명 무엇인가 속히우고 얼리운것 같은감에 속이 거북스러워났다.

아, 한인준이 이제 이 일을 안다면 뭐라고 할가.

저도모르게 그자리에 우뚝 섰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한인준의 얼굴과 함께 이번엔 혜영의 얼굴이 눈뿌리를 아프게 지졌던것이다.

놀라움과 실망, 안타까움이 가득 실린 얼굴이였다.

이젠 영영 만나보지도 못하는게 아닐가? 혜영이 그 당자는 물론 그의 어머니와 동생도 영영…

그자리에 콱 어푸러져 언땅에 이마라도 짓쫓고싶었다.

그때였다.

난데없이 어디선가 땅! 하고 야무진 총소리가 울렸다. 읔!— 하는 비명과 함께 앞에 섰던 놈이 그자리에 풀썩 꺼꾸러졌다.

때를 같이하여 산판을 쩌렁 울리는 웨침소리.

《철석이, 창일이, 엎드리라!》

장철석은 본능적으로 눈속에 몸을 콱 던졌다.

창일이도 눈우에 어푸러졌다.

당황한 두놈도 그자리에 넙적 엎드렸다. 무턱대고 어림짐작으로 땅땅 총질을 했다.

장철석은 그때에야 오른쪽 릉선의 아름드리소나무와 참나무들 사이로 날래게 자리를 옮기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두사람을 알아보았다. 색날은 밤색모자가 눈에 익었다. 한인준과 리순철이였다.

한인준의 손에 권총이 쥐여져있었다.

리순철이도 무엇인가 손에 들었다. 단단한 참나무몽둥이였다.

놈들도 그것을 알아보자 한인준을 향해 집중사격을 했다.

퉁방울눈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껑충 올리뛰였다가 인차 두눈을 까뒤집으며 쓰러졌다.

혼자 남은 마지막놈이 벌떡 일어나서 맞은켠 산릉선을 향해 냅다 뛰였다.

한인준이 비호처럼 뒤따랐다.
끝내 그놈도 한인준의 총에 쓰러졌다.
놈이 쓰러졌건만 한인준은 기어코 그놈에게 또 한방을 안기고야 돌아섰다.
그사이 리순철이 장철석에게로 달려왔다.
이미 부산에서부터 낯을 익혔던 칼로 포승줄을 끊고 앞에 섰던 놈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수갑의 열쇠도 찾아냈다.
아직도 꿈을 꾸는건 아닌가싶어 멍하니 서있기만 하던 철석이 순철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차창일이도 무엇이라 목메여 부르짖으며 순철이를 덮쳐안았다.
《형님!》
《순철이!》
《아!》
울음같은 소리가 터졌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어떻게 여길?》
장철석이 순철을 놓지 않은채 그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물었다.
순철이도 철석을 붙안은채 목메인 소리를 했다.
《인준형님이 막 나한테 달려왔습니다. 영옥이한테 말을 듣구. 나두 다 말했지요. 했더니 그 형님이 당장…》
장철석은 고개를 버쩍 들었다.
마지막놈까지 씨원스럽게 쏘아눕힌 한인준이 눈가루를 날리면서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인준동지!》
장철석이 그앞으로 달려나갔다.
《철석동무!》
한인준도 눈길을 차며 마주 달려왔다.
바로 그때 예상밖의 또 한방의 총소리가 터졌다.
힘차게 달려오던 한인준이 우뚝 굳어졌다.
《인준동지!!》
장철석이 급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한인준은 앞으로 폭 쓰러졌다.

《형님!》 차창일이도 아연한 소리를 치며 한인준에게로 달려갔다.
등뒤에서 또 총소리가 났다.
순철이가 어느새 퉁방울눈놈한테 달려들어 장총을 빼앗아들고 연거퍼 방아쇠를 당겼던것이다.
아직 숨이 채 넘어가지 않았던 그놈이 끝내 한인준을 쏘았던것이다.
땅 땅…
눈에 불이 펄펄 이는 순철이는 마지막탄알까지 깡그리 다 그놈한테 퍼부었다.

9

한인준은 치명상이였다.
모두들 너무 억이 막혀 그를 붙안고 몸부림을 쳤다.
한인준은 얼마후에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일어나려고 안깐힘을 썼지만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가쁜숨만 힘들게 몰아쉬였다. 그는 장철석과 차창일의 손들을 꼭 마주쥐였다. 무슨 말인가 하고싶은데 혀가 잘 돌지 않아 안타까와했다.
아침해가 퍼그나 떠올랐다.
온통 눈천지의 산중에 쏟아지는 해별은 더 밝고 더 찬연해보였다.
바람 한점 없었다.
쏟아져내리는 해별도 무성한 나무숲도 너무나 뜻밖의 일에 숨을 죽이는가싶었다.
한인준이 드디여 장철석에게 의지하며 반쯤 일어나앉았다.
천천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나서 리순철에게 말했다.
《총소릴 냈으니… 주변에 또 놈들이 있지 않겠는지… 한번 살펴주게.》
《예.》

대답은 했지만 순철은 선뜻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진통이 더해지는지 입술을 꽉 앙다물고있던 한인준이 말은 못하고 어서 그래달라고 독촉하듯 순철에게 눈짓을 했다.
순철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번이고 뒤를 돌아다보며 오른쪽 릉선으로 올라갔다.
한인준은 차창일에게도 같은 뜻의 눈짓을 했다.
《형님!》
차창일이 울먹이며 불렀다.
한인준은 알릴듯말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일없네. 어서!》
목소리는 낮으나 눈빛은 엄했다.
장철석은 비로소 한인준이 무엇인가 자기와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싶어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차창일에게 어서 떠나라고 눈짓을 했다.
눈속에 너부러져있는 놈들에게서 총 한자루를 나꿔채 든 차창일이 순철이와는 반대쪽인 왼켠릉선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릉선을 향해 퍼그나 올라갔을 때에야 한인준은 가슴안쪽에 손을 넣더니 자그마한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듯 하여 수첩장에 또박또박 글자를 썼다.

나의 대리인을 보냅니다.
한—백.

장철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인준동지!》
철석은 저도모르게 웨치듯 불렀다.
한인준은 무슨 뜻인지 고개를 한번 젓고는 수첩과 만년필을 장철석의 손에 꼭 쥐여주며 말했다.
《**김일성**장군님부대에서…왔소. 동무얘길 다 했소.》
이어 그는 극비의 련락지점과 날자, 시간, 상면방법을 알려주었다.

장철석은 비로소 한인준이 영옥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갑작스레 떠났던 곳이 어디였던가가 짐작되였다. 목안엔 불덩이가 걸리는것 같았다.

(인준동지!)

철석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불렀다.

두눈에 눈물이 콱 실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도 나가지 않았다.

(아, 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사죄를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었다.

한인준이 또 몸을 뒤채려고 힘을 썼다.

《인준동지, 이러지 마십시오. 진정하십시오.》

《난 일없소. 철석동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듣소. 우리 조직이 로출된건 틀림없소. 하지만 놈들은 아직 많은걸 모르고있소. 비밀… 비밀은 생명이요.》

한인준이 무척 힘겨워했지만 장철석은 만류할수가 없었다. 아니, 설사 만류한다고 해도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한인준이 아니였다.

한인준은 한참이나 숨을 톺고나서 그때까지 몸에 품고있던 권총을 꺼내여 철석의 손에 쥐여주었다.

《철석동무, 이건 강동지가 나한테 준거요. 이제부턴 동무가… 여기 세자루의 총은 산으로 보내오. 그리구 철석동무, 유격대공작원과의 련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철석동무가 직접해야 하오. 놈들이 우리 조직을 알면서도 왜 가만있는가?…보다 큰것을 노리기때문이요. 그게 뭐겠소. 비밀근거지와 무장대, 특히는 장군님부대의 공작원이요. 우린…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오. 이것이 우리 조직의 당면임무요. 방풍림… 그렇소. 비밀근거지를 목숨으로 결사보위하는 억세고 튼튼한 바람막이가 되여야 하오.》

한인준은 점점 더 숨이 차 했다.

장철석은 너무 당황하고 급해서 뭐가 뭔지 통 걷잡을수가 없었다.

한인준이 오히려 제편에서 정신차리라고 일깨워주듯 장철석의 손을 힘있게 쥐며 계속했다.

《철석동무, 이제부터 놈들과의 싸움은 더 힘겨워질거요. 철석동무도 얘길했지? 놈들이 왜 잠자코 있는가? 분명 무슨 꿍꿍이를 하고있다고… 옳게 보았소. 총소리없는 격전, 정면에 드러나지 않는 싸움… 지략과 지략의 싸움이요. 고요한 격전!

…총소리 울리는 격전보다 몇배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요. 철석동무, 절대로 덤비지 말구…장군님만 믿구…절대적으로 믿구… 비밀근거지를 지키는 일은 곧 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을 수행하는… 장군님을 지키는… 아!》

한인준은 정신을 잃었다.

장철석이 한참이나 어깨를 흔들어서야 그는 다시 혼미하게 의식을 차렸다. 장철석을 보는 두눈에 뜨겁고 절절한것이 끓고있었다. 그는 철석의 손을 꽉 쥐며 입을 열었다.

《철석동무, 내가 동무를 잘 돕지 못했구만. 일이 이렇게까지 될줄을 몰랐거든. …철석동무가 기어코 강을 건느려 했다는걸 알구 내 자기반성을 심각히 했소. …이제라도 명심하오. 여기도 장군님의 전사들이 있어야 할 전역이요. 조국해방작전전역…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싸우면 다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거구 장군님전사의 본분을 다하는거요. 내 동무를 꼭 훌륭한… 장군님의 훌륭한…》

그는 또 정신을 잃었다.

장철석은 돌미륵처럼 굳어져 한인준을 지켜보기만 했다. 방금 자기반성을 심각하게 했다는 그의 말이 백가지 천가지 뜻으로 집약되면서 천만근의 철퇴가 되여 뒤통수를 후려치는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떠올라 하는 말이 아니였다. 언제든지 꼭 해주고싶었던 말, 반드시 해야겠다고 벼르어오던 말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버쩍 들었다.

내 정녕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생각에 숨이 꺽 막혔다.

장철석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인지 한인준이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누구인가를 찾았다. 장철석은 대답대신 차창일과 리순철이 올라간 산등성이를 살폈다.

한인준이 힘겹게 이었다.

《영옥이…영옥이를 부탁하오.》
《예. …걱정…》
장철석은 목이 너무 메여 뒤말을 잇지 못했다.
한인준의 얼굴에 웃음이 비꼈다. 철석을 욕심스레 보며 더 환히 웃었다.
《철석동무가 부럽구만.》
《예?!》
한인준은 알릴듯말듯 고개를 저으며 장철석의 손을 더 힘있게 쥐였다.
《철석동무, 기뻐하오. … 이제 동무가 만날 사람은…동무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는 무척 숨이 가빠하였다.
이어 가까스로 진정하면서 마지막힘을 모아 입을 열었다.
《기다리고있소. 동무를 꼭 데리고오라고…직접 만나겠다고…》
그는 잡았던 손을 놓았다.
골바람이 터지며 눈사태가 쏟아졌다.
울울창창한 소나무가지들에 쌓였던 눈무지들이였다.
딩굴며 어푸러지며 두사람이 달려내려왔다.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눈사태, 눈보라!
언땅을 치며 통곡하는 두사람앞에 장철석은 결연히 일어섰다.
그의 두손에는 방금 넘겨받은 권총이 무겁게 쥐여져있었다.
또다시 쏟아지는 눈사태! 온 골안이 뽀얀 눈보라속에 잠겼다.
우— 숲이 몸부림쳤다. 산악이 노호했다.
그 노호속에 장철석은 하나의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방풍림… 방풍림이 돼야 하오!!》
뒤이어 울리는 절절한 음성.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싸우면 다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거구 장군님전사의 본분을 다하는거요!》

제 4 장

1

1945년은 지구가 두쪽으로 갈라졌다고 할만큼 거창한 사변의 해였다.

그해로부터 사회주의 새 진영이 제국주의세력과 당당히 맞서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인류의 리상사회에로 줄기찬 행진을 시작하는 력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던것이다.

허나 그해의 양력설이라고 류다른 점은 없었다.

례년과 다름없이 북방의 고산지대에는 12월 31일 밤 눈이 펑펑 내렸다.

새해의 아침에는 바람이 일고 눈보라가 앞을 가릴수없이 산판을 덮었다.

말그대로 림해설원의 눈풍경을 이루었다.

상풍광산마을도 같았다.

다르다면 올해 양력설의 아침해는 서쪽에서 떠오르는것이 아니냐고 광부들은 물론 온 시가지사람들이 놀라 말하는 일이 한가지 생겼는데 광산에 이틀동안 휴식이 선포된것이였다. 12월 31일 저녁 전에없이 도경찰서의 새까만 경호차를 타고 다시 나타났던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무슨 바람이 들었던지 그렇게 령을 내리고 돌아갔다는것이였다.

광산의 합숙에서는 소금물에 절인 무우나 고비, 병풍잎만이 오르군 하던 식찬그릇 한옆에 쩌들긴 했어도 고등어도 한토막씩 올려놓았다.

시뿌연 탁배기도 한사발씩 떠주었다.

휴식선포의 소식을 듣자바람으로 왁작 열들이 난것은 시가지의 식당과 술집, 상점들이였다.

처마밑에는 제법 축등도 매달고 소나무도 세워 한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기에 여념이 없었다.

장철석은 광산과 시가지에 돌변한 뜻밖의 이 명절분위기는 감감모른채 광산에서 먼 원시림의 귀틀집에서 이틀째 봉빈이와 함께 지내고있었다.

10년간의 눈물겹고 목메인 회포부터 나누었다.

한인준이 알려준 극비의 련락장소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가슴조이며 상봉의 그 시각을 기다리던 일을 생각하면 장철석은 지금도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틀림없이 벌목공차림으로 나타난 국내공작원이 김봉빈일줄이야 상상인들 했으랴.

한인준이 반가운 사람이라고, 기다리고있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 알려준 공작원이 정녕 북주하양주공장의 그 봉빈일줄이야!

《날 모르겠소? 봉빈이요, 김봉빈!》하며 제먼저 달려와 와락 그러안았을 때에도 잘못보았는가 하여 제 눈을 의심했었다.

키도 몸집도 별로 달라져보이지 않는 그였다.

영채로운 눈과 마주볼 때면 웃음기부터 머금군 하던 입모습도 여전했다.

중국동북의 무변광야에서 온갖 시련을 과감히 헤쳐온 항일혁명군의 체취와 함께 틀지고 세련된 몸가짐만이 얼굴에 온통 석탄칠을 해가며 소년직공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군 하던 시절의 그 봉빈이가 아니구나 하는 이름할수 없는 무게를 느끼게 했다.

목메이게 반갑긴 하면서도 몸이 굳어져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봉빈이는 더 허물없이 그때일부터 상기시켰다.

《생각나오? 영무, 관길이, 기철이… 참, 중국소년 〈바퀴〉… 〈니쓰 장란즈란바, 니쩐 쌍요쓰마?〉(《바퀴》새끼, 너 죽어보겠니?)》

봉빈이는 능란하게 중국말을 번지며 웃었다.

장철석이 일하는 알탄작업장으로 봉빈이가 들어온지 며칠 안되는 11월초 어느날의 일이였다.

알탄빚는 기계가 고장나서 그날은 태반의 소년공들이 물에 축축히 적셔 개여놓은 석탄무지들에 빙 둘러앉아 손으로 알탄을 빚고있었다.

중국동북지방의 겨울날씨는 맵짜게 찼지만 어디서나 한지에서 딩굴던 소년공들은 얼음이 서걱거리는 물추긴 석탄을 맨손으로 주무르면서도 그게 무슨 대수냐는듯 웃고 떠들며 별별 장난을 다했다.

어디선가 왕밤알만한 알탄덩이 하나가 날아와 김봉빈의 옆에 앉은 중국소년의 이마빡을 때렸다. 뜻밖의 알탄세례를 받은 중국소년은 눈을 뚝 부릅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석탄무지너머 맞은쪽에 앉은 직공들속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는 소년이 있었다.

귀바퀴가 류달리 커서 《귀바퀴》로 불리우던, 별명이 《귀》자를 떼버리고 그저 《바퀴》로 통하는 익살스럽고 장난이 여간 세차지 않은 중국소년이였다.

후에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은데 의하면 그날 그 중국소년은 새로 들어온 봉빈이가 어떤 친구인가를 중떠보기 위해 일부러 그한테 알탄덩이를 던졌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꿋꿋하게 얼어드는 손이라 뜻대로 되지 않아 알탄덩이는 그만에야 봉빈의 옆에 앉은 또 다른 중국소년의 이마빡으로 날아갔던것이였다.

장난꾸러기 《바퀴》가 알탄덩이를 던진게 분명하다는것을 안 중국소년은 당장 자리를 차며 일어났다.

《니쓰 장란즈란바, 니쩐 쌍요쓰마?》

그는 주먹만한 탄덩어리를《바퀴》한테로 던졌다.

너무 덤벼친 탓에 그옆의 기철이의 무릎우에 철썩 떨어졌다.

기철이라고 얌전해있을리 만무했다.

근 80여명의 소년들이 순간에 와 들고일어났다. 크고작은 석탄덩어리들이 하늘을 덮었다.

얼굴이며 가슴, 잔등들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알탄덩이들에 범벅

투성이가 되였다.

누군가《감독 온다!》하고 소리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런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입직 첫무렵에 있었던 일이 인상에 남아있는것처럼 봉빈이한테도 그날에 있었던 일이 제일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

비록 힘겹긴 했어도 철부지시절의 천진한 세계를 돌이켜주는 그 말에는 장철석이도 소리없이 웃었다.

한번 웃고나니 몸이 활 풀리여서 저도 힘껏 봉빈이를 그러안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북주하양주공장의 알탄작업장에서마냥, 물사발이 땡땡 얼어붙던 합숙방의 때절은 모포속에서마냥 아주 허물이 없이 귀틀집에서 함께 자고 먹으며 지냈다.

무슨 말인들 안나누었으랴.

이야기는 주로 봉빈이가 하고 장철석은 처음 글자를 배우는 소학생처럼 눈이 초롱초롱해서 들었다.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구상과 전민항쟁방침, 그 방침을 받든 항일유격대원들의 령활한 투쟁성과와 국내항쟁조직들의 활동소식… 바로 장군님의 그 방침을 받들고 곽영무도 국내에 나왔다는 말에 장철석은 가슴이 막 터지는것 같았다.

《숙감말이요?… 그 영무가 정말 여기로 왔어요?》

《이제 만나게 될거요.》

《야, 이거…그가 정말 장군님을 모시고 싸웠어요?》

《한다하는 기관총수, 유격대지휘관이요. 나보다도 더 많이 장군님곁에 있었지. 소할바령회의에도 우린 같이 참가했댔소.》

《야, 이거 정말!》

장철석은 《야, 이거 정말!》을 연방 곱씹으면서 두손으로 제 무릎을 썩썩 비비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당장 부대를 인솔하시고 만세소리 하늘땅을 진

감하며 국내로 들어오시는것만 같았다.

3.1인민봉기때와는 대비할바 없는 기세로 삼천리 이 땅이 산악처럼 와와 일어서는것 같기도 했다.

얼마나 희망의 등불, 등대처럼 바라보며 그리며 기대하며 의지해온 장군님이신가. 일제놈들에게 짓밟힐대로 짓밟히며 천대와 멸시, 구박과 압제의 구두발밑에서 나라잃고 살길잃은 설음이 골수에 응어리진 우리 겨레모두가 그러했듯이 중국동북산야의 사나운 눈비와 광란의 폭풍을 다 맞으며 막돌처럼 굴리우던 장철석에게 있어서도 **김일성**장군님은 마음속의 유일한 구세주였으며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온갖 걱정을 일거에 다 풀어주실 하늘이시였다.

정말이지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었을 때의 흥분과 감격이 어떠했던가.

국내 조선땅안에서의 총성!

멀지도 않은 갑은 도안의 현준혁, 리룡진…평양경내와 남포, 구월산일대의 반일조직들의 활동소식들은 또 얼마나 그의 가슴을 들뛰게 했던가.

김일성장군님께서 함흥의 어느 리발소에 태연히 들리시여 리발을 하시여 일제경관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며 천지조화의 도술로 가랑잎 한개를 오룡차처럼 만들어 칠색의 령롱한 구름에 휘감아타고 평양과 서울상공은 물론 일본 도쿄의 하늘까지 유유히 돌아보신 후 백두산천지에 내리시여 시원스레 몸을 씻으셨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그 흥분과 격정을 더한층 고조시켰다.

그런 날, 그런 이야기의 밤이면 또 남모르게 내 왜 그때 김봉빈이며 곽영무와 함께 가지 못했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군했었다.

벌목공차림으로 옹근 하루나 허물없이 저와 함께 한방에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있었지만 봉빈이가 아득한 산상에 올라서있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영무의 모상도 그랬다.

한편 무인지경의 깊은 산판에서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길을 찾은 때와도 같은 환희가 북받쳤다.

드디여 나도 이제는 오매불망 심신을 태우던 백두산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에 이끌리우게 되는구나 하는 기쁨에서였다.

정녕 그이께서 10년동안 애타던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여 다른 사람도 아닌 김봉빈과 옛 숙감 곽영무를 친히 나한테로 보내신건 아닐가.

여기도 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전역이라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싸우면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것이며 장군님 전사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라고 마지막숨을 톺으며 하던 한인준의 말이 귀전에 울리면서 얼굴이 뜨끔했다.

정말이지 내 무슨 경거망동을 했는가. 그 후과로 귀중한 동지가 희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에 온몸이 졸아드는것 같았다.

장철석의 그 심정을 헤아린듯 김봉빈은 저녁녘부터는 한인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가 한인준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있었던지 장철석은 마치도 그가 한인준과 오래동안 같이 싸워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인준이 몸은 비록 국내에 있었어도 그 역시 오랜 기간 항일유격대에 있었던것 같은감도 들었다.

하긴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의 국내지하공작원 강동지의 지도를 받은 한인준이 아닌가.

한인준에 대한 이야기는 곧 국내지하투쟁에서의 원칙과 방법,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쟁방향으로 이어졌다.

《광산에 놈들이 이미 로숙한 밀정들을 깊숙이 박아넣은것 같다는 한인준동무의 말이 틀림없는것 같소. 말하자면 조직의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동무들의 곁에 바싹 말이요. 강동무도 그렇지만 이번에 동무들이 또 매복에 걸렸던 일 역시 우연한 일갈질 않거든.》

김봉빈은 한동안 말을 끊고있다가 더우기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한인준동무가 지하투쟁을 참 잘했소. 침착하고 결단성이 있고…그가 얼마나 예견성있고 전망적이였는가 하는건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영옥이말이요. … 그래, 10년전의 그 〈미쯔꼬〉를 반일지하

조직성원으로 정식 받아들이지 않은것만으로도 알수 있지 않소.》
장철석은 놀랐다.
그는 영옥이는 응당 조직성원이 되였으리라 생각하고있었다.
영옥이가 절대로 그런 내색을 안하는것은 조직성원들의 움직임은 일체 비밀에 붙여야 하기때문에 그러는줄로 알고있었다.
저도 조직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었다.
한데 한인준이 그를 조직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것은 무슨 말인가?
《한인준동무의 말인즉 영옥동무를 설복시키느라 무척 땀을 뺐다고 하오. 만약의 경우 조직이 로출됐다면 어떻게 하겠소. 언제인가는 틀림없이 놈들의 검거소동이 일어날텐데 로출된 조직성원들은 일부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조직은 굳건히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소. 조국해방의 날도 멀지 않았는데 말이요. … 한인준동무는 로출된 조직뒤에 엄밀히 위장된 새 조직을 내올 계획이였다고 하오. 진짜 과감히 투쟁을 벌릴 새 조직을…그를 위해 영옥이처럼 준비시켜나가는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소. 참 아까운 동무를 잃었거든.》
김봉빈은 또 한동안 말을 끊었다
장철석은 몸둘바를 몰랐다. 아까운 동지를 잃었다. 아까운 동지…정녕 그 아까운 동지가 누구때문에 희생됐는가.
애석한 마음을 누르면서 퇴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밤하늘의 뭇별들에 눈길을 보내고있던 김봉빈이 여전히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인준동무를 비롯해서 국내반일조직들의 투쟁에 대해 다 알고계시오. 물론 강동무를 비롯한 국내정치공작원들을 통해서요. …강동무는 사령관동지께서도 무척 신임하시던 지하공작원이였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날이 가까와오는데 오래동안 함께 싸워온 훌륭한 동무들이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너무 아파 잠을 못드신다고 하셨소.》
장철석은 점점 더 고개를 무겁게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알고계신다는 사람!

강동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활동한 조직책임자로서의 한인준, 그의 웅심깊은 속은 모르고 투쟁하지 않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같지 않느냐고 우둘쩍거리군 하던 일이 더우기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왜 한마디 귀띔이라도 못했을가?

장철석은 고개를 숙인채 물먹은 소리로 말했다.

《한인준동지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도 참으로 귀중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나날이 더 가슴이 터지는것 같고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장철석은 눈물을 삼키며 한인준이 이제라도 명심하라고 절절히 하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김봉빈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다 듣고나서도 한참이나 동안을 두었다가 천천히 이었다.

《장군님 전사의 본분이라…참 뜻깊은 말이요. 실은 나도 그렇고 우리 항일유격대원들 누구나 다 장군님곁에 가까이 있고싶은건 하나같은 심정이요. 하면서도 공통된건 뭔가. 동만, 북만, 남만, …광활한 중국동북땅 곳곳, 여기 국내곳곳에 나와 활동하는 전사모두는 항상 장군님곁에 가까이 산다는 그 심정을 안고있다는거요. 한인준동무가 말한것처럼 혁명전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장군님의 뜻을 따르고 장군님을 받드는것이라면 최상의 영예이고 영광이라는거요. 말을 듣고보니 철석동무가 생각은 훌륭했는데 그 참뜻을 잘 모른것 같거든.》

《명심하겠습니다. 뼈에 새기겠습니다.》

장철석은 더 아프게 입술을 짓씹고나서 계속했다.

《그리구 이번에 또하나 신중히 찾은 교훈이 있습니다. 혁명은 소심해서 우물쭈물해도 안되지만 우둘쩍거리면서 헤덤벼쳐도 안된다는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맞서고있는 왜놈들은 원래부터 교활하고 깜찍하기 그지없는 놈들인것만큼 매사건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겁니다. 이걸 이미 채심했더라면 한인준동지를 잃지 않는건데…》

장철석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나서 계속했다.

《한인준동지는 마지막으로…우리 광산의 혁명조직은 여기 비밀근거지의 방풍림이 되고 성벽이 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놈들의 발악적인 음모책동을 막아내는 바람막이…그래야 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구상이 실현된다고말입니다.》

봉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막이라… 옳소. 비밀근거지의 성벽, 그건 한인준동무자신이 스스로 맡아나선것이였소. 놈들이 조직의 뒤를 밟았다면 오히려 그놈들을 다 광산의 깊숙한 땅굴속으로 끌어다 몰아넣겠으니 무장대를 더 와짝 꾸려놓으라는것이였지.

참, 철석동무 얘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오. 좋은 동무를 만났다고. 하 그런데 난 한인준동무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북주하 양주공장의 그 알탄작업장친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댔거든. 동무가 살아온 경위랑 이름이랑 듣고서야 알아봤소.》

장철석은 눈굽이 뜨끔했다.

(인준동지!)

그는 고개를 버쩍 들었다.

《공작원동지!》

철석은 저도모르게 불렀다.

봉빈은 탓하지 않았다. 영채로운 눈빛이 더 강렬하게 번쩍거렸다.

장철석은 그냥 울먹이듯이 말했다.

《봉빈동지, 한인준동지한테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난 지금껏 북주하에서 봉빈동지랑 따라가지 못한걸 내내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기어코 다시 강을 건너가려 했던것입니다. 사실 난 봉빈동지를 만난 순간 또 여기 무장대에라도 들어오고싶은 생각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한인준동지의 충고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

장철석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나서 계속했다.

《한인준동지가 알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결정적으로 그 생각을 돌리겠습니다. 한인준동지의 당부대로 오직 하나의 마음, 방풍림이 되겠습니다. 구실을 바로하겠는지는 모르

겠지만 내 힘껏 한인준동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철석동무!》
봉빈이도 기뻐서 철석의 두손을 힘있게 모아잡았다.
그의 눈앞에는 문득 한인준의 기쁨이 어렸던, 확신에 넘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장철석이 누구보다 **김일성**장군님을 흠모하며 따르려는 마음이 뜨겁다고, 하기야 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고 축지법을 쓰면서 싸우시는 중국동북지방 바람을 직접 맞으며 자란 동무가 아니냐고 믿음을 담아 말하던 모습이였다.
(그래, 한인준동무가 옳게 보았어. 아무렴 장철석이도 북주하양주공장의 그 폭풍속에 직접 뛰여들었던 동지가 아닌가!)
그는 다시한번 모아잡았던 두손을 뜨겁게 흔들었다.
귀틀집 들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밀림의 밤은 고요하기 이를데 없었다.
김봉빈이 특히 힘주어 강조하였다.
《전반적정세와 상풍광산일대의 현상황으로 보아 놈들이 무엇인가 매우 위험한 모략을 꾸미는것 같다는 철석동무의 말이 옳은 것 같소. 놈들의 침묵! 고요!… 이런 때 우린 어떻게 해야겠는가? 차창일의 파업투쟁이 무모한 방법이였다고 하는 상풍광산지하조직의 견해 역시 백번 옳았소. 그것만 봐도 한인준동무가 조직의 투쟁을 정말 옳게 이끌었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소. 그 모범과 투쟁경험을 본받아야 합니다.》
김봉빈은 한참이나 더 신중한 표정으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 이었다.
《현 실정에서 우리는 적들의 〈고요〉를 〈고요〉로 맞받아 짓부셔야겠소. 침묵전에 침묵으로, 이를테면 지략과 지략의 대결이랄가…총적과제는 무엇인가? 두무봉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구상을 비롯하여 사령관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해방최후작전에 합류하기 위한 준비—즉 이 랑림산일대에서의 무장폭동준비를 철저히 완성하는거요.》
김봉빈은 바로 그 력사적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조국땅으

로 나오게 됐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뜻있게 믿음의 미소만 지어보이면서 계속하였다.

《우린 강동무와 한인준동무가 이미전에 목숨바쳐 마련해놓은 피어린 투쟁성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야겠소. 난 나날이 더 그들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이오. 그들처럼 우선 조직을 더욱 확대해서 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겠소. 일단 유사시가 도래하면 일거에 들고일어날수 있는 핵심력량… 다음은 무장폭동준비요. 마지막결전에서 맨주먹만으로는 절대로 이길수 없소. 최후발악을 하게 될 놈들이거든!》

계속하여 그는 무장폭동준비를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하고나서 특히 중요한것은 비밀근거지에 작탄을 자체로 만들어낼수 있는 병기수리소와 야장간을 차려놓은것만큼 광산에서는 작탄제작에 필요한 화약과 도화선, 뢰관을 전적으로 말아 보장해야겠다고 하였다. 아직 무기를 많이 마련하지 못했기때문에 무장대의 힘있는 무기는 자체로 만드는 작탄이라는것이였다. 작탄제작에 필요한 무쇠와 쇠줄을 비롯해서 근거지안의 무장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물자들과 자재들은 목재소를 비롯하여 린근 조직망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니 이제부터 광산조직에서는 화약과 도화선, 뢰관만 전적으로 맡아달라는것이였다.

《알았습니다. 제 힘껏 해내겠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해내겠습니다.》

장철석은 흥분해서 자리를 차고일어나며 결의했다.

《힘이 납니다. 이젠 주저할것두 걱정할것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봉빈은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일부러 꾹 눌러앉으며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평시에는 조용하고 소심한것 같지만 일단 불이 달리면 이마가 깨여지는줄도 모르고 욱하는 성미라고 하던 한인준의 말이 생각나서였다.

조용히 장철석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소. 어서 앉으라는데!》

김봉빈은 무장폭동준비에서 작탄생산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금

력점찍어 강조하고나서 화약과 도화선해결의 기본방도를 조직성원들을 발동하여 찾으라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초창기 부녀회원들과 로인들, 아동단원들까지 떨쳐나 적들의 무기를 빼앗은 경험들을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했다.

들창문 바깥턱에는 흰눈이 절반나마 쌓였다.

사연도 많고 뜻도 깊은 밤이였다.

1945년 새해의 첫날 밀림의 첫밤은 그렇게 깊어가고있었다.

2

이튿날 1월 2일,

장철석은 그날저녁까지는 광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어제밤에 이어 오늘아침녘에도 오랜 시간 더 봉빈공작원과 마주앉아있었다.

새벽녘부터는 놈들의 동향, 동태분석에 초점을 모았다.

두사람을 더 긴장시키는것은 강동무와 장철석이네의 체포음모의 실패, 한인준의 희생과 세놈의 수비대놈들의 죽음 등의 사변적인 일들을 놈들이 일체 모른척 하고 침묵을 지키고있는 현상황이였다.

제마음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루밤새에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광산과 광부들의 생활상특성때문일가 하고 생각하기에는 놈들의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선 지금으로서는 너무도 당치 않은 일이였다.

놈들의 침묵, 고요의 모략과 내막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놈들의 목표, 과녁이 비밀근거지이며 더 나아가서는 항일유격대의 사령부라는것은 분명한데 당면하여 벌리려는 그 음모가 무엇인가?

명백한것은 그 모략의 주동축은 한인준까지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그의 곁에까지 바싹 붙어있던 로숙하고 세련된 밀정이라는

것이였다.

밀정!… 정녕 어떤 놈인가?!

놈이 한인준의 곁에 바싹 붙어서 맴돌았다면 장철석이라고 모를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대책은 무엇인가? 김봉빈과 장철석은 오래동안 그 묘안과 묘책을 진지하게 론의했다.

이제는 장철석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알았다.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최후작전에 합류할 무장폭동준비!

몸은 비록 조선경내에, 랑림산줄기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광산에 있어도 **김일성**장군님의 전민항쟁구상을 받들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선의 한 위치에 섰다는 긍지로 하여 가슴이 뛰였다.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가슴은 마냥 부풀었다.

중요한것은 놈들에게 속는척 하면서 오히려 놈들을 통쾌하게 속여넘겨 형세를 유리하게 만드는것이였다.

장철석은 적들의 밀정이 이미 지하조직, 바로 자기들의 곁에 바싹 접근한 상태라면 한인준의 당초의 계획그대로 그 조직뒤에 철저히 위장된 제2의 새 조직을 내올 결심과 방안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김봉빈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봉빈은 계속하여 엄격히 검토된 동지들로써 각 갱들에 조직망을 확대하는 한편 주변조직들과의 련계도 강화할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적정의 변화에 대한 정찰과 엄격한 비밀보장문제, 뜻밖의 정황에서 긴급련락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장철석은 흥분했다. 신심이 확고했다.

봉빈은 북주하양주공장에서 헤여졌던 더벅머리소년이 10년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숙한데 놀랐다. 놀라운 그만큼 믿음이 가고 마음이 든든해졌다.

더우기 그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한것은 사령관동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흠모심과 존경이였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국

내혁명동지들의 비약적인 성장과 그런 성원들로 조직된 혁명조직들이였다.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사령관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이께서 반드시 불러오실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한것이라는 확신에 가슴이 뛰였다.

그렇다, 오늘의 우리 겨레 수천만의 동포들은 20여년전 3.1봉기의 시위자들도 아니며 광주학생들이나 평양고무공장, 부라벌의 로동자나 농민들도 아니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이미 동강의 밀영에서 조국광복회창립을 선포하신 후 10년세월 품들여 가꾸신 혁명조직체들에 의하여 우후죽순처럼 성장한 혁명의 대결전전야의 불씨들이였다.

이제 그 불씨들이 불바람을 안아보라.

철의 불바람을!

해가 밀림의 바다우로 퍼그나 떠올라서야 장철석은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귀틀집을 나섰다.

어제는 종일 바람이 일고 밀림이 설레이면서 눈송이와 눈가루를 날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렇게 기승스러웠던가싶게 산판이 조용하고 해빛이 눈부셨다.

장철석은 새삼스럽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정말 코앞에까지 와서도 찾아낼수 없는 천연요새속의 귀틀집이였다. 눈속을 헤치며 조금만 들어가도 사방이 뒤엉킨 진대나무들때문에 헤여나가기가 힘들정도의 울창한 밀림의 바다, 울울창창한 그 원시림의 바다와 험한 산 어느 골안 어느 골짜기에 무장대가 자리잡았을가?

거기에는 병실도 있고 후방창고도 있고 훈련장도 있다고 했다.

물론 무기수리소와 야장간도 그곳에 있을것이다. 작탄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총쏘는 훈련도 하고 하루일과가 끝나면 병실에 모여앉아 글도 배우고 정세토론도 한다고 한다.

한번만이라도 가보고싶었다.

허나 그 위치부터가 비밀중의 비밀이라는 생각에 장철석은 서운한 마음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장철석의 그 마음을 헤아린듯 봉빈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한참동안 그러고있다가 힘을 주련듯 따뜻이 그의 등을 밀며 말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광산지하조직의 기본과업은 비밀을 철저히 엄수하면서 조직력량을 적극 확대보존하고 무장폭동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요.》

원래가 포악스러운 일본놈들이라 제놈들이 망하게 된다는걸 알게 되면 무슨짓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래일이라도 조국해방작전이 시작되면 광산지하조직은 준비된 무장력량으로 일거에 놈들의 통치기관들부터 장악해야 한다고 했다.

《왜놈들이란 하나같이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심보가 사나와서 제놈들이 패망을 하게 되는 경우 절대로 가만히 물러나지 않을거요. 무슨 미친짓들을 할지 모른단 말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면사무소, 주재소… 놈들의 통치기관부터 무조건 타고앉아야 하오.》

헤여지기에 앞서 김봉빈은 다시금 장철석의 두손을 힘있게 잡으며 말했다.

《내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피치 못할 정황이 조성될수도 있기때문에 하는 말인데 절대로 무모한 싸움을 벌려서는 안되겠소. 철석동무자신이 한 말을 잊지 마오. 혁명은 소심해서 우물쭈물해도 안되지만 무분별하게 욱욱하면서 헤덤벼대도 안된다고 한 말말이요. 참으로 옳게 찾은 교훈이요. 그리고 밀정문제말이요. 본래 참지 못하는 족속들이기때문에 우리가 가만 있으면 반드시 제놈들이 먼저 바스락거릴거요. 거기에 각성을 높이시오. 어제밤 우리가 토론한것처럼 놈들을 역리용하여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야 하오. 다시말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활동모두는 장군님의 전민항쟁구상, 조국해방최후작전에 이바지된다는것을 명심해야겠소. … 상풍광산지하조직의 투쟁은 우리 유격대원들처럼 총소리를 땅땅 내는 싸움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혁명조직들처럼 이제 당장 적들과 정면으로 맞서 파업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싸움도 아닌것만큼 특히 더 힘이 들거요. 말그대로 특수작전! 어려운 싸움이요.》

《너무 걱정마십시오.》
장철석은 자신만만히 대답했다.
김봉빈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나서 계속했다.
《그리구말이요. 이제부터 동무의 활동을 〈참나무〉란 대호를 가진 동무가 도울거요. 〈참나무〉, 한인준동무가 각별히 품들여 키워낸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요.》
《특수회원이요?》
《그렇소. 침착하구 아주 로숙한 동무요.》
《알겠습니다.》
장철석은 더욱 신심에 넘쳐 대답하고 돌아섰다.
바람은 잦아졌지만 고산지대의 날씨는 코끝으로 얼음꼬치가 날아드는것처럼 찼다. 했으나 지정된 통로로 눈길을 헤치며 걷는 장철석은 온몸에 땀이 났다.
차츰 걸음이 떠졌다.
《참나무》,
어떤 사람일가?
한인준동지가 키워낸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라지!
언제인가 한인준이 믿을만한 사람의 통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 믿을만한 사람이 《참나무》였단 말인가?
다시금 한인준이 강동지나 봉빈공작원처럼 높이 보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공작원동지들의 지도를 받으면 나도 한인준동지처럼 될수 있을가?
하긴 나도 한인준동지를 만나서부터 이만큼 컸지.
내가 정말 한인준동지처럼 침착하게, 누가 뭐라든 끄떡않고 배심있게 조직을 이끌어나갈수 있을가?
심장이 뛰였다.
구창광산에서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얼굴이 화끈 붉어졌다.
《친목회》,
어쩌면 같은 처지의 광부들끼리 싸움까지 벌렸댔을가.
결국 이찌가와 노리아끼와 밀정놈앞에 두 조직의 조직성원들을 말짱 로출시키고 놈들의 음흉한 모략에 걸려들지 않았던가.

정말이지 철이 없었다.

놈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너무도 몰랐기때문이였다.

한인준의 웅심깊은 생각을 모르고 투쟁하지 않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갈다고 제딴의 흰소리를 치면서 여기 조직이 계속 그러면 혼자서라도 압록강을 건너가겠다고 우둘쩍거리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죄스럽고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역시 너무도 철이 없는 언동이였다.

이제는 힘이 났다. 앞이 환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구상하신 전민항쟁! 조국해방최후작전에 이바지하게 될 무장폭동준비!

당면하여 폭약과 도화선, 뢰관 구입!

목표가 뚜렷하고 투쟁과 활동방향이 명백하니 궁냥도 번쩍번쩍 트이였다.

봉빈공작원의 당부처럼 모든 방도는 조직성원들과 함께 찾아야 했다.

밀정놈을 밝혀내는 일도 그렇다.

한인준이 특수회원 《참나무》를 키워낸것처럼 우리도 빨리 믿을만한 사람들을 골라 놈들의 꼬리에 바싹 붙여놓아야겠다.

옳다! 우리 역시 놈들의 염통에!

내 기어이 한인준동지의 복수를 하리라!

철석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누구를 어디다 밀어넣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우선 어느놈이 밀정인지 알아야 우리 사람을 붙여도 붙일게 아닌가.

그는 한참후에야 다시금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지나간 일들을 더듬었다.

강동지와 박상이의 희생도 물론 그렇지만 차창일이와 단둘이서, 그것도 무성한 수림의 눈천지속에서 약속한 일을 사전에 알고 밤새껏 초막주위에 수비대놈들을 잠복하게 하였다면 그놈이야말로 귀신같은 놈이 아닌가. 옛말에는 보이지 않는 요귀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요귀같은 놈이 보이지도 않게 우리 주위를 따라 도는것은 아닐가 하는 생각에 또 가슴이 철렁하여 걸음을 멈추고 눈

바다를 둘러보았다.

사람이라면 그림자도 있으련만 그 그림자의 형체조차 알수 없으니 그놈은 과연 어떤 놈일가?

3

H시의 동쪽변두리에는 류달리 경치가 아름답고 고요하고 안침진 곳이 있었는데 시가지사람들은 그곳을 일본인거리라고 했다. 서울 남산의 총독부 고관관저들을 본따서 지은 각양각색의 일본인주택들이 널려져있었기때문이였다. 일본인주택도 주택이지만 보다는 주택지구에 채 닿기 전의 도로량옆으로 《대중주점—잇빠이》, 《빠—마댐》, 《빠찡꼬—오아시스》와 같은 간판들을 숨막힐만큼 내건, 도꾜의 어느 골목거리나 오사까나 나가사끼의 시장거리를 방불케 하는 식당, 상점, 오락장들이 줄을 서서였다.

다른 곳에서는 왁작 끓어올랐던 명절기운이 하루도 못가서 식어져버렸건만 이 거리에서는 이제 한창 절정에 이르는가보았다. 날이 어둡자 건물앞에 내건 축등들과 창문마다에서 쏟아지는 불빛때문인지 모른다.

아니, 료정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샤미센소리와 더불어 애간장을 끓이는 왜년들의 노래가락과 꽥꽥 멱따는 소리같은 사내들의 탁성, 투닥투닥 되는대로 울리는 손벽소리, 축음기판에서 울리는 류행가가 한데 범벅이 되여 더우기 그렇게 느껴지는것 같았다.

어느 집 어느 창가나 다 그렇게 불이 환하고 분주한데 유독 한 건물만은 역시 불빛은 환하지만 숨마저 죽은듯이 조용하였다. 독특한 맛을 내려는 뜻에서인지 내륙지방에는 어울리지 않게 《동해호텔》이라고 네온등장식현판을 내건 2층벽돌양옥이였다.

넓지 않은 마당에는 도경찰서의 까만 경호차와 함께 두석대의 승용차들이 눈가루를 들쓰고 서있었다.

호텔정문앞에서는 두놈의 경찰과 사복형사 한놈이 몸뚱이들이 얼어들어서인지 발을 쿵쿵 구르며 왔다갔다 했다.

관리인들과 일반 접대부들은 어느 구석방에 숨어들었는지 얼씬을 안했다. 이따금 2층복도에서 음식을 나르는 접대부들이 한두명씩 조심스럽게 왔다갔다 했는데 반드시 중년의 호텔녀주인이 동행을 했다.

2층에는 주로 자름자름한 작은 방들이 많고 큰방은 가운데 한방인데 지금 그 방에는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 수비대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손꼽히는 권력자 대여섯이 낯짝들이 불깃불깃해서 바지띠를 풀어놓고 앉아있었다.

신년을 맞아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당초의 계획은 상풍광산에서 보란듯이 한번 차리려 했던것인데 모리무라 다다시가 두말 다시 못하게 딱 잘라 거절을 했었다.

리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노리아끼는 그것이 어항속에서 꼬리치는 금붕어들을 놀래우지 않기 위해서라는것을 제꺽 알아차렸다.

저 역시 두말 다시 않고 여기 H시의 일본인거리에서 간단히 설음식이나 나누자고 했다. 말로는 그렇게 제꺽 다다시의 의사를 따르는척 했지만 속에서는 괘씸한 생각이 기름끓듯 했는데 긁어 부스럼이라고 놈의 요구 또한 그의 입을 쩍 벌어지게 했다.

뚱딴지같이 광부들에게 이틀간의 휴식을 주고 식사까지 아주 《특식》을 차려주라는것이였다. 그러되 노리아끼는 일체 얼굴을 내밀지 말고 광주나 감독들을 통하여 광부들속에 대일본제국의 은총을 선전하는 한편 일본사람들은 상풍광산지구를 아주 평온한 안민촌으로 믿고있다는것을 인식시키도록 하라고 했다.

이틀이나 휴식을 주면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 희망도 없지 않았다.

그 모든것 역시 귀신도 알수 없는 총독부 경무국의 비밀작전이리라는 생각에 이찌가와 노리아끼는 늙은 로마답지 않게 고개부터 갑삭 숙여보였다.

말은 간단한 설음식이라 했지만 연회상은 다리가 부러질만큼 요란했다.

허나 모리무라 다다시의 자리는 비여있었다. 첫 축배잔을 비운지 얼마 안있어 조심스레 방문을 연 접대부가 미리 약속이라도 했던듯 뭐라고 눈짓을 했던것이였다.

하긴 마음 편안히 신년연회상앞에나 앉아있을 다다시가 못되였다.

모리무라 다다시가 다시금 이 지구에 내려온것은 어제아침이였다. 신년명절을 랑림산지역에서 겨울철사냥을 하는것으로 뜻깊게 즐기려 한다면서 새 사냥총과 사냥복까지 그쯘하게 갖추어가지고 나타났지만 그 말은 누구도 믿지 않았다.

서울가까이에 좋은 사냥터가 한두군덴가. 모리무라 다다시가 자신도 언제인가 말하지 않았던가. 좀처럼 시간을 낼수가 없어서 그러지 언제든지 꼭 데라우찌가 배정자를 무릎에 앉히고 사냥을 떠났댔다는 삼방사냥터에 나가 사슴사냥을 해보는것이 소원이라고.

다다시의 급작스러운 사냥행각의 속내는 사냥조직에서부터 드러났다. 사냥을 떠난다면 몰이군들을 대동해야 할텐데 다다시는 우선 그것부터 반대했다. 경찰부장이하 경찰관속 두세명만을 일행으로 삼았던것이였다.

사실 그랬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모리무라 다다시의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는것은 자기 관할지역에서도 특히 이곳 랑림산일대였다.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무인지경의 산중에서 꼭 무서운 호랑이가 무수히 새끼를 치고있을것 같은 예감에 불안을 참을수가 없었다.

모리무라 다다시에게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는 얼마전에 1945년의 새 국책을 내놓기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도꾜에 건너갔었다.

본영의 거두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어쩔수없이 거의 다 벌거숭이가 된 몸뚱이들에 예민한 촉각의 청진기를 대여보고 제 손가락으로 직접 타진도 해보던 그는 그만 어깨가 처지고말았다. 태평양전선에서의 패전은 분명히 시간문제였던것이다.

그를 더욱 실망케 한것은 그처럼 승승장구한다던 중국동북일대에서의 군사작전도 공격으로부터 방어에로 방향전환을 할것이 명백한것이였다.

금주, 통화, 왕청을 련결하는 대산림지대에 《복곽진지》라는것을 구축하고 여기서 반타격전으로 상대측을 포위섬멸한 다음 다시 방어로부터 공격에로 작전을 바꾼다는것이였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그것 역시 벌써 썩은 냄새가 풍기지 않는가.

하긴 그것은 이미 단순한 작전상의 문제가 아니였다.

사람들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도이췰란드의 지그프리트전선이 제일 든든한 방어선인줄로 알고들 있었지 중국동북일대에 구축한 일본의 요새들과 그 구역들이 얼마나 요란한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었다.

이 요새들을 하나로 쭉 련결시키면 총 연장길이가 수천키로메터나 된다.

이 요새에는 보통 한개 구역안에 영구화점과 토목화점들만도 평균 500개가 넘고 지휘소와 감시소, 화력진지, 각종 엄폐호와 전호, 교통호, 반땅크와 반보병차단물들까지 설치해서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병졸시절부터 그 일판에서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와 다년간 맞서본 다다시는 그 저지선, 방어요새에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김일성**장군유격대앞에서의 그 저지선, 방어요새란 한갖 바람앞에 세워놓은 개바자나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설사 그 요새선이 군사적공격을 일시 저지시킨다 해도 **김일성**장군유격대에는 보다 무서운 힘이 있지 않는가.

전민항쟁으로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초지의 뜻!

두만강일대의 북선지대와 압록강연안 랑림산의 험한 산판, 백두산 줄기줄기들이 문제였다.

물론 제 혼자 나선다고 무슨 뾰족한 방도가 있으랴만 그래도 이해의 첫자욱을 랑림의 그 험한 산발에 찍고싶은 모리무라 다다시였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총독부에 앉아있을수없는 충동이 일어난것은 황해도경찰부 고등과에 박아넣은 첩자인 한 형사의 긴급통보를 받아서였다.

10여년전 북주하양주공장이란데서 감독을 하다가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알선으로 첩보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특별첩보훈련지에서 모리무라 다다시의 눈에 든 형사였는데 긴급통보인즉 양주공장을 불바다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주모자 곽영무란 청년이 놀랍게도 황해도일판에 나타났다는것이였다.

중국동북지방의 유격근거지로 들어갔던 청년이 10년이 지나 조선경내, 그것도 서울이 가까운 황해도일대에 나타났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추적하라는 지시를 주었는데 한시간도 못되여 다시 날아온 정보는 또 얼마나 가슴을 뛰게 했던가.

국내에 침투한 항일유격대공작원이 분명한데 랑림산줄기를 타려는걸 보면 목적했던 일을 다 보고 북부국경지대로 철수하는게 틀림없다는것이였다.

역시 절대로 놀래우지 말고 꼬리를 바싹 따르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다음은 일체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갑작스레 신년의 명분으로 이 일대에 날아들었고 제가 앞장서서 강설의 험준한 산발일각에 발을 들여놓았건만 겨우 손에 쥔것은 몇마리의 산토끼와 꿩일뿐 무엇이든 닁큼 삼켜버릴것 같은 대밀림—끝을 가늠할수 없는 원시림앞에 불안과 공포만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었다.

아아히 펼쳐진 산발들, 보면 볼수록 거창한 힘으로 움씰움씰 움직이는것 같은 밀림의 바다!

다다시는 문득 북만땅의 어디선가 항일유격대를 추격한다고 떠났던 병사시절의 일이 생각났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이였다.

항일유격대의 발자취라고는 하지만 진짜 사람의 발자국인지 곰의 발자국인지도 명백치 않은 흔적을 따라 무작정 내달리기만 하

던 그들은 뜻밖에도 예상치 않았던 흔들레판을 만났었다.

선두에 섰던 병사 두세명이 가슴 섬찍하게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벌써 그 병사들이 가슴노리까지 흐물거리는 썩은 감탕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었다.

단말마적인 비명도 한순간, 썩은 감탕판은 어느새 병사들의 머리끝까지 삼키고나서 사람의 생명에는 너무도 비할바가 못되는 기포방울만 꾸르륵꾸르륵 몇개 토해놓고는 무슨 일이 있었더냐싶게 잠잠해졌다.

가뜩이나 물참봉이 되여 덜덜 떨던 병사들은 질겁을 하여 물러서고말았다.

불현듯 그때일이 눈앞에 떠오른 다다시는 오싹 소름이 돋았다. 눈앞에 무제한으로 펼쳐진 밀림의 바다가 그때의 그 흔들레판처럼 느껴지면서 벌써 한다리가 그 감탕판에 빠지기라도 한것 같아 소스라치며 뒤걸음을 쳤었다. …

누빈돗자리 12장을 석줄로 깔아놓은 자그마한 방.

창가림이 무겁게 드리운 창문앞에 서있는 다다시는 낮에 제눈으로 직접 보았던 대밀림과 함께 이제는 아득히 흘러가버린 옛날의 일로 된 흔들레판이 엇바뀌며 떠올라 기분이 나빴다.

아니, 국내공작원이 틀림없다는 그 곽영무란 조선청년이 옴짝못하게 자기의 등덜미를 거머쥐고 흔들레판으로 사정없이 밀어뜨리는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온몸에 닭의 살이 돋고 가슴이 떨려 얼마간을 더 창문앞에 서있기만 하다가 이윽해서야 일체 내색을 않은채 부러 목소리를 낮추면서 저력있게 물었다.

《노리아끼상한테 특별히 이틀간의 휴식을 주도록 했는데 전혀…아무런 기미도 없더란 말인가?》

《예.》

간단하게 차린 음식상앞에서 얼굴 절반을 가리울만큼 큰 색안경을 낀 사나이가 죄스럽게 대답했다.

급하게 서둘러 면도를 한듯 량쪽의 귀밑으로부터 턱까지 그리고 코밑에 되는대로 밀어버린것 같은 수염이 거밋거밋했다.

다다시는 그 수염부리가 못마땅해서 눈살을 찌프리며 쏘아보았다. 사나이는 두어깨를 으쓱해보이면서 어물어물 이었다.

《혹시 한인준이 저세상으로 갔기때문인지…》

다다시는 그만 신경질을 팩 부렸다.

《머저리같은것들, 겨우 붙잡았던 꼬리를 제손으로 끊어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사나이도 제법 배짱을 부렸다.

《그렇습니다. 그 바보같은 자식이 경상만 입히라고 했는데 아예 정통을 갈겨댔으니…》

다다시는 입이 쓰거워 더 다른 말을 않고 방안을 몇걸음 거닐었다. 창문앞을 그렇게 몇걸음 왔다갔다하다가 뚝 멎어서며 퍽 아량있게 말했다.

《이봐, 난 결코 그따위 일을 놓고 추궁하자는것이 아니야. 물론 이번 일은 자네의 첫 작전에서 실패인것만은 사실이지. 교훈을 찾으라구. 요는 뭔가?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품들여 키웠으며 어떻게 공들여 상풍광산에 잠복시켰는가 하는걸 명심하는거야. 자네에 대한 기대는 결코 우리 경무국뿐만이 아니야. … 첩보란 때로는 한순간을 위해서 한생을, 아니 대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가 지금껏 자네한테 돈을 아끼지 않은것도 그 한순간의 성공을 위해서야. 어쨌든 이번에 한인준의 꼬리를 바싹 쥐였던것만은 치하를 받을만해. …》

사나이는 제꺽 음식상앞에서 물러나 두무릎을 꿇고 그우에 손을 얹으며 정중히 앉았다. 그리고는 목이 꽉 메인 소리로 말했다.

《저의 대호를 〈모모〉의 대호그대로 〈모모—2〉라고 해주신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오직 대일본제국을 위하여, 천황페하를 위하여 쇄골분신하겠습니다. 조선의 〈복숭아꽃〉, 〈살구꽃〉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음!》

다다시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상앞에 앉았다. 사나이를 친절히 상가까이에 불러다 편히 앉도록 하고 그의 잔에 술을 부으며 말했다.

《더 깊숙이 묻히라구. 철저한 위장…〈모모〉의 뜻을 잊으면 안돼. 내가 말했지? 조선의 〈모모〉는 한철만 피지만 일본의 〈모모〉는 〈대동아공영권〉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계속 피여야 한다구. 알겠어?…그러자면 신임을 얻어야 해. 열성도 더 내구. 첫째 파업은 절대로 로출되지 않는거야. 절대루! 여기가 반도땅이라고 해서 어리숙하게만 봐서는 안돼. 땅은 반도땅이지만 우린 여전히 항일유격대, **김일성**장군유격대와 맞서고있다는걸 명심해야돼. 유격대공작원들이 서울은 물론 부산과 제주도, 일본본토에까지 손을 뻗친다는 정보가 있소. 총독부에 종합된 자료만 봐도 조선안에 반일항쟁조직이 100개가 훨씬 넘어. 100개가…》

다다시는 또 한번 오싹 몸을 떨었다. 황해도일대에 나타났다는 국내공작원 곽영무란 청년이 생각나서였다. 그가 황해도일대만 돌아봤겠는가. 첩자의 예측대로 그가 정말 서울은 물론 부산과 제주도까지 메주밟듯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하랴. 아니, 조선경내에 들어온 공작원이 어찌 그 하나만이라고 하랴. 방금 제 입에서 튀여나간 그 100개가 훨씬 넘는 반일항쟁조직들을 그들이 다 돌아봤다면 그 조직마다에 어떤 불씨를 뿌려놓았겠는가.

해쓱해지는 얼굴때문에 잠시 사이를 두었던 모리무라 다다시는 제법 너그러운 인상을 짓고 결론을 내리듯이 말했다.

《우린 설사 자네가 당장 큰 공을 세우지 못한다고 해도 추궁을 안해. 내 말뜻을 알겠나?》

《알겠습니다. 대일본제국을 위한 원대한 그 뜻에 탄복합니다.》

《고맙네, 자 들자구.》

사나이는 패기있게 술잔을 냈다.

그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던 다다시는 나들문쪽에 대고 손벽을 두번 쳤다. 즉시에 문이 열리면서 고급양복차림에 역시 테굵은 색안경을 낀 사나이가 중절모를 정중히 벗어들며 례절있게 들어왔다.

《인사를 하게. 얼굴들은 이미 알고있겠지만…오늘 이렇게 새삼스레 인사소개를 하는것은 이 군이 바로 〈모모－1〉이였다는걸 알려주기 위해서일세.》

《모모—2》는 퍽 놀란 눈으로《모모—1》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다다시가 인사중개를 계속했다.

《〈모모—1〉은 불가피하게 광산에서 소환했지만 자기 임무수행은 계속해야 되네. 앞으로 〈모모—1〉은 전적으로 〈모모—2〉와 〈담뽀뽀〉의 활동을 뒤받침해야 하겠네.》

《모모—1》은 호기심이 반짝이는 눈으로 다다시를 일별했다.

다다시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얕잡아보기라도 한듯 《모모—1》을 슬쩍 곁눈질했는데 그 눈길에 흐뭇해하는 미소가 어렸다. 그는 자랑이라도 하듯 또하나의 첩자 《담뽀뽀》(민들레)의 대호를 설명했다.

《앞으로 때가 되면 만나게 되겠지만… 〈담뽀뽀〉역시 〈모모〉 못지 않게 조선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요. 이른봄에 피는 꽃, 짓밟혀도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꽃… 순하고 부드럽고 연연하면서도 부끄럼을 타듯이 풀숲에 조용히 숨어서 소박하게 피여나기때문에 더 좋아한다나… 누가 보건말건 땅바닥에 착 붙어서 소문없이 인기를 끄는게 아주 이채롭단 말이야.》

다다시는 대상의 성격에도 맞게 신통한 대호를 달아주었다는 만족감으로 제멋에 흐뭇해하였다.

《모모—2》가 상전이 기분좋아하는 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던듯 퍼그나 대담하게 한마디했다.

《저… 〈담뽀뽀〉를 계속 내곁에 두어야겠습니까? 이젠 나도 광산지구에 든든히 발을 붙였는데…》

《담뽀뽀》가 옆에 붙어있는것도 불편스럽고 시끄러운데 《모모—1》까지 또 붙여주느냐는 불만이였다.

다다시의 눈길에 대뜸 서리발이 섰다. 목소리도 칼날처럼 예리하고 랭기가 풍겼다.

《상급의 명령을 흥정하는 버릇은 언제 배웠는가? 난 아직 그런걸 배워준적두 허용한적두 없는데?》

《모모—2》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온몸이 꿋꿋해졌지만 대답만은 꺼림이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다시는 손을 홱 내리그었다.

《버릇이 나빠. … 이번만은 용서하겠네. 자네들의 임무가 너무 중하거든. 이봐, 〈담뽀뽀〉는 자네를 상풍광산일대에 안전하게 들여보내는데 필요한 위장인물이였다고만 생각하면 안돼. 자네한테 련락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게 아닌가. 발걸음이 잦으면 돌부리에 걸채인다는 말 몰라? 그리구…첩보활동에서는 남자보다도 녀자가 더 쓸모있는 때가 있는 법이야. 알겠나?》

《모모—2》는 다시금 목을 꼿꼿이 세웠다.

《핫, 명심하겠습니다.》

다다시는 느슨히 웃음을 띠였다. 《모모—2》를 뚫어지게 마주보는 눈에는 음충하면서도 능청스러운 빛이 흜었다. 그는 웃몸을 《모모—2》쪽으로 쑥 기울이면서 조롱하듯 물었다.

《왜? 단련이 심하던가?》

《모모—2》는 얼굴이 불그레해졌다.

《핫하하…》

다다시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눈앞에는 유난히도 육신을 노그라들게 하는 한 녀자의 라체가 떠올랐다. 얼굴은 별로 탐을 낼만치 예쁘지 못했지만 첫 교제부터 도대체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판처럼 육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타고난 재능의 녀자였다.

다다시는 갑자기 온몸에 짜릿짜릿 흐르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마른침을 꿀꺽 삼키였다. 한해이상 제가 직접 맡아안고 보내던 각종 훈련과 교제의 나날이 떠올랐던것이다.

두 첩자가 야릇한 눈길로 지켜본다는것을 깨닫고서야 정신을 버쩍 차리면서 아닌보살을 했다.

다다시는 단호한 어조로 마디마디 찍어던지듯이 말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담뽀뽀〉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자네에 대한 위장과 련락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는거요. 그외는 일체 다른 과업을 줄 필요가 없어. 같은 길을 간다고 다 열키로나 스무키로그람의 짐을 지워보내는건 아니잖나. 안 그래?》

다다시는 한쪽눈을 의미있게 찡긋 감아보이고나서 점점 더 팽팽해지는 긴장을 풀려는듯 쾌활하게 롱말까지 던지였다.

《한창나이의 젊은 녀성인것만큼 응?…갈증이 좀 나 할수도 있지. 적당히 도와줘서 나쁠게 있는가, 어? 항차 자네두 오륙이 성성한 사나이인데 때때로야 어?…》

제사 정욕이 지글지글 끓던 다다시의 눈길이 언제였던가싶게 선뜩해지면서 날카로와졌다. 마냥 제 품에 안았던 귀중한 그 무엇인가를 빼앗기우기라도 했을 때의 야수와 같은 눈빛이였다.

목소리도 딴사람처럼 단호했다.

《정 시끄러우면 없애치워. 가차없이!》

두 첩자는 아연해서 굳어졌다. 등골에 오싹 서리발이 섰던것이다.

다다시는 더더욱 그런 감상주의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제사 목소리를 더 엄하게 돋구었다.

《앞으로 나의 지령은 〈모모—1〉에 의해 전달될거네. 〈모모—1〉은 될수록 광산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게.》

다다시는 중국동북에서부터 오래동안 제 손으로 직접 품들여키운 두 첩자의 근량을 다시한번 료량하기라도 하듯 매서운 눈초리로 찔러보고나서 창밖 멀리 산쪽을 가리키며 끊었던 말을 계속했다.

《저 산속에 틀림없이 불주머니가 있어. 그 불아구리로 들어가는 직선길은 상풍광산이야. 전에도 말했지만 광산이란 참 걷어쥐기가 힘든데거든. 장마당이나 같아서 누구나 발붙이기가 쉬운데다 땅속굴안에 깊숙이 들어간 다음엔 소를 잡아먹어도 알수가 없단 말이야. 항일유격대 국내공작원들이라면 그 광산에부터 손을 뻗치리란거야 너무도 명백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자네들의 최종목표는 그 불주머니인것만큼… 〈모모—2〉와 〈담뽀뽀〉는 어떤 수를 써서든 광산지하조직선을 단단히 감아쥐여야 해. 절대로 서뿔리 놀래우지 말구, 응?… 그리구 〈모모—1〉, 자네는 자네의 첩보원들을 발동해서 〈사냥작전〉을 계속 내밀어야 해. 저 랑림산의 줄기줄기, 골짝골짝마다를 샅샅이 다 밟아봐. 알겠나?》

《알았습니다.》

두 첩자는 결패있게 대답했다.

《음.》

다다시는 그 순간 무슨 령감같은것이라도 떠오른듯 제사 긴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얼마간 눈을 감고있다가 무척 진중하게 말했다.

《〈사냥작전〉이라…물론 사냥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쫓아가 잡을수도 있지. 한데 솜씨있는 사냥군은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이나 물먹이터 같은데를 알아내서 그곳으로 끌어내다가 손쉽게 잡는 경우도 있잖나.》

그는 《어때?》하는 눈길로 두 첩자를 일별했다.

두 첩자는 눈들만 껌벅거렸다.

모리무라 다다시는 자기 궁냥을 재정립이라도 하듯 또 얼마간 동안을 두었다가 아주 자신있게 계속했다.

《〈모모－1〉, 아무래도 자네는 이미 시작했던 추격전, 수색전에 힘을 넣어야겠네. 대신 〈모모－2〉, 끌어내오는 유인전은 임자한테 맞기네. 〈담뽀뽀〉와 같이, 응?…사냥에선 몰이군이란게 있잖나?》

다다시의 새 궁리를 먼저 알아차린것은 《모모－2》였다.

그는 어지간히 흥분해서 맞장구를 쳤다.

《아, 알만합니다. 유인전!… 끌어내오는 작전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 산속에서 화약과 도화선에 갈증이 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화약과 도화선?》

모리무라 다다시는 긴장해졌다.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 하는 표정이였다.

《모모－2》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큰 고기를 낚자면 큰 미끼를 써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시는 더욱 매섭게 번쩍이는 눈길로 《모모－2》를 뚫어져라 마주보고나서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큰 고기를 낚으려면 큰 미끼를 던져야 한다.… 그건 그래.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는 제 손으로 자기가 만든 불통을 뒤집어쓰게 될수도 있어.》

《모모－2》는 한무릎 다가앉기까지 했다.

《그건 걱정마십시오. 갈증에 허덕이는자는 신기루에도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시는 비로소 고개를 크게 끄덕이였다.

《좋아. 그럼 솜씨를 보이게. 나도 적극 뒤받침을 하지.》

그는 만족스럽게 다시금 잔에 술을 부었다.

《자, 그럼 잔들을 들게. 〈모모〉와 〈담뽀뽀〉는 다 한철에 꽃이 피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 그럼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잔찧는 소리가 류달리 챙챙했다.

허나 《모모－1》의 낯색은 그리 밝지 못했다. 어차피 《모모－2》한테 밀리우게 된다는 질투심이 끓었지만 칼날같은 성미의 상관앞이라 절대로 내색을 해서는 안되기때문이였다.

두 사나이가 절도있게 돌아서 나간 다음에도 다다시는 한동안이나 더 빈방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고이고있었다.

《큰 고기를 낚으려면 큰 미끼를 던져야 한다. …화약과 도화선이란 말이지!》

혼자소리로 외우면서 한식경이나 더 앉아있다가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방의 방문앞에 이르니 지금껏 어디 가서나 로인답게 입을 꾹 다물고있군 하던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굳어진 혀를 놀리며 장광설을 늘어놓고있었다.

《이봐, 올해가 소화20년이지? 꼭 40년전이 되는 그때에 말일세. 이또 히로부미가 이 반도땅을 어떻게 병탄했는가? 임자네들처럼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왔나, 현대적무기들을 메고왔나, 어? 하야시공사, 하세가와대장, 어? 통털어 셋이서 고종황제의 수족을 얽어매고 보호조약을 받아냈거든. … 강제든 강압이든 상관있는가. 응? 그 령감이 진짜 대장부야, 대일본제국의 대장부. 데라우찌총독도 우직스러운데는 있었지만 그만하면 난 인물이였지. 그래 지금 우

리 일본에 그런 인물이 있어? 저 동북땅 100만 관동군이 창해일속이라고 하던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한테 계속 쩔쩔 매고있질 않나, 어? 남양군도에서는 날마다 무리죽음이 나질 않나. 임자네들은 다 바지저고리야, 구멍이 뻥뻥 뚫린 바지저고리!》

다다시는 이발을 앙다물었다. 방금전까지 바로 그 대일본제국을 위해 첩자들을 불러놓고 진땀이 나게 골머리를 짜댔는데 저 늙다리귀신같은 령감태기는 무슨 장광설인가.

당장 문을 박차고 달려들어가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료리상을 발길로 걷어차기라도 하고싶었다. 저 늙다리를 왁작 추동하여 신년연회랍시고 이 료정에 끌어들인 구로지마 가메도가 괘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총독부의 요원답게 옷매무시부터 단정히 하고는 모든 일이 잘된듯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가는 그의 눈에서는 전에없이 간담을 서늘케 하는 독기와 찬서리가 뿜어지고있었다.

4

무장대원들앞에서 명중사격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김봉빈은 망원초의 련락을 받자바람으로 근 10리나 되는 눈길을 어떻게 달려갔는지 몰랐다.

뜻밖에도 곽영무가 도착했다는 련락이 왔던것이다.

두달전에 헤여졌던 곽영무도 보초소동무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땀이 나게 걸어오고있었다.

그의 뒤로 두툼한 솜옷을 입고 하얀 양털목도리를 두른 처녀가 숨이 차서 따라 걸었다.

너무도 반가와 봉빈이는 미처 그 처녀한테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무작정 거쿨진 몸의 영무를 붙안고 빙빙 돌아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난 한달쯤 더 있어야 나타날줄 알았는데.》
《일이 그렇게 됐네.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봉빈은 당장 낯색이 무거워져서 곽영무를 주시했다.
곽영무는 손을 한번 가볍게 내젓고 부러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할건 아니니 마음놓게.》
《글쎄 무슨 일인가?》
《아, 천천히 얘기한다니까.》
봉빈은 그제서야 말뜻을 알아차리면서도 안심치 않아 물었다.
《그래, 정말 몸은 일없나?》
《보다싶이 이렇게.》
곽영무는 두팔을 쩍 벌려보였다.
봉빈이는 비로소 저도 같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성하다니 됐네, 됐어!》
곽영무는 뜨거운것을 삼켰다.
국내공작의 나날 저도 그랬지만 봉빈이 역시 먼길 떠난 자기를 얼마나 걱정했는가 하는것이 그 한마디 말에 다 담겨져있었던것이였다.
또다시 부둥켜안고 한참이나 그렇게 떨어졌던 정을 나누고서야 곽영무는 뒤쪽에서 제풀에 감격하여 눈굽을 찍고있는 처녀를 소개했다.
《알고 지내오. 심혜영이라고 이번 공작길에서 만나 함께 오는 동무요.》
봉빈은 어디선가 들은 이름인데 인차 떠오르지 않아 아련해보이는 처녀의 얼굴만 여겨보다가 무릎을 쳤다.
《그렇지, 심혜영. 동무이름이 진짜 심혜영이요?》
혜영은 물론 곽영무도 의아해서 봉빈이를 쳐다보았다.
봉빈이는 다짜고짜로 혜영의 두손을 모아잡으며 물었다.
《동무 장철석을 아오? 장철석!》
혜영이 한손으로 입을 막으며 굳어졌다.

《어마나…그일 어떻게?》

《맞구만. 동무 장철석의 애인이 맞지? 구창광산마을에서 살던… 그렇지?》

혜영은 그저 놀란 눈으로, 반신반의의 격정이 북받친 눈으로 봉빈이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곽영무가 한발 나서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사연도 기막힌 사연이지. 세상에 참!》

봉빈이 혜영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혜영동무, 철석이 그 사람말이요. 여기 상풍광산에 와있소. 부산까지 끌려갔다가 도망쳐서 여기로 왔소. 지금 잘 싸우고있소.》

혜영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돌아서며 그자리에 폴싹 주저앉았다.

봉빈이는 서두르듯이 곽영무에게 장철석이 북주하양주공장시절의 누구라는것을 알려주었다.

《뭐? 그 더벅머리?!… 그가 여기 나와 광산지하조직을 책임졌다? 원 이런!》

너무도 예상밖의 일에 곽영무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항 벌리고있었다.

그의 반가움과 기쁨까지 겹쳐오른듯 심혜영의 두어깨가 점점 더 세차게 물결쳤다.

5

심혜영이 끌려간 곳은 바다가마을의 별로 크지 않은 군수공장이였다.

마을에서 초간히 떨어진 으슥한 바다기슭에 자리잡은 공장이였다.

앞에는 바다이지만 뒤에는 소나무숲이 울창한 산이였다. 공장들

레에는 벽돌담장을 두르고 그우에다 또 전기철조망을 쳤다. 그러고도 안심칠 않아 사방에 보초를 세웠다. 말이 공장이지 여불없는 감옥이였다.

공장에서는 수류탄도 만들고 대포알도 만들었지만 기본은 보총탄알이였다.

혜영은 수류탄 만드는 일을 하였다.

하루 12시간 맞교대라고 하지만 매일 3～4시간씩 연장작업을 하는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18시간, 20시간씩 채찍에 몰리워야 했다.

로동의 곤욕만이라면 그래도 참을만 했다.

제일 큰 고통은 순진무구한 처녀들이 언제 깨끗한 정조를 짓밟힐지 모르는 불안이였다.

멸망에 직면한 정신적불구자, 미치광이들을 상상해보라.

놈들의 야수적만행은 때와 장소의 구애가 없이 공공연했고 꺼림이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심혜영을 비롯한 수십명의 처녀들은 《정신대》로 뽑히여 태평양전선으로 갈 대상들이였던것이다. 당장 탄약생산이 급해서 림시로 공장에 몰아왔는데 임의의 시각에 발령만 내리면 다시 전선으로 떠나야 한다는것이였다. 결국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인즉 여기서도 일본군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는것이 합법적인 요구였다. 끌려온지 열흘도 못되여 두 처녀가 원한을 품고 목숨을 끊었다. 한 처녀는 전기철조망에 몸을 던졌고 또 한 처녀는 화약을 한사발이나 삼켰다는것이였다. 위생실천정에 목을 매고 죽는 처녀, 어느틈에 공장울타리를 빠져나가 바다물에 뛰여든 처녀… 12월 31일 밤에도 또 한명의 처녀가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터쳐 시체도 건지지 못했다.

몸이 너무 약해보여서였던지 심혜영에게는 아직 불똥이 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지 제몸도 짓밟히고 짓뭉개여질 그 위험이 각일각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자나깨나 장철석의 생각뿐이였다. 죽어도 그앞에 죄되는 일을 당할수는 없었다. 아니, 죽어도 그한테 죄되는 일은 당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죽으리라 결심했다.

그는 누구도모르게 칼날처럼 예리한 송곳 하나를 만들었다. 칼처럼 날이 서고 날카로운 그 송곳을 항시 치마말기에 감추고 다녔다.

불똥은 종시 1월 1일 새해 첫날 저녁녘에 튀였다.

연장작업까지 끝내고 지친 몸으로 숙소로 걸어가는데 어느 건물모퉁이에선가 두놈이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군용모포를 콱 씌웠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질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하긴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려고 해도 선뜻 나설수가 없는 지옥안이였다.

힘이 황소같은 놈들은 군용모포에 감싼 처녀를 이미 대기시켜놓았던 마차에 싣고 어디론가 냅다 달렸다.

혜영은 얼마후에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리고서야 마차우에서 지껄이는 놈들의 말을 가려들을수 있었다.

왜군 하급장교들인 놈들은 해종일 어떤 놈과 도박을 했다. 제놈들의 말대로라면 운수가 매우 나쁜 날이여서 여지없이 패했다. 돈을 말짱 떼우고나자 상대측은 곱살한 처녀 하나를 요구했다. 그 곱살한 처녀로 혜영이가 걸려들었던것이다.

혜영은 몸서리를 쳤다.

그는 무작정 달리는 마차에서 굴러떨어졌다.

마차가 서고… 주먹이 날아들었다.

혜영은 까무라치고말았다.

그가 의식이 든것은 어느 침실같은 음침한 방의 침대우에서였다.

세놈이 거나해서 술상에 마주앉아있었다.

사복을 한 털부숭이놈이 방의 주인인 모양이였다.

하마처럼 험하게 생긴 장교놈이 무엇인가 켕기는것이 있는 모양인지 털부숭이에게 수군거렸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재미가 없겠는데… 아무리 반도년이라고 해도 울타리밖이니 문제란 말이야.》

《걱정말게. 계집의 혀바닥을 그렇게 겁내면서 군복은 어떻게 입고있나? 하루밤 실컷, 응?…하루밤이면 물려. 래일아침엔 룡왕

님진지상에 올릴테니 저 모포와 마차는 두고 가게.》
몸서리치는 전률과 함께 혜영은 또 까무라쳤다.
온몸의 피가 다 굳어진것 같았던 그는 갑자기 아래도리가 서늘해지는 감촉에 화닥닥 놀라며 깨여났다.《악!》소리를 치며 일어나 바람벽에 붙어앉았다. 시커먼 털투성이로 하여 가뜩이나 짐승처럼 보이던 놈이 웃동을 벗어던지고 징그러운 낯짝을 히물거리며 다가들고있었던것이였다.
《비켜!》
초인간적인 부르짖음과 함께 혜영의 손이 치마말기를 더듬었다.
혜영은 그다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헉!》하며 배를 그러안고 비칠거리는 털부숭이!
손가락기장만한 쇠꼬챙이가 결코 그놈을 죽일수는 없었다.
허나 혜영이는 그 지옥의 함정에서 뛰쳐나오는데는 성공하였다.
그 함정은 마침 나무가 무성한 산기슭의 목조건물이였다.
혜영은 산속으로 뛰여들었다.
눈물이 비오듯 했다.
분하고 억울하고 치욕스러워 쏟아지는 피의 절규였다.
아, 인생의 몸값이 놀음판에 어지럽게 오가는 몇장의 지페만도 못하니 이 나라 꽃같은 처녀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것인가!
혜영은 눈구뎅이에 딩굴고 가시덤불에 휩싸여 몸부림을 쳤다.
그저 죽고싶은 생각뿐이였다.
자연히 입에서는 《철석오빠!》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철석오빠, 난 죽고말테야. … 난 더 살수가 없어요!》
허나 목을 매려고 해도 새끼 한오리 없었고 몸을 던지려고 해도 그 산판에는 떨어져죽을만한 낭떠러지도 없었다. 그렇게 온밤을 헤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또 하루낮 하루밤을 정신없이 걸었다.
그만에야 눈속에 콱 어푸러졌다.
그는 언땅을 치며 엉엉 소리쳐 울었다.
한참 그렇게 울고나서 고개를 드니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어디선가 개짖는 소리가 컹컹 들렸다.

혜영은 정신이 버쩍 들었다.

개짖는 소리가 무엇인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 인정의 부름같았던것이였다.

희미하게 비치는 한점의 불빛도 알아보았다.

그 지방 항쟁조직의 비밀아지트였다.

집안에는 마침 조직책임자와 함께 곽영무가 마주앉아있었던것이였다.

6

비밀근거지의 밤.

대원들의 병실에는 이미 불이 꺼진지 오랬다.

삼태성도 퍼그나 기울어졌다.

지휘부귀틀집 들창만은 아직도 불빛이 밝았다.

항일유격대식으로 통나무를 깎아만든 책상을 사이두고 봉빈이와 영무가 마주앉아있었던것이다.

《그래서?》

김봉빈이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다. 낮에 망원초에서 처음 만났을 때 혜영이때문에 부러 피했던 곽영무의 말을 듣는중이였다.

《그놈이 진짜 양주공장에서 그렇게도 못되게 놀던 합숙담당감독놈이였단 말인가?》

《그래, 꿈에 봐도 치가 떨리던 그놈이였네. 그놈이 글쎄 여기 나와 형사질을 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곽영무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목소리로 그놈과 맞다들렸던 일로부터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곽영무가 계획했던대로 서울은 물론 강원도와 충청도를 거쳐 다시 황해도의 장수산과 구월산쪽으로 향하던 어느날이였다. 이해 따라 때이르게 많이 내린 눈은 주변의 논밭들에도 무릎을 치게

덮여 녹을줄을 몰랐다. 길들도 온통 눈판이였다. 벌방바람이 어찌나 센지 뽀얗게 날리는 눈보라에 눈을 뜰수가 없었다.

곽영무는 마침 벼짚단을 몇단 실은 소발구 하나를 만났다. 벌방농민들의 생활형편과 농촌형세도 알겸 하여 같이 타고갈것을 청했더니 중년의 발구주인은 쾌히 응했다. 성격도 씨원씨원하고 마음도 무던한 농민이였다. 식구가 많아 처가살이를 하지만 생활의 고달픔은 여전하다고 한탄 반 푸념 반 꺼림없이 내리엮었다. 농민의 인생사에 귀가 솔깃했던 영무는 난데없이 자전거종소리가 찌릉찌릉 울려서 앞쪽을 살폈다. 뽀얀 눈보라속에 허울같은 형체가 얼른거렸다. 영무네처럼 온몸에 눈가루와 성에를 하얗게 들써서 움직이는 눈덩이처럼 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고있었다. 곽영무는 순간적으로 팽팽해지는 긴장감을 느꼈다. 농촌길에 자전거가 심상치 않아서였다.

아니나다를가 무관히 지나가는줄 알았던 자전거가 인차 되돌아 따라오면서 또 종소리를 찌릉찌릉 울렸다. 느럭느럭 미끄러져가는 소발구와 나란히 속도를 맞추면서 담배불을 청하는것이였다. 잊혀지지 않는, 무엇이든 찌르는것 같은 가슴섬찍케 하는 날카로운 눈빛이 대뜸 곽영무한테로 날아들었다. 곽영무는 가슴이 덜컹했다. 설마! 하면서도 저 역시 놈의 낯짝을 예리하게 살폈다. 놀람의 소리가 입안에서 터졌다. 틀림없는 그놈이였다.

령하 40도의 강추위, 너덜너덜한 때절은 모포속에서 서로 붙안고 언몸을 녹이던 합숙방, 가까스로 잠이 들라하면 그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던것처럼 머리맡으로 지나간 차디찬 난방관을 딱따구리쇠망치로 땅땅 두드려대며 《기상! 기상!》하고 악청을 내지르군 하던 감독이였다.

이놈이 어떻게 여기 나타났을가 하는 생각보다 저놈이 나를 알아보고 저러는가 하는 생각에 가뜩이나 언몸에 찬물을 쫙 들쓰는것 같았다.

눈보라가 너무 세차서인지 소발구주인은 인차 부시를 치지 못했다. 무척 애를 써서야 가까스로 불씨를 만들었다.

《고맙쉐다, 잘 가슈.》

놈은 제법 인사까지 깍듯이 하고 떨어졌다.

감독놈이 인차 눈보라속에 묻혀버렸지만 영무는 도저히 안정을 할수가 없었다. 십리쯤 더 가다가 끝내 발구에서 내렸다. 벌방이 끝나고 사방 소나무숲이 울창한 산들로 둘러싸인 농촌마을앞이였다. 서남쪽으로는 야산들이 널려졌지만 동북쪽은 삐죽삐죽한 바위돌들이 승벽내기로 솟아오른 퍼그나 험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있었다.

한달전에 이미 낯을 익힌 고장이였다.

달마산이라고 부른다는 제일 높은 주봉뒤쪽의 중턱에는 퍼그나 깊은 자연동굴이 있었다. 그 동굴안에서 곽영무는 이 지역 반일조직책임자들의 비밀모임을 가졌었다.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서인지 언제였던가싶게 눈보라가 잦아들고 해빛이 자글자글 끓었다.

마을앞 어구길에서 어떻게 행동방향을 잡을가 망설이던 영무는 다시금 온몸의 피가 굳어지는감을 느꼈다.

마을안쪽 동남방향의 산자드락길에서 거울쪼박에서처럼 반짝이는 반사광을 발견했던것이다.

이어 자전거탄 사람이 나타났다. 곽영무는 그때에야 그 자드락길이 방금 자기가 발구를 타고온 큰길과 같은 방향으로 남쪽으로 뻗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미행!)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고마는가 하는 생각이 콱 덮쳤다. 장군님의 전사가 무슨 나약한 생각이냐고 자신을 다잡은것은 다음순간이였다.

(주도권을 쥐고 맞받아나가야 한다.)

결심이 단호하자 궁냥이 틔였다.

해주 장수산쪽이 아니라 아득히 멀고먼, 얼핏 말로만 들어두었던 림꺽정이 웅거했댔다는 청석골을 찾아가는척 하며 완전히 방향을 돌려잡았다. 부러 자전거로써는 따라올수 없는 숲속을 헤쳐 한시간쯤 가다가 갑자기 다시 길을 꺾어 달마산뒤쪽의 자연동굴로 치달아올랐다. 봐라! 하고 발자국자리도 메우지 않았다.

자연동굴의 량옆은 다래와 머루덩굴이 무성하게 뒤엉켜있었다. 동굴입구는 바위돌우에 바위돌들을 층층이 얹어놓은것처럼 되여 짬사리가 많았다.

곽영무는 이 바위틈사리로 해서 무성한 다래덩굴을 헤쳐나왔다. 날쌔게 다시 산을 내려 길목을 지켰다. 얼마 안있어 눈에 쌍심지를 켠 감독놈이 숨을 헐썩이며 곽영무의 발자국을 따라 나타났다.

스물여덟살의 혈기왕성한 힘에 있어서나 10여년간의 항일전에 단련숙성된 싸움경험에 있어서나 당초에 견줄바가 못되는 감독놈은 별로 반항도 못하고 곽영무의 손에 덜미를 잡혔다. 북주하양주공장 300여명 소년공들의 원한까지 치민 곽영무의 주먹에 놈은 반주검이 되였다. 곽영무는 곧 혀를 빼물다싶이 한 그놈을 공기돌다루듯 자연동굴안에 멨다앉혔다.

화가 복이 된셈이였다.

놈의 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자료들을 재확인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놈도 만만치는 않았다.

이미 살가망을 포기한 놈은 리성을 잃고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나가는지도 몰랐다. 제법 곽영무를 시까스르기까지 했다.

《네 녀석은 뭐 살아돌아갈줄 알아? 난 이미 총독부 경무국에 통보했다. 숙감 곽영무 아니, 항일유격대공작원〈동지〉, 왜 여기 나타났는지 알아맞춰볼가? 국내정찰, 반일조직들과의 련계… 랑림산일대로 가는 길이겠지?… 랑림산일대가 비밀요충지라는건 세상이 다 아는거니까. 유격대원들도 많이 나와있구…》

놈은 정반대로 돌변하여 두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복걸하기도 했다. 일본은 멀지 않아 항복하게 되니 죽일내기를 하지 말고 서로 모른체 조용히 헤여지고말자는것이였다. …

이글이글 타던 난로안의 불이 사그라져가고있었다. 이야기바람에 불이 꺼지는줄도 몰랐던것이다.

김봉빈이 얼른 난로안에 봇나무장작을 몇가치 집어넣고나서 물었다.

《그래서…그놈의 시체는 어떻게 했소?》

국내활동지역에서 될수록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할 공작상요구를 념두에 둔 걱정이였다.

곽영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놓소. 아무래도 방조를 받아야겠기에 그곳 지하조직책임자를 다시 찾아갔지. 그날밤으로 수십리 먼 바다가에 내다버렸다고 하오. 놈들의 눈이 뒤집히게.》

《곽동무의 흔적을 바다쪽에서 찾아헤매게 말이지.… 그곳 조직이 고맙구만. 혜영동무도 거기서 만났겠소?》

《그렇소. 날밝기 전에 떠나려는데 문밖에 쓰러진 처녀가 있더라니…》

드디여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귀틀집안이 다시금 훈훈해졌다.

이번엔 곽영무가 두세가치의 장작을 난로안에 집어넣고나서 손을 털며 말했다.

《그놈이 미친놈처럼 줴친 말들이긴 하지만 서울조직선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과 기본적으로는 일치하오. 명백한것은 총독부 경무국이 이곳 랑림산줄기일대를 매우 중시하고있으며 더우기는 상풍광산일대를 이미 장악하고있다는것이요.》

《상풍광산지하조직이 이미 놈들한테 로출됐다는건 우리도 알고있소.》

《그것 보오.…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나지 않겠는가 속이 새까맸댔소.》

김봉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길을 보냈다.

바로 그래서 예견했던 날자보다 퍽 앞당겨 달려왔단 말이지 하는 고마움에서였다.

귀틀집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김봉빈이 기지개를 한껏 켜며 천천히 말했다.

《날이 밝겠소. 이젠 좀 자지 않겠소?》

먼길 온 동지앞에 너무 무리했다는 미안감이 섞인 말이였다.

영무도 흔연히 받았다.

《그러지.》

오래간만에 자리를 나란히 하고 누웠다. 등불을 껐지만 들창으로 비쳐드는 달빛으로 하여 방안은 어지간히 훤했다. 창밖에서는 아따금씩 나무가지에 쌓였던 눈무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작 자리에 누웠지만 자지는 못했다.

곽영무가 종시 달빛 쏟아지는 들창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사령관동지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지만 난 이번에 우리 민족이야말로 애국심이 강하고 슬기롭고 지혜롭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소. 지방마다 반일항쟁조직의 규모와 투쟁방법에서는 일정하게 차이들이 있어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기어이 나라를 찾자는 그 투쟁강령과 목표, 과업들은 하나같더란 말이요. 물론 사령관동지께서 창립하신 조국광복회 국내조직들은 더 말할바 없구… 만나는 사람마다 장군님께서 언제 조국진군을 하시는가, 장군님께서 조국해방작전의 총소리만 울려보시라 하군 할 때에는 눈굽이 쩡해지군 하더라니. 정말이지 난 벌써 해방된 조국땅을 밟는 기분이였소. 여보, 듣소?》

김봉빈은 대답대신 곽영무쪽으로 돌아누우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았다. 곽영무도 봉빈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계속하였다.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령관동지의 4촌동생분이랑 애국적청년들이 망라된 평양의 〈조국해방단〉만 봐두 말이요. 다른 말은 그만두고 평양지방의 철공소들, 농촌야장간들을 통하여 각종 형태의 무기들을 자체로 만드는 한편 놈들의 무기까지 빼앗는 투쟁을 벌린다니 얼마나 힘이 나오. 〈조국해방단〉뿐인가. 각곳의 반일조직들은 또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는지 모르네.》

곽영무는 감격이 북받쳐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더 흥분해서 말했다.

《난 이번 국내공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동포모두가 말그대로 사령관동지를 더 잘 받들고 결사보위해야 한다는걸 더 뜨겁게 절감했소. 어딜 가나 장군님을 기다리고 장군님을 그리는 목소리뿐이거던. 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우리 조국의 구세주이시고 민

족의 운명이시오. 정말이지 내 키가 또 한척은 큰것 같다니.》
《옳소.》
봉빈이는 누웠던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말했다.
《나도 여기 나와 그걸 체험했소. 여기 동무들이 스스로 우리 장군님을 따르고 목숨바쳐 사령관동지를 보위하는 방풍림이 되겠다고, 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을 무장폭동으로 받들겠다고 할 땐 정말 눈물이 났소. 비밀근거지를 지키는것이 곧 사령관동지의 조국해방작전구상을 받드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가 얼마나 뜨거운거요.》
영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동안의 봉빈의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했다.
《무장폭동준비라… 병실, 후방창고, 훈련장, 야장간, 무기구입과 작탄제작… 난 처음 내가 사령부밀영에 들어선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소. 여기 삼송비밀근거지 하나만 보구두 동무의 수고를 알수 있소. 하긴 언제부터 시작한 지하공작활동이라구… 이 랑림산일대가 이런 요충지로 튼튼히 꾸려졌을뿐아니라 무장폭동준비까지 완성해간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사령관동지께서도 무척 기뻐하실거요.》
그들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종시 덩두골을 찾아보지 못하고 돌아가는구만.》
《해방된 다음에 찾아가지. 제일 그리운건 고모생각이요. 지금 살아계시기나 하는지…》
《여기 조직선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과업을 주었네. 동무가 도착하기 전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구만.》
《고맙네. 하지만 그런데 너무 마음쓰지 마오. 동무도 아직 고향소식을 모르지 않소. 여기서 기껏 몇백리안인데.》
봉빈이는 조용히 들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랬다.
여기서 기껏 몇백리안에 있는 고향이다.
해마다 까치둥지 층층이 얹군 하던 마루나무, 이영이 다 고삭았던 초가집은 이미 무너진지 오랬을것이다. 아니, 이제는 옛 형

체를 알아볼수없이 풀밭이 됐을런지도 몰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10년이 두번도 지나지 않았는가.

하지만 달이 밝으면 달이 밝아서, 눈이 오면 눈이 정겨워 불쑥불쑥 치밀군 하는 향수의 정만은 어쩔수가 없었던 봉빈이였다.

봉빈이는 또 조용히 일어나 난로안에 장작을 집어넣었다.

부러 굵은 나무토막들을 골라다놓았건만 오늘밤은 류달리 빨리 타는가보았다.

뜨거운 눈길로 봉빈이를 지켜보고있던 영무가 좀 신중한 어조로 물었다.

《헌데 장철석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소?》

봉빈이는 인차 대답을 안했다.

이제는 장철석이도 한인준처럼 총독부 경무국이 주시하는 대상인물이 되였다는것이 확정적이였다.

그가 과연 그 그물안에서 용이주도하게 활동할수 있을가?

물론 결심도 좋고 방안도 명백히 토의했었다.

사실 놈들이 한인준의 정체를 알면서도 일체 다치지 않은것을 보면 더우기 그의 희생까지도 일체 함구무언으로 대하는걸 보면 장철석도 당분간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것이 본인자신은 물론 봉빈의 확고한 견해였다.

바로 그 점을 리용하여 오히려 놈들의 간을 빼고 염통을 빼면서 혁명력량을 확대하고 무장폭동준비까지 완성하자는것이 삼송근거지의 대담하고 모험적인 방략이였다.

한데 장철석이 정말 총독부 경무국까지 개입하는 이 대결을 감당해낼가? 차라리 영무를 따라보내고말가?

봉빈은 가만히 몸을 한번 뒤챘다.

문제는 그것이 장철석 한사람의 문제에 한한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장철석은 설사 떠나보낸다 해도 누구든 광산조직은 움직여야 하며 무장폭동준비도 기어코 완성해야 하였다. 여전히 놈들이 펴놓은 그물망속에서 해야 하며 그것이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였다. 하고보면 장철석만큼 준비된 조직성원이 없었다. 기

어코 한인준의 뒤를 잇겠다고, 그래서 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구상을 받들어싸운 그의 투쟁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만 봐도 얼마나 믿음직스러운가.

결정적이며 최우선적인것은 로출된 성원들과 함께 그의 신변안전대책이였다.

봉빈의 그 심정을 헤아린듯 곽영무가 다시금 나직이 물었다.

《정말 일없겠소?》

봉빈이는 한숨처럼 긴숨을 한번 내쉬고나서 마디마디 골라내듯이 말했다.

《여기 지하조직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마오. 여러모로 보아 아직은 놈들이 우리 조직성원들을 서뿔리 다치지 않을거요. 그놈들도 지독스럽게 노리는것이 있으니까…사령관동지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소. 적을 알게 되면 무서울것이 없다고. 철석동무로 말하면 본인의 각오와 결심도 좋지만… 우리도 매사건건히 각성을 높이고있소. 여기 경찰은 물론 도경찰에까지 놈들속에 우리 선이 깊숙이 들어가있는데 철석동무의 신변에 특별히 관심하도록 임무를 주었소.》

《물론 빈틈없는 대책들을 세웠으리라 믿소. 하지만 만약의 경우란 말이 있지 않소.》

《그건 그렇소.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긴장해지는거요. 고맙소. 내 그 문제에 대해선 다시한번 책임적으로 검토해보겠소. …아, 이거 이러단 정말 밤을 새우겠구만. 이젠 자기요. 철석동무한테는 련락을 띄웠으니 그 동무문제는 본인과 직접 만나 다시한번 진지하게 토의해보기요.》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들은 역시 잠을 잘수가 없었다.

봉빈이는 여전히 장철석과 광산의 지하조직문제때문이였고 영무는 느닷없이 떠오른 미쯔꼬—한영옥의 생각때문이였다.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그가 정녕 이곳에 와있단 말인가? 제 이름을 영옥이라고 고쳤다니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갸륵한가!

아, 이 오빠때문에 불쌍하게 죽은 우리 영옥이!

영무는 봉빈이쪽으로 돌아누우며 신중하게 말했다.

《이곳 조직의 동무들에게 말해주게. 우리가 북주하에서 이찌가와 마끄도한테 속히웠던 일을 말이요. 교활하고 깜찍하고 악착스러운 일본놈…정말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이지!》

7

심혜영은 뜨거우면서도 초조한 눈길로 아름드리 분비나무가지들에 묻히여 선뜻 눈에 뜨이지 않는 자그마한 귀틀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밀근거지에서 썩 나와있는, 여러곳의 지하조직성원들과 만나기도 하고 련락원을 파견하기도 하는 비밀상면상담장소였다. 참 묘한 곳에 묘하게도 숨기여 지은 집이였다.

지금 그 귀틀집안에서는 긴급호출을 받고 달려온 장철석이 곽영무와 김봉빈이를 만나고있었다.

심혜영은 비밀근거지 무장대성원으로 입대했었다.

무장대에는 녀성대원들도 여러명 있었다. 작식대일과 재봉일 같은것은 다 녀대원들이 맡아하고있었다.

심혜영은 총과 작탄을 다루는데서 사람들을 놀래웠다.

군수공장출신이 아닌가.

그 경력으로 하여 그는 인차 작탄만드는 일에 선발되였다. 자기가 만드는 작탄이 앞으로 장철석과 함께 무장폭동을 일으키는데 쓰인다는것을 알고서는 누구보다 성수를 냈다.

비록 며칠되지 않았지만 그는 비로소 사람의 세상에서 사는 맛을 느꼈다.

사람의 처지가 이렇게도 달라질수 있을가? 사람들은 흔히 지옥과 천당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야말로 지옥에 빠졌다가 천당에 날아오른 심정이였다.

무슨 일에나 남보다 더 열성스럽게 앞장서기 위해 마음을 썼다. 몸도 약해보이는 처녀가 그렇게 열성이니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고

사랑이였다.

혜영은 오늘도 누구보다먼저 작탄제작장에 나갔었다. 장작을 아름아름 날라들이고 화로에 불을 지피고 힘차게 풍구질을 해대는데 형제많은 집의 맏오빠처럼 아량있고 리해심이 깊은 작탄조책임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오더니 빨리 지휘부로 가라고 했다.

지휘부마당에는 영무와 봉빈이가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우리 함께 어디 좀 갑시다.》

그 어디라는 곳이 눈속의 집인 이 비밀아지트일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철석이!》

《영무형님!》

봉빈의 소개를 받은 두사람이 팔을 벌리며 달려가 얼싸안을 때는 정녕 꿈을 꾸는가 했었다.

《철석동무.》

《공작원동지!》

얼굴을 확인하듯 서로 찬찬히 마주보다가 다시 힘껏 그러안을 때는 혜영이 저도 눈물이 콱 났었다.

그들은 곧 귀틀집안으로 들어갔다.

혜영은 스스로 밖에 떨어졌다.

유격대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사이의 비밀문제도 있겠지만 보다는 그들의 상면을 지켜주고싶은 마음에서였다.

한시간나마 지났는데도 아직 누구 하나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심혜영은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나기도 했다.

그도 이제는 상풍광산지하조직이 놈들에게 로출되였다는것을 알았다. 봉빈이가 철석을 영무와 함께 유격대로 보내려 하는게 아닌가고 슬쩍 귀띔을 해주는 대원도 있었다. 영무가 봉빈이와 함께 저까지 데리고 이 비밀아지트로 온것도 그 문제때문이였을가 하는 생각도 했다. 공작원들끼리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일에 왜 굳이 저를 데리고왔겠는가.

장철석이 이곳 상풍광산에 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혜영은 만사불구하고 무작정 그한테로 달려가고싶었었다.

장철석이 어차피 또 광산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이내 도리를 쳤다.

짐승같은 놈들이 눈을 발가차고 지켜본다는데 왜 아직도 어물거릴가?

금시 무슨 일이 생길것 같아 가슴을 조였다.

한편 장철석이 곽영무와 함께 **김일성**장군님부대로 갈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였다. 단지 구창광산에서처럼 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헤여지는건 아닐가 하는 조바심에 온밤 잠을 못잤다.

정말이지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헤여졌으면 하는것이 일생의 소원같았다.

그는 자기가 철석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가 철석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몇해전 지금처럼 눈이 강산을 덮었던 한겨울이였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읜데다 어머니가 랭병으로 겨울에는 더우기 옴짝을 못하는 살림이여서 혜영이는 해종일 구창강에 나가 얼음을 까며 사금을 채취하다보니 산간마을이면서도 집에는 땔감이 자주 떨어지군 했다. 그 부족되는 땔감을 예닐곱살의 어린 남동생이 맡아안다십이 했다.

하루는 굶주림에 지치고 추위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니 삭정이 한가치 때지 못한 랭돌방에서 어머니가 헌 이불을 들쓰고 누워 신음소리만 내고있었다. 억이 막힌 혜영이는 그만 어머니옆에 어푸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야 어떻게 계속 산담, 차라리 다 죽고말자꾸나!

그때 마당에서 쿵 하고 무엇인가 꺼져내리는 소리가 났다.

몸이 다부진 웬 청년이 아름드리 통나무 하나를 메고와서 마당귭에 내던진것이였다.

마른 솔가리 한짐을 진 남동생이 뒤따라 들어오며 누나를 찾았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둘레를 살펴본 청년은 마치 제 집에라도 온것처럼 부엌문도 열어보고 랭돌방의 방안도 들여다보았다. 나이

든 처녀가 사는 집 살림이 이게 뭐냐 하고 힐난하며 책망하는것 같았다. 한참 그렇게 무뚝뚝해서 집안팎을 살펴본 그는 토방구석에서 날이 다 무딘 도끼를 찾아들고 메고온 통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방금전까지 죽기로 작정을 했던 혜영은 그때까지도 별로 고마운 마음이 없었다.

쩡쩡 울리는 도끼질소리가 어쩐지 제 가슴을 콱콱 찍어내는것 같아 흠칫흠칫 놀라군 했을뿐이였다.

통나무를 절반나마 팼을 때에야 혜영은 어머니옆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남동생이 지고온 솔가리로 아궁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다.

그는 따끈하게 끓인 물을 한사발 들고 밖으로 나갔다.

청년은 혜영이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내미는 물사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아무말없이 받아서는 그대로 토방우에 올려놓았다.

여전히 성이 나고 뚝한 표정이였다.

청년은 나무 한통을 다 패놓고서야 돌아갔다.

혜영은 벙어리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남동생이 성이 나서 나무람했다.

《누난 뭐야 쳇… 그 형님은 내가 나무하러 다니는걸 여러날 지켜보았다고 했어. 이제부턴 나무하러 다니지 말구 어머니가 뜨끈뜨끈한 방에서 지내게 불을 자꾸 때주라고 했어. 더운물 끓여서 손발도 자주 씻어주구. 벙어릴게 뭐야.》

청년은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저녁이면 통나무를 한대씩 메여왔다. 무딘 도끼도 광산에 가지고나가 선득선득하게 갈아다놓고는 한무지씩 장작을 패놓군 하였다. 이채로운것은 삭정이단이나 솔가리단 같은것은 한번도 져온 일이 없이 언제봐도 꼭 통나무를 한대씩 메여다가는 제손으로 다 빠개놓군 하는것이였다.

여전히 일체 말을 안했다.

혜영은 그즈음에야 그의 이름이 장철석, 어려서 부모를 잃고 별고생을 다한 혈혈단신이며 광산의 《형제계》책임자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머리우에도 하늘이 있다는것을 느낀 심정이

였다. 정녕 장철석은 고생많던 처녀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희망이며 의지였다.

참말이지 그는 말없는 그 청년한테 모든것을 의탁하고싶었고 많은것을 다 쏟아놓고싶었다. 그 쇠덩이처럼 단단한 가슴에 안기여 마음껏 울어라도 보고싶었다.

야속스럽게도 청년은 일체 다른 내색이 없었으며 뚝하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혜영이네 생활에만은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한지 몰랐다. 때식끓일감이 떨어지는것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강냉이나 보리쌀이나마 제때에 몇되씩 사다가 부뚜막에 놓아주군했다. 집식구들의 생일날은 또 어떻게 아는지 혜영이로서는 엄두도 못내던 돼지고기나 소고기까지 남동생의 손에 들려보내기도 했다.

혜영은 비로소 자기가 온몸이 귀와 눈이 되여 장철석의 마음에 발을 맞추려고 애쓴다는것을 깨달았다. 그 깨도가 그의 감각과 눈치를 남달리 예민하게 했다. 그것은 또한 청년의 마음속기대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애타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 다른 집에 정을 두고있는것 아니냐? 원, 나이찬 젊은이들이 맨날 만나면서두 소 닭보듯 하는것부터가 별나지 않냐.》

혜영은 언제한번 그렇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오로지 장철석을 자기처럼 믿었을뿐이였다.

그것은 장철석의 변함없는 그 눈길과 진심이 일렁이는 얼굴을 믿어서였다.

그는 어느때든지 장철석이 한겨울날 처음으로 아름드리 통나무를 메여다 마당가운데 내던지듯이 자기의 짐을 다 꾸려들고 와서 방 한가운데 털썩 내려놓으리라 믿었다. 일일삼추로 그날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처럼 장철석이 만약 다른 집에 정을 두었다면 그날로 산속에 들어가 목을 매달 결심이였다.

그것은 또한 처녀의 가슴에서 남모르게 활짝 웃는 행복이기도 하

였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저녁에 박산이 났다.
행방불명!
청천벽력같은 그 소식이 일본놈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붙들어 일본본토로 끌어갔다는 소식으로 이어진것은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날은 정말 마을뒤산에 올라가 목이라도 매달고싶은 심정이였었다. …
귀틀집문이 열린것은 또 한시간나마 시간이 퍽 지나서였다.
10년간의 회포를 나누어서일가?
세사람모두의 얼굴이 눈에 뜨이게 환했다.
《허, 이거 우리가 도령님을 너무 오래 붙잡고 앉아있은게 아니요? 춘향이 꽁꽁 다 얼었겠소.》
곽영무가 기분좋게 롱말을 하며 어서 가보라고 장철석의 등을 밀었다. 저들은 귀틀집뒤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장철석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혜영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다.
등뒤에 와선 장철석은 이슥토록 말이 없었다.
무슨 사람이 이럴가!…혜영은 제사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장철석은 아무 말도 없이 혜영의 옆을 지나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며 나무숲속으로 들어갔다.
혜영은 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아름드리 고목밑을 지나 뚝처럼 가로누운 진대나무를 에돌기도 하면서 얼마쯤 그렇게 걷던 철석은 드디여 우뚝 멈춰섰다.
혜영이도 괜히 가슴에 두손을 모아얹으며 그자리에 섰다.
혜영이한테로 돌아서는 철석의 두눈에서는 이때껏 쌓고쌓아만 두었던 인정이 솟구쳐 불덩이처럼 이글거렸다. 혜영이는 숨이 콱 막히였다.
《고생했구만. … 용소. … 내 영무동지한테서 다 들었소.》
혜영은 눈굽이 화끈했다.
저 목소리 저리도 인정있고 저리도 따뜻했던가!
철석은 눈속을 왔다갔다 했다.

얼마간 그렇게 걷기만 하던 그는 또 혜영의 앞에 뚝 멎어서며 말했다.

《구창쪽으로 가는 인편이 있어서 어머니소식을 알아봤소. 별일없이 지낸다오. 동생도 철이 더 들구. 광산〈형제계〉동무들이 잘 도와준다고 하오.》

혜영은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돌아섰다.

《엄마!… 어머니.》

장철석이 혜영의 어깨에 따뜻이 손을 얹었다.

《진정하오. 이제 해방이 되면 우리가 더 잘 모시자구.… 자, 좀더 걷지. 종일이라도 걷고싶구만.》

혜영은 그의 팔을 꼭 붙잡고 걸었다.

얼마나 안기고싶던 품인가!

공작원동지한테 다 들었다고 했지? 다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는것일가. 지옥의 사자같은 그 털부숭이놈의 방에서 뛰쳐나올제《철석오빠, 엄마!》하며 정신없이 눈판을 헤맬 때의 그 참경을 과연 알고있단 말인가?

장철석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온것 같구만.》

그는 서둘러 돌아섰다.

혜영은 무엇인가 시간의 촉박감을 느꼈다.

그래 영무공작원동지가 빨리 떠날것이라고 했지.

혜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저…오늘 떠나야 하나요?》

장철석은 걸음을 멈추며 혜영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혜영은 저로서도 뜻을 모르게 고개를 한번 젓고나서 또박또박 힘을 주듯이 말했다.

《영무동지가 빨리 떠나게 된다는걸…알아요.》

《오—》

장철석은 말끄리를 길게 뽑았다. 그는 《허허허.》하고 소리를 내여 웃었다.

이어 그는 걸음을 성큼 내짚으며 말했다.

《알만 하오. 내가 영무동지를 따라간다는거지?》

《총독부에서까지 거길 주목하고있대요.》

《총독부가 아니라 일본 본영이나 천황이 지켜본들 어쨌다는 거요?》

《예?!》

《이것 보오. 내 방금 영무동지와 봉빈동지앞에서도 다시금 명백히 말했지만…난 일생동안 북주하에서 그들을 따라가지 못한걸 후회할거요. 얼마전까지만도 기어코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구.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난 이찌가와 노리아끼같은 놈한테두 겁을 먹구 피하려는 생각을 했댔소. 그따위놈 보지 않는데로 훌 떠나가버릴 생각이였지. 그 경거망동때문에 귀중한 한 동지가 목숨까지 잃었소.》

장철석은 가슴아프게 한숨을 내쉬고나서 계속했다.

《혜영이, 총독부에서 나같은게 뭐라구 지켜보겠나. 내가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랑림산일대의 비밀근거지와 무장부대들이지.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해주신 국내공작원들, 봉빈동지나 영무동지 같은 사람들 말이야. 더 나아가서는…》

철석은 뒤말을 뚝 끊었다. 가슴이 철렁해서였다.

감히 어디라구 개놈들이…

철석은 저도모르게 격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어리석은 놈들, 뭐 총독부 경무국?!…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어찌구어째보겠다구? 천하에 바보같은 놈들, 장군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위하는지를 모르거던. 우리 조선사람을 몰라.》

《그건…무슨 말이예요?》

무엇을 념두에 둔 말이냐는 뜻이였다.

철석은 손을 한번 가볍게 내저으며 말했다.

《오, 그건 차차루 알게 돼.… 한마디루 난 절대로 어딜 안가. 가서도 안되구. 아, 혜영일 이 산판에 두고 내가 가긴 어딜 간단말이요. 둘이 다 사지판에서 살아나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혜영일 지켜줘야지.》

장철석은 조용히 웃었다.

철석은 혜영의 두손을 꾹 모아잡으며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영이, 똑똑히 알아두라구. 우린 이젠 광주놈밑에서 수격수격 일이나 하던 광부들이 아니요.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구상을 받들고 왜놈쪽발이놈들과의 싸움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조선청년들이요. 우리의 싸움을 장군님께서 지켜보고계신다고 생각해보오. …참으로 사람답게 살게 되였지. 어머니랑 모시고 옛말하며 살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이요. 내 얼마전까지만도 기어코 강을 건너가야겠다고 했지만 깨닫고보니 여기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 장군님께서 여기 랑림산일대를 그렇게도 중시하신다는걸 늦게야 알았거던. 그러니 혜영이, 우리 장군님부대에 함께 가있는 심정으로 싸움준비를 더 잘하자구. 무장폭동준비! 알겠어? 내 혜영일 생각해서라두 화약과 도화선을 한짐씩 지워보낼테요. 혜영이 실컷 쓰고 남을만큼!》

혜영은 여전히 새 사람을 보듯이 감동되고 놀라는 눈빛이였다.

철석은 한걸음 더 나서면서 비밀이라도 알려주듯 나직나직 말했다.

《이제 보오. 이 장철석이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일을 해놓지 않나.》

《깜짝 놀래우는 일이요? …뭔데요?》

장철석은 한쪽눈을 찡긋 감아보였다.

《그저 그쯤 알아두라구.》

혜영의 눈에 눈물이 핑 어렸다. 장철석이 어디도 안간다는데 대한 기쁨인지 그저 그쯤 알아두라는데 대한 야속함인지 몰랐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듯 혜영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고개를 숙인채 입술만 꼭꼭 씹던 그는 이윽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얼굴을 살짝 들며 물었다.

《글쎄 나갈으건 몰라두 되겠지만…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여기 들어와 싸움준빌 하면 안되나요?》

혜영의 두눈과 얼굴에는 여전히 절절한것이 끓고있었다.

고집이기 전에 진심이였다.

장철석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의 얼굴이 눈에 뜨이게 흐려지

자 혜영은 또 울먹울먹하며 말했다.

《거기서 잘못되면 나도 죽고말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줄가. …》

《자 이런,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

철석은 웃어보이면서도 부러 성을 내는체 했다.

혜영은 아랑곳없이 더욱 신중해서 말했다.

《나도 다 들었어요. 지금 놈들의 밀정이 거기곁에 바싹 붙어있는것 같다는 말도 말이예요. 밀정놈한테 작게 피해를 봤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장철석도 신중해서 물었다.

혜영은 주위를 얼핏 살피고나서 한걸음 다가섰다.

《저… 이건 아직 누구한테도 하지 않은 말인데… 구창광산에서 말이예요. 거기서랑 〈형제계〉성원들이 많이 붙잡혀서 징병, 징용으로 끌려간건 틀림없이 밀정놈때문이라고 했어요. 거 남갱 말더듬이 생각나요?》

장철석은 머리속에서 번쩍 하고 지나가는것이 있었다.

남갱 말더듬이?

《그놈이 밀정같아요.》하던 《형제계》성원의 말이 생각난것이였다.

혜영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나서 더 조용조용 말했다.

《거기서 징병으로 끌려간지 사나흘후였지요. 산에 간 동생이 오지 않아 내가 뒤산에 올라가는데 글쎄 그 말더듬이와 또 한사람이 무엇인가 낑낑거리며 맞들고가지 않겠어요. 사람의 시체였어요. 아직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걸 보면 죽인지 얼마 안되는것 같았어요. 놈들은 그 시체를 폐갱의 수직굴에다 던져버렸어요. 난 너무도 무서워 바위짬에서 나오지도 못했댔어요.》

《그렇소? …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소? 죽은 사람말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더듬이놈은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놈도 똑똑히 봤어요. 두눈귀가 올리붙고 아래턱이 내밀렸어요. 그놈이 말더듬이한테 무슨 지시를 주는것 같았어요. 상풍광산이란 말도 여러번 하구…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나도 갑자기 붙잡혀갔댔

지요. … 이제라두 만나기만 하면 알아볼텐데.》
《그래?!》
《이봐요. 그놈들이 상풍광산이란 말을 여러번 한걸 보면 그놈들도 상풍광산에 와있는게 안예요?
난 막 무서워요. 가슴이 떨려요.》
장철석은 마른 이끼들이 가득 덮인 전나무주위를 한바퀴 돌았다.
《눈귀가 치째지고 아래턱이 내밀렸단 말이지!》
철석은 주먹으로 나무밑둥을 탕 쳤다.
《아래턱이 내밀린 놈이라!》
또 한번 외우고는 서둘러 혜영의 팔을 잡았다.
《알겠소. 빨리 봉빈동지한테로 가자구.》
그는 혜영을 끌다싶이 하며 귀틀집쪽으로 향했다.
얼마쯤 끌려가던 혜영이 기어코 다시 멈춰서며 물었다.
《저… 정말 무섭지 않아요?》
장철석은 이윽토록 혜영을 뜯어보다가 싱긋 웃었다.
《원 참, 몇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내 방금전에도 말했지? 전에는 겁도 났다구. 허나 이젠 이 장철석이 전날의 철부지가 아니요. 봉빈공작원의 말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장철석이도 알고계신다는거요. 우리 조직의 활동을… 장군님께서… 아, 장군님께서 알아주시는데 뭘 겁날게 있어?》
혜영은 여전히 발끝에 떨군 눈길을 들지 못했다.
또 그 밀정놈때문이라는 생각에 장철석은 저으기 신중해져서 말했다.
《글쎄 걱정말라는데. … 아직은 놈들이 날 다치지 않아. 오히려 돌봐준다고 할수 있지. 날 굉장히 크게 써먹으려 하고있거던. 결국 날 보호하고 내가 하고싶어하는걸 도와주는셈이지. 그러니 걱정 꽝 놓구… 혜영이, 맡은 일을 더 잘하라구. 알겠어? 자, 어서 가자구.》
그는 더 힘있게 혜영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귀틀집앞에서는 봉빈이와 영무가 먼저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인가 열정적으로 나누고있었다.

제 5 장

1

조선중부 평야지대에도 그렇지만 랑림산일대의 고산지대에는 특히 눈이 더 녹을 사이없이 계속 내려와 덧쌓이기만 했다.

어제도 밤새도록 눈이 쏟아졌다.

토끼나 오소리 같은 산짐승들은 엄두도 못냈고 노루나 메돼지들이 지나간 자리는 자국이 아니라 가슴과 배로 떠밀고나가 곳곳의 숲속에 오솔길같은 눈길을 냈다.

분비, 가문비, 전나무가지들에는 금시 뚝 부러지지 않을가싶을만큼 눈이 더미로 쌓여 무겁게 늘어졌다. 큰 나무들 사이사이에 자라던 애어린 나무들도 눈을 들써서 어떤것은 백삼갈기도 하고 어떤것은 나무드덜기나 바위돌 같아보이기도 했다.

또 한바탕 눈을 쏟으려는지 하늘이 시커멓게 내려앉았다.

가뜩이나 울창한 밀림속에 가지마다 눈을 무겁게 들썼으니 나무밑은 백야속의 그늘처럼 컴컴했다.

어디선가 궁상스럽게 까마귀울음소리가 까욱까욱 나더니 눈가루를 뽀얗게 날리면서 먼저 산까치 한마리가 날아오르고 뒤미처 열댓마리나 되는 흉물스러운 까마귀들이 기를 쓰며 산까치를 추격했다.

방금 까마귀들이 날아오른 산등성이에서 허리까지 치는 눈판을 헤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꺼먼 털벙거지와 두툼하게 두른 털목도리에 성에가 허옇게 불렸는데 곰가죽등거리가 유난스러웠다. 어깨에는 쌍련발식사냥총을 멨고 허리와 어깨에는 탄약을 줄줄이 끼운 탄띠를 둘렀다. 사냥총과 탄약, 곰가죽등거리가 담이 크고 관록있는 사냥군이라는 말없는 시위인듯도싶다.

사냥군이면 자연히 숲속을 유심히 살피련만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곧바로 산등선을 가로지르더니 남향으로 깎아지른듯한 절벽밑으로 향했다. 저 앞쪽으로 다래와 오미자덩굴에 절반쯤 묻혀버린 절벽이 나타나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나서 이마우로 털벙거지를 쑥 밀어올렸다. 땀이 홍건히 내밴 이마에서 대뜸 김이 피여오른다. 두눈귀가 치째지고 아래턱이 눈에 뜨이게 내밀렸다.

모리무라 다다시가 품을 들여 키워냈을뿐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은 물론 조선경내의 중요요충지대들에 깊숙이 묻어놓은 첩자들중의 하나인 우메즈 사부로―《모모―1》이였다.

그는 이미 할빈, 왕청, 연길, 무송지구로 무수히 자리를 옮겨가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하조직과 조직원들을 내탐하여 도죠내각의 표창은 물론 인생말년에 그리 궁하지 않게 사는데 적지 않게 보탬이 될 상금까지 받았다.

특수첩보원들중에서 《모모―2》도 그렇지만 우메즈 사부로가 특히 더 다다시의 관심을 끈것은 전혀 일본사람이라고 느낄수가 없는 조선말발음이였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초점으로 하고 조선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첩보활동에서 모리무라 다다시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중시하는 일종의 방략이기도 했다.

사부로가 다다시의 각별한 관심을 산것도 천성적이라고 할만한 그 재간때문인지도 모른다.

헌데 일은 이곳 상풍광산에서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셈이 되고말았다.

사부로가 경무국의 비밀료정에서 다다시와 술잔을 찧고 박상이라는 이름으로 상풍광산에 들어온것은 네해전이였다. 그는 그사이 침착하고도 치밀하며 인내성있는 작전으로 광산의 반일지하조직성원이 되였고 부책임자로까지 신임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총적과업은 하나―반드시 랑림산일대로 들어오게 될 조선인민혁명군 무장소조나 국내공작원을 색출하는것이였다. 그 대상이 크면클수록 보수가 엄청나게 높아질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다시는 이번 일까지만 끝내고는 도꾜로 돌아가 새 첩보원양성에 전념하면서 첩보활동경험집같은거나 썼으면 하는 그의 희망도 쾌히 담보해주었었다.

사부로는 상풍광산공작이 자기 한생의 황홀한 령마루로 되리라 확신했다. 그만큼 그는 자신심을 가지고 뼈심들여 달라붙었던것이다.

드디여 그는 《강동무》라는 너무도 큰 인물과 맞다들었다.

한인준으로부터 국경대안까지 자기를 대신하여 그와 동행하라는 특별과업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이지 순간에 구름우에라도 날아오르는것 같았었다. 긴급비상통보를 받은 모리무라 다다시는 또 얼마나 흥분했던가.

한인준에게서 극히 중요한 움직임이 있군 한다는것은 이미 포착했었지만 그것이 유격대사령부와 직접 련계를 가지고있는 국내공작원 《강동무》라는 인물과 극비밀리에 만나군 하는 일일줄은 몰랐었다.

사부로는 곧 해당 통로를 통하여 치밀한 작전을 폈다. 그에게는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든 자기의 작전을 마음먹은대로 펴나갈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총독부증명서가 있어 저격수 한명을 요구했다. 그에게 행군로정의 매복지점을 정해주고 자기들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우선 자기의 왼쪽팔을 쏘라고 명령했다.

다른데는 안되고 꼭 왼쪽팔을 쏘아야 한다고 엄하게 반복했다. 총소리만 내겠으니 총에 맞은척 하고 쓰러져있으면 안되겠느냐고 동정을 표하자 비장하면서도 결연한 목소리로 천황페하의 충신이 팔 하나가 무슨 대수인가. 내가 피흘리며 쓰러지는것을 직접 보아야 그 《강동무》가 달아나질 못한다. 혁명군은 자기 동지가 부상을 입고 쓰러지면 절대로 혼자 달아나는 법이 없다. … 하고 유식을 뽐내기까지 했다. 특히 그가 기어코 자기 몸에 부상을 당하려는것은 만약의 경우 같이 《체포》되여 같이 《감옥투쟁》을 벌리려는 타산이였다.

자기를 먼저 쏜 다음에는 이어 《강동무》의 성한 다리를, 동상으로 하여 절룩절룩 저는 다리가 아니라 꼭 다른쪽다리를 쏘아 절

대로 뛰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선발된 저격수의 사격솜씨는 귀신처럼 능했다. 첫 총성과 함께 왼쪽팔굽아래를 몽둥이로 쳐갈기는것 같은 타격을 받는 순간 풀숲에 푹 쓰러지면서도 사부로는 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성공이다!)

앞서 걷던 《강동무》가 아연해서 돌아서는 순간 또 한방의 총소리와 함께 그가 오른쪽무릎을 붙안으며 주저앉을 때는 펄쩍 뛰쳐일어나 목이 터지게 《반자이!》를 웨칠번 하였다.

허나 그는 《강동무》의 몸에 비상용수류탄이 준비되여있을줄은 몰랐다.

잠복해있던 경관들이 짐승무리처럼 달려드는 순간 산판에 메아리치며 울리는 폭음!

사부로는 제몸이 그 수류탄파편에 갈가리 찢어지지 않은것만도 천행으로 여겼다.

제풀에 성이 독같이 오른 사부로는 얼혼이 빠져 멍청히 서있는 한 경관의 손에서 다짜고짜 보총을 나꿔채자바람으로 방금전에 자기의 왼쪽팔을 쏜 저격수의 가슴을 꿰창냈다.

《개자식!》

왜 애매한 저격수한테 행패를 하는지도 모르고 남은 총탄을 다 쏟아부었다. 아연해서 벌벌 떠는 경관들에게 빨리 산판에서 강대나무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산더미같은 나무더미가 쌓이자 두 시체를 올려놓고 불을 질렀다.

비록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수습은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며 다다시에게 경과보고를 했는데 일은 또 뜻밖으로 번져졌다. 이제는 광산에서 일체 손을 떼라는것이였다. 당초의 언약대로 쇄골분신의 정신으로 기어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떼를 쓰자 다다시는 쓰거움을 감추며 점잖게 타일렀다.

《자네는 이미 로출됐어. 임자의 그 인상특징부터가 께름하단 말이야. 로출된 탐정은 적들에게 역리용된다는걸 몰라?》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장작더미에서 타죽은것으로 소문을 내고 인적없는 산판으로 깊숙이 숨어들라고 했다.

사부로는 그때처럼 자기의 치째진 눈귀와 앞으로 내밀린 아래턱이 저주스러워본적이 없었다.

어쨌든 말은 임무에 대한 쇄골분신의 정신이 은을 내서인지 랑림산일대의 큰 인물색출에만은 그대로 참가하기로 했다. 그것이 다름아닌 고달프기 그지없는 천고의 대원시림을 참빗질하듯 샅샅이 훑어야 하는 《사냥작전》이였다. …

사부로는 또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허리춤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비록 국화문장이 새겨진 시계는 못되여도 도죠 히데끼내각의 한다 하는 요직인물이 직접 선물로 준 시계였다.

그는 (아차!) 하는 후회와 함께 서둘러 벼랑굽으로 향했다.

벼랑굽에는 눈속을 헤치며 무슨 풀뿌리인가를 캐는 한 녀인이 있었다.

사부로는 좀 숨이 찬 목소리로 넌지시 말을 건넸다.

《약초를 캐는가요? 원, 이 겨울에 약초를 캐다니요?》

《산에서 물오리사냥을 하려는 사냥군이나 같지요.》

《담뽀뽀.》

《모모－1.》

녀인은 그 다음에야 허리를 펴며 돌아섰다. 두눈만을 내놓고 검은천으로 복면을 했다.

사부로는 모욕을 느끼며 성을 냈다.

《그 복면은 벗어!》

《담뽀뽀》의 목소리는 아주 야유적이였다.

《상면때 반드시 복면을 하라는것은 내 상관의 지시예요.》

사부로는 침을 탁 내뱉았다.

실은 그도 《담뽀뽀》의 얼굴은 몰랐다. 다다시의 상면지시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녀자일가 하는 호기심이 부사산만큼이나 컸었다. 헌데 정작 나타난것은 복면의 수수께끼같은 년이란 말인가!

상관이라면 누구인가? 《모모－2》?

흥! 하고 코바람을 내불었다. 기껏 위장하고 련락임무나 수행하는 주제에! 하는 조소에서였다.

《정 시끄러우면 없애치워. 가차없이!》하고 소름이 오싹 돋

을만큼 랭기를 풍기던 다다시의 목소리가 되살아나면서 가슴을 선뜩하게 했다.

한가닥 동정심도 일었다.

비록 검은 복면을 쓰고 가을독사처럼 독기를 풍기긴 했지만 네년도 기껏 써먹다가 비위에 거슬리면 꿰진 신발짝 차던지듯이 개굴창에 내던져질 운명이야! 하는 쓰겁고 가련한 생각에서였다.

다다시의 그 야수같은 성미에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끄러우면 가차없이 없애치울》운명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채 그래도 다다시의 첩자랍시고 도고해하는 인생이 이 어리석은 년 하나뿐이겠는가.

어쨌든 새 지시는 전달해야 했다.

《담뽀뽀》는 채 듣지조차 않고 얼굴이 새빨개서 팩 했다.

《뭐예요?… 누굴 암개로 보는거야?》

사부로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기는 물론 지시를 전달하는것으로 임무수행이 끝나지만 《담뽀뽀》가 너무도 도전적으로 반발했기때문이였다. 뜻밖의 예상할수 없는 불똥이 저한테도 튈것 같아 당황해졌다.

다다시의 새 지시에 꺼림없이 반발하는 년의 놀아대는 품으로 보아 둘사이가 보통 아니였댔던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더욱 오금이 저려났다.

둘은 한식경이나 벼랑밑을 서로 엇갈아가며 왔다갔다 했다.

사부로는 무엇인가 인내성있게 설득시키려 했고 《담뽀뽀》는 여전히 도고한 자세로 신경질을 부렸다.

얼마후에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듯 깍듯이 고개들을 숙여보이고 헤여졌다.

《담뽀뽀》는 꿋꿋이 나무숲을 헤쳐나가다가 《모모－1》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났을무렵에야 복면을 벗고 막혔던 숨을 내쉬듯이 큰숨을 후 내쉬였다.

2

비밀모임장소로 가는 장철석은 저으기 어깨가 무겁고 발걸음이 떠졌다.

이틀동안이나 김봉빈과 함께 있으면서 지하조직들을 확대하는 문제와 조직의 투쟁방향, 방법을 배울 때는 물론 곽영무까지 만나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구상과 구체적인 투쟁경험을 들었을 때는 자신이 만만했고 그만큼 또 신심이 북받쳤는데 정작 그들과 헤여져 광산에 돌아와보니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사람들이 보는 눈길부터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관들과 길거리에서 마주치군 하는 수비대놈들도 어쩐지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것 같았다. 이죽거리기 잘하는 로무과장과 신경질로 빚어놓은것 같은 갱안의 십장놈도 무엇인가를 알고있는것처럼 느껴지면서 가슴이 철렁하군 했다.

며칠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봉빈공작원과 마주앉았을 때와는 달리 내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가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 날 밤이면 또 한인준의 얼굴이 떠오르고 혜영이와 영옥의 얼굴이 떠올라 발목을 잡기도 했다.

제일 긴장되는것은 총독부 경무국과 직접 잇닿아있다는 밀정의 눈길이였다.

어느 놈일가?

우리의 곁에 바싹 접근해있다고 하면 지하조직선가까이에 들어와 박혔다는것인데 과연 어떤 놈일가?

그렇듯 침착하고 주도세밀한 한인준이까지 모르는걸 보면 로숙해도 보통 로숙한 놈이 아닌게 분명했다.

그 눈길이 밤이건 낮이건 자기의 등뒤에 붙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장철석은 깜박 잠이 들었다가도 등골이 오싹해서 캄캄한 방안을 둘

러보군 했다.

급선무는 빨리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는것이였다. 한인준의 유언대로 방풍림구실을 바로하자고 해도 그렇고 더우기 무장폭동준비를 극비밀리에 다그치자고 해도 그놈부터 똑똑히 밝혀내야 했다. 아직 그놈이 어디에 도사리고있는지조차 모르고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탔다.

한인준이 일체 행동을 중지하고 침묵했던 사정이 더 깊이 리해됐다. 그런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제 생각만 생각이라고 우둘렁거리던 일이 정말이지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설익었댔어. 당초에 똑똑칠 못했댔거든. 그러니 이찌가와 노리아끼같은 놈한테 조직을 다 로출시키기까지 했댔지.)

다시금 나때문에 귀중한 동지가 잘못됐다는 자책에 가슴이 째지는것 같았다.

그래. 놈들과의 사생결단은 제 기분, 제 배짱대로 헤덤벼쳐선 안돼!

봉빈공작원의 말대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무장폭동준비를 다그치자면 빨리 놈들의 밀정을 알아내야 했다. 이미 결심한대로 놈들과 쉽게 접촉할수 있는 조직원을 빨리 선발해야 할텐데 과연 누구를 어떻게 활동시킬것인가부터가 막막했다.

며칠동안 팔자루에서 콩알 찾아내듯 하여 두사람을 점찍었다.

아직 점만 찍었을뿐 본격적인 사업엔 착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료해와 실천적인 검증이 더 필요했던것이다. 강동지의 체포모략이나 한인준의 희생과 같은 치명적인 일을 다시 반복시킬수는 없지 않는가.

(더 따져봐야 한다. 한인준동지처럼 신중해야 해.)

놈들이 부러 우리 조직을 다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놈들의 밀정을 더《신임》하고 믿는척 해야 한다.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해야 해!

배심이 생겼지만 한편 불안도 없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길밖에 없는것이여서 장철석은 단호히 그 방법으로 맞받아나가야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다지였다.

그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모임장소는 한인준이 리용하던 선녀갱 옆골안의 페갱이였다. 다른 갱주변도 그렇지만 선녀갱가까이에도 이곳저곳 뚫다가 그만둔 페갱들이 곳곳에 있었다.

장철석은 처음 한인준의 뒤를 이어 자기가 이곳 지구 조국광복회조직의 활동을 책임지게 되였을 때 비밀모임장소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했었다. 봉빈이와 영무의 조언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모임장소를 옮길뿐아니라 자주 변동시키라고 했다. 그렇게 하는것은 지하활동에서의 하나의 원칙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장철석은 점차 달리 생각했다.

이미 한인준이 로출됐고 자기도 로출된 상태라면 그 회합장소를 더 적극적으로 리용하자는것이였다.

한인준이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방풍림성벽이 되여 놈들을 감쪽같이 갱속 깊숙이 끌어들여다 수족을 얽어매놓겠다고!

그렇다면 굳이 놈들의 눈길을 피하는게 아니였다.

놈들의 눈길을 피하는척 하면서 아니, 놈들이 모르는척 한다면 우리도 일체 모르는척 하면서 놈들이 조명등을 켜놓은 바로 그 턱밑에서 활동을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우정 부산을 피우며 그 페갱안에 모여 우스개판을 벌리군 했다. 화투놀이나 장기놀이 같은것을 벌리기도 했다. 그렇게 놀음판을 벌려놓고는 실지 내용적인 문제들은 사전에 따로 과업을 받은 조직성원들이 전혀 왕청같은 다른 곳에 모여앉아 진지하게 토론을 하였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문제가 중요한것만큼 장철석은 오늘회의를 각별히 품을 들여 준비했었다.

우선 항시 놈들의 감시속에 있을 선녀갱쪽의 페갱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될수록 화투놀이나 장기놀이에 승벽이 센 광부들을 모이도록 했다. 이미 로출되였다고 짐작되는 이전의 조직성원들에게 과업을 주어 몇명씩 데려오게 했던것이다.

선녀갱책임자를 비롯해서 기본문제토의에 꼭 참가해야 할 대상들은 하루전에 각자 구실을 만들어 광산에서 멀리로 볼 일을 보러 가는것처럼 감쪽같이 행적을 감추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장철석은 부러 늦장을 부리면서 얼마쯤 장기판에서 더 시간을 보내다가 중요회의를 하는것처럼 사람들을 가까이 모여앉히고는 로동조건개선문제와 임금인상문제를 비롯해서 광산측에 제기해야 할 생활조건 몇가지를 의논에 붙였다.

와짝 열을 올려놓고는 터져나오는 의견들을 수첩에 진중히 받아적었다.

《회의》를 끝마치고는 얼마동안 더 놀음판에 끼여앉았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진짜회의는 북갱으로 올라가는 험한 산골안의 깊숙한 고갱속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북갱쪽으로 가기 위해 선녀갱입구가 멀리로 내려다보이는 나무숲이 무성한 산릉선을 톺아오르는 장철석은 다시금 봉빈이와 영무와 마주앉아 장시간 의논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상기해봤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빨리 조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이였다.

봉빈의 말처럼 상황이 상황인것만큼 실정과 정세에 대응할 방법들이 필요했다. 어떤 방법, 어떤 경우에 관계없이 하나의 철칙은 절대적인 비밀엄수였다.

곽영무는 이 사업을 깊은 바다에 비유했었다.

이제부터 상풍광산지하조직의 활동은 깊은 바다같이 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겉면은 잔잔해도 물밑에서는 거창한 흐름과 소용돌이를 일으켜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에 합류할 무장폭동준비를 착실히 갖추어나가야 한다는 뜻이였다.

깊은 바다! 유사시에 대응할 무장폭동준비!

가슴이 뛰고 피가 끓었다.

옳다. 겉면은 내가 되여야 한다. 이미 로출된 소조책임자들 몇명이 그 바다의 겉면을 꽉 채워야 한다. 그밑에서 소용돌이칠 조직성원들!

다음은 봉빈이 요구한 작탄제작용화약과 도화선보장문제였다. 력량준비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없이야 무슨 무장폭동이겠는가.

이것 또한 생명을 내대야 하는 극비중의 극비문제였다. 놈들에게 비밀근거지로 들어가는 통로를 알려줄수 있는, 이를테면 실꾸리가 풀려들어갈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였다. 몇해전 중국동북지역에 《집단부락》설치령을 내리고 소금과 식량을 리용하여 유격대를 전멸시킬 음흉한 모략을 꾸몄다는 놈들이 아닌가.

그 살인적인 모략음모의 앞장에 섰던 놈들 역시 밀정들이였다고 했다.

밀정!

밖에 있는 몇백명의 적들보다 안에 있는 한놈의 적이 더 무섭다고 일러주던 곽영무의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조직선밖의 백놈의 적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그놈은 과연 어느 놈일가 ?…

3

험한 산발을 타느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장철석이 으슥한 고갱속에 들어가니 아직 당상갱소조책임자 차창일이 도착하지 못했을뿐 모일 사람들은 다 모여있었다.

차창일은 며칠전에 장철석이 주동적으로 소조책임자로 임명했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장철석도 이 일에서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장철석은 어제 각별히 그를 만나 30리밖의 림산마을로 외삼촌 3년제사에 간다고 소리를 내면서 슬쩍 자취를 감추었다가 나타나라고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주었었다.

진짜 30리길을 갔다오는것인가?

그가 하루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가 생각하니 은근히 불안하기도 했다.

차창일은 한식경이나 더 기다려서야 큼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싱글벙글하는 품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였다. 기분좋을 때만 하는 버릇대로 구레나룻자리가 시퍼런 아래턱을 슬슬 쓸었다.

《에—이거 늦어서 미안하우다. 뭘 좀 준비해가지고 온다는게 … 어디 제시간에 나타나주어야 말이지요.》

그는 시장할텐데 한개씩 들고 보자면서 보따리를 풀었다.

삶은 감자였다.

감자알들에서는 아직 더운 김이 피여올랐다.

장철석은 보자기를 알아보았다. 네귀에 빨간천을 곱게 덧입힌 한영옥이네 보자기였다.

한영옥이한테 감자를 부탁했던 모양이였다.

긴장했던탓인지 누구도 달게 받아들지 않았다.

장철석도 고개를 틀며 눈살을 찌프렸다.

차창일은 그제서야 실책을 깨달은듯 손으로 목덜미를 쓸며 감자보따리를 밀어놓았다.

그러는 차창일을 보려니 장철석은 느닷없이 또 그의 추동에 말려들어 무작정 압록강을 건느려 했던 일이 생각났다.

너럭바위앞의 눈판에 그렸던 략도가 유난스레 눈뿌리를 찔렀다.

그의 고향마을에 가본 사람이 있었는가고 물었다던 봉빈공작원의 말도 귀전에 울렸다.

수비대놈들이 차창일이 초막안에서 밤새껏 불을 피우고있는것을 빤히 보면서도 내가 나타날 때까지 까딱않고 기다린 내막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차창일은 비판이라도 받을가 두려운듯 장철석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장철석은 얼른 그의 눈길을 피하면서 모여앉은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둘러보았다.

그는 저으기 긴장된 목소리로 우선 출석정형부터 보고했다.

《목재소를 비롯해서 다른 곳의 소조책임자들은 부르지 않았소.》

오늘은 주로 광산지하조직의 활동을 토론하는것만큼 광산 각 갱의 소조책임자들을 위주로 모이기로 했던것이다. 린근 조직의 책임자들은 될수록 개별적으로 만나 회의정신을 알려주고 해당한 과업을 주기로 했다.

장철석은 이어 각 갱에서의 정황과 동태, 그에 상응한 활동정형을 료해했다. 특히 조직망확대준비정형을 깐깐히 료해했다. 역시 선녀갱소조책임자가 로숙하게 책임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

《당상갱에서도 성과가 큽니다. 좌상아바이를 비롯해서 경험있는 오랜 광부들을 조직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확고해졌다면 그건 아주 잘했습니다. 범갱과 북갱에서도 여러명을 조직에 새로 받을 준비를 했는데 그들의 사기가 대단합니다.》

장철석은 조직망확대를 위한 준비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고쳐야 할 문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문제별로 갈라 명백하게 찍어주고나서 계속했다.

《이미 말했지만 우리 조직은 놈들한테 로출되였습니다. 놈들의 〈요시찰〉명단에 오른 동무들이 적지 않다는것입니다. 이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한몸 그대로 내대기로 결심하고 활동을 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왜,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구상과 작전을 위해서입니다. 다 알고있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최후작전을 벌리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린 더 대담하고 더 감쪽같은 수들을 생각해서 놈들과 맞서야 하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특히 명심해야 할것은 놈들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는것입니다. 수차 얘기했지만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비밀근거지보위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최종목표는 근거지동지들과 함께 들고일어날 무장봉기입니다. 무장폭동! 무장으로 놈들을 제압해야 하며 광산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임무가 더 중한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난 오늘 새로운 안을 내놓자고 합니다.》

모두 숨을 죽이였다. 이어 어깨와 가슴들을 들먹이였다.

장철석은 자기 생각이 옳은가를 재검토하듯 얼마간 사이를 두었

다가 계속하였다.

《한인준동지는 만약의 경우를 예견해서 이미 조직된 조직망뒤에 제2의 조직을 새로 내올것을 계획했었습니다. 물론 조직명칭을 따로 단 제2의 조직은 필요없지만 한인준동지의 계획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우리 조직은 명실공히 **김일성**장군님께서 창립하신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입니다. 우린 모두 그 조직성원들입니다. 지난날 나도 구창광산에서 〈형제계〉를 무었댔지만 곳곳에 그런 조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일 훌륭한 조직은 조국광복회조직입니다!》

누가 먼저 쳤는지 박수소리가 터졌다.

장철석도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다.

뜻밖의 박수소리로 가슴이 벅차오른 장철석은 큰숨을 한번 몰아쉬고나서 계속 이었다.

《우린 그사이 놈들의 음흉한 모략과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한인준동지의 활동과 적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사이 광산에서 벌어졌던 뜻밖의 일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떨어지는가. 다시 반복하지만 놈들의 밀정이 우리곁에 바싹 붙어있다는것이 첫째며 하지만 놈들은 나를 포함하여 이미전에 활동하던 몇사람만을 장악했다는것이 둘째 문제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인준동지의 선견지명의 활동에 의한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겠는가?》

장철석은 대답이라도 기다리는듯 눈이 초롱초롱해서 쳐다보는 사람들을 일일이 둘러보고나서 또한번 큰숨을 몰아쉬였다.

《이런 조건에서 난 각 소조들에 능력있는 동무들로서 대리인 즉 소조책임자들을 또 한명씩 선발하자는 의견입니다.》

역시 잠잠했다.

이윽해서 선녀갱소조책임자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러니 진짜책임자는 그들이 하고 이미 놈들의 〈요시찰〉명단에 오른 우린 안개가 되자는거구만요?》

장철석은 뜻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옳습니다. 방풍림안에 또하나의 방풍림!》

북갱소조책임자가 무릎을 쳤다.

《좋수다. 이를테면 우리가 놈들의 눈에 콩까풀을 씌워놓자는것인데 난 찬성이요!》

모두들 어깨를 들썩거리며 호응했다.

《명안이우다. 우리야 이젠 웃동을 벗어내치구 나선 몸들인데 겁날게 있소?》

《놈들이 우리 잠꼬대에까지 신경을 쓸텐데… 그렇게 합시다. 절대찬성이요.》

장철석도 흥분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되 이 일 역시 최대의 비밀입니다. 새로 선발되는 동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성원외에는 알 필요가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장철석은 새로 선발될 소조책임자의 선발원칙과 기준, 호상련락방법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하고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나서 다음문제로 넘어갔다.

화약과 도화선구입문제였다.

이 문제 역시 절대로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일인것만큼 덤비지 말고 극비밀리에 진행하되 될수록 발파공들과 화약창고성원들을 쟁취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조직성원들을 이 사업에 동원시키며 도화선 한토막이라도 수집하는 경우 보관방법과 장소까지 합의하였다.

모두 흥분하여 일어났다.

모임후 장철석은 선녀갱과 북갱소조책임자를 비롯하여 몇명의 성원들을 각별히 따로따로 한사람씩 더 만나고 헤여졌다.

4

장철석은 비밀련락장소인 3호지점으로 어떻게 달려갔는지 몰랐다. 《참나무》로부터 긴급상면을 요구해왔던것이였다. 아직

은 얼굴도 모르는 《참나무》와의 첫 상면이였다. 봉빈이한테서 《참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광산지하조직의 뒤를 잘 받쳐주고있는 그가 누구일가 하고 곳곳에서 주위를 살펴보군 하던 장철석이였다. 적의 밀정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알고싶어지던 《참나무》였다.

3호지점은 소나무가 울창한 수림속이였다. 깎아지른듯한 절벽이 솟아있고 주위에는 가둑나무와 개암나무숲이 우거졌다. 절벽밑에는 융단처럼 포근한 풀판이 펼쳐졌다.

가슴울렁이며 상면장소에 이른 철석은 등골이 오싹하여 굳어졌다. 가둑나무숲에서 얼씬하는 검은 제복을 보았던것이다. 틀림없는 경관제복이였다.

매복?!

숯구이막에서 꼼짝 못하고 수비대놈들한테 붙잡혔던 일이 눈앞에 확 떠올랐다.

가슴속에서는 열댓발의 남포가 연방 튀는것 같았다.

착각을 했던가싶을만큼 저쪽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아름드리소나무뒤에 몸을 숨긴 장철석은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면서 주위를 살피였다.

저쪽에서 먼저 기척을 냈다.

상면암호였다.

상면암호가 분명했지만 장철석은 응답을 못했다. 아직 잘 믿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너무 긴장하여 입을 열수가 없었던것이다.

《장철석동무!》

이번엔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장철석은 소나무밑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았다.

와삭와삭 마른 가랑잎을 밟으며 급히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철석은 정신을 펄쩍 차리며 일어났다.

까만 경관복 … 모자를 벗어든 젊은 청년이 반가움에 떠서 달려오고있었다.

《참나무!》

장철석도 목메여 부르며 마주 달려나갔다.

《철석동무!》

《참나무!》

그들은 와락 그러안았다.

뜨겁게 볼을 비비고나서 한참이나 서로 얼굴을 보았다. 그러다 다시 힘껏 그러안았다.

우— 소나무숲이 설레였다. 설레이는 나무가지들사이로 금빛 해살이 쏟아져내리며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한껏 상봉의 기쁨을 나눈 그들은 등산길에 오른 소년들처럼 손을 잡은채 벼랑밑의 풀판에 나란히 앉았다.

《이 옷이 눈에 거슬리지요?》

《참나무》가 의미있게 물었다.

장철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슴이 철렁했댔소. 하지만 옷이 무슨 문제요.》

장철석은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정녕 튼튼하고 억센 돌기둥이라도 꽉 그러안은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다. 네놈들이 우리 조직 가까이에 밀정을 박아넣었다면 네놈들의 심장엔 우리 동지가 있다 하는 배심에서였다.

힘이 났다.

이제부터는 놈들의 염통을 뽑아낼수 있지 않는가.

장철석은 긴급상면을 요구한 사연을 빨리 알고싶었다.

그것을 눈치채자 《참나무》는 부러 늦장을 부리듯 왕청같은 말을 꺼냈다.

《초면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지 않습니까?》

장철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있다는 눈치였다.

장철석은 알고싶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얼굴을 붉혔다. 너무 조급해했다는 자책에서였다.

내가 왜 자꾸 이러는가. 사람이 마음먹어 못해낼 일이 없다는데 의지와 용단이 아직 모자라서일가?

새삼스레 《참나무》를 여겨보았다.

상대방의 심리를 대뜸 알아채는 그의 통찰력에도 감탄을 했다.

보통 침착한 사람이 아니였다. 하긴 한인준이 품들여 키워낸 조국광복회특수회원이라지 않는가.

한인준과 나란히 앉은 때마냥 마음이 훈훈해졌다.

《참나무》는 조용조용 자기 경력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름은 임일광, 나이는 장철석보다 한살 아래였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을 냈다 한다.

그의 가정은 리조시대 정5품벼슬을 지낸적도 있는 량반가문후손으로서 정 못살지는 않았다. 제손으로 농사지을 땅마지기는 가지고있어 부지런히 일하면 배는 곯지 않았다.

그의 우로 형이 하나 있었다.

첫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웬일인지 10년나마 태기가 없었다. 집에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보통 드세차고 완고하지 않았다. 아들을 하나밖에 낳지 못한다고 여간만 어머니를 박대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서른이 훨씬 넘은 어머니가 마을뒤산에 올라가 목을 맬 결심까지 했댔으랴.

첫아들을 낳은지 13년째되는 어느해 봄날 밤이였다.

밥상에 마주앉지조차 않던 할머니가 자정도 훨씬 넘은 야밤중에 갑자기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서 다짜고짜 어머니를 두드려 깨웠다는것이였다.

농사일도 농사일이지만 할머니의 눈총에 더 시달려 기를 못펴고 새우잠을 자던 어머니는 당장 마른벼락이라도 치는가싶어 오돌오돌 떨었다. 할머니는 제잡담 어머니의 아래배부터 만져보았다.

《태기가 있지 않냐?》

어머니는 할머니가 실성을 했는가싶어 더욱 떨었다.

할머니는 아주 장담을 했다.

《곧 태기가 있을거다. 방금 꿈을 꾸었는데 큰수닭 한마리가 내 품에 뛰여들어와 안기는게 아니겠냐. 둘째손주가 태여날 꿈이 분명하다.》

후에 할머니가 실토한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이미 어머니의 얼굴색과 몸가짐에서 이상이 일어난다는것을 알았다는것이였다.

늘쌍 죄감에만 몰려 본인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지내던 어머

니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쥔채 날샐녘까지 울기만 했다.

할머니의 예측은 맞아 그달에 어머니의 몸에서는 정말 태기가 완연하였으며 몇달후에는 둘째아들이 태여났다.

임일광이였다.

너무 오랜 기간 끊었다가 아이낳이를 해서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단련에 너무 시달렸던탓인지 아이는 낳았지만 어머니의 몸에서는 젖이 한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떼내다싶이 했다. 제손으로 산꿀을 구해오고 매일 콩과 찹쌀로 《인공젖》을 만들어 먹였다.

어머니의 젖이라고는 한방울도 먹지 못한 아이가 용케도 열달이 되기 전에 이발이 나오고 제절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제힘으로 걷게 되자 아이는 죽어라고 방안에 있기를 싫어했다. 날만 밝으면 밖으로 나가자고 떼질을 했다.

할머니는 해뜰녘부터 늘쌍 밖에서 살아야 했다.

사립문옆에 피여난 봉선화며 동구길로 굴러가는 달구지며, 개울가 돌밑에서 엉금엉금 기여나오는 가재와 게며 … 자연의 그 모든것을 대하는 아이의 눈은 어른들이상 빛났다. 기억력은 또 얼마나 좋았던지 까치는 깍깍, 황소는 음메, 토끼는 깡충깡충 하고 보면 본대로 신통하게 그 특징을 재현시켰다.

할머니의 자랑도 자랑이지만 온 동네가 신동이라고 떠들썩하였다.

세살때부터 할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서당에 찾아가 글을 배우게 했다. 서당주인도 하나를 배워주면 둘, 셋을 내짚는다고 혀를 찼다.

그무렵 마을에는 몰리브덴광산이 개발되였다.

일본사람들이 와짝 들어왔다.

임일광이 9살잡히는 그해에는 그리 크지 않은 학교가 섰다. 일본인자녀들을 위주로 공부시키는 학교였다.

할머니는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켜야겠다면서 임일광을 기어코 그 학교에 입학시켰다.

세살때부터 글을 배운 소년이였으니 학교적으로 특출하게 뛰

여난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일본아이들이 무섭게 질투를 했다. 교원들까지 합세를 했다.

임일광은 독을 먹고 반발했다.

하루는 네댓명의 일본아이들이 생트집을 잡아 임일광을 운동장구석에 몰아놓고 모두매를 안겼다.

피투성이가 되여 집에 온 손자를 보자 할머니는 억이 막혀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으리라는것은 너무도 뻔했다.

혀를 씹으며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온 집안식구들을 불러내여 봉선화를 가득 심어놓은 마당귀에 철봉과 평행봉을 세우고 모래주머니까지 매달아놓았다.

《힘을 키워라. 쇠덩이처럼 체력을 단련해서 열이건 스물이건 일본애들을 멧다꽂아라. 공부에서나 주먹질에서나 일본애녀석들한테 지고는 이 집 문턱을 넘어설 생각 말아!》

하루에 열번도 더 곱씹던 할머니의 말이였다.

너무도 뛰여나게 높은 실력차이로 학교를 졸업한 임일광은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공부를 할 꿈을 꾸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가산도 다 팔아야겠다던 할머니가 뜻밖에도 귀뺨을 후려칠것처럼 성을 냈다. 쪽발이나라에 가서 뭘 배워오겠냐는것이였다.

할머니의 반대도 문제였지만 그때는 이미 학비를 보장할만한 집형편이 못되였다. 하는수없이 부모들을 도와 농사일을 시작했다.

몇해동안 농사를 짓던 그는 생각이 깊어졌다.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였다. 그는 리조시대의 《법전》들은 물론 일본의 법률도서들을 구해다 읽기 시작했다.

그 《법학공부》는 순사시험에로 그를 추동했다. 순사옷을 입고 조선사람들을 구박하는 일본놈들과 법으로 맞서보리라는 결심이였다.

시험에서도 단연 월등한 성적으로 당선됐다.

순사가 된다는 말에 할머니는 꼬박 이틀동안 물 한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

무슨 설복인들 안했으랴.
일체 반응이 없던 할머니는 사흘째 되는날 아침 아껴입던 하얀 조선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고 임일광을 엄하게 불러앉혔다.
《네 쪽발이놈들의 그 까마귀옷을 입고는 내 눈앞에 얼씬도 말아. 죽은 다음에도 내 무덤앞에 얼씬 말아!》
너무도 단호한 말이였지만 임일광은 초지의 결심을 굽힐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할머니앞에 큰절을 올린 그는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했던 자그마한 트렁크 하나를 들고 그날로 집을 나섰다.
그는 고향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백리 먼산중의 산속 여기 상풍광산으로 들어왔다.
한해후에는 기어코 경찰서에 들어갔다.
뛰여나게 총명한데다 일본법까지 도통하고 체격이 단단한 그는 인차 경찰서장의 총애를 받게 되였다. 서장의 신임이 오죽 컸으면 광산에 내려왔던 도경찰부장까지 욕심을 냈으랴.
그런 임일광이 한인준과 손을 잡게 된것은 정말로 행운중의 행운이였다. …
길지 않은 자기 인생사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임일광은 제풀에 허허… 하고 웃었다.
장철석은 다시금 그의 얼굴을 여겨보며 미더운 눈길을 보냈다.
《그랬댔구만. … 나도 한인준동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오. 많이 도와주.》
임일광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이윽고 그는 자세를 바로했다. 얼굴이 퍽 심중해졌다.
《철석동무, 놀라지 마오. 사실은…》
임일광은 둘밖에 없는 깊은 산중이였지만 사방을 한번 살펴보고나서 장철석의 옆에 바싹 붙어앉으며 그의 귀에 입을 바투 가져다댔다.
심중한 기색으로 그의 말을 듣던 장철석은 불에라도 덴듯 화닥닥 뛰쳐일어났다.
《뭐요?!》

임일광은 까딱않고 앉아 장철석을 올려다보았다.
장철석은 경련이 일어 입술을 떨며 물었다.
《확실하오?》
두눈에는 《아니요, 그럴수 없소!》하는 빛이 력연했다.
임일광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장철석은 쓰러지듯 다시금 임일광의 옆에 앉았다.
임일광은 여전히 귀속말을 하듯 이었다.
《철석동무, 한인준동지가 잘못된 후 인차 여기 수비대중대장이 바뀐걸 압니까?》
장철석은 임일광을 뜯어보기만 했다.
이전 중대장대신 항시 말을 타고 거드름피우기 잘하는 땅딸보 새 중대장이 나타난것은 알았지만 군대에서는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장철석이였다.
임일광이 차근차근 계속했다.
《난 한인준동지의 과업을 받고 이전 중대장과도 가까이 지냈소. 한인준동지와 세놈의 수비대놈들이 〈행방불명〉됐다는것도 그 중대장을 통해 알았소. … 그렇소. 놈들은 그 일을 〈행방불명〉이라고 했소. 틀림없이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하고 바싹 긴장했댔는데 이상하게도 광산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일체 모른체 했소. 하루아침에 중대장이 감쪽같이 바뀐것뿐이였소. 그 일에 분명 전 중대장이 관계했다는것을 알았지만 놈들이 어떻게 비밀리에 짜고들었던지 통 행처를 찾을수가 없었소. … 얼마전에야 겨우 알아냈는데 신의주쪽의 국경수비대에 옮겨놓았다는거였소.》
임일광이 경찰서장을 구슬려놓고 신의주쪽으로 떠난것은 닷새전이였다고 했다.
중대장을 찾아내여 이틀동안이나 술집으로 끌고다녔다.
이틀째 되는날 밤에야 억병으로 취한 중대장의 입에서 극비밀리에 총독부 경무국의 특별신임장을 내보이면서 수비대원 세명을 요구한자가 누구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겨 …경무국 어른들 수가 보 …보통 아니란 말야. 그 …그 자가 참 귀신같이 위장을 했거든… 임자 아무리 머리가 좋아두 응?

…안돼. 그 …그 까마귀옷이나 입고서는 안돼. 그 …그자는 말이야 …쉬!》

중대장은 빈 방안을 휘휘 둘러보고나서 그자는 마음만 먹으면 광주건 경찰서장이건 수비대 중대장이건 지어 도경찰부장까지도 제 병졸처럼 써먹을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자의 정체를 알게 된 덕에 바람세찬 국경초소로 날려왔다고 두덜거렸다는것이였다.

장철석은 중풍을 만난것처럼 몸을 떨었다.

세상이 거꾸로 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을상싶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였다.

교활하고 음흉스럽기로서니 그렇게까지 음험할가.

아니, 놈들이 이 광산침투를 위해 그렇게까지 품을 들였단 말인가?

모리무라 다다시와 이찌가와 노리아끼!

결국 놈들은 내가 구창광산에 있을 때부터 그렇듯 면밀한 음모를 꾸몄댔구나 하는 생각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는 몸이 너무 떨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토가 날만큼 속이 메슥거리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임일광도 따라 일어서며 힘을 주듯 말했다.

《정체를 알았으니 이젠 되지 않았소. 역경을 순경으로!… 몽둥이야 이젠 우리 손에 쥐여진셈이 아니요.》

장철석은 임일광을 와락 그러안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거꾸로 치솟는것 같던 피가 가라앉고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한것은 그로부터도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였다.

그들은 다시 풀판우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차후작전을 진지하게 의논했다.

기본은 놈들한테 그냥 속는척 하면서 오히려 그놈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위장물로 써먹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산속에는 어스름같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됐소. 골탕을 먹여봅시다. 염통이 터져나갈거요. 뭐 조선사람

들이 어쩌고 어쨌다고? 어리석은 놈들!》

그들은 또 한번 손들을 힘있게 마주잡으면서 통쾌하게 웃음을 날리였다.

5

김봉빈공작원 역시 너무 아연하여 한동안 굳어지는듯 했다. 비밀아지트인 귀틀집이 통채로 검은 구름속에 묻히는것 같았다.

《그놈이 밀정이였단 말이요?!》

김봉빈이 혼자소리로 격해서 외웠다.

그가 너무 심각해 해서 철석도 미처 대답을 못했다.

얼마간 서로 마주보기만 하다가 장철석이 격정을 누르며 말했다.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놈을 리용하여 화를 복으로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화복작전〉이라고 할지…》

《〈화복작전〉?》

《그렇습니다.》

장철석은 김봉빈의 앞으로 좀더 가까이 나앉았다.

제가 또 너무 서두르지 않는가싶어 그의 표정을 살피고나서 침착하게 말했다.

《전 이 작전에 우리 성원 두사람을 인입하자는 생각입니다. 한인준동지가 비밀리에 키워낸 성실한 조국광복회 회원들입니다.》

장철석은 어깨가 들리우도록 큰숨을 쉬고나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더욱 침착하게 말했다.

《며칠동안 생각하고 또 했습니다. 두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전면적으로 료해도 했습니다.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소나무〉와 〈이깔나무〉라는 대호를 주자고 합니다.》

《〈화복작전〉이라… 〈소나무〉와 〈이깔나무〉란 말이지.》

김봉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띄창앞으로 걸어갔다.

장철석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윽토록 띄창과 마주서있던 김봉빈이 급히 장철석이한테로 돌아섰다.

두눈에서 광채가 번쩍했다.

《그래서 … 구체적인 행동방향은?》

장철석은 또 한번 큰숨을 몰아쉬였다. 지금껏 입술이 부르트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작전방향을 이야기했다.

김봉빈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이전날의 장철석이 옳은가싶은 흥분이였다.

장철석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보증한다고, 우리 조직안에 어려서부터 장군님의 조직선을 타고 일본놈들과의 싸움에 나섰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하던 한인준의 말이 생각났다.

장군님을 따르는 정신, 그 마음이면 무슨 방법인들 못찾으랴!

한인준은 전적으로 자기때문에 희생됐다고, 한인준의 마지막 충고를 일생 뼈에 새기고 그를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눈물을 삼키며 하던 장철석의 말도 뜨겁게 되살아났다.

성장!

정녕 목메이는 인간의 성장이였다!

김봉빈은 두손을 딱 소리가 나게 마주쥐며 말했다.

《좋소, 전적으로 동감이요. 〈화복작전〉이라… 〈참나무〉가 정말 큰일을 했구만, 큰일 날번 했소.》

그는 장철석의 앞을 몇걸음 거닐고나서 계속했다.

《철석동무가 생각을 깊이 했소. 많이!… 〈참나무〉와 〈이깔나무〉, 〈소나무〉가 합동하면 놈들이야말로 진짜 박우물안에서 꼬리치는 버들치 한가지일게요. 어디 누가 누구의 손발을 얽어매는가 겨루어봅시다. 문제는 놈들이 절대로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는것이요. 절대비밀!… 우리 동무들 각자의 활동도 일체 비밀에 붙이도록 해야겠소. 호상간! 오직 철석동무와만 직접 련계를 갖도록 해야겠소. 본인들이 직접!》

《알겠습니다.》

《그리구… 때가 때인것만큼 놈들도 더 교묘한 방법으로 악착스럽게 달라붙을거요. 짐승같은 놈들이니 어떤 뜻밖의 일을 저질러놓을지 모르오. 위장도 더 믿음직스럽게 하려고 애쓸거구 …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봉빈이는 특히 《소나무》와 《이깔나무》의 활동에서 주의할 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나서 새삼스럽게 장철석을 마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한인준동무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 오늘 이자리에 그가 있었다면 아마 철석동무를 업어주자고 했을거요. 업어주자구!… 철석동무, 우리 그를 생각해서라두 한번 본때를 보입시다. 》

《알겠습니다. 》

《음!》

김봉빈은 장철석의 두어깨를 힘있게 잡아주고나서 얼굴이 더 환하여 말했다.

《나도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있소. 철석동무, 기뻐하오. 우린 사령부의 소식을 받았소. 》

《예?!》

장철석은 입을 반쯤 벌리고있다가 물었다.

《그럼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그렇소.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소식말이요. 》

비밀근거지에서는 얼마전에 도소재지 지하조직선을 통하여 새것이나 다름없는 무전기를 구입했다. 그 무전기로 압록강건너 부대와의 련계를 맺게 되였는데 그 첫 소식이 사령부소식과 함께 현국제정세에 대한 소식이였다.

《쏘련군은 마쟈르의 수도를 해방하고 드디여 베를린에로의 총공격을 개시했다고 하오. 파쑈도이췰란드의 운명은 막을 내리기 시작했소. 루즈벨트가 우리 조선은 해방이 된다고 해도 40년간은 제놈들의 〈신탁통치〉에 두어야 한다는 망발을 줴쳤다는데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을 너무도 모르고 한 수작이요. 우리는 사령관동지의 령도밑에 불원간 조국을 해방하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부강하

는 새 나라를 일떠세우게 될거요.》
장철석은 조국해방의 벅찬 력사적사변이 실지로 눈앞에 박두했다는 충격에 심장이 쿵쿵 울렸다.
봉빈은 점점 더 흥분해서 말했다.
《영무동무 말이요.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오. 이번 무전결속에 그의 역할이 컸소. 우리 일도 다 사령관동지께 보고올렸다고 하오. 사령관동지께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몸소 이 랑림산일대에 나오셨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오. 두무봉회의에서 천명하신 조국해방3대로선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하셨다고 하오.》
그들은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 귀틀집밖으로 나갔다.
장철석은 비로소 봉빈이가 방금전에 한 말들이 얼마나 거창하고 사변적인 뜻인가를 짐작했다.
조국해방!
정녕 우리 나라가 해방될 날이 다가왔단 말인가!
와수수— 바람이 지나가면서 눈가루를 날렸다.
그 눈가루들이 축하의 꽃보라인양 두사람의 머리우에 들씌워졌다.
숨이 컥 막히였다.
눈가루, 눈보라의 찬기운때문이 아니였다.
아, 드디여 그날이 눈앞에 왔단 말이지!!
봉빈이는 두손으로 눈을 한웅큼 쥐여 얼굴에 문대고나서 말했다.
《준빌 해야겠소. 최후결전말이요. 우리 작전!… 서둘러야겠소. 그렇다고 덤비지는 말구.》
장철석은 알릴듯말듯 미소를 머금었다. 봉빈공작원이 지난날의 자기의 성격적약점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봉빈이도 마주 웃었다. 많은 뜻을 담은 믿음의 웃음이였다.
그는 또 눈을 움켜 얼굴에 비볐다. 눈으로 비빌수록 오히려 더 상혈이 되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두아름은 실히 될 가문비나무의 밑둥에 손을 얹은채 한바퀴 빙 돌고나서 계속했다.

《이것보오. 철석동무, 종전에도 말했지만 놈들의 발악은 몇배 더 심해질거요. 재삼 당부하건대 절대로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말아야겠소. 내 다시 강조하는데 동무네의 기본임무는 일단 유사시가 조성되면 즉시 적통치기관들을 장악해야 한다는걸 명심하오. 힘과 힘의 대결, 무기… 간단칠 않소. 놈들이 이제 거기다 군대를 더 들이밀수도 있소. 밀정의 정체를 알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경각성을 늦춰선 안되겠소.》

《알겠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화약과 도화선구입을 다그쳐야겠소. 우리도 빨리 준비를 끝내야지.》

봉빈이는 예측할수 없을만큼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당면하게 해야 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일러주고나서 저으기 신중하게 말했다.

《이제부턴 우리의 련락방법도 바꾸어야겠소. 놈들이 철석동무한테 더 바싹 다가붙을거요. 다른 조직선들을 통하여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총독부 경무국과 도경찰, 헌병대에서 각기 펼쳐놓은 특무, 밀정들이 이 랑림산일대로 더 와짝 밀려든다고 하오. …다시 말하지만 해방의 대목에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이제부턴 철석동무가 직접 움직이지 말고 〈참나무〉한테 련락임무를 맡기도록 해야겠소.》

장철석은 그것이 자기의 신변안전을 위한 또하나 조직의 조치임을 뜨겁게 느꼈다. 한편 그것은 기어코 비밀근거지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놈들의 모략이 더 악랄해지는 실정에서 근거지의 안전과도 관련되는 일이기에 한마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얼굴에는 서운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봉빈공작원과 영영 헤여지기라도 하는듯한 감정때문이였다.

김봉빈은 미더운 눈길로 그를 여겨보았다. 장철석이 일체 다른 말없이 응해나섰기때문이였다.

이 또한 눈에 뜨이는 그의 성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 믿음에 힘을 얻었던지 장철석이 신중하게 말했다.

《저 … 그렇다면 이제부턴 나도 대호를 썼으면 합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며 계속했다.
《저의 대호는 〈장－백〉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백〉?》
《그렇습니다. 〈장－백〉. 전 한인준동지가 자기의 마음은 항상 백두산에 두었다는 의미에서 대호를 〈한－백〉으로 했다는걸 알고 많은걸 생각했습니다.
김봉빈은 뜨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장철석의 두손을 힘껏 모아잡았다.
《알겠소. 좋구만, 〈장－백〉… 고맙소.》
그는 한동안 마주보기만 하다가 다시금 지금까지 접선장소로 올때마다 밀정놈의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 무척 조심하군 했는데 《참나무》와의 련락선을 리용한다고 하여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의 탕개를 더 바싹 조이면서 걸음걸음을 조심해야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 한번 손들을 뜨겁게 잡아흔들고 헤여졌다.
숲너머 먼 하늘아래에는 이미 봄기운이 실렸다.
봄! 1945년의 봄!
하지만 그들은 그무렵 광산에서 너무도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6

간밤의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나무》－임일광은 경찰서장의 긴급호출을 받고 긴장해졌다.
경찰서장은 모두 비상경계근무에 나가고 인원이 없어 그러니 광산화약운반에 호송으로 따라갔다와야겠다고 명령했다.
임일광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화약운반!

광산에서 쓸 화약이라면 뢰관과 도화선도 틀림없이 같이 가져올것이다. 지금 산에서 화약과 도화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도 신임의 덕인가?

절호의 횡재?!

혹시 놈들의 검토는 아닐가?

함정??

경찰서 앞마당에는 벌써 마차 한대가 굴러와섰다. 마부와 화약창고성원 한명이 탔다.

전에는 화약운반을 마차가 아니라 자동차로 했다. 그것도 대여섯놈씩의 무장인원을 태우고 어마어마한 경비속에 실어오군 했다.

이즈음은 그렇게 실어올 화약도 없는 모양이였다. 하긴 태평양전선과 쏘만국경일대, 아득히 벌려놓은 중국동북일대의 방어선에 이르기까지 물퍼붓듯이 쏟아붓는 탄약과 수류탄생산에만도 화약이 좀 작게 들텐가.

어제도 광산의 몇개 마구리는 발파를 못했다고 했다. 그 사정을 알고 어디선가 화약을 변통해주겠다고 하는데가 나선 모양이였다.

임일광은 가슴이 후둑후둑했지만 부러 일이 생기면 어쩌느냐고 한마디 못을 박아놓고서야 마지못해하는듯 마차에 올랐다.

잘하면 화약 한두상자쯤은 마련을 볼것 같은 생각에 심장이 터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일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차에 받아실은 화약은 기껏해서 일곱상자였던것이다. 그외 도화선이 한상자이고 뢰관을 넣은 마분지곽이 세개였다. 열댓상자만 되여도 어떻게 좀 마련을 볼것 같은데 너무도 빤드름하니 실망하고말았다. 손맥이 풀려 마차에 먼저 올라앉았다. 내색을 않자고 해도 자꾸 화약상자들에 눈길이 끌리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무장폭동준비!… 근거지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화약과 도화선들인가. 장철석은 또 얼마나 속을 태우고!

마차를 그대로 몰아 비밀근거지로 직행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속에서는 점점 더 불이 일고 입술이 말라들었다.

온 겨울 뿌잇하게 흐렸던 하늘이 봄기운을 맞아 눈에 뜨이게 높아졌다.

산허리를 꿰지르며 띠오리처럼 굽이친 차길옆으로 진달래포기들이 도간도간 보였는데 꽃망울들이 통통 여물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소나무잎들도 윤기가 돌았다. 소나무숲속에 이따금씩 끼여선 이깔나무가지들도 노르끼레 봄물이 올랐다. 신비한 자연의 힘, 자연의 재주였다.

세월은 여하간에 봄이 태동하고있었다.

임일광은 차츰 이름할수 없이 가슴이 벅차짐을 느끼였다. 불가사의, 불가항력의 그 태동!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격랑의 바다와 마주선듯 눈앞에서 산악같은 그 무엇인가가 크게 뒤채이는것 같았다. 그 뒤채임은 이어 하늘땅을 진감하는 목메인 환호성을 불어왔다.

어느 골안에선가 꺼겅 꺼겅… 하고 장끼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터졌다.

임일광은 육감적인 불안에 눈을 번쩍 떴다.

이어 소스라치듯 놀랐다.

마차는 무인지경의 외진 산굽인돌이길에 들어서고있었는데 난데없이 소나무숲속에서 세 청년이 바람처럼 달려내려오고있었다. 산판의 벌목공들같은 차림새들이였다. 손에서는 권총이 번쩍거렸다.

꿈을 꾸는건 아닌가?

봄기운에 취하여 일어난 환각인가?!

《꼼짝말아!》

세 청년은 날쌔게 마차를 둘러쌌다.

《우린 조선인민혁명군 무장소조다.》

한 청년이 소리치자 다른 청년이 더 맵짜게 을러멨다.

《모두 내려!》

마부와 창고원은 고개도 못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마차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임일광은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는중에도 보총만은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이어 그의 눈이 번쩍 광채를 뿜었다.

세 청년이 내든 권총이 나무로 깎아만들어 색칠만 번들번들하게 한 가짜권총이였던것이였다.

더우기 그들중의 한 청년은 구레나룻이 유표한 차창일이였다.

임일광은 더우기 긴장하여 세 청년의 거동을 살폈다.

(모험이다. 철석동무가 이런 모험을 조직했는가?… 이 화약운반이 만약 놈들의 모략이라면 … 철석동무가 생각 못했을가? 아니, 놈들의 모략을 사전에 알아내여 놈들을 우리의 작전권안에 넣고 주물러야지 우리가 놈들의 모략에 말려들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던 그가 아닌가.…가만, 만약 철석동무가 이 습격전을 조직했다면 그가 화약운반소식을 언제 누구를 통해 알았겠는가?)

너무도 예상밖의 일이라 임일광이 오만가지생각을 더듬는데 세 청년은 일시에 그한테로 다가들었다.

《순사나부랭이가 뒈지고싶어?》

차창일이 무섭게 독을 썼다.

다행히 총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모르는척 하는것일가?

임일광은 아직은 겁을 먹은체 하면서 형세를 정확히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 청년중의 한 청년이 비로소 임일광의 총에 관심이 간 모양 꽥 소리쳤다.

《총을 내놔!》

임일광은 얼굴이 해쓱해졌다. 총만은 내놓을수가 없었다. 무분별한 이 청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이 알랴.

그가 총을 내놓을 기색을 않자 옆의 청년이 바람처럼 날아들며 총신을 잡아챘다. 임일광은 총가목을 꽉 그러안으며 우정 길우

에 어푸러졌다.
세 청년이 달려들어 마구 차고 치고 짓밟았다.
임일광은 억이 막혔다.
순간이라도 실수를 할가봐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뽑았다.
획— 하고 휘파람소리가 났다.
《철수, 빨리!》
차창일의 목소리였다.
세 청년은 어느새 마차에 뛰여올랐다.
《쩌!》
겁에 질렸던 말이 네굽을 안고 내뛰였다.
산길은 무슨 일이 있었던가싶게 잠잠해졌다.
화약마차는 이미 제갈대로 가버렸던것이다.
임일광은 여전히 땅에 엎드린채 움쩍 안했다.
그처럼 욕심이 불타던 화약과 도화선이였건만 그것들이 조직의 손에 들어갔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무거운 걱정만이 산갈아졌던것이다.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수습한단 말인가. 장철석이 진짜 이런 실책을 했을가? 그가 정말 화약생각이 너무 앞서서 놈들의 함정일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가?
그때까지 길바닥에 코를 박은채 벌벌 떨고있던 마부와 창고원이 엉기엉기 기여와 임일광을 흔들었다.
임일광은 비로소 정신을 차린듯 어푸러진채 사방에 대고 총소리를 땅땅 냈다.
전혀 쓸모가 없는 총소리였다.

7

장철석은 너무 아연하여 말을 못했다. 더우기 그 일이 차창일이 누구의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결심하고 조직한 《거행》이였

다는것을 알고는 당황하기까지 했다.

차창일은 오히려 뻑뻑한 배짱이였다.

《누구의 승인을 받는단 말이요?

형님은 없었지요?… 화약마차가 뭐 조직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답디까?》

그가 광산에서 갑자기 화약을 실러 마차를 보낸다는것을 안것은 함께 일하는 갱의 조직원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마부와 가까이 지내는 한 광부한테서 들었다는것이였다. 그때는 이미 마차가 경찰서마당에서 대기하고있는 때였는데 언제 조직에 통보하고 지시를 받을 시간이 있었느냐고 하면서 차창일은 여전히 뭘 잘못했느냐고 뻑뻑한 태도였다.

이럴 때 임일광으로부터 긴급비상련락이 왔다.

장철석은 더더욱 눈앞이 캄캄해졌다.

《화약운반》은 예측했던대로 놈들이 던진 미끼, 모략이라는것이였다.

밀정을 통하여 비밀근거지에서 화약과 도화선에 갈증이 났으며 광산조직이 화약과 도화선구입에 온 신경을 모으고있다는것을 안 놈들은 손벽을 치며 쾌재를 올렸다는것이였다. 한마차분이나 되는 화약과 도화선을 쥐면 광산지하조직은 틀림없이 그 운반전을 벌릴것이며 비밀근거지와 선이 이어질것이다. 비밀근거지위치를 일체 비밀에 붙이고있는것만큼 절대로 광산조직성원들을 근거지안에 들여놓지는 않을것이다. 틀림없이 일정한 장소에 나올것이며 미끼가 미끼인것만큼 큰 인물이 같이 움직일수 있다. 이를테면 큰 인물을 큰 미끼로 끌어내는 유인작전이라는것이였다.

작전에는 도경찰서와 헌병대는 물론 총독부 경무국이 직접 관계한다고 했다. 경찰서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극비작전이라는걸 보면 충분히 믿을만한 정보였다.

옳다. 원체가 바스락거리기 잘하는 족속들이니 이쪽에서 숨죽이고있으면 저놈들이 반드시 먼저 꿈지럭거릴것이라고 한 봉빈공작원의 말이 맞았어!

한데 그 모략에 차창일이 말려들었단 말인가?

임일광은 돌아온 즉시 경찰서에 억류됐다고 했다. 그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비상련락을 취해준 임일광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걱정중의 걱정은 임일광이 앞으로 계속 자기 위치에서 공작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얼마나 큰 힘과 신심과 믿음을 주던 동지였는가. 중요 정보들을 사전에 통보해주어야 할 일들은 물론 근거지와의 련락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빨리 출로를 찾아야 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때 한인준동지는 어떻게 했을가? 봉빈공작원이라면…

놈들의 모략이다 …모략!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모략이라면 놈들이 노리는것은 무엇인가? 화약 … 화약과 도화선이 어디로 갈것인가는 놈들도 알것이다. 옳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노리고 꾸민 모략이라면 아직은 모르는체 하면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버려둘것이라는 생각에 장철석은 숨이 가빠올랐다.

《화복작전》!

이 역시 화를 복으로 잡아돌려야 한다.

하루낮, 하루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배짱이 생겼다.

뭐니뭐니 해도 화약부터 타고앉을 결심이 굳어졌다.

이왕 손에 넣은 귀물이 아닌가. 방도는 무엇인가? 명백한것은 놈들의 음모를 역리용하여 통쾌하게 그 화약들을 근거지에 무사히 보내는것이다. 신심이 있었다. 그 귀물들이 놈들이 던진 미끼라는것을 확고히 알고있는것이였다. 안다는 자체가 가능성이 아니겠는가.

제2의 비밀소조원들의 긴급모임을 열기로 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조직성원들과 의논하여 방도를 찾으라고 한것은 한인준은 물론 김봉빈과 곽영무가 한 당부였다.

차창일의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흥! 코바람이 나갔다.

(어리석은 놈들!)

눈뿌리 빠지게 실컷 지켜봐라 하는 배짱이 더 커졌다. 당장은 제1의 조직책임자들— 로출된 성원들의 비상회의를 먼저 소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개작전, 차창일이부터 되게 다불려야 했다. 어디 어떻게들 나오는가 보자.

비상회의는 예전대로 선녀갱골안의 페갱속에서 진행되였다. 장철석은 첫마디부터 차창일을 엄하게 다불렀다.

《동문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겠다는거요?… 모두들 말했지만 화약이 아무리 귀중해도 사람보다 더우기는 우리 조직보다 더 귀중할수는 없소. 화약이 아무리 귀중해도 조직의 활동에 위험을 조성하는 그런 자유주의적행동은 허용할수가 없단 말이요. 한인준동지가 어떻게 희생됐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동무가 아니요.》

장철석은 또 한명의 귀중한 동지가 《참나무》, 임일광이라는것을 공개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그는 진짜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차창일을 마주보며 계속했다.

《이미 누구보다 심중히 교훈을 찾아야 할 사람이 바로 동무와 내가 아닌가. 그런데 … 물론 동무네가 옹근 한대분의 화약을 통채로 〈안전한 장소〉에까지 날라다 보관한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수 있소. 하지만 이것 보우. 동무네가 감히 〈조선인민혁명군 무장소조〉라고 큰소리를 쳐놨으니 가뜩이나 언질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놈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것 같소? 어벌도 크지, 〈조선인민혁명군무장소조〉가 뭐요, 〈무장소조〉가. 놈들이 가만 있을것 같소?》

장철석은 《조선인민혁명군무장소조》가 뭔가고 하는 말을 각별히 력점찍어 반복했다. 이번 비상회의의 중요초점, 기본목적이기도 했다. 바로 그 말을 하기 위해 오늘의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도 할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당분간 차창일을 일체 조직의 활동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 역시 이 회의의 중요초점이였다.

장철석이 부러 화약마차를 습격한것은 절대로 조선인민혁명군 무

장소조가 아니라는것을 력점찍어 거듭 강조했건만 다음날로 광산마을에는 도경찰부장 구로지마 가메도와 헌병대 대장이 직접 백여명의 수비대와 경찰을 끌고 들이닥쳤다.

마부와 창고원이 헌병대로 끌려갔다.

임일광은 구로지마 가메도가 직접 엄중취조를 한다고 했다.

마차습격지역은 물론 광산전역을 그물질하듯이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온 광산이 살풍경속에 잠겼다.

1차작전으로 광산전역에 대한 수색전을 끝낸 놈들은 이윽고 요시찰인들을 붙잡아가기 시작했다.

첫 대상인물로 선녀갱소조책임자와 범갱소조책임자가 검거되였다.

이틀후에 수비대에 끌려갔던 마부와 창고원이 풀려나왔다. 그날 저녁에는 왕청같이 광산가까운 목재소의 소조책임자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쫙 돌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한영옥과 리순철이 경찰서의 호출을 받았다.

장철석은 바짝 더 긴장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바는 아니지만 도대체 종잡을수가 없는 검거선풍이였기때문이였다.

이놈들이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대중할수 없는 검거선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노리는것은 무엇인가?

급히 《소나무》와 《이깔나무》를 호출했다.

또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차창일이 매일같이 내포국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였다. 억병으로 술을 마시고는 만취가 되여 밤늦게까지 골목골목을 헤매며 알아듣지 못할 말로 울화만 터친다는것이였다.

다행히 사흘후에 한영옥과 리순철이 놓여나왔다.

세명의 소조책임자들은 사나흘후에 한명씩 놓여나왔다. 역시 놈들의 어리석은 눈가림, 부러 벌려놓은 헛그물질이라는것이 뻔했다.

장철석은 리순철이 석방되여나온 즉시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차창일이 기어

코 따라나섰다.

리순철은 형체가 말이 아니였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이고 방구석에 벗어놓은 찢어진 옷에는 피자욱이 끔찍스러웠다

물찜질을 해주던 안해가 눈물을 쏟으면서 피칠갑된 옷을 걷어안고 부엌으로 나갔다.

숨진듯이 꼼짝않고 누워있던 순철이 힘겹게 눈을 떴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 못했다.

명백한것은 한인준과의 관계를 세세히 따졌다는것이였다.

차창일이 두주먹을 떨며 윽윽했다.

《사람을 이 지경 만들다니 … 내 언제든 개놈들 목대를 비… 비틀어놓을테다. 미 …미친개처럼 쳐죽일테란 말이요!》

한영옥은 순철이보다는 좀 나았다. 량쪽볼이 푸릿푸릿하고 저고리 한쪽어깨가 터졌었다.

역시 한인준에 대해서 캐고들었다는것이였다.

한인준!

새삼스레 이제 와서 그의 뒤를 캐는것은 무슨 목적인가?

그것 역시 제놈들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 벌려놓는 가랑잎으로 눈가리는식의 수작들임이 뻔했다.

8

광산지구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의도적으로 벌려놓는 살풍경이였다.

도경찰부장 구로지마 가메도와 헌병대장이 왔다간지 얼마 안되여서는 또 헌병대파견대장이란 놈이 여러 장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다. 린근 경찰서들에서 수십명의 경관들도 더 끌어들였다. 명색은 잃어진 화약상자들을 기어코 찾는다는것이였다.

곳곳에 보초소와 차단소들을 만들어놓고 장터로 가는 녀인들의 저자구럭까지 뒤졌다. 하루일을 마치고 갱에서 나오는 광부

들은 여불없이 몸조사를 당했다. 또 무슨 검거선풍놀음을 벌릴지 아니아니했다.

장철석이 갱에서 나왔을 때는 하루해가 뉘엿뉘엿 지고있었다.

이제는 먼산의 골짜기들과 음달진 나무숲을 내놓고는 언제 녹으랴싶었던 눈들이 말짱 자취를 감추었다. 길가의 바위짬이나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냉이며 꽃다지, 제비꽃이파리들이 파릇파릇했다. 그것은 마치도 세상이 아무리 살벌해도 내 할일은 다 하노라 하고 소리치는 일종의 도전같기도 했다.

마을곁에 이르니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부지런한 집들에서 벌써 집오래의 손바닥만큼씩한 돌서덜밭들에도 씨앗을 묻으려고 겨울난 검불들이며 조짚, 강냉이짚부스러기들을 긁어모아 불놓이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짚무지속에 섞었던 소똥이며 개똥타는 냄새와 함께 고무쪼각과 천쪼박타는 냄새가 뒤섞여 때로는 역스럽기도 하였다.

놈들의 모략은 여하간에 어쨌든 사나운 겨울을 이겨낸 봄의 환희만은 분명했다.

여느때 같으면 새 계절의 향취에 가슴이 들먹해졌겠지만 장철석은 전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제나저제나 봉빈의 지시를 기다리고있는 그였다. 이전처럼 제가 직접 그와 만나 정황을 통보하고 결론과 지시를 받을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임일광이 알려준 밀정놈이 점점 더 옆으로 바싹 접근하여 제사 먼저 걱정을 앞세우군 하는것도 무척 불안스러웠다. 어리석고 가소롭게도 느껴졌지만 그래도 다년간의 첩보훈련과 경험을 가진 세련된 놈이라지 않는가. 때로는 놈을 우정 옆에 붙이고 식당이며 술집 같은데로 드나들면서 기색을 살피였다. 놈을 제옆에 바투 붙이면 오히려 조직의 활동에 유리할 때도 있어 속으로 쾌재를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상신호를 받고 극비밀리에 신속히 움직여야 할 때면 놈을 감쪽같이 떼버려야 하는 일에 몇배의 신경을 더 써야 했다.

지금도 그는 이제 마을길에 나서면 어느 골목에서든 그놈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는 생각에 구토감을 느끼였다. 아니, 어

느 숲속이나 집모퉁이에서, 갱안에서 나올 때부터 찬찬히 지켜보고있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뿌죽뿌죽한 돌부리들이 자꾸 발끝에 채우는 돌서덕길이여서 장철석은 부러 천천히 걸었다. 차창일이 마차습격사건을 일으킨 후부터의 일들을 차근차근 재정립해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창일이 빼앗아온 화약과 도화선은 놈들이 던진 미끼도 보통미끼가 아니라는것이 더 명백해졌다.

장철석에게 그것을 더욱 명백히 확신하게 한것은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까지 출두하여 벌린 요란한 수색소동과 함께 종잡을수 없이 벌린 검거의 돌풍이였다.

광산마을 집집의 부엌과 창고, 골방으로부터 험한 산골짝까지 물샐틈없는 경계망을 펴고 참빗질하듯 하면서도 놈들은 응당 첫째가는 관심을 두어야 할 수십개의 광산페갱들은 샅샅이 뒤지라고 소리는 요란히 치면서도 눈에 뜨이는대로 대충 훑어보고 지나갔던것이였다.

온 광산마을과 주변의 산판까지 그렇듯 삼엄한 경계진을 펴고 수색전을 벌리게 한 놈들이 아무러면 광산페갱들에 무관심할수 있겠는가.

차창일은 그날 화약상자들을 당상갱 뒤골안의 페갱속에 깊숙이 감추었었다.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까지 내려와 광부들의 출퇴근길과 시가지 길목들까지 지키면서 광부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수 있는 페갱들을 홀시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장철석은 곧 《소나무》를 호출하여 화약 감춰둔 페갱주변을 은밀히 살펴보게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사흘만에 이상한 나무군들이 맞은켠 산속에서 어물거린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장철석은 쓴웃음을 머금었다.

문득 언제인가 봉빈공작원이 옛말처럼 들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근거지의 비밀아지트에서 둘이 함께 밤을 새우며 회포를 나누던 때의 일이였다.

잊을수 없는 북주하양주공장에서 이찌가와 마끄도한테 속히워 어

린 몸의 고혈을 빨리우던 갖가지 일들을 더듬고났을 때 봉빈이는 조용히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앉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마끄도 한놈만이 아닌 일본제국주의라는 왜나라 족속들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할수 있지. 정말 깜찍하고 간특한 족속들이요. 그 교활성과 야수성을 실례들자면 끝이 없소.》

봉빈이는 먼저 로일전쟁후 배상금을 적게 받아냈다고 악마구리 끓듯 했던 일본전국의 상황이며 그 소요를 다독이는 출로로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병탄의 야망을 안고 이또 히로부미를 《보호》라는 미명으로 조선으로 들여보내던 일본천황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에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의 보잘것없는 숙박소에 거처를 정했던 이또 히로부미가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의 매국역적들을 매수하여 끝내는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하던 일과 12살에 류랑소녀로 방황하다가 애어린 처녀의 몸으로 깊은 산중의 녀승으로 삭발까지 했던 배정자를 어떻게 고종황제의 황실에까지 제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는 끄나불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초대통감 이또 히로부미의 교활성과 야수성, 포악성을 자료적으로 하나하나 발가놓던 봉빈은 1대 조선총독 데라우찌와 2대총독 하세가와는 물론 3대총독 사이또에 이르러 더욱 격분을 터뜨렸다.

《1919년 9월 2일 신임총독으로 서울에 기여든 사이또가 5일후인 9월 7일 시정방침이란걸 내놓았는데 그게 뭔지 아오? 첫째로 문화주의를 표방하며 둘째로 조선민중의 심정을 달래여 포섭동화하는데 노력하며 … 헌병제도를 철폐하고 학교교원들이 차고있던 군도와 총기류도 철폐하고 조선사람들이 신문도 발행하게 하고… 하면서 귀맛좋게 떠들어댔소. 그후 조선총독부 직원들앞에서는 또 뭐라고 했는가? 대일본제국을 위해 조선에서 무엇을 가져갈가를 생각하기 전에 조선사람들한테 무엇을 베풀어줄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조선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킬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줄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어떤 명령을 내릴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더 친절할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력설했다는거요. 〈내선일체〉란 말을 줴치면서 제놈의 녀편네까지 끌고와서 조선의 지방장관들앞에 조선식으로 무릎꿇고 인사를 하게 한것도 그놈이였구. 그렇게 앞에서는 웃으며 온갖 친절을 다하던 놈이 실지 뒤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라남에 본부를 둔 제19사단과 룡산에 본부를 둔 제20사단 그리고 평양, 함흥, 라남, 경성, 대구의 다섯개 헌병대로서 조선사람의 수족을 얽어매고 전 조선땅자체를 말그대로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었거든. 왜놈들이란 바로 이런 놈들이요. 우린 이런놈들과 맞섰다는걸 매사에 명심해야 되오.》

그때의 그 분격이 치밀어오를 때마다 장철석은 정신이 버쩍 들군 했었다.

그래, 이또 히로부미가 기여든 때로부터 꼽아도 어언 40여년! 보잘것없던 나무모도 그사이면 거목이 됐을터인즉 원래부터가 그렇게 깜찍하면서도 포악스럽기 그지없는 족속들이고 보면 그 후배들인 총독부 이하 관속들은 또 얼마나 음흉해졌을텐가.

허나 장철석은 결코 걱정만 하고있을수 없었다.

그것이 놈들의 교활하고 음충스러운 함정이라는것을 알자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 오히려 놈들을 골탕먹이면서 어떻게든 일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이였다.

놈들이 던진 미끼이긴 하지만 7상자의 화약과 도화선이 어딘가. 이제 그 화약과 도화선, 뢰관들이 작탄이 되여 놈들의 머리우에서 터지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놈들이 어떻게 될가 하고 생각하면 통쾌하기도 했다. 문제는 빨리 그 귀물들을 감쪽같이 근거지로 보내야 할텐데 밤낮으로 지켜보는 놈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이 없었다.

(정말 무슨 수가 없을가?)

돌서덕길을 걸으면서도 그 한생각에 골몰한 장철석은 어느 사이 광산사무실앞길에 이르렀는지 몰랐다.

사무실건물앞을 지나 시가지와 목재소로 갈라지는 갈림길목에 이르니 2명의 경관이 지켜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었다.

임일광과 헌병대 파견대장이 직접 끌고온 낯선 경관이였다.
임일광은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한테서 직접 엄중취조를 당한 후 다행히도 경찰서장의 보증을 받아 한달동안의 처벌근무를 서는것으로 용서를 받았었다.
《야야, 뭘 꾸물거려? 젊은 녀석이 … 빨리빨리 보이고 통과해!》
임일광이 이마에 토목수건을 동인 웬 농사군청년의 괴나리보짐같은 보퉁이를 가리키며 큰소리를 쳤다. 전에없이 청높은 목소리였다.
장철석은 가슴이 뛰였다.
임일광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미리 알리는것 같았던것이다.
장철석은 느럭느럭 걸어 어린애를 업고 싸리바구니를 든 녀인이 낯선 경관한테 불리워가는 틈에 얼른 임일광의 앞에 다가섰다.
《두손 올리 들어!》
임일광이 꽥 소리쳤다. 장철석의 어깨와 가슴, 잔등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손으로 더듬어보았다.
《화약이나 도화선 채넣은것 없어?》
《없수다.》
《빨리 가!》
시끄럽기라도 한듯 손을 내젓고는 장철석을 두번다시 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켜고있었다.
장철석은 천천히 단속초소에서 벗어났다.
가슴이 그냥 방망이질을 했다.
몸뒤짐을 하던 임일광의 손이 재빠르게 양복주머니속에 들어갔다나오는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그 양복주머니가 쇠덩이를 넣은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고무풍선처럼 붕— 떠오르는것 같기도 했다.
철석은 종시 참지를 못하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길옆의 판돌만한 돌멩이우에 털썩 걸터앉았다.
양복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얄팍한 종이쪽지가 손에 잡혔다. 필요할 때 리용하려고 넣고다니던 담배쌈지와 함께 종이쪽지를 꺼내

들고 담배를 마는척 하며 쪽지를 펼치였다.

《계획을 승인한다.》

입속으로 가만히 외웠다. 후날 사람들을 놀래울 그 계획의 내용은 아직은 장철석과 김봉빈을 비롯하여 극히 몇명만이 알고있었던 것이다.

무엇인가 한시름 놓이는듯싶었다. 철석은 다시 쪽지편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마지막문구에 눈길을 박았다.

《짐운반때 특히 덤비지 말것. 어떤 경우든 〈참나무〉의 지시를 무조건 집행할것.》

무조건 집행하라고 한 글줄에 눈굽이 화끈했다. 만약의 경우 빨리피하라는 《참나무》의 련락을 받고도 예전의 성미대로 자의대로 고집을 부릴수 있다는것을 사전에 엄하게 경고하는 뜻이였던 것이다.

김봉빈이 임일광을 비롯하여 적기관에 깊이 침투한 조국광복회특수회원들에게 준 임무중에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놈들이 어느때든 상풍광산에 진짜 검거선풍을 일으킬것이니 그 경우 어떻게든 로출된 성원들을 무조건 구원하라고 한것이라는것을 이미 알고있는 장철석이였다.

마음이 더 든든해졌다.

(고맙습니다. 공작원동지, 내 문제를 놓고는 너무 걱정마십시오.)

쪽지에 재빨리 써레기담배를 듬뿍 놓고 솜씨있게 말았다. 불을 붙였다. 담배맛이 이렇게도 구수할가! 련락쪽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리속에 꼼꼼히 새겨넣었다.

계획을 승인한다.

절대로 덤비지 말것.

무조건 집행!

담배가 다 타서 손끝이 뜨거워날 때에야 남은 꽁초를 꼼꼼히 바위돌우에 비벼서 흔적을 없애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빨리 《소나무》와 《이깔나무》를 만나야 한다. 그들을 더 적

극 움직일 때가 됐어!

시가지의 집집마다에서 솟아나는 저녁연기가 이채롭다.

자연히 시가지끝 동쪽골안의 한인준의 집으로 눈길이 갔다. 통나무를 파서 세운 굴뚝이 잠잠했다. 이즈음은 좀해서는 연기를 보기 힘든 굴뚝이였다.

장철석은 한참이나 그 집을 바라보았다.

수비대에서 놓여나온 날부터 자리에 드러누워 일체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한영옥이였다. 누가 찾아가도 말을 안했다. 차창일이 찾아가면 더우기 이불을 들쓰고 기척도 안한다고 했다. 가뜩이나 어깨가 처져있던 차창일이 끝내는 할말 안할말 다하며 막 성을 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더욱 앵돌아져서 더는 상대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끝내는 영옥이편에서 아직 약혼식도 하지 않았던것만큼 영영 갈라지자고 강경선언까지 했다는 말이 돌아가고있었다. 가뜩이나 의지가지없는 몸이라 순철의 안해한테 마음을 나눈다는 말도 있었다.

차창일이 전에없이 내포국집출입이 더 잦아진것도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라고 했다.

순철의 처가 어떻게든 둘사이를 다시 화해시켜보려고 이따금씩 영옥이네 집에 들려 때식도 끓여준다지만 영옥이는 나날이 더 차창일의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는것이였다.

장철석은 이윽토록 한영옥의 집을 바라보며 서있다가 성큼성큼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철석이 방에 들어서자 한영옥은 조심스레 일어나앉으며 옷매무시를 바로했다.

장철석은 긴장한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금 밖에서 들어왔건만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에 눈과 귀를 대가며 바깥동정을 살폈다.

입술을 꼭 감쳐문 영옥이도 조마조마 가슴을 조였다.

이윽고 장철석은 영옥이와 가까이 마주앉았다.

9

주위정세는 어떻든 내포국집은 영업이 더 번창했다. 광부들의 하루피로와 만단사연의 언 마음을 풀어주는데는 더없는 약이라고 귀맛을 돋구며 인상좋은 안주인이 상글상글 웃으며 퍼주는 막걸리가 유명하여 일개 주막집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대동주》며 《사뽀로》, 《아사히》맥주병까지 내놓아 광부들뿐아니라 경찰서 순사들은 물론 수비대 하급장교들까지 드나들때도 있었다.

멀지 않아 녀급도 둬명정도 채용하고 신사유지들이나 일본군장교같은 손님들을 맞이할 귀빈실도 신식에 맞게 새로 한방 잘 꾸릴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사람이든 조선사람이든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것이 주인내외의 지론이다. 누구인가 이제 인차 나라가 해방되겠는데 그러다 친일파소리를 들으면 어찌겠느냐고 핀잔을 한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자 주인아저씨는 내가 친일파일게 뭐야, 일본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냈지, 그 사람들한테는 비싸게 팔구 우리 광부들한테는 눅게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무슨 큰 비밀이라도 말하듯이 해서 사람들을 웃겼다고 했다.

장철석은 될수록 이 식당 걸음을 하지 않았다.

차창일이 오늘은 분명 무슨 일을 칠것 같다는 순철의 말을 듣고 오래간만에 그 식당 문턱을 넘어섰다. 순철이도 데리고 갔다. 허리까지 다쳐 퍽 불편해하기는 했지만 젊은 나이여선지 다행히도 그는 빨리 일어났다.

듣던바대로 내포국집은 그전보다 식사칸도 훤해졌고 사람들도 많았다.

눈치빠른 식당주인이 언제 띄여봤던지 날쌔게 장철석에게로 달려오며 그사이 왜 꿈쩍 안했는가고 떠들썩하며 반가와했다.

장철석은 건숭 인사를 나누고는 한인준이 앉군 하던 창문옆의 식

탁부터 살폈다.

누구인가 방금전까지 앉아있었던듯 음식그릇들과 함께 빈 술병 두세개가 놓여있었다.

순철이 걱정이 콱 실린 얼굴로 빈 상을 가리키며 주인에게 물었다.

《어디 갔어요?》

주인은 좀 난처해하더니 안주인을 찾았다.

《창일이 그 사람 어디 갔소?》

안주인도 고개만 살래살래 저었다.

《하여튼 인차 올거예요. 요사이는 줄창 저 자리에서 시간보내는걸요. 다른 사람은 앉지도 못하게 하구 꼭 이 적은이만 데려오라고 하면서…》

안주인은 뜻있게 순철을 눈짓했다.

《자자, 사람도 기다릴겸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선 가 앉으시오. 오늘은 우리 내외가 특별봉사를 하리다. 순철인 수비대결음까지 했는데 오늘은 무료봉사를 해줘.》

주인이 약삭바르게 장철석과 리순철의 등을 밀며 차창일이 앉았던 식탁으로 안내했다.

안주인도 날래게 달려와 상을 깨끗이 치우고 음식그릇들을 날라왔다.

정말 성의있게 차려왔다.

《대동주》를 마시겠느냐 《아사히》를 부으라느냐 하는것을 순철이가 맞갖잖은 표정으로 잘 걸은 막걸리를 한사발씩만 가져오라고 했다.

정말 칭찬을 받을만큼 새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막걸리냄새가 군침을 돌게 했다.

주인내외가 누구한테서 미리 련락을 받고 기다리기라도 했던듯이 각별히 성의를 다하여 무료봉사까지 했지만 장철석은 그들의 봉사에도 일체 무관심한것처럼 그저 무거운 표정이였다.

리순철이 딱한 기색으로 주저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님, 나 한가지 속에 있는 말 하라우?》

장철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순철은 옆을 한번 살펴보고나서 소곤거리듯이 이었다.
《창일이를 너무 심하게 욕하지 않았소? 영옥이두 뭐 일본놈을 도와주느라고 우정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까지 했다나봐요. 원 무슨 애들이 그런지. 아 어쨌든 그 사람 큰일이야 하지 않았나요. 나같은건 엄두도 못낼 일을!》
장철석은 막걸리사발을 닁큼 들었다.
《마시기나 하자구.》
먼저 입에는 대였지만 정작 얼마 마시지는 않고 또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손님들에게 음식그릇을 다 날라다주고 얼마간 여유가 생겼는지 주방문칸너머에서 안주인이 조용히 지켜보고있었지만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는 지금 창일이가 문제가 아니였다.
계획을 승인한다고, 특히 짐운반을 절대로 덤비지 말라고 했던 봉빈의 글씨가 다시금 눈앞에서 얼른거렸던것이다.
계획을 승인한다!
절대로 덤비지 말라!
불현듯 봉빈이가 밤새워가며 들려주던 이또 히로부미며 데라우찌, 사이또놈들의 구렝이속같은 음모의 일화들이 떠올랐다.
오싹 소름이 일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래, 이 식당안에도 있을수 있지!
절대로 덤비지 말것!
다시금 그것이 침착하고 여유작작한 봉빈의 목소리가 되여 귀전을 울렸다.
철석의 그 마음을 알아보기라도 한듯 순철이가 더 걱정스럽게 말했다.
《창일이가 그래두 그 화약보관장소가 발견되면 큰일이라구 걱정이 여간 아닙디다.》
철석은 흠칫했다.

그는 천천히 도리를 저었다. 눈에서는 야릇하면서도 예리한것이 번쩍했다.

그때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그들의 옆으로 숨이 턱에 닿은 순철의 안해가 다가왔다. 얼굴이 컴컴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요?》

순철이가 펄쩍 일어나며 물었다.

순철의 안해는 말을 못하고 주위부터 둘러보았다. 그리고 얼른 손에 들고있던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순철은 눈이 휘둥그래지더니 인차 철석에게 넘겨주었다.

《난 갑니다. 찾지 마세요. 어데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더는 여기 못있겠어요.》

순철이는 믿지 못하겠다는듯 철석의 손에서 다시 종이를 나꿔채다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안해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것처럼 성을 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순철의 안해는 겁이 난듯 떠듬떠듬 말했다.

《글쎄 영옥이가 막 울면서 우리 집에 오지 않았겠어요. 창일이 그 사람이… 그 사람하구 또 한바탕 싸움이 붙었댔대요. 어찌나 섧게 우는지. 그래서 창일이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술에 만취돼서 영 인사불성이예요. … 하는수 없이 혼자서 돌아와보니 글쎄 그 편지 한장이… 아유, 그 모진게 어디 가서 목숨이라도 끊을 생각이 아닌지…》

《무슨 새빠진 소리요?》

순철이 소리를 꽥 질렀다.

식당안이 잠잠해졌다.

모두의 눈길이 그들한테로 쏠렸던것이다.

제 6 장

1

봄은 순철이네집 오래뜰에도 깃들어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을 거푸집처럼 푸근푸근 부풀려 올렸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티티새와 찌르러기들이 찌르럭거리고 인적이 없을 때면 비둘기와 꿩들이 날아와 묵은 콩뿌리들을 헤집어놓기도 했다.

터밭농사에서는 그들 내외를 따를 집이 없는가 보았다.

연약한 녀인이 혼자 살 때에는 풀밭이나 다름없이 되였다던 주변 터밭들에 이른봄부터 싸리바자를 빙 둘러쳐놓더니 내외가 짬짬이 삽으로 뚜지고 돌을 춰내고 이랑을 짓고 하여 30평남짓한 터밭을 아주 번듯하게 만들어놓았다.

《우리야 본시 농사군인걸요.》

오가던 사람들이 칭찬을 할라치면 순철이는 뒤더수기를 썩썩 쓸면서 자못 긍지롭게 말했다. 그러면 그의 안해도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웃군 했다.

오늘은 감자를 심는 날이다.

통알감자에서 두세눈씩 따서 매운재에 버무린 씨종자가 제법 나무함지에 무둑했다.

순철이 광산일을 끝내고 돌아와 시작한 감자파종이다. 저녁해가 벌써 서쪽으로 픽 기울어졌다.

해떨어지기 전에 함지의 종자를 다 묻으려면 어지간히 서둘러야 했다.

순철이는 앞에서 괭이로 이랑을 짓고 안해는 그뒤를 따라 겨울동안 모아놓았던 재를 삼태기에 담아다 뿌린다. 그리고는 큰 바가

지에 감자씨들을 담아들고 뒤뽐 간격으로 정히 묻어나간다.

지난해에 이사를 온 이후 금술이 좋은 내외로 소문이 난 그들이기도 했지만 말없이 손발을 착착 맞춰가며 감자파종을 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부러움을 자아냈다.

《원 저렇게 품을 멕이문야 자갈밭엔들 감자가 안될라구요!》

《터밭농사는 이 집에서 배워야 할가보우다.》

《이 사람 순철이, 거 그쪽 귀퉁이엔 습해서 감자가 잘 안되네. 수수를 심으라구.》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것도 다 부러움과 칭찬의 뜻이다.

하지만 너나없이 남의 집 일을 구경이나 하고있을 때가 아닌 봄철이였다.

싸리바자너머에 몰켜서서 젊은 내외가 감자심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무함지의 감자씨도 절반나마 축이 났을무렵 순철이는 이랑을 짓던 괭이를 흙속에 쿡 박아놓은채 집앞의 울퉁불퉁한 달구지길을 바라보았다.

금시 쓰러지기라도 할것처럼 비칠거리면서 한 사람이 힘겨웁게 걸어오고있었던것이다.

차창일이였다.

어디 마음붙일데가 없어서인지 이즈음은 줄창 순철의 집에 와서 살다싶이 하는 그였다.

순철이 어느새 달려나가 그를 부축했다.

《이 사람, 오늘도 또 취했구만. 어딜 갔다오는 길인가?》

《어딜 갔다가 오는가구요? 가긴 어딜 갔다 오겠소.… 형님 찾아오는 길이지요.》

《그런가? 그럼 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자구.》

순철이는 한잠 푹 재울 생각인듯 무작정 그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다.

차창일은 정작 마당안에까지 들어가서는 토방우의 가마니짝우에 벌렁 드러누워 푸념을 해댔다.

《형님, 날 좀 도와주. 철석형님한테 얘길 좀 해달란 말예요.… 난 이젠 형님밖에 믿을데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달란 말인가? 그리구 도와주구 안주구 할건 또 뭔가. 원 사람두.》

《섭섭하우다. 섭섭해요. 철석형님이 날 그렇게 대하다니 섭섭해요. … 영옥이, 그라두 있었으면… 에이!》

그는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에서는 적의감같은것이 번쩍했다.

《영옥이, 그가 왜 달아났는지 알아요? 그것두 다 철석형때문이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순철이는 펄쩍 뛰였다.

《임자 아무리 취중이래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창일은 성을 왈칵 냈다.

《왜요? 내가 못할 말을 했소? 그럼 물어봅시다. 철석형님 말이나 영옥이가 한 말이 어쩌면 그렇게 꼭같소? 예? 어쩌면?》

《사람두 참, 물론 임자 아픈 마음이야 누군들 모르겠나. 영옥이두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 그애두 똑똑한 앤데. 고마운 사람들을 영 잊기야 하겠나. 철석형님두 자네때문에 여간 속태우지 않네. 아 자네가 이러면 조직은 어떻게 되나?》

《조직이요? 조…직…》

차창일은 무슨 말인가 할듯 하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꼿꼿이 펴서 입에 가져다대며 《쉬!》하고 소리를 냈다.

순철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차창일은 제풀에 하하하…하고 웃었다.

순철이는 억이 막혀 손을 한번 내젓고나서 추궁조로 한마디 했다.

《자네 내포국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게.》

차창일은 그저 큰소리로 웃기만 했다.

영문모를 차창일의 그 웃음소리에 바가지에 감자씨앗을 담아들고 일어서던 순철의 안해도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였다.

2

장철석은 이틀을 사이두고 《소나무》와 《이깔나무》를 극비밀리에 따로따로 만났다.

《소나무》는 번잡스러운 저녁시간을 리용하여 광산마을의 지정된 아지트 지하실에서 만났고 《이깔나무》는 다음날 새벽 광산 앞산의 울창한 수림속에서 만났다.

그사이 활동정형을 청취하고 새 과업을 주었다.

만족스러운 활동에 진심의 인사도 표했다.

각자 자기 활동지역에서 밀정의 꽁무니를 바짝 더 거머쥐고 놈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비상련락을 취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중요한것은 놈들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위장하면서 밀정놈을 더 가까이 바싹 끌어당기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면하여 놈들이 미끼로 던진 화약과 도화선을 어떻게든 무사히 근거지로 들여보내는 작전에 책임적으로 참가할데 대한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놈들이 곁에 바싹 붙어선 조건에서 우리도 절대로 놈들의 꼬리를 놓쳐선 안되겠소. 그놈들이 페갱속의 화약과 도화선을 언제 운반해가겠는가 하는데 촉각이 집중된것만큼 당면과업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화약과 도화선을 운반할수도 없거니와 운반하려고 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해 그럴듯하게 납득시키는거요, 놈들이 한인준, 한영옥과의 관계가 깊었던것만큼 인정적인 문제들로 계속 미끼를 던지는것도 나쁘지 않을거요. 나부터도 보기만 해도 눈에서 불이 이는데 순간도 내색을 하거나 긴장을 늦춰선 안되겠소. 어떤 정황에서든 놈들이 눈치를 챌수 없게 림기응변할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추어야겠소. 그리구…》

장철석은 제사 더 흥분해서 강조했다.

《우린 더 긴장해서 맡은 과업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겠소. 근거지에서 화약과 도화선들을 무사히 뽑아낸 즉시 제2단계작전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지시가 왔소. 제2단계작전!… 이제부터 그 준비를 동시에 밀고나가라는것이요.》

장철석은 제2단계과업의 극비내용들과 함께 왜 제2단계작전을 화약운반과 결부시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화약운반전투가 끝난 즉시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하는가 하는 그 전술적의도에 대해서도 마음을 조여가며 알려주고나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도를 의논하였다.

모두 장철석이상으로 흥분하고 격동되였다.

제2단계작전!

그 중대과업 역시 화약과 도화선운반과 함께 무장폭동준비의 최종결속에서 특히 사활적이라고 할만큼의 관건적인, 밀정놈들과의 목숨을 내건 모험적인 치렬한 비밀격전이기때문이였다.

3

선녀갱쪽의 어느 골안에선가 소쩍소쩍 소쩍새울음소리가 들린다. 처량하기도 하고 궁상스럽기도 하고 무엇인가 절절하여 애간장을 끓게도 한다는 울음소리였다.

장철석은 문득 그 울음소리가 《혜영, 혜영》하는 소리로 들리여 가슴이 아릿해졌다.

저 새가 혜영이 있는 밀림에서 날아온건 아닐가?

《거기서도 여기로 들어오면 안되나요?》하고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쳐다보던 얼굴이 눈앞을 꽉 채운다.

내 왜 그때 그를 더 따뜻이 대해주지 못했을가 하는 생각에 큰숨을 후— 내쉬였다.

겉은 그랬어도 속에서는 얼마나 불같은것이 끓고있었던가.

혜영이, 우리 조금만 더 참자구.

이번엔 그의 어머니와 새빨갛게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면서 나무단을 지고다니던 나어린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녕 그들과 한집안에 모여살 날은 언제일가?
죽을 먹어도 그들과 한두리반에 모여앉아 웃으며 먹고싶었다. 하루밤을 자도 그들과 함께 내 집, 내 살림방의 뜨뜻한 구들에 누워 자보고싶었다.
꿈결에도 그리운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어 봉빈이며 영무, 저 멀리 10년전의 북주하양주공장 소년직공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되살려주었다.
영옥이와 관길이, 기철이, 《바퀴》…
이 땅, 이 하늘아래 어느 곳곳에서 어떻게들 살고있을가?
그들도 이제는 어른이 다 됐을텐데…
장철석은 끙—하고 온몸에 힘을 주면서 돌아누웠다.
두손으로 힘있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내 지금 어느 밭을 헤매고있는가!
그는 펄쩍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손바닥만한 퇘창이 환하게 밝았다.
벌써 날이 새는가?
아래방에서는 하루일에 지친 주인내외가 겨끔내기로 코를 골고있었다.
장철석은 속내의바람으로 밖으로 나갔다.
보름달이 휘영청 떴다.
봄밤이건만 달이 얼마나 밝은지 추석날 밤의 그 달인가 싶었다.
주인집녀인이 어느 친척집에서 안아왔다는 까만 강아지가 벼짚둥우리에서 바르르 기여나와 철석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리며 맴돌이를 쳤다.
장철석은 강아지를 냉큼 들어 품에 안았다.
강아지는 고맙다는듯 킹킹거리며 더 깊이 겨드랑이안으로 파고들었다.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니 느닷없이 또 구창광산의 혜영이네 집이 그리워졌다.
혜영이 어머니와 똑똑한 어린 동생… 어머니의 병은 어떨가? 그

어린 동생이 얼마나 고생이 클가. 향수와 같은 아릿한 그 정을 불러주군 하기에 강아지와 더 친숙해지게 되는지 몰랐다.

장철석은 더욱 따뜻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마당을 거닐었다.

밤늦도록 잠못들고 굴려보던 생각이 다시금 머리속에 고패치면서 심장을 쿵쿵 울렸다. 화약운반과 함께 동시에 밀고나가야 할 제2단계작전에 대한 지시때문이였다. 비록 몇마디 안되는 집약된 지시였지만 장철석은 나날이 더 그 과업뒤에서 폭풍치는 거창한 그 무엇인가를 느끼였다. 환희였다.

봉빈공작원이 만날 때마다 강조하군 하던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최후작전이 드디여 내 나라의 하늘아래, 저 울창한 량림산줄기너머 어느 기슭에서 시작되여 당장 첫 포성을 울리는게 아닐가 하는 걷잡지 못할 환희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침착하고 주도세밀한 봉빈공작원이 누구나 알면 경악을 할 그런 모험적인 작전을 감히 펼수 있겠는가.

오늘밤도 그 흥분으로 진정을 못하던 장철석은 다시금 뜻밖에 터진 화약운반습격사건의 첫날부터 화를 복으로 돌려앉히기 위해 고심하던 나날들을 하나하나 침착하게 더듬어보았다.

눈이 번쩍 뜨이는 방안은 역시 조직성원들속에서 나왔다. 당장 하늘이라도 무너뜨릴듯이 기가 뻗쳐돌아치던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놈이 돌아가고 헌병대 파견대장이란 놈이 수십명의 경관들까지 보충해가지고 들이닥친지도 네댓새가 지난후에 당상갱좌상아바이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안을 하나 내놓았던것이다. 이미 로출된 미끼라면 우리도 대담하게 더 콱 로출시켜놓자는것이였다.

지금 화약을 보관한 페갱으로부터 서쪽골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나지막한 릉선을 하나 넘으면 벼랑바위들이 험하게 솟고 참나무숲이 우거진 산탁에 또하나의 굴이 있는데 밤중에 은밀히 화약과 도화선상자들을 그 굴속으로 옮겨놓자는것이였다. 지금 화약과 도화선을 보관한 페갱주변에 밤낮으로 놈들의 눈길이 박혔은즉 우리가 밤중에 은밀히 그 상자들을 옮기면 놈들은 얼씨구 좋다! 하

면서 쾌재를 부르며 따라올것이다. 우리는 그 굴안에 화약과 도화선들을 아주 《조심히》 옮겨다 《보관》한 후 굴입구를 철저히 《위장》해야 한다.

놈들은 항시 그 굴입구와 굴주변에서 눈길을 떼지 않을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 고갱이 10여년전에 물줄기가 터져 엄청난 사고를 냈다는데 있다. 그 고갱 썩 안쪽에는 여러개의 곁굴이 있는데 그때 그 곁굴들을 돌로 막아놓았다. 그 곁굴들중의 하나가 바위벼랑과 참나무숲으로 뒤덮인 험한 산너머 뒤골짜기와 통하는 굴이다. 이제는 그 굴들을 내버린지가 오랜데다가 그때 일하던 사람들도 다 없어져서 그 굴내막을 아는 사람은 좌상아바이 하나뿐이라는것이였다.

장철석은 무릎을 쳤다. 좌상아바이의 두손을 모아잡고 몇번이나 힘차게 흔들었다.

한인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일을 예견하여 그가 그렇듯 품들여 조직을 확대하는 일부터 꾸준히 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고마움이 북받쳤다.

긴급한 때일수록 당황해하지 말고 배심 든든히 뚫고나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만날 때마다 강조하군 하던 봉빈공작원의 말도 생각났다.

좋다.

《소나무》와 《이깔나무》한테 빨리 이 작전계획을 통보해주어야겠다. 각자 밀정놈한테 접근하여 첫 화약운반작전진행을 은밀히 눈치채도록 하게 해야겠다. 그래, 그림자에 그림자작전! 누가 골탕을 먹는가 보자!

장철석은 곧 좌상아바이를 앞세우고 그 옛굴을 찾아들어갔다.

굴천정에서는 아직도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고 곳곳에 거미줄들이 늘어졌다. 박쥐들이 찍찍거리고 곰팽이냄새가 코를 찔렀다.

굴입구에서 50메터쯤 들어가니 광부들이 굴안으로 들며날며 모여앉아 휴식도 하고 작업준비도 하군 하던 널직한 홈채기가 있었다. 썩어 무너앉은 통나무긴걸상도 있었고 녹쓴 정대와 곡괭이, 망치 같은것들도 나딩굴었다. 무너져앉은 통나무걸상에는

허연 곰팽이와 절로 자라다 죽어버린 버섯들이 희끗희끗했다.
진짜 10여년동안 인적이 끊어졌던 굴이였다.
거기로부터 또 100메터쯤 들어가니 두간두간 굴벽을 버럭돌로 쌓아서 막아놓은 곁굴입구들이 나타났다. 물기가 질쩍거리고 거미줄이 츠렁츠렁 드리우고 돌먼지가 두텁게 쌓여서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 굴벽인지 돌막이인지 가려볼수 없는 곁굴입구들이였다.
장철석은 좌상아바이가 점찍는대로 곁굴입구의 막돌을 하나하나 헐어보았다. 사람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만한 구멍이 펑 뚫렸다. 싸하고 눅눅한 바람이 확 쓸어나오면서 숨을 꺽 막히게 했다. 간데라불로 안을 비쳐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좌상아바이말이 산너머 뒤골안까지 나가자면 오리쯤의 굴길은 걸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옳다. 화약상자들을 저 참나무숲속에 묻힌 기본굴입구로 《은밀》히 들여와야겠다. 빼내가는것은 산너머 뒤골안굴로 들어와 이 곁굴로 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진짜 은밀히 메내가야 한다.
장철석은 가슴이 막 터지는것 같았다.
한마차분이나 되는 화약과 도화선을 눈 빤히 뜨고 통채로 감쪽같이 떼우고나서 닭쫓던 개 울바자 쳐다보듯 할 놈들을 생각하면 온몸이 둥 떠오르는것 같기도 했다. 아니, 정말이지 이제 그 화약과 도화선들이 작탄이 되여 저놈들의 머리우에서 쾅쾅 터질제 놈들은 또 얼마나 경악을 할텐가.
어리석은 놈들, 뭐 미끼라구! 감히 누구한테 미끼를 던져!
하면서도 그날부터 통잠을 못잤다. 모든 일이 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되겠는가 하는 불안에서였다. 천리길 걸어가 문앞에서 넘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밤도 잠 못들던 철석이였다. …
마당굽을 몇바퀴나 돌던 장철석은 어느결에 대문밖으로 나와 집옆의 박우물로 가는 돌서덕길에 나섰다. 물을 마실 생각에서는 아니였다. 발길 닿는대로 걷는 걸음이였다.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박우물에서는 바위돌짬으로 조잘조잘 흐르는 물소리가 났다.

우물주변에는 누가 심었는지 다박솔이 두세그루 섰고 오미자 덩굴도 우거졌다.

찰랑찰랑 넘쳐나는 우물안에서도 보름달이 환히 웃고있었다.

장철석은 차고 깨끗한 물에 씨원히 세수를 하고싶었다.

박우물아래 빨래도 하고 산나물도 헹구느라 깨끗한 돌로 둘레를 쌓은 물웅뎅이가 있었다.

강아지가 저도 물장난을 하고싶은모양 물가를 에돌며 낑낑거렸다.

정작 세수를 하려고 물속에 손을 담갔지만 장철석은 손을 잠근채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모든 작전을 승인한다고, 짐운반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강조했던 봉빈의 련락쪽지가 생각나서였다.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번의 실수는 생명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것이다. 정말이지 자그마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이번 작전은 단순히 화약구입이나 도화선과 뢰관구입전에 한한것이 아니지 않는가. 놈들에게 속는척 하면서 오히려 놈들의 코를 꿰여 궁국에는 페장이 터질 엄청난 함정속에 몰아넣어야 할 비밀격전인 동시에 보다 중대한 제2단계작전으로 돌진하기 위한 모험적인 격전이였다.

또하나의 불안이 스치였다. 오늘밤 예견했던 《이깔나무》의 통보가 아직 잠잠한것이였다.

일이 생겼는가?

철석은 도리를 저었다.

무슨 일이 생겼다면 《참나무》나 《소나무》로부터 이미 긴급련락이 왔을것이다.

《참나무》와 《소나무》, 《이깔나무》.

얼마나 책임성높고 미더운 조직성원들인가!

신심이 북받친 장철석은 이제부터 진행하게 될 보다 대담하고 통이 큰 행동방향을 침착하게 다시 훑어보았다.

그러면서 두손으로 샘물을 듬뿍 떠서 얼굴에 활활 끼얹었다.

정신이 펄쩍 들었다.

또 한번 끼얹었다.
끼얹을수록 내장까지 시원하게 정신이 맑아졌다.
갑자기 강아지가 자지러지게 짖었다.
장철석은 등골이 오싹했다.
강아지가 더 기승스레 짖어댔다.
집아래 시가지로 통하는 큰길로 내려가는 돌서덕 오래길어구에서 《누구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철석은 소리나는쪽으로 고개를 버쩍 돌렸다.
잠잠했다.
다시 반복하는 소리.
《누구요?》
부시럭거리는 인기척과 함께 길옆에 우뚝 솟은 선바위굽에서 검은 옷을 입은 웬 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나요. 》
귀에 익은 소리.
이어 선바위와 좀 떨어진 길아래쪽 찔레덩굴뒤에서도 또 한사람이 나타났다.
《자네 창일이 아닌가?》
역시 귀에 익은 목소리, 리순철이였다.
《철석형님을 만나러 왔나?》
대답을 안했다.
서로 가까이 마주섰지만 여전히 잠잠했다.
분명 무슨 말인가 하는데 들리지 않았다.
강아지도 잠잠해졌다.
장철석은 여전히 온몸에 서늘한 감을 느끼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하여 다시 들려오는 소리.
《나도 급히 철석형님을 만날 일이 있어 왔네. 같이 들어가자구. 》
장철석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4

올해에는 례년에 없이 보리장마가 일찍 시작되려는지 보름나마 구름한점없이 땡땡 말리우기만 하던 대지에 낮때부터 물먹은 바람이 불고 먼 하늘끝에서 꾸르릉꾸르릉 뢰성이 울더니 초저녁부터는 먹장구름이 미친듯이 밀려들었다.

무슨 위협이기라도 한듯 돌덩이같은 비방울을 후두둑후두둑 뿌려던지기도 했다.

산제비들이 질겁을 하여 거리와 마을의 처마밑으로 날아들고 산골안 어느 벼랑굽에선가는 날이 채 어둡기 전부터 캥―캐갱―하는 여우울음소리가 들렸다.

날이 어둡자 장철석은 부러 거리길에 나섰다.

그는 고기파는집앞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밤손님을 치르려는지 빈지를 쾅쾅 두드리는 중년의 사나이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눈은 사나이를 여겨보았지만 온 신경은 방금 자기가 걸어온 큰길쪽에 모갔다. 빨간색의 야외등빛에 《해당화》라고 현판을 내붙인 술집모퉁이에서 무슨 그림자같은것이 얼씬하는 감을 느꼈다. 저놈일가? 신경이 너무 곤두서서인지 그 맞은켠 잡화상점옆의 유난스레 우람찬 벽돌굴뚝뒤에서도 무슨 기척이 나는것 같았다.

장철석은 퉤! 하고 침을 한번 내밷았다.

이미 과업을 주었던대로 《이깔나무》와 《소나무》한테서 밀정놈들에게 오늘밤 엄선된 지하조직성원들로서 폐갱으로부터 극비밀리에 화약과 도화선상자들을 옮기게 된다는 중요정보를 솜씨있게 먹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었다. 목이 타게 바라던 거사가 비로소 거행되니 놈들이 결코 눈감고있을수 없을것이다. 조직성원들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장철석에게 특히 쌍심지를 켰을것이다. 철석은 우선 그 정황을 알아보고싶었다. 밀정놈들의 눈길을 자기한테로 모아 조직성원들의 움직임을 안전하게 해주는 한편 시작전부터 놈

들을 한바탕 휘저어놓아 기를 꺾고 맥을 뽑아놓고싶었다.

온 정신을 모으며 살폈으나 뒤쪽에서는 더이상 다른 기척이 없었다.

그사이 빈지가 열리고 고기파는집 주인이 돼지뒤다리 하나를 통채로 저울에 달아 사나이에게 넘겨주었다. 사나이는 아무 소리없이 값을 치르고나서 인차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주위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싶게 조용해졌다.

장철석은 생각을 굴렸다. 혹시 그 중년의 사나이가 나를 미행하던 놈은 아니였을가? 미행을 다른 놈에게 넘겨주고 사라진것은 아닐가?

철석은 쓰겁게 웃었다. 그리고는 또 휘적휘적 걸었다. 한동안 주위를 살펴보며 느적느적 걷다가는 돌연히 무엇에 쫓기우기라도 하듯이 씽 바람을 일구며 냅다 달려 골목길로 뛰여들기도 했다.

여전히 다른 기미는 없었다. 틀림없이 뒤따르는 놈이 있겠는데 보통 세련된 놈이 아닌것 같았다.

야외등불빛이 환한 경찰서와 수비대병영이 가까와졌다. 불빛만 환했지 모두 쥐죽은듯 조용했다. 보초막앞에 말뚝처럼 서있는 보초놈도 그렇지만 망할 날이 멀지 않은 병실마다의 병졸놈들이 지금 무슨 망상들을 하고있을가 하는 생각에 가소로움이 치밀었다.

장철석은 얼마간 더 동태를 살피며 먼발치에서 담배불을 붙여물고 왔다갔다하다가 돌아섰다.

그는 곧바로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태연하게 집안에 들어가니 주인내외가 방금 잠자리를 펴는 중이였다. 안주인이 장마당을 다녀와서 중국동북지방에서 내왔다는 묵은 좁쌀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여서 장철석도 한동안 장마당시세를 알아보다가 인차 잠자리를 폈다.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우뢰소리가 울렸다.

장철석은 또 바깥동정에 귀를 강구었다.

틀림없이 어느 놈이든 집가까이에 와있을텐데 어디 있을가? 선바위밑일가 집뒤의 산딸기나무숲일가?

수고들 하시겠군! 하는 조소와 함께 소나기라도 콱 쏟아지지 하는 생각이 들어 입귀가 벙글써해졌다.
아래방에서는 벌써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한시간쯤 지나서 장철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밖에 나서니 강아지가 콩콩거리며 발목에 감겼다.
장철석은 여느때처럼 얼른 품에 안아 잔등을 쓸어주고나서 벼짚둥우리에 밀어넣었다. 깊은 밤 주인들 모르게 집을 나설 때마다 해주군 하는 애무여서 강아지도 더는 보채지 않고 얌전해졌다.
싸리대문앞에 나서서 우정 얼마간 옴짝않고 서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꺼림없이 집뒤쪽의 오솔길로 급히 올라갔다.
폐갱앞의 약속된 장소에는 예닐곱명의 광부들이 이미 도착하여 기다리고있었다. 엄밀히 선발된 조직원들—적들에게 로출된 성원들이였다.
목숨을 내걸어야 할 거사였건만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도 빙글빙글 웃음이 비꼈다.
장철석은 엄하게 눈신호를 보냈다. 놈들이 총질을 하거나 붙잡는 폭행같은것은 물론 안할것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기미를 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철두철미 실전처럼 해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를 했댔기때문이였다.
다시금 주위를 둘러보았다.
때마침 번개가 일면서 날카롭게 일어선 칼벼랑과 아름드리나무들을 비쳤다. 어느 바위짬, 어느 나무뒤에 놈들의 눈이 박혔을가?
큰숨을 내쉰 장철석은 인차 성원모두를 폐갱으로 인도했다. 굴앞에서 한사람한사람 재확인을 하듯 꼼꼼히 살피면서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자신은 맨 마감에 들어갔다.
성원들은 날쌔게 화약과 도화선상자를 하나씩 어깨에 걸머멨다.
《조심해야겠소.》
장철석은 열백의 뜻을 담아 한마디 했다.
가슴이 쿵쿵 뛰였다.
새삼스레 작지 않은 화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봉빈의 얼굴이 떠올랐다. 혜영의 얼굴도 뒤따랐다.

혜영이, 우리가 얼마나 장한 일을 하고있소!

이밤으로 곧장 그가 있는 곳까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못견디게 그리움을 낳았다.

《출발! 내뒤를 바싹 따르오.》

장철석은 제사 앞장에 섰다.

부러 울창한 나무숲속을 골라 헤치였다.

이미 며칠전부터 눈에 익혀두었던 길이여서 지척을 분간할수 없는 어둠속이건만 별로 힘들지 않게 걸었다.

곧바로 고갱속으로 들어갔다.

갱앞에 두사람으로 보초를 세우는것도 잊지 않았다.

기를 쓰며 뒤따라 왔을 놈들에게 보다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다.

굴안에 들어가서는 준비해가지고 왔던 간데라불을 켰다. 대낮처럼 환했다. 얼굴이며 목이며 잔등은 땀으로 벌창이 되였지만 모두 싱글벙글 웃는 얼굴들이였다.

장철석도 흐뭇하게 웃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됐다. 다음일은 귀신이나 알테지!

뜻밖의 사건이 터져 앞이 캄캄해졌던 일이 생각났다. 과감히, 신심높이 벌린 오늘의 작전이 꿈같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싸움은 앞에 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다.

좌상아바이가 고마왔다. 조직성원들과 토론하기를 정말 잘했다. 혼자의 머리로야 어방이나 있는 일인가, 조직성원들과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면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가 나온다고 일깨워주던 봉빈공작원의 말의 참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이런 참인간들, 성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성원들로 무어진 우리 조직을 뭐 어째보겠다구?

어리석은 놈들!

배심과 배짱이 더 든든해졌다.

어느 사이 훔채기안에 화약과 도화선상자들을 정히 쌓아놓은 성

원들은 그 둘레를 막돌로 차근차근 쌓아 보이지 않게 위장을 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손발들이 어찌나 착착 잘 맞아돌아가는지 놀라왔다.
일을 다 끝내고 밖에 나오니 밤길을 헤쳐온 흔적마저 깨끗이 없애주려는듯 드디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번개와 우뢰가 더 요란스러워지면서 비발이 굵어져 억수로 변했다.

5

임일광은 장철석에게 긴급상면을 요구했다. 상면장소는 약속한대로 소나무숲이 우거진 3호지점이였다.
장철석은 밀정의 눈을 피하느라 계획했던 시간보다 한시간나마 지나서야 광산을 떠났다. 속이 까매서 달려갔을 때 임일광은 예나 다름없이 먼저 와 기다리고있었다.
《무슨 일이요?》
장철석은 목소리가 떨렸다.
임일광은 빙그레 웃었다. 불길한 소식은 아니니 안심하라는 뜻이였다.
한가닥 안도의 숨은 나갔지만 장철석은 가슴이 그냥 후두둑거렸다. 적후투쟁에서의 긴급상면이 보통 문제이겠는가.
임일광은 좀 미안한 표정으로 나직나직 말을 이었다.
《며칠전에 우연히 서장방에 들어갔다가 〈동해호텔〉에서 총독부 경무국의 모리무라 다다시라는 놈이 자기 첩자들과 비밀리에 만나군 한다는걸 알았소. 호텔에 좀 찔러봤는데 확실한 정보요. 호텔안에서 빨리 우리와 손잡을 사람을 한명 찾아내자는것이요. 성공만 하면 그야말로 놈들의 염통을 거머쥐는거나 같지 않소.》
물론이다. 하지만 장철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쩐지 범의 아가리에 손을 넣는것 같았던것이다.

《가능하겠소? 그 호텔이야말로 순 일본놈들 전용인데…》
《뚫어봐야지!》
대답하는 품이 아직 이렇다할 선은 쥐지 못한 모양이였다.
임일광은 스스로 자기 대답에 화를 내듯 인차 정정했다.
《내 어떻게든 뚫고들어가겠소. 아무리 일본놈 전용려관이래두조선땅안에 있고 또 조선사람 한둘이 있는것도 아닌데 아무렴 다 일본놈 편이겠소. 날 믿소.》
장철석은 전에없이 엄하게 말했다.
《여보, 자신있어 하는건 좋은데… 큰 강 건너 여울목에서 넘어진다는 말 있소. … 솔직히 임동무의 위치는 이 장철석과는 대비할 수조차 없이 중하다는걸 모르오?》
《자 이거, 철석동문 언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게 됐나? 항차 자기는 총독부 경무국의 〈보호〉속에 있으면서!》
《뭐요?》
《하하하…하하하…》
임일광은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웃었다.
장철석도 끝내 웃고말았다.
제 마음의 불안을 가셔주려고 왼심을 쓰는 임일광이 고마왔던것이다. 하긴 내 신변안전도 이 사람이 맡고있다지 않는가.
얼마간 동안을 두었다가 진지하게 물었다.
《임동무, 정말 일없겠소?》
《자 이런, 믿으시라니까.》
《그럼 좋소. 조심하오.》
《알겠소.》
이번엔 간단히 만나고 헤여졌다.
광산마을로 돌아오니 《소나무》로부터 또 상면신호가 왔다. 며칠전에 누구도 모르게 밀정놈이 살았다던 곳으로 떠나보냈던 《소나무》였다. 예정날자보다 빨리 돌아왔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도 생겼는가?
《소나무》는 만나자 바람으로 흥분부터 터쳤다.
《놈의 말과 하나도 틀리는데가 없습니다. 빈틈없이 짜고들었습

니다. 어느 한사람 밀정놈이라는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말 교활한 놈들입니다.

놈들이 얼마나 품을 들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장철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이 이 광산의 지하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보통품을 들이지 않았다는것이 새삼스레 알렸다.

정말이지 《참나무》가 아니였다면 어쩔번 했는가.

《동해호텔》이 가슴에 콱 마쳤다.

진짜 일없을가? 내가 끝까지 승인하지 말아야 했었는게 아닐가?

걱정말라고 자신만만해 하던 그의 모습이 오히려 가슴을 더 조이게 했다. 바야흐로 2계단작전이 무르익는 때가 아닌가.

호박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한건 아닐가?

하긴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라고 했지.

6

아름드리나무들로 꽉 들어찬 천연요새—비밀근거지의 밀영에도 또 하루가 저물어 서산마루에는 까치놀이 곱게 섰다.

정갈하게 새로 꾸린 샘터에 두 처녀가 다정하게 마주앉아있었다.

작탄생산에 희열의 땀을 흠썩 뿌리고 얼굴을 씻으러 나온 심혜영과 작식대일을 맡아보는 한영옥이였다.

한영옥은 순철의 집에 자기를 찾지 말라는 편지 한장을 남긴 그날로 곧바로 약속된 지점으로 달려가 근거지련락원을 만났었다.

모든 일은 김봉빈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장철석이 조직한것이였다. 한영옥이 더는 광산마을에 있을수가 없게 된 사정으로 장철석이 면밀하게 짜놓은 탈출작전에 의한것이였다. 밀정놈이 또한번 닭을 쫓다가 울바자만 쳐다보게 한 통쾌한 작전이기도 하였다.

근거지에 들어온 한영옥은 인차 심혜영과 자매처럼 가까와졌다. 한영옥이 북주하양주공장에서부터 장철석과 알게 된 인연과 함

께 심혜영이 그의 사랑을 받고있다는 남다른 사연에서만이 아니였다. 눈물속에 며칠 몇밤을 주고받아 알게 된 자기들이 걸어온 경난에 찬 운명의 길이 너무도 꼭같은것으로 해서였다.

점점 더 붉게 퍼지는 저녁노을은 한영옥의 얼굴을 더 곱게 물들이였다.

통통한 손가락들을 재간있게 놀리면서 샘물에 푹 울궈낸 산나물들을 손질하던 그는 얼레빗으로 방금 시원하게 감은 머리를 빗고있는 혜영에게 나직이 물었다.

《언니, 보고싶지요?》

혜영은 짐짓 모른체 하고 되물었다.

《누구?》

영옥은 젖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호호… 언니두, 시침을 따네… 철석오빠!》

《음— 전 뭐 보고싶지 않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혜영의 얼굴과 눈에는 그리움이 꽉 찼다. 눈에 뜨이게 한숨까지 내쉬였다.

영옥이 젖은 두손으로 턱을 고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언니, 나도 막 만나보고싶어요. 정말이지 철석오빠 아니였다면 난 어떻게 됐을가. … 진짜 목을 맸을지도 몰라요.》

《얘, 넌 또 무슨 끔찍한 소리!》

혜영은 머리를 다 빗어 뒤머리카락을 고무줄로 꽁꽁 동여매고나서 제잡담 나물버치에 달라붙었다.

《빨리 손질하자, 저녁 늦겠다.》

그는 부지런히 나물을 손질했다.

영옥은 그냥 혜영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다 또 조용히 물었다.

《언니,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언닌 철석오빠랑 같이 구창광산으로 가겠지요?》

혜영은 대답을 안했다.

얼굴빛이 흐려졌다.

(네가 또 그 생각이구나.)

해방이 되여도 어디 갈데가 없는 영옥이였다.

혜영은 다 손질한 나물버치에 새 샘물을 찰랑찰랑 부어 힘차게 헹구어내고서야 영옥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영옥아, 이 말은 좀 후에 하자고 했는데… 나라가 해방되면 난 널 꼭 우리 집으로 데리고가련다.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가서 나랑 같이 살자. … 이건 내 마음이자 철석동무 마음이야!》

《언니!》

영옥의 눈굽에 뜨거운것이 함뿍 고였다.

두 처녀는 서로 꼭 붙안았다.

붙안은채 마음속의 말을 나누었다.

《영옥동무!》

식당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처녀들은 자리를 털며 일어났다.

나물버치를 맞들고 가면서도 수림너머 멀리 광산쪽을 바라보았다. 서쪽하늘에는 저녁노을이 곱게 퍼졌지만 광산쪽 하늘에는 비가 쏟아지는지 검은 구름이 꽉 덮여있었던것이다.

(오빠, 철석오빠, 정말 몸조심해요.)

(철석동무, 소식들었어요?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대요. 제발 무사하길 바래요. 매사에 주의하세요.)

검은 구름은 점점 밀영쪽으로 밀려왔다.

한소나기 되게 쏟아지려는가부다 했는데 비는 한꼬치도 오지 않고 우뢰소리만 심술궂게 자꾸 울렸다.

한영옥은 물론 혜영이도 온밤 잠을 못잤다.

7

장철석은 문단을 시간이 거의 다되였을 때에야 내포국집으로 향했다.

이미 부탁을 해놓았댔기때문인지 안주인이 기다렸던듯이 문앞으

로 달려나오며 반겼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깨끗했고 머리단장도 곱게 했다.

《오늘은 영업을 일찍 끝냈어요. 어서 들어가시자요.》

진짜 식당안에는 사람들이 절반도 차지 않았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돌아갈 차비인듯 상우의 음식그릇들이 태반은 비여있었다.

《우리 주인이 안으로 모시라고 했어요. … 안방으로, 주인은 다녀올데가 있어서 자리를 좀 떴어요.》

안주인은 지난해 순철이를 만날 때 안내했던 안방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절절한 눈빛을 담았다.

장철석은 도리를 저었다.

《아니, 고맙소. 하지만… 저기 한인준형님이 즐겨앉군 하던 식탁을 쓰겠소.》

장철석은 곧바로 창문옆의 식탁에 가앉았다.

안주인은 퍽 서운한 기색으로 잠시 지켜보기만 하더니 비로소 제할 일을 깨달은듯 인차 상을 거두기 시작했다.

일체 말이 없었다. 어쩌면 좀 새침하고 쌀쌀해진것 같기도 했다.

장철석은 식당안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모두 광부들과 시가지사람들이 분명했지만 얼굴 알 사람은 별로 없었다. 형형색색의 낯모를 그 사람들속에 틀림없이 이밤도 끈질기게 자기를 지켜볼 사람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툭툭 뛰였다. 어찌 이 식당안뿐이겠는가. 창밖의 어느 집, 어느 처마밑이나 골목에서도 역시 매서운 눈초리가 번쩍이고있을것이였다.

오늘은 한인준의 생일날이였다.

장철석은 우정 이틀전부터 소문을 내다싶이 하면서 오늘저녁 한인준의 생일제를 지내겠다고 내포국집에 식사주문을 했었다. 제사라고 식을 차리자는것은 아니였다. 생전에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몇이 모여 저녁식사를 나누는것이라고 제사방법도 알려주었다. 한인준이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모인다고 했으니 헌병대파견대장이 가만있으며 경찰서와 수비대에서는 또 잠자코 있겠는가.

장철석은 오늘의 이 《제사행사》를 걸음걸음 가슴을 조여가며 준비했었다.

화약운반전때문이였다.

드디여 오늘밤 고갱속의 7개의 화약상자와 도화선상자를 삼송비밀근거지에 넘겨주는 마지막운반전투를 벌리게 된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밤 고개의 홈채기에 화약과 도화선상자들을 성과적으로 옮겨놓은 후 장철석은 제가 직접 맡아나서서 매일이다싶이 굴안으로 들어가군 했다. 《안전보관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홈채기입구에 거미줄을 걸어놓기도 하고 자기만이 알수 있게 굴바닥에 돌가루먼지를 뿌려놓기도 했다.

거미줄이 끊어져나가고 굴바닥의 돌가루먼지우에 발자국흔적이 생길 때면 그는 혼자서 혀를 씹으며 웃군 했다.

장철석은 그렇게 며칠동안을 반복하면서 놈들을 충분히 안정시켜놓은 다음 또다시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중에 좌상아바이를 비롯한 극비의 인원들을 누구도 모르게 산너머의 곁굴로 들여보냈다.

굴입구를 감시하는 놈들이 아무리 눈뿌리가 빠지게 지켜보고 있단들 캄캄한 야밤중에 굴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랴.

좌상아바이네는 상자속의 화약과 도화선을 마대에 옮겨넣고 상자안에는 버럭돌들을 적당히 채워놓았었다.

그 화약들은 또하나의 산을 넘어 좌상아바이도 모르고있던 자연동굴속에 깊숙이 보관되였다.

그날밤부터의 전투는 진짜 사생결단의 비밀전투였다.

그 전투가 바로 사흘전날밤의 가슴조이는 전투였다.

오늘밤은 그 화약과 도화선들을 약속된 지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인원은 좌상아바이를 비롯하여 8명.

약속된 지점에서는 봉빈이가 직접 무장대성원들을 인솔하고 나와 마중한다고 했다.

바로 그 전투의 방풍림이 되고저 장철석이 이밤 한인준의 생일제를 품들여 준비한것이였다. …

봉빈이 직접 인솔하여올 무장대성원들중에는 혜영이도 있을런지 모른다.

보고싶었다.

오늘밤은 각별히 더 만나고싶은 정이 끓었다.

무사해야겠는데.

정말 무슨 일이 없을가?

장철석은 겉은 태연한체 했지만 속은 거사라도 치르는 심정이였다. 어떻게든 밀정놈들의 눈길을 이 내포국집으로 끌어야 했기때문이였다.

뗑뗑—하고 식당안의 벽시계가 아홉점을 쳤다.

얼핏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없는 밤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지척을 분간할수 없는 어둠이 고마왔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의 식탁을 치우던 안주인이 방싯이 웃으며 물었다.

장철석은 정신을 펄쩍 차렸다.

(내가 이래선 안되겠는데… 절대로 다른 기색을 내선 안돼.)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나서 저도 조용히 마주 웃어보였다.

철석이 웃어주어서인지 녀주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앞에 마주앉았다.

녀인은 뜻밖의 말을 건넸다.

《혜영이라고 약혼녀가 있다지요? 순철적은이한테서 들었어요.》

철석은 묻는 뜻을 몰라 의아해져서 안주인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녀인은 웃고있었다.

내가 너무 긴장했는가?

하긴 이런 땐 다른 말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지.

녀인이 고맙기도 했다.

철석은 례사롭게 대답했다.

《아직 약혼까지는 하지 않았소.》

《참 안됐어요. … 하지만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꼭 찾아올거예요.》

예언자인양 녀인의 눈빛이 빛났다.

《고맙소.》

장철석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혜영이, 정말 그가 오늘밤 봉빈동지와 함께 오지 않았을가? 이 장철석을 만나고싶어 떼를 썼을지도 몰라. 아니, 봉빈공작원이 부러 그를 데리고 왔을수도 있지.

가만,

내 얼굴에 정말 무엇인가 내비친게 아닐가?

장철석, 침착해야겠소!

그의 얼굴에 더 환하게 웃음이 실렸다.

이런 때 말동무가 생겼다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가.

문가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순철이와 선녀갱의 광부 한사람 그리고 또 몇명의 낯익은 얼굴들이였다.

8

《모모－2》－요시가와 이사로는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 삐죽삐죽하게 창날같은 돌쪼박들이 내솟은 암벽에 머리라도 콱 짓쫓고싶었다.

버럭돌들이 덜커덩거리는 빈 화약상자들을 모조리 굴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아 망돌같은 버럭돌을 안아다가 빈 상자들을 닥치는대로 박살냈다.

《장철석, 이놈의 새끼!》

이발을 부드득부드득 갈고는 또 버럭돌을 들어 상자들을 박살냈다.

당장 장철석을 붙잡아 엎어놓고 그렇게 머리통이며 가슴이며 마구 부셔놓고싶었다. 아니, 이발로 물어뜯고 사지를 찢어놓고싶었다.

자기가 이렇게 감쪽같이 속히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요시가와 이사로!

1919년의 사나운 겨울 조선총독부 한 관리의 아들로서 도꾜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 뻐젓이 들어앉은 일본인 주택지구에서 태여났다.

전 조선땅을 들썩케 한 3.1인민봉기의 거세찬 파도와 삼천리강산을 또 한차례 울음바다로 만들어놓았던 고종황제의 장례식 행렬도 그는 기모노차림의 어머니잔등에서 보았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채 그저 겁에 질려서 저를 싸업은 포단귀너머로 내다보았었다.

그의 유년시절은 데라우찌와 하세가와의 무단통치에 비단보자기를 씌우면서 교활하기 그지없는 사이또총독이 문화통치의 요칙들을 곳곳에 내걸던 시기에 흘러갔다.

꺼림없이 일어선 일본식주택이 리완용과 송병준들의 집과도 가까운 곳에 있어 조선아이들과 자주 휩쓸렸고 공부도 조선학교에서 했다.

조선말이 류창했고 조선풍습에 빨리 익숙됐다.

그것은 하급장교로부터 총독부 경무국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한단계한단계 승진을 하는 아버지의 각별한 관심이기도 하였다.

마침내 아버지의 친구인 모리무라 다다시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15살잡히는 해에 누구도 모르게 모리무라 다다시의 특별소개신을 가슴에 품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륙군성 첩보기관에서 두해동안 특수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제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훈련과 교육성적을 료해한 다다시는 무척 만족해서 그의 손목을 잡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부모와의 상봉도 마련하기 전에 다다시는 그를 즉시 두만강을 건너 연길에 있는 간도륙군특무기관으로 추천해보냈다.

요시가와 이사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이 들면서도 또 반일항전

자들은 씨를 말리워야 한다는 야수와 같은 적개심이 골수에 차게 했던 시절이였다.

점차 그의 활동반경도 넓어졌다.

봉천, 할빈, 훈춘… 상해까지 넘나들었다.

그러다 다다시의 긴급소환령을 받았다.

정세가 정세인것만큼 조선총독부와 도꾜 본영에서 중히 써주려는게 아니랴 하고 가슴을 설레이며 서울로 달려왔는데 전혀 예상밖으로 랑림산골안의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광산골안에 들어가 잠복하라는 지시였다.

너무도 억이 막힌 그는 자기의 첩보활동에서 무슨 실책이라도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자리에서 배를 가르겠노라고 했다.

젊음과 야심이 펄펄 끓는 그의 기개를 조용히 지켜보고있던 모리무라 다다시는 더욱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바닥에 끓어앉아서 가슴을 풀떡거리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천천히 그의 두손을 잡아일으켜 푹신한 가죽걸상에 데려다앉히고 임무의 중요성을 한시간 가까이 설명했다.

이사로는 그제서야 자리를 차며 일어섰다.

《은총과 신임을 잊고 버릇없이 그런것을 용서하십시오.》

류창한 조선말이였다.

다다시는 《만세》라도 부르듯이 두손을 버쩍 들어 흔들며 만족해했다.

《믿네, 솜씨를 보이라구.》

이때부터의 모든 작전은 철저히 모리무라 다다시의 직접적지시하에 진행되였다.

이사로자신으로서도 놀라운 면밀한 작전, 말그대로 일본첩보력사에 뚜렷이 오를만한 치밀한 작전이였다.

한데 이 이사로가 한갖 무식한 광부에 지나지 않는 장철석에게 이렇게도 여지없이 속히우고 우롱당했단 말인가?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까지 나서서 뒤받침을 해준 일인데 하루밤사이에 닭쫓던 개 울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으니, 아니, 귀중한 화약과 도화선, 뢰관만 고스란히 떼웠다고 생각하니 그는 속에

서 그 화약상자들이 황황 타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불을 끌수 있을가?

사실 이사로는 이 작전을 모리무라 다다시의 훈계까지 받아가면서 운명을 걸다싶이하고 준비했었다.

그가 그 작전을 발기한것은 반일지하조직에서 화약구입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는것을 알고서였다.

한마차나 실어야 할 일곱상자의 화약과 도화선이 너무 모험적인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큰 고기를 낚으려면 대담하게 큰 미끼를 던져야 한다고 우쭐하기까지 했었다. 그만큼 그는 이번 작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장담했던것이였다. 한데 눈 펀히 뜨고 그렇게 감쪽같이 속히울줄이야!…

이제 그 화약과 도화선이 작탄—어마어마한 폭탄이 되여 대일본제국의, 직접적으로는 자기의 머리우에서 터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장 이마박에 권총부리를 대고 자총이라도 하고싶었다. 이 치욕의 실책을 과연 어떻게 씻으며 무엇으로 보상을 한단 말인가. …

휭하니 굴밖으로 달려나온 이사로는 그때까지 굴어구에서 어물거리고있는 두명의 감시병한테 달려들었다. 한 녀석은 주먹으로 치고 다른 녀석은 발길로 걷어찼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두 녀석은 그자리에서 눈을 까뒤집으며 너부러졌다. 그래도 이사로는 격술훈련장에서마냥 펄펄 뛰면서 두 녀석을 혀를 빼물 때까지 발길로 차고 주먹을 내질렀다. 그러는 그의 입에서는 피방울이 튀여나오듯이 단말마적인 말만이 곱씹혀졌다.

《장철석, 이놈의 새끼 죽어봐라, 죽어봐!》

9

모리무라 다다시가 지난 1월 2일 밤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이하 지방관리들과 함께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마련한 신년연회에 참

가했던 《동해호텔》은 그때와는 달리 퍽 번잡스러웠다. 다다시가 몇달만에 다시 이 호텔에 나타난것을 도경찰부장과 헌병대장외 극히 몇명만이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오늘밤은 일체의 동행을 마다하고 유독 혼자서 두세명의 심복첩자들만 데리고 조용히 찾아왔던것이다.

1월달 밤의 그 밀실.

다다시가 방에 들어서니 이미 도경찰부장의 련락을 받았는듯 자개박이식상과 함께 세네사람이 마주앉을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여있었다. 식탁의 료리들도 퍽 간소한 편이였다.

다다시가 방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고있었던듯 인차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급양복차림의 두사람이 나타났다. 《모모―1》과 《모모―2》였다.

격정이 북받친듯한 반가운 인사들을 나눈 후 정중히 식탁을 사이두고 마주앉았다.

화려한 꽃문양의 기모노를 입은 접대부가 례절있게 들어와 세사람앞의 술잔들에 무척 익은 동작으로 술을 부었다.

어서 들라고 구미가 돌게 권하고나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를 물었다.

다다시는 말없이 손짓으로 물러가라고 했다.

접대부가 소리를 낼세라 나들문을 조심히 밀어닫고 사라지자 요시가와 이사로가 돌연 무릎을 꿇고앉으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전 대일본제국의 얼굴에 흙칠을 한셈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나갑니다. 절 엄히 처벌해주십시오.》

다다시는 이사로의 테굵은 색안경과 예전보다 더 무성해보이는 구레나룻을 이윽토록 지켜보았다.

우메즈 사부로도 다다시의 입에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몰라 가슴을 조였다.

틀림없이 그 일때문에 긴급호출을 받았으리라 짐작하고있는 두 첩자들이였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다시의 얼굴은 온화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화약문제때문인가?》

이사로는 더욱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허리를 굽혔다.

다다시의 목소리가 돌연 엄해졌다. 화약문제에 대한 추궁은 아니였다.

《머리를 들게. 바로 앉으라구. 어서!》

이사로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었다.

다다시는 어서 편히 앉으라고 손짓까지 했다.

이사로의 색안경너머에서 물기가 번들거렸다.

다다시는 아주 쾌활하게 말했다.

《장부의 가슴은 술로 씻어낸다고 했던가?… 자 들자구.》

그는 제먼저 잔을 쭉 비웠다.

두 첩자도 감격하여 술잔을 냈다.

황송해하는 두 첩자의 표정을 감각으로 느끼면서 다다시는 제 손으로 직접 다시 술을 부었다. 이어 정색해서 말했다.

《이사로군도 방금 말했지만 그 일은 물론 일생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끄러운 일이요. 나로서도 도대체 믿어지질 않거던. 난 결코 그 작전에 얼마나 큰 품을 들였는가 하는걸 말하자는건 아니야. 틀림없이 유격대공작원을 끌어내리라 믿었던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물거품이 된 창피… 나 역시 총독부안에서 얼굴을 들지 못해. 일도 못치르면서 화약과 도화선만 꼬박꼬박 실어다 바쳤다는 추궁은 또 얼마나 얼굴 뜨끔뜨끔하게 하는지 아나? 하지만 뭐 괜찮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나. 우리 그 일은 그쯤하구 말자구.》

두 첩자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실패를 너무도 가볍게 용서해주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오히려 가슴이 서늘했다.

다다시는 너그럽고 아량있게 두눈까지 끔쩍 감아보이고나서 전에없이 더 부드럽고 온화하게 이었다.

《에ㅡ또… 내가 오늘 갑작스레 군들을 부른것은 국경지대 시찰을 나왔던 걸음에 군들과 다시 만나 인간적인 얘길 좀 나누고싶어서네. 상하관직을 다 벗어놓구, 응?… 우리야 불온사상이 불덩이같고 반일의 눈총이 고슴도치같은 이 반도땅과 바람세찬 동북광

야의 벼랑길, 수렁탕… 별별 곳을 다 밟아가면서 함께 의지를 키우고 정신을 수양한 지우들이라고 할수 있잖나.》

적지 않게 목가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억양이였지만 두 첩자는 더욱 긴장해졌다.

다다시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는 어제 쏘련군이 드디여 베를린상공에 붉은기를 날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딸리아의 항복에 이어 도이췰란드의 항복이 곧 일본의 패망과 직결된다는것은 세상이 자인하는바이다.

항차 얄따회담에서 쓰딸린이 뭐라고 했던가.

하긴 설사 도이췰란드의 항복이 아닐지라도 다다시는 이미 일본이 과연 1945년 한해만이라도 현존의 모든 통수권을 유지할수 있을가 하는 강한 회의감으로 하여 남모르는 서글픔과 좌절감에 잠겨있었다.

다다시의 그 좌절감에 결정적타격을 가한것은 두달전 백여대의 비행기가 도꾜상공으로 벌떼처럼 날아들어 수십만발이나 되는 폭탄을 불비쏟듯이 내리뿌렸다는 소식이였다. 무려 두시간반동안의 폭격으로 십만여명이 살상! 세계 제2의 대도시라고 자랑하던 도꾜는 말그대로 불의 지옥으로 변했다고 했다.

태평양전선에서 일본의 해군위력을 자랑하던 련합함대사령관을 형체도 없이 만들어 바다물에 뿌려던진 그 비행기들은 때없이 서울상공에도 날아들어 으르렁거리다가 사라지군 했다.

아니아니한 속에 또 오끼나와전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 조선땅안에서는 거의다가 비밀에 붙이고있는 일이다. 오히려 일본보도계는 일본군의 《승승장구》에 대해 수단과 방법이 모자라 떠들지 못하고있었다.

물론 대본영이 《본토작전에 관한 통수조직》이란걸 만들어놓고 조선땅에 배치했던 군대를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로 나누어 해체개편하는 한편 조선안의 침략군들을 관동군사령관의 직접적인

작전지휘권안에 넣음으로써 조선과 중국 동북일대를 단일한 작전지대로 삼고 무력도 단일화해나감으로써 신문보도계가 와짝 떠드는것처럼 일본군이 아직도 승승장구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는것만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다다시는 오랜 첩보전문가로서 그 모든것이 이미 쇠진할대로 쇠진해진자의 허장성세에 불과한 마지막발악이라는것을 너무도 실감하고있었다.

내각과 군부가 맞지 않아 현내각이 돌연 총사직을 하는 등 돌발적인 사변들이 일어나는 도꾜는 물론 서울총독부안에서도 벌써 시체썩는 냄새와도 같은 악취가 나고있었던것이다.

요인은 무엇인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장군이 모든 국내외정세를 손금보듯 보고있다는것이였다. 이미 전전해 2월 자신이 직접 조선국내에 나와 두무봉이란데서 중요회의를 소집하고 조국해방3대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다시금 천명하였다는것을 첩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들로 입수한 모리무라 다다시였다.

조선의 해방은 그 어떤 외세의존이 아니라 자각되고 준비된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초지의 강령으로 내세운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멀지 않아 맞이하게 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하며 그의 정치사상적준비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튼튼히 하는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해온 그 선견지명!

100만관동군도 10년이상을 따라다니면서 쩔쩔매게 했던 그 부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것인가.

다다시는 문득 자신의 신세가 생각키웠다.

부나비! 영낙없는 대일본제국의 부나비.

대일본제국을 위하여, 천황폐하를 위하여 종횡무진을 한 자기의 한생이 허무하고 서글펐다.

그 좌절과 허무감은 자연 제 피와 넋을 붓다싶이한 첩자들에게로 이어졌다.

아까왔다.

그들에게 들인 품이 아까왔고 그들의 가슴에 끓는 피와 야심과 야마도민족의 그 정신이 아까왔다.

분명히 빛을 보지 못하고 스러지거나 묻혀버려야 할 그 공헌이 아쉬웠다. 다 망한 제국의 첩자를 누가 중히 여겨줄텐가.

하여 이밤 난생처음이라고 할만큼의 인간적인 심정에서 때아니게 첩자들을 호출했던 모리무라 다다시였다.

다다시의 그 내심을 알바없이 그저 긴장하기만한 두 첩자는 이제나저제나 새로운 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대하고있었다.

그 심리를 꿰뚫어보자 다다시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이어 자기의 그 심약의 종처를 감싸런듯 크게 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아주 쾌활하게 말했다.

《하, 이거 오늘은 인간적인 회포나 나누자고 했는데 왜 아직 그리 꼿꼿해들 있나. 띠를 풀라구. 술도 더 들구. 참 내 노래를 하나 부를가?》

다다시는 제사 저가락으로 식탁을 가만가만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반다노 사꾸라와 에리노 이로
하나와 요시노니 아라시 후꾸
야마도 단지또 우마레데와
삼뻬이센노 하나또 지레
(가지마다 사꾸라는 노을의 빛갈
요시노 꽃동산엔 폭풍이 분다
일본의 남아로 태여났으니
산병전의 꽃으로 지라)

문밖으로 흘러나가기라도 할가본듯 조용조용 불렀다. 목소리가 퍽 좋은 편이였다.

첩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자고 그랬는데 그들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울먹이였다.

하긴 다년간 교육받고 훈련되고 세상풍파를 다 헤쳐본 첩보원들

이 아닌가.

다다시는 이윽고 정자세를 하고앉았다.

《군들, 뭘 숨기겠소. 도이췰란드가 손을 들었소.》

깜짝 놀란 두 첩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다다시는 더 정숙하게 마디마디 찍어뱉듯이 말했다.

《군들도 알겠지만 얄따에서 쓰딸린이 뭐라고 했소?… 보다 문제는 이미 **김일성**항일유격대가 조선으로의 총공격준비를 완비했다는 통보요. 대일본제국은 모든 면에서 각오를 해야 할 때가 됐소. 물론 지금 관동군의 방어전역은 철옹성이요. 태평양전선의 일본군들도 제국의 남아들답게 용맹해.》

다다시는 저도 어쩔수없이 사실을 과장외곡하는 어용매체들의 흉내를 내고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화제를 돌려 왕청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옛말같은 이야기를 하나 할가?》

영문을 몰라하는 두 첩자에게 느슨하게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찌가와 노리아끼상 말이요, 마지막운명직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나?… 아 참, 노리아끼상이 지난 3월에 작고하셨소.》

다다시는 돌연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운명보다도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일본의 운명으로 해서였다.

요시가와 이사로와 우메즈 사부로는 그저 아연한 낯짝이였다. 도이췰란드의 패망소식도 그렇지만 권세가 하늘에 닿았던 이찌가와 노리아끼의 사망소식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았던것이다. 그런 재력가, 권세가도 죽을수 있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니, 그 죽음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식만큼이나 경악을 하게 했던것이다.

대일본제국의 대패에 대한 또하나의 전주곡인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다시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직나직 말을 계속했다.

《이찌가와 노리아끼상이 그런 불상사를 당한것은 그 도쿄폭격소식을 듣고서였소. 심한 뇌출혈이란 말도 있고 심장파렬이란 말

도 있소. 쓰러져서 몇시간을 넘기지 못했다는거요. 운명직전에 가까운 친지들을 다 불렀다는게 아니겠소. 무슨 굉장한 유언을 남기려는가 해서 모두 긴장했댔는데 글쎄 무슨 망돌이야길 했다는거요.》

두 첩자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다다시의 이야기가 계속되였다.

《한 산골마을에 말이요. 토지조사령이후 우리 일본사람 하나가 총독부명으로 등록된 토지를 다 넘겨받구 마을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다는거지. 한데 어느해인가 농군 한 집에서 허락도 없이 보리이삭을 잘라다 망에다 갈더라질 않겠나. 우리 일본사람은 즉시 집집마다 통고를 냈다는거요. 망이 필요해서 그러니 모두 집에 있는 망돌들을 가져오라고, 망을 안가져오는 집은 땅을 떼겠다 하고 말이요. 너도나도 메고오더라는거지. 망돌이 다 모아지자 우리 일본사람은 그 망돌을 큰 함마로 모두 깨버렸다는거요. 그리고는 저의 집앞에 망질방을 하나 차려놓고 오직 그 망돌만을 쓰게 했다는거지. 자연히 통제가 됐구 또 망돌쓴 값은 값대로 받아냈구…》

두 첩자는 씁쓸한 표정이였다.

다다시는 저으기 타이르는 투로 말했다.

《노리아끼상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자기는 하늘이라도 무너뜨릴 재력을 가지고있었지만 그 일본농군처럼은 못했다는거요. 무슨 뜻인가. …〈동척주식〉의 손꼽히는 인물이 운명을 앞두고 할 말이 오죽 많았겠소. 제 말처럼 하늘이라도 무너뜨릴 재력을 가진 자산가가 할 말이 없어서 일본땅 어느 구석에서든 흔히 볼수 있는 농군에 대한 말을 했겠는가. … 우린 선배분들의 그 정신력, 조선을 아니,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한단 말이요. 일개 섬나라인 우리 일본의 번영의 길에 그 정신, 그 자세는 영원한거요. 저 할빈역두에 피를 뿌린 이또 히로부미와 같은 선배분들앞에 지닌 대의명분이라고도 할수 있지.》

다다시는 이또 히로부미를 감히 선배분이라 해놓고는 찔끔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나서 자세를 더 정중히 하며 말했다.

《군들은 천황폐하앞에 대일본제국을 위해 멸사봉공할것을 맹세한 첩보원들이야. 전쟁에서는 이길수도 있고 패할수도 있는거구. 불가피하게 우리 일본이 전쟁에서 일시 패한다고 해도 첩보는 계속되여야 하는거야. 우리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영원해. 알겠나?》

두 첩자는 당장 눈앞에 닥뜨린 사태가 너무도 엄중하여 여전히 함구무언이였다.

다다시는 두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요시가와 이사로가 방금전에 다다시가 울음을 삼키며 말한 그 대의명분을 지키려는 뜻에서인지 분연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우린 기어이 맡은 임무에 끝까지 충실할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산속의 비밀을 알아낼것이며 대일본제국의 승리에 공헌할것입니다. 대일본제국에 있어서 패전은 있을수 있어도 패망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사부로도 이사로에게 지지 않으려는듯 무릎걸음으로 나앉으며 열을 올렸다.

《저희들은 지난날 오동진의 체포는 물론 만주의 독립군력량을 사분오렬시켰을뿐아니라 항일유격대의 반일지하혁명조직들과 그 지도자들을 색출하는데서 우리 경무국의 역할이 관동군무력못지 않았다고 늘 긍지높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본국의 경무청과 총독부 경무국의 첩보원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자체의 군사력과 함께 국내의 전민항쟁세력으로 대일본제국을 꺼꾸러뜨리려 한다지만 조선주둔군, 동북관동군과 함께 경무국의 총력량을 합쳐 과감히 맞선다면 어림없다고 봅니다. **김일성**사령관이 내놓은 조국해방3대로선의 하나가 국내항쟁조직들이 자기 지방들에서 일거에 들고일어날데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해당 지역의 군대, 경찰, 헌병들과 함께 우리 첩보가 힘을 합치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우리부터가 맡은 임무를 기어코 수행하겠습니다.》

다다시는 감격하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도리질을 하였다.

아직 어려. 철학이 없거던!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에 대해서는 더우기 몰라!!

다다시는 대일본제국이 낳은 또하나의 새끼부나비들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우울해졌다.

정녕 제국의 운명이 저 부나비들의 의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다시는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군들은 나에게 힘을 주었네.》

두 첩자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황송합니다.》

요시가와 이사로가 한걸음 더 나서며 결연히 말했다.

《때가 때인것만큼 우린 더이상 어물거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두더지작전〉으로 넘어갈가 합니다.》

다다시가 의아해서 물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두 첩자는 다다시의 량옆에 다가앉으며 열심히 수군거렸다. 그 목소리와 얼굴표정이 비장하기도 하였다.

다다시는 아연하였다. 놀람과 경탄, 공포까지도 뒤섞인 눈길로 한참이나 두 첩자를 뜯어보았다. 그의 입귀에서는 알릴듯말듯 경련이 일었다.

두 첩자는 자기들의 제기가 부결이라도 당할가봐서인지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확고한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까. 단호할데 대한… 저희들은 그 결론이 오늘의 사태를 내다보신 선견지명에 의한 예언이였다고 탄복했습니다.》

다다시는 또한번 두 첩자를 찌르는듯이 뜯어보았다. 선견지명이라 개여올리는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귀뿐아니라 눈시울까지 떨렸다.

다다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넓지 않은 방을 오락가락했다.

이 모리무라 다다시의 손에서 저런 용맹스러운 첩자들이 자라났

는가 하는 궁지가 북받쳤다.

하지만 인차 도리를 저었다. 그것을 용맹으로 보아야 할것인가? 이 다다시까지 합류하여 벌린 항일유격대 국내공작원유인작전의 대참패, 그 화약과 도화선, 뢰관들이 무서운 폭탄이 되여 오히려 저들의 머리에 불벼락으로 안겨질지도 모르고 덤비는 철부지들!

옳아, 편협한 섬나라 일본이 낳은 시대의 저능아, 철부지가 옳아!!

그 철부지들의 단말마적인 광기와 객기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니 모리무라 다다시는 제사 서글프기까지 했다. 오끼나와전선의 붕괴와 함께 날아든 도꾜의 무참한 참화소식때부터 걷잡지 못하게 치밀군 하는 회의심과 서글픔이였다.

그는 또한번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신차려, 다다시!

아직은 굳건한 총독부 경무국의 요원이며 명백히 첩자들의 상관인 모리무라 다다시였다.

다다시는 걷던 걸음을 뚝 멈춰세우며 두 첩자를 향해 홱 돌아섰다. 눈에서는 살기가 번쩍했다.

《좋아, 군들의 충의에 감격하네.》

《감사합니다.》

두 첩자는 직각으로 꺾이우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였다.

《성공을 바라네.》

술잔들을 들었다.

패기있게 술잔을 비우는 첩자들을 바라보던 다다시는 그들을 품에 안기라도 하듯이 가까이 불러세우며 말했다.

《대일본제국에는 군들과 같은 장부들이 필요하네. 물론 태평양전선에서 육신으로 적의 비행기나 함선을 들이받고 자폭을 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배를 가르고 바다물에 뛰여드는 병사들도 다 우리 제국이 자랑할만한 사나이들이지. 하지만 난 군들에게 그런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하고싶지는 않아. 자네들한테 들인 제국의 품이 너무 크거든. 아까운 인재들이란 말일세. 물

론 저 산속의것들은 기어코 사전에 전멸을 시켜야 하네. 당면 과업이야. 하지만 절대로 로출되지 않기를 바라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이 나 아니, 총독부와 제국이 군들에게 주는 더 큰 중대과업이라는걸 명심하게. 설사 이번 전쟁에서 일시 패전한다고 해도 도꾜는 언제든지 군들을 잊지 않고 찾을걸세. 말뜻을 알겠나?》

《알겠습니다.》

비장한 대답이였다.

《음, 〈두더지작전〉이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더 깊숙이. 응? 두더지란 파고들어가길 좋아하지. 아주 좋아!》

두 첩자가 방문앞에까지 갔을 때 다다시는 문득 그들을 다시 불러세웠다.

《〈담뽀뽀〉에게 특별히 나의 인사를 전하게. 녀성이 아닌가. 참 아까운 녀성이야. …》

《알겠습니다!》

《음.》

다다시는 새삼스레 두 첩자를 일별했다. 사부로의 쑥 내밀린 아래턱과 눈꼬리, 이사로의 유표한 구레나룻이 유난히도 더 강인해보였다.

10

《담뽀뽀》—요꼬다 메구미는 경대앞에 앉아 자기의 얼굴을 비쳐보고있었다.

이제는 두눈귀에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흐르는 세월은 어쩔수가 없는가?

그는 불현듯 손가락으로 주름잡힌 그 눈귀를 사정없이 잡아뜯었다.

이제 그런 주름이 몇개나 더 늘어날것인가?

아니, 저 실오리같은 주름이 밭고랑처럼 굵어지면서 이마를 파놓을 때면 이 요끄다 메구미의 운명은 과연 어찌될것인가?

그는 두손으로 거울앞의 화장대를 탕 쳤다.

분통이며 크림단지가 깜짝 놀라 곤두박질을 쳤다.

그는 화장대우에 두손을 얹은채 가슴우로 얼굴을 푹 묻었다.

이즈음 때없이 그렇게 혼자서 앙앙불락을 하군 하는 《담뽀뽀》였다.

눈속의 벼랑밑에서 첫 상면을 한 《모모—1》로부터 뜻밖의 지령을 받은 다음부터였다.

그때 《모모—1》은 조소와 경멸의 눈길로 두툼한 솜동복속에 감추어놓은 자기의 뽀얗고 보동보동한 육체를 꿰뚫어보기라도 하듯 한참이나 올리보고 내리보고 하더니 무슨 수를 쓰든지 장철석의 이불밑에 기여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를 자기의 이불안으로 끌어들여보라는 지시를 주었다.

메구미는 단박에 발끈했다.

절대로 조선놈의 품에는 안기지 않을것이며 죽어도 조선놈은 제 가슴에 안지 못한다고 했다.

메구미는 그리 화려한 가정에서 태여나지는 못했다. 나가사끼의 보잘것없는 어느 한 료리집에서 소녀시절을 보냈다.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일손을 도와 손님접대에 나섰던 그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남자의 맛을 알게 되였다. 한두차례의 봉사로 돈푼도 손에 쥐게 되자 그는 편지 한장을 남겨놓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제스스로도 자기의 용모가 뛰여나게 곱거나 잘 생겼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저 보통정도는 좀 벗어난다고 보았다.

한데 남자들의 취미란 모를 일이였다. 《하나꼬》요 뭐요 하면서 이름부터가 고울뿐아니라 얼굴도 해사말쑥하고 남자들을 맞는 솜씨도 보통아닌 처녀들이 가뜩했건만 메구미와 한번 사귄 사내들은 늙은 놈이건 젊은 놈이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때로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며칠씩 바다가려행을 가기도 했다. 일본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 전에 한번 가보기를 원한다는 부사산에

도 두번이나 실려갔었다.

방금 사춘기를 넘어선 꽃망울은 그렇게 환락의 세계에서 봉오리를 터뜨렸고 그 환락의 바다에서 세상물정을 모른채 물장구를 치며 헤염을 쳤다.

그러다 끝내는 이길에 들어섰다.

하루는 눈길부터가 날카로운 사내가 손목을 잡아끌었는데 그는 야수와 같은 광기의 소유자였다.

메구미는 난생처음 남자에 대한 공포를 느끼였다.

빨리 도망을 치려 했지만 쉽게 도망을 칠수가 없었다.

한달나마 옴짝을 못하게 붙잡아놓고 제할바를 다하고난 사나이는 이번에는 그를 앞세우고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는 서울에 와서야 그 사나이가 총독부 경무국성원이라는것을 알았다.

한해동안의 특수교육과 특수훈련이 강요됐다. 그것은 곧 조선의 생활에 정통하고 사나이들을 어떻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이또령감의 《양딸》이며 데라우찌나 하세가와, 사이또는 물론 총독부고관들이 《조선의 녀걸》이라고 추어올리군 했다는, 해서인지 총독앞에서도 코대를 높이며 교만방자하기 이를데없던 배정자와도 총독부의 크고작은 연회석들에서 자주 만났다. 그는 한번도 그 녀자를 추어올리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같은 녀자로서의 질투였다. 하지만 메구미자신은 그것이 결코 질투가 아니라고 자부했다. 한것은 높낮은 관리들은 물론 총독까지도 술잔을 권하며 그 녀자를 추어올리긴 했지만 그 음조와 눈빛에서는 식민지의 한갖 노리개로밖에 여기지 않는 질시가 느껴지군 했기때문이였다.

그럴 때면 자기도 이제는 본국의 녀성첩보원이라는 긍지가 치밀기도 했다.

더우기 그의 자부는 같은 녀성이고 같은 운명의 길을 걷긴 해도 자기는 오로지 일본사람과만 사귀였다는것이였다. 녀성은 본래의 의미에서 남자의 품에 안기는것이 아니라 남자를 품에 안아

야 하는것이다. 남자를 품에 안아키운것이 바로 녀성이다. …

이런 메구미여서 제나름으로 도고하다고는 하지만 일본사나이이건 조선사나이이건 가리지 않는 배정자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침을 뱉았던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이때껏 숱한 남자들과 교제를 했어도 그 대상은 다 일본사내들이였던것이다.

한데 뭐 조선사내의 이불밑으로 기여들라고? 그것도 한갖 광부녀석의 이불밑에?!

하긴 때로는 까짓거 뭐라나, 그것도 대일본제국을 위한 일인데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립장을 돌릴 때도 있었다.

허나 이번엔 강경히 도리를 저었다. 도대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것이다.

그도 혁명가들의 도덕관념이 어떠하다는것은 알고있는것이다. 더우기 장철석에게는 심혜영이라는 꽃같은 애인이 있다지 않는가.

조선의 청춘남녀들의 뿌리깊은 봉건관념이라고 할만큼의 이성관이 얼마나 결백하고 견결한가에 대해서 또한 모르지 않는 요꼬다 메구미였다.

항차 수세기전에 벌써 춘향이라는 렬녀를 민족의 자랑으로 내세운 이 나라가 아닌가.

차라리 장철석을 발가벗기여 시가지로 끌고나가라면 나갔지 그의 이불밑으로 들어간다는것은 당초에 어불성설이나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모모－1》은 물론 《모모－2》까지도 불같은 독촉이다.

흥, 장철석이 뭐 저들과 같은 수개의 족속인줄 아는가.

요꼬다 메구미는 결단코 제가 직접 다다시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죽어도 이 일만은 못할 일일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정체를 드러내게 될것이라는것을 납득시키는것은 물론 제발 다른 공작지로 옮겨달라고 청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철석은 어림없어도 다다시는 쉽게 움직여놓을수 있다는 자신심이 있었던것이다.

고개를 버쩍 들고 다시금 거울에 얼굴을 꼼꼼히 비쳐보던 그

는 부지런히 화장을 시작했다.

크림을 바르고 분첩을 두드리고 입술연지까지 찍어나가던 그는 갑자기 또 무슨 광증이 일었는지 벌려놓았던 화장품들을 활 밀어버리고나서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웠다. 본능적으로 두다리에 힘을 주면서 두팔로 허공을 힘껏 그러안았다.

11

이틀동안 비가 흠뻑 내리고 또 이틀동안 해가 쨍쨍나니 산이란 산, 들이란 들은 모두 소리를 치며 일어서는것 같았다. 아니, 이 땅의 이름할수 없는 거창한 힘이 드디여 태동을 하며 움씰움씰 용을 쓰는가싶었다.

어느 골안에선가는 철늦은 뻐꾸기울음소리가 터지고 또 어느 산기슭에서는 알품던 까투리와 장끼의 울음소리가 먼 숲에까지 메아리친다.

립하를 지난지가 어제같은데 벌써 소만도 썩 넘어섰으니 잎도 꽃도 필대로 펴서 세월은 피페해도 자연은 한껏 살질대로 살쪄오르고있었다.

장철석은 또한번 임일광을 붙안고 풀판에 딩굴었다.

무성한 소나무와 참나무, 이깔나무숲속의 부근부근한 풀판이였다.

흰눈 덮였던 산판과는 달리 사방천지가 푸른 성곽안처럼 숲으로 무성한 계절이니 소리를 친들 어떻고 춤을 춘들 어떠랴.

참말이지 숨기도 좋은 계절, 감추기도 좋은 계절이였다.

한바탕 그렇게 딩굴고난 장철석은 이윽고 두손을 뒤로 뻗쳐짚고 일어나앉으며 물었다.

《그러니 끝내 도이췰란드가 항복을 했단 말이겠소?》

임일광도 천천히 일어나앉으며 말했다.

《봉빈동지의 말은 그 무전을 받은 날 근거지에서는 기쁨에 들

떠있었다고 하오.》

《그래야지.》

《침략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걸 다시금 깨닫게 되누만.》

둘은 서로 와락 그러안고 한바탕 웃어댔다.

그렇게 한참 웃고나서 임일광이 좀 정색해서 말했다.

《봉빈동지는 사령부에서 련합훈련을 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꼭 알려주라고 했소. 곽영무동지가 락하산훈련에 참가했다가 발을 좀 삐였댔는데 이젠 일없다는 소식도 왔다고 했소.》

《락하산훈련?》

《조국진군이 개시되면 우선 락하산부대를 우리 랑림산일대를 비롯해서 국내 곳곳에 먼저 진입시킨다는거요.》

《야, 이거!》

장철석은 두손을 힘있게 흔들고나서 임일광의 옆에 바싹 더 가까이 붙어앉았다.

《그리구 또 무슨 소식이 있소?》

임일광은 돌연 무척 신중해지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았다. 그런다음 저 역시 장철석의 옆에 바투 붙어앉으며 귀속말로 번지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비밀근거지는 물론 광산조직을 모두 합동하여 시급히 본격적으로 제2단계작전에 착수해야겠다는거요.》

장철석은 큰 숨을 들이쉬였다. 재확인이라도 하듯 임일광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예견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너무도 충격이 커서였다. 하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임일광은 점점 더 흥분하는 장철석을 진정시키듯 그의 손을 힘있게 쥐며 나직나직 말을 이었다.

《공작원동지는 광산지하조직이 그사이 제2단계작전준비를 실수없이 착실하게 잘해나간데 대해 무척 만족해했소. 이제는 총력량을 집중해서 무장폭동준비를 완성해야겠다고 하오. 적들의 동태를 더 경각성있게 날날이 장악하는 한편 지하조직성원들도 빨리 무기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했소.

놈들의 무기를 빼앗을수 있으면 빼앗되 아직 때가 때인것만큼 절대로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오.》

장철석은 종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주먹을 탁탁 마주치면서 풀밭을 왔다갔다 했다.

임일광은 앉은채로 흥분과 격정을 걷잡지 못하는 장철석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긴 장철석이 어이 흥분하지 않으랴.

드디여 온 광산을 들썩케 할 무장폭동!

제2단계작전!!

그 작전준비를 위해 얼마나 가슴조이는 위험의 언덕을 넘어왔던가. 화약탈취전만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했다.

장철석은 임일광의 앞에 돌아와 뚝 버티고서며 물었다.

《그리구 또 뭐요?》

임일광도 천천히 일어나 마주서며 말했다.

《지하조직성원들을 발동해서 광부들과 시가지주민들속에 조국해방과 관련한 정치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라는거요. 놈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이를테면 사전에 놈들의 넋을 쏙 뽑아놓으라는거지. 그리구…》

임일광은 또한번 주위를 살펴보고나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장철석의 귀에 제 입을 바싹 붙였다.

장철석이 흠칫 놀라기라도 하듯 한걸음 물러섰다.

이어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한 표정만은 더 짙어졌다.

임일광이 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물론 모험도 아주 위험한 모험이라는데 대해서는 공작원동지도 말했소. 하지만 마지막격전, 무장폭동의 결정적승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모험도 해야 한다고 했소. 계속 붙잡고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이젠 우리가 먼저 대담하게 배지개를 뜰 때가 되였다는거요. 실로 내 가슴이 다 서늘해지오.》

《알겠소. 공작원동지가 몇달전부터 직접 계획한 작전인데 어련하겠소. 우리 공작원동지의 지시대로 철저히 합시다.》

이번엔 임일광이 큰숨을 내쉬였다. 무엇인가 놓친게 없는가 새겨보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믿음에 찬 목소리로 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는 철석동무의 결심에 맡긴다고 했소. 여기 실정과 정황에 맞게, 운명적인 작전인것만큼 〈이깔나무〉와 〈소나무〉를 적극 인입하라는거요. … 한영옥의 탈출작전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철석동무의 활동경험과 성과로 보아 꼭 성공하리라 믿는다고 했소. 하긴 이번 화약구입작전만도 얼마나 통쾌하게 결속했소. 십년체기가 쑥 내려가는것 같더라니… 놈들은 이제 아주 미쳐버릴거요. 내장이 뒤집힐지도 모르지. 사실 우리로서도 상상밖의 작전이 아니요.》

《그렇소. 나부터도 아직 좀 얼떨떨하오. 십년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기라도 하는것 같은게…》

《하, 이거 또 철석동무답지 않게 나오는구만. … 북주하 양주공장에서 찾은 교훈을 일생 새기겠다고 한 말을 잊은거야 아니겠지요?》

롱이면서도 정신 버쩍 차리게 하는 충고였다.

장철석도 후더움을 삼키며 헌헌하게 물었다.

《그렇게 보이오? 내가 또 소심해진다?》

임일광이 부러 쾌활하게 소리를 내여 웃었다.

《하하하… 됐소, 됐소. … 아 이젠 씨원하게 결산을 할 때가 되여오지 않소.》

장철석의 두눈굽에 물기가 핑 어렸다. 그는 진정으로 뜨거움을 담아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실은 우리의 작전이 너무도 빨리 시작되는것 같아서 그러오. 알겠소. …결사전을 벌려봅시다. 2단계작전! 장군님의 유격대원들처럼 한다면 두려울게 있소?》

《옳소, 바로 그거요, 그거!》

이번엔 임일광이 장철석을 중심으로 풀판을 한바퀴 빙 돌았다. 그리고나서 다시 장철석의 앞에 멈춰서며 말머리를 돌리듯이 침착하게 말했다.

《〈동해호텔〉에 선을 하나 쥐였는데 며칠전에 또 다다시란 놈이 나타나 수상한자들을 불러들이는걸 봤다고 하오. 그게 누구라는건 뻔하지 않소. 오랜 시간 밀실에 들어박혀있었는데 다다시도 그렇고 그 방에서 나오는 놈들의 낯색이 아주 좋지 않더라는거요. 어깨들이 처지고 낯짝들이 침침했는데 그러면서도 두눈들에는 살기들이 뻗쳤더라고 하오. 또 무슨 끔찍한 꿍꿍이를 꾸미지 않는가 하는 예감이요. 놈들도 일본의 운명, 제놈들의 운명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한건 아닐테니 말이요.》

장철석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받았다.

《공작원동지의 말처럼 놈들이 멸망을 눈치챘다면 절대로 그저 물러나지 않을건 뻔하오. 별의별 미친짓들을 다할수 있소.》

《옳소. 우리의 어깨가 무척 더 무거워졌소.》

그들은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직의 활동과 매 성원들과의 사업, 긴급련락방법 등 실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더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한시간나마 시간이 더 지나서야 임일광이 옆에 벗어놓았던 경찰모자를 손으로 툭툭 쳐서 머리에 쓰며 말했다.

《에― 이놈의 제복과 모자를 빨리 벗어던져야겠는데…》

장철석이 펄쩍 뛰듯이 말했다.

《무슨 소릴 하오. 임동무가 지금 얼마나 큰일을 한다구.》

그들은 철부지들처럼 얼마쯤 손을 맞잡고 걷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여졌다.

새들이 푸드닥거리고 토끼와 다람쥐가 놀라서 숨어드는 산판을 한시간나마 걸어내려오니 저 앞으로 크고작은 나무토막들과 돌덩이들을 되는대로 뿌려놓은것 같은 시가지가 나타났다.

장철석은 넙적한 너럭돌우에 올라서며 량허리에 손을 얹었다.

이날 이때껏 짓밟히고 억눌리기만 했던 거리, 땅속으로 잦아들기만 했던것 같은 집집들에서 금시 사람들이 쏟아져나오는것 같았다.

《황성신문》의 《시일야방성대곡》을 랑독하며 땅을 쳤다는 저

기 저 장터, 3.1인민봉기의 만세소리와 더불어 40명이나 총에 맞고 100명도나마 붙잡혀갔댔다는 거리였다.

문득 지난해 가을에 보았던 부산항이 눈앞에 떠올랐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각양각종의 물산들, 소영각소리, 미처 배에 태우지 못해 욱실거리던 징병, 징용 징집자들과 눈물을 뿌리며 현해탄을 건너가야 했던 실향민들…

아, 이제 그네들이 제 고향마을, 제 부모처자들을 찾아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있단 말인가!

정녕 나 역시 혜영의 손을 잡고 구창마을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지!!

동지들! 여러분네들! 나라가 곧 해방된다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진군을 하신다오!…

장철석은 성큼 바위를 내려섰다. 그리고 활활 풀숲을 헤쳤다.

한참만에 오솔길을 찾아 들어서니 마침 순철의 집과 잇닿은 길이였다.

순철이네 집 나무울타리를 돌아서 내려가던 장철석은 무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집마당에 사람들이 하얗게 모여섰던것이다.

한여름의 해빛은 살을 지질듯이 따가왔지만 철석은 순간에 얼음장과도 같은 찬기운을 느끼였다.

장철석은 무작정 사람들을 헤치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그는 너무도 아연하여 눈을 비볐다.

문짝이 나떨어진 방안에 순철의 안해가 쓰러져있었던것이였다. 목에는 굵은 새끼올가미가 씌워져있었다. 누가 낫으로 끊었는지 집천정의 보짱에 또 한줄기의 새끼줄끄트머리가 늘어져있었다.

치마가 찢어지고 저고리고름이 떨어져 가슴이 드러났다. 찢어진 치마사이로 드러난 종아리와 얼굴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안해의 옆에는 실신을 한것 같은 순철이가 어푸러져있었다. 입술이 다 터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손등이 온통 피칠갑이다.

장철석을 알아보자 순철은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입만 항 벌

린채 피칠갑의 두손으로 방바닥만 짱짱 두드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응?》
장철석이 벼락같이 뛰여들며 순철이를 안아일으켰다. 순철이는 그저 두손만 허우적이면서 무엇이라 중얼거렸는데 도대체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장철석은 밖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사람들속에서 튀여나오는 말소리들을 가려들었다.
《두놈의 경찰놈들이 저 뒤산에서 내려왔대요.》
《누가 봤대요?》
《저 아래집할머니가 마침 뒤간에 나갔다가 똑똑히 봤다우다.》
《어느 썩어질 순사놈이래요?》
《헌병대파견대장놈이 끌고왔다는 그놈들이래요.》
《간나놈의 새끼들, 수개같은 놈의 새끼들… 죽이긴 왜 죽여!》
《그놈들이야 제 볼장을 보고는 달아뺐지요.》
《원 녀인이 독하기두!》
《하긴 쪽발이 수개놈들한테 몸을 바렸으니… 글쎄 제 손으로 목을 매자니 오죽했겠소.》
장철석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주먹이 떨렸다.
(가만!)
누구인가 맵짜게 소리치는것 같았다.
(덤비지 말자.)
신경이 창날처럼 날카로와졌다.
이것이 단지 짐승같은 놈들의 수욕을 채우려는 야만적인 행동뿐이겠는가?
방금전 임일광이 들려주던 말들이 생생히 되새겨졌다.
그래, 놈들도 결코 머저리는 아니다.
우리의 작전을 눈치챈건 아닐가? 선손? 우리의 눈길을 다른데로 돌려놓으려는 모략?!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놈들이 노리는것은 무엇인가?
우선 놈들의 동태부터 직접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

일광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것이다. 설사 도착했다고 해도 아직은 알수가 없을것이다.

장철석은 즉시 몇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다.

헌병대파견대장이하 그놈이 끌고왔던 놈들은 이미 다 철수한 후였다.

쏘도전쟁의 종말과 함께 각 지구 경찰서들에서 동원되여왔던 경찰놈들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철수를 앞두고 어느 녀석들인지 그런 불량행위를 저지른 모양이라고 경찰서장놈은 제법 유감을 표하기까지 하였다.

이자의 말을 정말로 믿어야 할가?

경찰서를 나서는 장철석은 차츰 저도 걷잡을수없이 호흡이 가빠났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는 여기 실정과 정황에 맞게 자체로 결심해서 실행하라고 했다는 봉빈공작원의 말이 가슴을 쿵쿵 뛰게 했던것이다.

여기 실정과 여기 정황!

장철석은 다시금 경찰서장의 지껄임을 그대로 믿어야 할가 하는 생각에 광산사무실쪽으로 가야 하는 갈림길을 썩 지나 선녀갱방향으로 걷고있다는것도 몰랐다.

제 7 장

1

해방의 불바람은 상풍광산의 시가지 집집은 물론 수십메터 막장안에도 거침없이 불어들었다.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선을 통해서였다.

장철석은 우선 급변하는 정세부터 알려주고 모든 조직성원들이 갱안에서건 길을 가면서건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될수록 한사람에게라도 더 해설선전공작을 벌리게 했다.

특히 놈들이 순철의 안해에 대한 폭행과 녀인의 자살사건을 멸망에 직면한 일제의 단말마적인 광짓과 련결시켜 폭로단죄하면서 반일감정을 폭발시켜 최후격전의 무장폭동시 온 광산마을 주민들이 일시에 떨쳐나서도록 준비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제2단계작전을 여기 실정과 정황에 맞게!

삐라선전도 본격적으로 벌렸다.

전에없이 놈들이 점찍은 요시찰인들의 모임도 더 적극 벌렸다. 그 모임에서는 주로 급변하는 정치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론의하는것을 위주로 할뿐 구체적인 투쟁방향과 방법, 당면한 조직사업 같은것은 일체 하지 않았다.

바람벽에도 귀가 있다는 세상이 아닌가.

패망에 직면한 경무국의 밀정들이 바람벽에만 눈과 귀를 박아넣었겠는가.

요시찰인들과의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여러 갱안의 조직성원들과의 사업을 벌려나가자니 장철석은 몇배로 더 힘이 들었다.

하지만 나날이 희망이 넘치고 신심이 북받치는 그였다. …

오늘도 장철석은 선녀갱뒤의 폐갱에 요시찰인 네댓명과 마주 앉았다. 어제 《참나무》로부터 적들에게 요시찰인조직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움직임을 보여주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던것이다. 놈들의 눈길을 그쪽으로 더 바싹 끌어내면서 무장폭동준비를 안전하게 다그치라는 신호였다.

철석은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거창한 그 무엇인가가 성큼성큼 광산마을로 다가오는것 같은 예감에서였다.

그는 오늘모임을 시작부터 부러 엄숙하게 긴장한 분위기를 만들어 진행하였다. 급변하는 정세를 중점적으로 다시 개괄하고나서 광부들속에서 진행한 정치사업정형을 깐깐히 료해했다. 선전활동을 더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과업과 함께 특히 경찰서와 수비대의 경비상태와 류동정형을 정찰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개별적인 행동과업을 주었다.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적기관의 접촉가능한 인물들에 접근하여 일본패망을 예고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은근히 위협하고 압력을 가할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오늘의 모임소식도 필시 적들의 귀에 들어갈수 있겠은즉 그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놓자는 목적이였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토의는 요란스레 하고 실지 놈들에게 언질을 잡힐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 모임이였다.

계획했던 문제들을 다 토의하고 모임을 끝낼무렵 차창일이 뜻밖의 문제를 제기하여 모임참가자들을 긴장시켰다.

《순철동무를 근거지에 들여보내지 않겠소?》

순철의 안해가 잘못된 후부터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차창일이였다. 누구보다 슬퍼하고 순철이이상으로 심란해하였다. 술도 끊고 무작정 욱욱하지도 않았다. 조직성원들을 찾아와 자기반성도 심심히 했고 결의도 잘 다졌다. 그래서 다시 모임에도 참가하고 조직의 활동에도 관여하게 된 그였다.

차창일은 저으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해방의 날도 멀지 않았다는데… 제 손에 총을 잡고 원쑤를 갚지 않고서는 살수가 없다는거예요.

또 한사람 상사를 칠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 한사람 상사를 칠것 같다는 차창일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안해가 잘못된 다음날부터 아예 맥을 놓고 주저앉은 순철이였다.

쩍하면 자기도 죽겠다고 뒤산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너죽고 나죽고 해보겠다면서 한밤중에 도끼를 들고 뛰쳐나오기도 했다.

밤낮 그옆에 붙어살다싶이 하는 차창일도 이제는 어지간히 지친 모양인가?

장철석은 선뜻 대답을 안했다. 그러면서 의향을 묻듯 모임참가자들을 둘러보았다.

말은 안해도 모두 창일의 의견에 동의하는 기색들이였다.

《알겠소.》

장철석은 무척 진중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이 근거지의 결론을 받겠다는 뜻임을 알자 모두들 안도의 숨같은것을 내쉬였다.

장철석은 즉시 그 문제를 극비밀리에 제2의 조직성원들과 신중히 다시 토의하였다. 예상외로 근거지의 결론이 빨리 내려왔다.

《제의를 승인함.》

그다음 지시는 뜻밖이였다.

《로출된 성원들도 즉시 근거지로 들어올것.》

장철석을 비롯하여 놈들에게 장악된 성원들중 극히 필요한 성원 몇명은 곧 지하로 들어가 무장폭동준비를 완성하고 나머지 성원들은 빨리 근거지로 들어오라는것이였다.

멸망을 앞두고 분별없이 날뛰게 될 적들의 발광과 살인만행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동지들을 구원하고 력량을 보존하기 위한 혁명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였다.

2

리순철은 부서지기라도 하듯이 문이 왈칵 열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며 몸을 반쯤 일으켰다.

흥분된 차창일이 얼굴부터 쑥 들이밀었다.

《형님, 빨리 일어나슈, 빨리. 원 그쯤하구 이젠 일어날게지 맨날 누워만 있소? 빨리 준비해야겠수다.》

차창일은 문앞에 떡 벋치고서서 량허리에 손을 얹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밤이였다.

제사 혀를 끌끌 찬 차창일은 다짜고짜 순철이 덮고있던 이불을 와락와락 걷어 방구석에 밀어놓았다.

《아, 빨리 서두르란데요.》

리순철은 여전히 어정쩡하여 한마디 물었다.

《왜 이러나?… 무슨 일인가?》

《자, 이런…형님이 근거지로 들어가게 됐어요. 긴급지시가 내려왔단 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는데 형님은 몸이 편찮아해서 좀 늦었어요.》

순철은 두눈이 화둥잔처럼 되였다. 이어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게 정말인가?》

그러던 그는 스르르 다시 주저앉았다. 설레설레 손을 저었다.

《원 무슨 소린지… 근거지에서 나같은걸 뭘하려 데려가겠나. 이젠 페인이나 같은데. 어휴…여보!》

또 가슴을 치고 방바닥을 두드렸다.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차창일은 성을 벌컥 냈다.

《아 이런… 근거지에서도 다 생각이 있어 부르는게 아니겠소. 놈들이 언제 또 붙잡아들일지 아우? 이제 잡혀가면 끝장이 될수도

있잖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련락원이 저 뒤산에까지 내려와 기다려요. 철석형님도 거기 가있구. 형님 한사람때문에 특별히 다시 또 내려왔어요.》

차창일은 무작정 순철이를 잡아일으켰다.

《이 사람 좀 덤비지 말게. 글쎄 난 못가. 임자랑 철석형님이랑 다같이 간다면 몰라두.》

차창일의 눈빛이 반짝했다. 그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순철이앞에 다가앉았다.

《옳수다. 형님, 그러찮아두 내 부탁하려던 참인데 청 좀 들어주겠소?》

순철은 눈만 치떴다.

차창일은 또한번 밖의 동정까지 살피고나서 소곤거렸다.

《철석형님한테 말좀 해주. 몸도 추서지 못해서 그러니 꼭 나와 같이 가겠다구요. 혼자선 절대 못가겠다구요, 예?》

순철은 웃몸을 약간 젖혔다. 그러면서 반신반의의 어조로 물었다.

《될가?… 나야 물론 좋지만.》

《아, 맥이 없어서 걷지 못하겠다구 딱 잡아 뻗치란 말이요, 형님. 내 일생 잊지 않겠어요.》

《그럼 그래 보지.》

순철은 그제서야 마음이 동하는지 제먼저 일어났다.

《한데 뭘 좀 가지고 떠나야지 않겠나?》

차창일은 속불이 더 활활 타는듯 어성을 높였다.

《가지구 가긴 뭘 가지구 가요. 다 망한 집안에 뭘 있겠다구. 이젠 농사군근성을 좀 버리라요. 자, 빨리 가자요, 빨리. 천재일우의 기회란 이런 땔 두고 하는 말이예요. 오늘 놓치면 일생 후회할거요, 철석형님처럼. 자, 빨리요.》

그는 순철의 손목을 잡아끌며 뒤문으로 빠졌다.

누구도 보지 않게 뒤산 숲속에 들어서서야 잠시 숨을 돌리였다.

얼마쯤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던 순철이 불현듯 차창일의 팔을 잡았다.

《이사람, 아무리 바빠두… 저기 좀 들렸다 가세나.》
순철이 턱으로 가리키는 산릉선에는 얼마전에 묻은 안해의 묘가 있었다.
입술을 짓무는 순철의 두눈굽에는 어느새 물기가 습뱄다.
어쩔가 망설이듯 잠시 사이를 두었던 차창일이 손을 홱 내리그었다.
《좋수다.》
그는 제사 앞장에 서서 가둑나무숲을 와락와락 헤쳤다.
힘겹게 따라오는것 같던 순철이 정작 묘앞에 이르자 차창일을 왈칵 앞서나가며 곡성을 터뜨렸다.
상돌앞에 이르기도 전에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엉금엉금 기다싶이 했다.
《여보, 날 함께 데려가 주. 제 손으로 명을 끊을 땐 무슨 결단이 있어 그랬겠는데 어째 아직 내 속만 까맣게 태우오. 내 언제 한번 욕을 했소, 싫다는 소릴 했소. 동서팔방 날 따라다니며 고생만 죽게 하다가 여기 혼자만 누웠으니 이 못난인 어찌하면 좋소.…》
순철이 그리 크지도 않은 상돌을 붙안고 몸부림을 쳤다. 그대로 두면 끝이 안날것은 물론 억장이 무너져 숨이 넘어갈듯싶었다.
저도 슬픔이 솟구친듯 눈굽을 꾹꾹 찍으면서도 시간이 급해 차창일은 억지로 순철을 잡아일으켰다. 약속된 장소에는 차창일의 말대로 장철석이 먼저 와서 련락원과 함께 기다리고있었다.
련락원은 키가 좀 작달막한데 참나무다듬방망이처럼 단단해보였다. 평범한 농군차림에 잔등에는 그리 크지 않은 배낭 하나를 지고있었다.
무척 급해하는 표정이였다.
장철석도 일체 다른말없이 긴장한 표정으로 련락원에게 고개만 끄덕여보이며 말했다.
《어서 떠나오. 다시 말하는데 정말 조심해가오.》
차창일이 순철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순철이 그의 부탁대로 간절히 말했지만 장철석은 두말 다시 못하게 싹 잘라버렸다.

《이게 뭐 누구 혼자 결심할 일이요? 어제오늘 조직에 든 사람갈구만!》

차창일이 제가 직접 무릎을 꿇고 빌다싶이 했지만 마이동풍이였다.

《이거 왜들 자꾸 이러오. 철부지애들이요?… 련락원동무, 어서 떠나오.》

며칠전에 내린 비로 하여 발밑에서는 물이 질적거렸다. 해를 두고 자라다가는 스러지고 스러진 우에서 또 자라고 하여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이끼밭은 물판을 걷는것 같았다.

머리우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게 무성한 나무가지들, 앞을 꽉 막아선 나무바다… 이끼밭을 지나면 산딸기, 노루발족풀, 새초 그리고 또 이름도 모를 풀들이 키를 넘게 자란 숲이 나지고 그 숲을 헤치면 아득히 뻗어오른 산릉선…

가도가도 끝이 안나는 대원시림을 꼬박 이틀이나 걸었다.

순철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허기가 져서 참기 힘들었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먹을것만이라도 좀 마련해가지고 떠났으련만 미처 정신차릴 사이없이 들볶아대던 차창일의 독촉에 그럴 생각도 전혀 못했었다.

하긴 그의 심정도 리해됐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하던 그가 아닌가.

가마안에 저녁까지 먹고도 남을만큼 묵여두었던 밥이 생각나면서 배안에서 꼬르륵 소리를 연방 울렸다.

태고의 밀림속에서 련락원이 배낭속에 넣어가지고왔던 강낭떡과 미시가루, 닦은 콩으로 끼니를 에우군 하다보니 이제는 그것도 판이 나는가싶었다.

련락원도 먼길 떠나는 사람이 도중식사준비야 안해가지고 떠나랴 하고 생각하면서 별로 푼푼히 넣어가지고 오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원 사람두, 그렇게 볶아댈건 뭐람.

하긴 근거지로 들어갈수 있는 천재채일우의 기회라던 차창일

이 그 성미에 그쯤은 볶아댈수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사흘길이나 걸어도 끝이 안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순철은 종시 이끼옷을 시퍼렇게 입은 분비나무둘레에 손을 얹고 서서 숨을 헐썩이였다.

하늘을 보려고 고개를 드니 역시 온통 나무가지천지인데 그 틈사이로 손바닥만큼 올려다보이는 하늘이 바람에 날리는 연꼬리처럼 흔들흔들 흔들렸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하늘과 땅이 빙그르르 돌아 꺼꾸로 서는것 같았다.

순철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발을 앙다물며 아름이 넘는 분비나무를 그러안았다. 그래도 난파우의 배를 탄것처럼 나무통까지 흔들려서 종시 맥없이 주저앉고말았다.

《왜 그러오? 어디 말째오?》

저만큼 앞서나갔던 련락원이 뛰여와 순철이를 부둥켜안았다.

순철이는 말을 못하고 손만 내저었다.

하얗게 피기가 가셔진 얼굴에 기름같은 진땀이 내뱄다.

련락원은 얼른 배낭을 풀고 군용물통을 꺼냈다.

《마시오. 이런 땐 이 물이 꿀맛 못지 않소.》

어디서 담았던 샘물인지 진짜 정신이 쩡 들었다. 샘물터만 만나면 아무리 높은 벼랑턱이라도 기어코 올라가 받아넣군 하는 련락원이였다.

이런 산길에는 경험이 무척 많은가 보았다. 나이는 순철이보다 별로 많아보이지 않는 청년… 얼마나 기운이 좋고 팔팔한지 몰랐다. 하기사 이런 대밀림의 산판에서 단련된 사람이 아닌가.

그는 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루밤 자야겠수다…하는게 고작이였다.

사방 둘러보아야 련련히 뻗어나간 산발밖에 보이지 않는 어느 한 산마루에서 또 밤을 새우고났을 때 순철이 이제 얼마쯤 더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다는 대답이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원들 말이이요, 10년이상을 내내 걸어다니며 싸운다질 않소, 저 동북땅산판에서 말이요. 우리야 그래두 제 나라, 제 땅에서 다니질 않소.》 하는것이였다.

꼬치꼬치 캐여묻지 말라는 뜻이였다.

순철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러는 순철이한테 미안했던지 련락원은 다시 길을 떠났을 때에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했다.

그의 고향은 곽산쪽의 어느 한 산골마을이였다고 했다. 산이 너무 깊어서 순사놈들도 선뜻 발을 들여놓기 저어하는 곳이였다는것이다.

하루는 무슨 검열을 한다면서 두놈의 순사가 들이닥쳤다. 허청간이며 창고며 뒤간까지 집집마다 쑤시고다녔다. 말이 검열이지 누구인가를 찾는게 분명했다.

점심참이라 아버지와 함께 조밭김을 매고 점심밥을 먹으려 집으로 내려오던 그는 울바자길앞에서 굳어졌다. 혼자 집에 있던 어머니가 놈들의 수색에 잘 응하지 않았던지 한놈이 어머니의 귀뺨을 사정없이 때리고있었던것이다.

《개놈의 새끼!》

그는 손에 들었던 호미를 내동댕이치면서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한놈은 배허벅을 발길로 걷어차고 어머니의 뺨을 치던 놈은 이마로 들이받았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두놈은 마당에 나딩굴었다.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은 그는 어머니의 뺨을 치던 놈을 어깨에 힁 둘러메고 온 마을사람들이 보란듯이 집앞으로 백메터쯤 걸어나가다가 콸콸 소리치며 흐르는 도랑창에 콱 처박아넣었다.

그다음 두자루의 장총과 칼까지 걷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당장은 숨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날라다주는 밥을 먹으며 몇달을 지냈다.

그러다 징병, 징용을 기피해서 산속으로 들어오는 청년들과 만났다.

아직 무슨 조직이나 단체 같은것을 무을 생각까지는 못했다.

어쨌든 운명의 공통성으로 하여 마음이 합쳐진 그들은 사생결단하고 살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정주, 구성, 삭주, 선천일대를 돌아가면서 길목을 지키다가 일본놈만 만나면 가차없이 족쳐댔다.

일본놈만 치는 《평안도 림꺽정패》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쫙 돌았다.

선천의 약수골이란데서는 일본군 한개 중대가 몰려들어 수색을 벌리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그러다 어찌어찌하여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와 련결된 국내혁명조직과 선이 닿아 이곳 비밀근거지로 들어왔다는것이였다. …

《자, 이것도 좀 마시오.》

련락원은 얼마 남지 않은 미시가루를 꺼내서 사기공기에 정성스레 타주었다.

《아 이거, 거기서두 별로 자신게 없는데…》

순철이 미안해서 사양을 했다.

련락원은 그냥 권했다.

《듣자니 부인의 일때문에 속병을 앓았다는데… 어서 기운을 내시우. 이런 때 쓰러지면 영영 못일어나오.》

순철은 말을 못하고 미시가루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그리고나서 제사 결연히 일어섰다.

《고맙소. 다시 갑시다.》

행군이 계속되였다.

골짜기를 건너서면 또다시 골…

또 하루의 해도 뉘엿뉘엿 기울어갔다.

어디까지 왔는지 앞이 훤히 트이면서 장마당이나 학교운동장만큼씩한 공지들이 나타났다.

공지들을 몇개 건너가자 또 끔찍한 밀림이 나타났다.

련락원이 문득 멈춰서서 주위를 두릿두릿 살폈다.

그는 다 썩어가는 진대나무밑으로 가더니 홍두깨처럼 굵은 나무토막 하나를 찾아냈다.

그 나무토막으로 가까이에 있는 이깔나무밑둥을 몇번 쳤다.

어디선가 같은 방법으로 나무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무인지경의 수림속에서 누구인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터졌다.

나무들사이로 농사군차림의 중년사나이가 달려왔다.
《련락원동무!》
《박동무!》
두사람은 서로 붙안고 반가와했다.
《무사했구만. 거기 동무들은 다 잘 있소?》
《잘 있지 않구, 모두 박동무네를 보고싶어하오. 이제 해방이 되면 신세갚음을 단단히 하겠다고들 하지.》
《원 신세갚음은 또 뭘.》
둘은 서로 어깨를 치며 유쾌하게 웃었다.
한참 그렇게 웃고나서야 련락원은 순철을 가리켰다.
《자, 인사를 하우, 리순철동무요.》
《반갑습니다. 박준보라고 합니다.》
박준보는 리순철의 두손을 꽉 잡았다. 진짜 농사군처럼 크고 두툼한 손에 장알이 졌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집게로 꽉 집는것 같았다.
《지휘부에서 보내는 련락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아, 일손이 얼마나 딸리는지.》
련락원은 그자리에서 돌아섰다.
오늘중으로 지휘부에 가닿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쉬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떠나겠느냐고 순철이 걱정하자 련락원은 히쭉 웃으면서 네댓시간 더 걸으면 된다고 했다.
네댓시간?!…그렇다면 아직 70리정도는 더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하다면 여기는 어딘가?
순철은 그때부터는 박준보의 안내를 받았다.
박준보는 련락원과는 달랐다.
순철이 힘들어한다고 팔을 꽉 붙잡고 걷는데 쉴새없이 많은것을 알려주었다.
자기네는 후방보장성원들인데 비밀근거지에서 떨어져나와 농사를 짓는다는것, 근거지사람들도 먹어야 살겠는데 매양 지하조직의 방조만이야 어떻게 받겠는가, 그래서 곳곳에 농사조를 무어 내보냈는데 이 아근에만도 여러 군데에 벌려져있다고 했다.

《듣자니 순철동무도 농사군이였다지요? 농사군이 제일이지요. 내 그래서 나부터 보내주시오 하고 탄원을 했수다. 아 제 손으로 씨를 뿌리고 김을 매구 걷어들이는 기쁨이란 도회지사람들은 몰라. 그 천하지대본의 진맛을 알탁이 있나. … 이제 보우, 대풍이 들었수다. 강냉이이삭이 팔뚝같구요, 벌써 조이삭이 개꼬리처럼 늘어졌수다. 오이, 가지, 부루… 없는게 없지요. 그저 손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실농군을 보내주었는가부다.》

세사람이서 닷새갈이가 썩 넘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정말 일손이 모자란다고 거듭 반복했다.

순철은 얼굴을 붉히며 한마디 했다.

《이거 기대에 보답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우리도 다 들었수다. 광산일을 하면서두 터밭농사를 그렇게 잘 지었다면서요?》

순철은 놀랐다.

그는 좀 서운해서 물었다.

《그렇게 농사일만 하다가 총쏘는건 언제 배우고 싸움은 언제 하겠소?》

박준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겨울에 실컷 하지요. 9월달, 늦어서 10월달까지면 싹 다 거두어가지고 철수하거던요. 이젠 몇달 남지두 않았수다.》

진짜배기 텁텁한 농사군이였다. 순철은 사방을 둘러보며 제 소감을 허물없이 말했다.

《난 광산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깊고 험한 산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수다. 가도가도 끝이 안나는 산판이예요. 이젠 돌아가라구 해두 도저히 돌아갈것 같질 못해요.》

《옳수다.》

박준보는 구대원이연 했다.

《그러니 항상 방위판정을 잘해야 해요. 그리구 방위목표를 똑똑히 기억해두구. 그렇지 않다간 영낙없이 산판귀신이 돼요.》

순철은 가슴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박준보는 한껏 자라 제절로 쓰러진 강대나무를 훌쩍 타고넘으며 말했다.

《올봄에 말이요, 이 아근에서두 겨울난 시체를 두구나 발견했수다. 일본놈 밀정들이였지요.》

《밀정이요?》

순철은 소스라치듯 물었다.

《이 산판에두 밀정이 들어왔어요?》

박준보는 침을 찍 내쏘고나서 말했다.

《산판이니까 더 기여들지요.》

《그렇긴 하겠지요. 한데 그게 밀정놈들이였다는걸 어떻게 알아요? 사냥군들일수도 있잖아요.》

박준보는 또 침을 퉤 내뱉았다. 기분이 나쁘면 그러는 버릇인 모양이였다.

《시뻘건 줄로 가운데 열십자를 그은 증명서들이 나왔거든요.》

순철은 떨어질세라 박준보의 뒤를 바싹 따라걸었다.

한참 걸어나가니 진짜 혀를 찰만큼 작황이 좋은 강냉이밭이 나졌다.

조밭도 보이고 남새밭도 보였다.

강냉이밭속에서 와실렁와실렁하는 소리가 나더니 온통 땀벌창이 된 두사람이 역시 반가운 소리를 치며 달려나왔다.

3

가뜩이나 도꾜소식에 잠을 못자고 안절부절하던 모리무라 다다시는 상풍광산지하조직성원들이 하루밤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도 기가 막혀 옹근 하루나 밥 한술 입에 대지 못했다. 한발 늦었구나 하는 후회에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설마가 사람죽인다는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화약작전》의 실패만으로도 동료들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는데 이 또한 무슨 날벼락같은 소식인가. 생각하면 상급들의 방문앞으로 지나가기에도 오금이 저렸다.

당장 머리우에 닥뜨린 일본의 패망문제로 온 총독부안이 불난 집처럼 끓으면서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는것이 천만다행이였다.

한가닥 구원의 실마리가 잡혔다. 《모모－1》로부터 상풍광산지하조직성원들의 실종에 대응하여 《두더지작전》을 최종적으로 다그친다는 비상통보였다.

(역시 그네들이 괜찮아!)

모리무라 다다시는 저도모르게 손벽까지 짝짝 쳤다. 마치도 충실한 첩자들이 상풍광산지하조직성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질것을 미리 예견하고 《두더지작전》을 준비하기라도 한것 같아 더욱 사기가 났다. 아니, 그것은 사기라기보다 동료들앞에, 상급앞에 여지없이 곤두박질한 자기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유지할수 있는 일종의 허세이기도 했다.

어차피 닥뜨리게 된 일본의 패망앞에 한갖 산골아이들의 장난같은 《두더지작전》이 무슨 힘이 되랴.

허나 모리무라 다다시는 지금의 다 찌그러진 형세에서는 그나마도 하늘이 베푼 은총같이 여겨져 제 손으로 직접 《모모－1》에게 보내는 긴급극비무전문을 작성했다.

《축하한다. 대담하게 진입하라. 무제한한 권한을 부여한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라. 성공을 기다린다.

총독부.》

첩보활동규범을 어긴다는것을 빤히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에 《총독부》라는 글자를 특별히 똑똑하게 박아넣었다.

한편 이때 《소나무》의 대담한 발기로 상풍광산시가지마을의 어느 한 건물 지하실에 깊숙이 안전하게 자리잡은 장철석은 아주 환희로운 기분으로 긍지롭게 비밀근거지에 보내는 련락문을 썼다.

《모든 작전 계획대로 끝냄. 일체 준비완료.
차후 지시 기다림.》

4

까만 치마우에 풀색 군복을 입은 심혜영은 어깨에 멘 보총의 부혁을 한손으로 움켜쥔채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고있었다.

오늘 그는 망원초의 보초를 서는 날이였다.

귀틀집들이 있는 삼송밀영에서 오리쯤 나와있는 이 망원초는 신통히도 바다우에 솟아난 섬바위처럼 천리수해에 우뚝 일어선 산봉우리의 절벽벼랑바위우에 자리잡았다.

주변에는 물푸레나무와 시닥나무, 두릅나무, 층층나무들이 우거졌고 바위츠렁에는 진달래며 애솔포기, 오미자덩굴이 뒤덮였다.

그 절벽바위밑에 네댓명 들어가 잠도 잘수 있는 자그마한 귀틀집을 지었는데 지금 거기서는 대기성원들이 휴식을 하고있었다.

보초의 위치는 푸른 잎이 무성한 물푸레나무밑이였다. 거기서는 주위 사방 10리어방은 어디나 눈여겨 살필수 있었다.

어디선가 목덜미가 빨갛고 앞가슴은 희고 잔등은 검푸른색의 부리가 긴 중병아리만한 새 한마리가 날아와 물푸레나무가지에 앉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혜영이를 내려다보았다.

《히야, 곱네!》

혜영은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았다.

아름다운 새는 저를 곱다는데 신바람이 났는지 빨간 주둥이를 벌리면서 쫑쫑 하고 울음소리를 냈다.

혜영이는 인차 정신을 가다듬었다. 보초는 순간도 헛눈을 팔거나 딴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매번 강조하군 하던 지휘관들의 말

이 생각나서였다.

혜영은 발을 구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휘— 날아가, 방해 돼!》

총을 벗어들고 쏘는 흉내도 냈다.

아름다운 새는 아무리 그래도 혜영이가 자기한테 피해를 줄 처녀가 아니라는걸 알기나 한듯 까닥도 않고 그냥 쫑쫑 울어대다가 이윽해서야 푸른 하늘로 까마득히 날아오르더니 멀리 수림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미안해, 잘 가!》

혜영은 새가 사라진쪽을 향해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문득 어머니생각이 났다.

혹시 저 새가 어머니소식을 안고 날아왔던건 아닐가 하는 철부지시절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잖음 왜 난데없이 내 머리우에 날아와 쫑쫑 하고 이상스럽게 울었을가!

어머니의 병이 더해지지는 않았을가, 어린 동생이 얼마나 고생할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찌르르 하면서 눈굽이 화끈했다.

구창광산동지들이 잘 돌봐준다고 한 철석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는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그리움을 이겨온 그였다.

어쩌나, 그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을가!

혼자 조용히 보초를 서느라면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된다.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에 이어 철석에게로 생각이 갔다.

그를 만났던것이 눈이 강산을 덮었던 한겨울이였으니 벌써 몇달이 잘 지났다.

《거기서 잘못되면 난 정말 죽고말겠어요.》하면서 떨어지기 서운해했던 일이 생각나며 얼굴이 붉어졌다.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만을 했을가.

《내가 혜영일 지켜줘야지.》하던 말이 가슴을 쿵 울린다.

혜영은 그 말뜻을 그와 헤여진 후 봉빈공작원을 통해서야 뜨겁게 알게 되였다.

《어쩜 사람이, 정말 뚝바우야!》

그날 너무도 미안하고 야속해서 그만 저도모르게 봉빈공작원 앞에서 터뜨렸던 말이였다.

《철석오빠!》

옛정그대로 입속으로 가만히 불렀다.

이름할수 없이 속이 찌릿하면서 코안이 매워났다.

지금 어떻게 지낼가?

조국해방의 날이 각일각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누구보다 더 가슴을 조이게 되는 혜영이였다.

철석이때문이였다.

놈들앞에 다 드러내놓은 몸이고보면 미치광이같은 놈들이 해방을 앞두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이 알랴 하는 걱정에서였다.

총독부에까지 이름이 올라있었다는 광산지하조직성원들이 하루아침에 여라문명이나 근거지안에 줄레줄레 나타났을 때는 가슴이 막 울렁거렸다. 틀림없이 장철석도 나타나리라는 믿음에 목이 탔지만 끝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광산마을의 지하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실망하여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을번 했었다.

그는 광산조직원들을 통해서야 자기가 매일 만들고있는 작탄의 화약과 도화선, 뢰관구입을 위해 장철석을 비롯한 광산조직성원들이 어떤 위험의 고비고비를 넘겼는가를 알았다. 말만 듣는데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옥죄였다. 자기가 만드는 하나하나의 작탄이 이제 틀림없이 맞이하게 될 무장폭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새삼스레 깨달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구상하신 조국해방최후작전을 위하여 한몸그대로 방풍림이 되여 나서겠다고 그리도 긍지로와하던 철석오빠!

제발 무사해야 할텐데. 정말 무슨 일이 없어야겠는데. …

그 심정을 눈치챈듯 며칠전에는 봉빈공작원이 직접 그를 불러앉히고 철석동무는 안전하게 지하로 깊숙이 들어가 활동하고있으니 너무 걱정말라고 각별히 신심과 고무를 주었었다.

혜영은 고마우면서도 한편 더 가슴이 조여났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작탄을 만들 때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눈

앞에 떠오르군 했다. 밤이면 그에 대한 꿈을 꾸었다. 총소리 콩볶듯하는 싸움판에서 빨리 작탄을 달라고 안타깝게 손을 내젓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둘이 나란히 손잡고 어머니앞에 나서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꿈이야 얼마나 좋은 꿈이랴만 깨여나서는 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잤다. 꿈은 생시와 반대라는 말이 생각나군 해서였다.

정말이지 그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닐가?

오늘 보초근무가 끝나면 봉빈공작원을 꼭 만나리라 생각했다. 그를 만나면 무슨 소식이든 알게 될것 같았다.

참 그가 돌아왔을가?

혜영은 밀영에 들어와서도 퍽 후에야 이 랑림산일대에는 자기네 삼송근거지외에도 그와 같은 비밀근거지가 한두군데만 있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봉빈공작원은 며칠씩 때로는 한달 가까이나 그 밀영들에 나가있군 했다. 여름철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걸음이 더 잦아졌다.

혜영은 그것이 여기 삼송비밀근거지와 상풍광산, 목재소뿐아니라 랑림산일대의 각곳에서 들고일어나게 될 전민항쟁, 무장폭동준비의 마지막단계때문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봉빈공작원이 더 하늘처럼 우러러보이고 먼발치에서나마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힘이 나고 신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만큼 또 믿음이 가고 모든것을 의탁하고싶었다.

(공작원동지가 혹시 이번 길에 철석동무를 만나고 오지는 않을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저도모르게 뜨거운 숨을 호— 내쉬던 혜영이는 순간 무엇인가 긴장되는감을 느끼였다.

바싹 정신을 가다듬으며 서남방향으로 길들이 패여나간 골안을 살피였다.

쇠스레나무며 층층나무, 산오리나무, 참나무들이 무성한 골안에서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의 형체를 보았던것이였다.

(잘못 보았을가?… 산짐승?)

뚫어지게 살펴보았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허우대가 큰 남동무가 교대를 올라왔다.

《왜 그러오?》

남동무도 긴장해서 물었다.

혜영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서 말을 못하고 그냥 골안만 살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 봤나봐요.》

눈길만은 골안에서 떼지 못했다.

남동무가 갑자기 놀란 소리를 했다.

《저게 뭐요?》

방금 혜영이가 살펴보던 곳보다는 좀 아래켠쪽에서 분명 사람이 움직이는것이 보였다.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는 사람처럼 숲속에 사라졌다나타났다 하던 그 사람은 얼마후 다시 골안 웃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깨우에 삐죽이 솟은것은 분명 총이였다.

혜영는 급히 물푸레나무에 매여놓은 노끈을 힘차게 잡아흔들었다. 벼랑아래 귀틀집에 비상정황을 알리는 신호줄이였다.

보초책임자가 먼저 뛰여올라오고 다른 두 대원도 달려올라왔다.

정황보고를 받은 책임자는 곧 허우대가 큰 남동무에게 지시했다.

《동문 여기서 잘 살피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오.》

그는 혜영에게서 보총을 넘겨받으며 벼랑아래로 내리달렸다.

보초소에는 총이 두자루 있었다. 보초를 인계하고 인계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총이였다.

혜영이와 다른 두 대원도 급히 책임자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귀틀집안에서 두개씩의 작탄을 허리에 차고 야장간에서 만든 날창과 칼들을 손에 들었다.

망원초가 생긴이래 아직 한번도 외래자의 침습을 받아보지 못했었다. 그들은 금시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도 붙을것처럼 긴장했다.

더우기 그들을 그렇게 긴장시키는것은 골안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총을 가졌기때문이였다.

그들은 곧 앞길을 차단하고 포위환을 펼치면서 숲속에 매복하였다.

얼마후 그들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전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어깨에는 쌍알배기사냥총을 메고 잔등에는 불룩한 배낭을 진 중년의 사나이였다.

《섯!》

보초책임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사나이는 기겁을 하며 펄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재빛이 되여 사방을 헤둥헤둥 살폈다.

보초책임자가 다시 맵짜게 소리쳤다.

《당신 누구요?》

사나이는 말을 못하고 두손만 내흔들었다.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는 뜻인 모양이였다.

보초책임자가 또 소리쳤다.

《총을 앞으로 내던지오!》

사나이는 얼른 총을 벗어서 앞으로 내던졌다.

보초책임자가 풀숲에서 일어나 사나이한테로 걸어갔다. 혜영이와 다른 대원들도 앞으로 뛰여나갔다.

사나이는 사방에서 나타나는 무장인원들을 보자 엉치걸음으로 뒤걸음쳤다.

《나… 난 약초캐는 사람이요, 산삼을… 지금 산삼철이 아니요.》

사나이는 급히 배낭을 벗어 풀어헤쳐보였다. 배낭안에는 정말 푸른 이끼에 정히 싼, 오방초꽃망울들이 발깃발깃한 산삼이 대여섯뿌리나 들어있었다.

《산판에서 길을 잃었수다. 이 아근은 처음이 돼서… 무슨 산판이 그리도 험한지 원!》

보초책임자가 사냥총의 총신을 꺾고 약통실에서 탄약들을 뽑아내며 물었다.

《약초캐러 다니는 사람이 사냥총은 뭐요?》
사나이는 기다렸던듯이 대답했다.
《여름엔 약초를 캐지만 겨울엔 사냥을 하지요. 본시는 사냥군이 돼놔서…》
허나 그 사나이는 연약한 녀대원이 남다른 눈으로 자기를 더 찬찬히 살피고있는줄은 몰랐다.
그들은 곧 보초소귀틀집으로 향했다.
보초소 벼랑바위우에서는 벌써 허우대 큰 남동무가 밀영의 보초에게 알리는 붉은 신호기발이 물푸레나무우에로 올라가고 있었다.

5

《도경찰부에서 경부란 놈이 또 내려왔습니다. 악들이 났어요. 무슨 지랄발광을 벌릴런지 아니아니 합니다. 글쎄 전혀 예견치 못했던건 아니지만…》
《소나무》의 정황보고였다.
장철석은 묵묵히 듣기만 하다가 물었다.
《다른 동무들은 어떻소?》
근거지로 들어간 성원들외 지하로 들어가게 된 동지들에 대한 안부였다.
《소나무》가 자신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마십시오. 모두 철석동무 못지 않게 안전한 곳에 자리잡았습니다.》
김봉빈의 긴급지시를 받은 장철석은 그 즉시 근거지의 지시대로 로출된 조직성원들 대부분을 근거지로 들여보내는 한편 무장폭동을 이끌면서 선두에서 조직지휘할 핵심성원들을 지하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었다.
합숙과 하숙집은 물론 조직성원들을 통하여 여러 갱의 광부들속

에 일시에 소문을 내게 했다. 장철석과 차창일, 리순철은 자기들이 로출되였다는것을 알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그밖의 다른 사람들도 위험을 느끼고 어디론가 뿔뿔이 헤쳐져갔다고 하는 소문이였다.

경찰서, 수비대, 헌병대가 벌컥 뒤집혔다.

몇차례나 집들을 뒤지고 사람들을 불러다 취조를 했는지 모른다.

갱주변의 페갱들은 물론 골안에 떨어져있는 자연동굴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이번에는 진짜 혈안이 된 수색소동이였다.

《하지만 놈들도 이제는 기가 퍽 죽었소. 경찰서장놈부터가 예전과는 다르오.》

옆에 침착하게 앉아있던 《참나무》 임일광이 한마디 했다.

장철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거요. 그놈들이라고 세상돌아가는걸 영 모르지는 않을테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 곧 조국해방작전을 벌리신다는 소식이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놓은것 같소.》

《임동문 서장놈의 멱을 더 단단히 틀어잡소.》

《알겠소.》

《소나무》도 무릎을 들썩이며 맞장구를 쳤다.

《이번에 조직성원들이 선전활동을 잘했습니다. 하긴 모두 신바람들이 났거던요.》

장철석은 또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진중하게 말했다.

《사기들이 오른것은 좋은데 너무 흥분하지들 않게 해야겠소. 경각성을 바짝 높이구. 마지막대목이라구 할수 있는데 정말이지 놈들이 털끝만한 기미도 차리지 못하게 해야겠소. 근거지에서는 우리가 보낸 화약으로 계획량의 작탄을 다 만들게 된다고 하오. 본격적인 정찰활동도 벌리는것 같소.》

《이번에 개천, 안주쪽으로 나갔다가 알만한 사람한테서 들었는데…》

《소나무》가 목소리를 좀 낮추며 말했다.

《평양일대의 조국해방단활동이 아주 대담한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무장폭동을 준비한다나 봐요. 구월산, 정방산… 각곳에 련계를 맺고 인천병창에서 탄약과 무기를 구입하는 공작까지 벌리는것 같습니다.》

장철석은 가슴이 툭툭 뛰였다.

평양일대에서의 무장폭동준비!

그것이 단순히 그들자체의 생각과 결심만으로 준비하는 투쟁이겠는가.

봉빈공작원의 발길이 거기까지 닿은것은 아닐가?

임일광도 앞으로 나앉으며 새소식을 알려주었다.

《며칠전에 총독부주최로 서울의 부민관이란데서 소위 〈아시아민족궐기〉대회란것을 조직하구 그 무슨 웅변대회까지 벌렸다오. 일본대표, 중국대표, 만주대표… 제놈의 끄나불들을 내세워 정세를 오도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딴데로 돌려보자고 한 모양인데 갑자기 세명의 조선청년들이 달려들어 폭탄세례를 안겼다오. 연단에 나서서 목에 피대를 돋구던 놈은 물론 경비를 서던 헌병, 경찰들까지 여러놈 뒈졌다고 하오. 총독부 경무국장 니시하로가 직접 경찰대를 동원하여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대회장은 지옥과 같은 수라장이 되였고 조선청년들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하오.》

장철석이 주먹을 내흔들며 흥분해서 말했다.

《옳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정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소. 우리도 이젠 가만히 앉아만 있을 때가 아닌것 같소.》

잠시 사이를 두었던 그는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한인준의 얼굴이 선히 떠올랐다. 신중한것 같기도 하고 빙그레 웃는 얼굴같기도 했다. 두손 꽉 부여잡고 신심을 주는듯도 싶었다.

목이 꽉 메여났다.

그가 살아서 오늘을 맞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가. 정말이지 그가 지금의 이 격전, 마지막격전을 지도했다면 어떻게 했을가?

(인준동지, 제 인준동지를 생각해서라도 실수가 없이 잘하겠

습니다. 꼭 인준동지의 몫까지 합쳐 싸우겠습니다.)

그는 이윽토록 권총을 들여다보며 마음속결의를 다지다가 힘있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부터 근거지의 지시대로 모든 성원들이 무기다루는 법을 더 본격적으로 배우게 해야겠소. 실총이 없는 조건에서 각자 나무총이라도 만들어야겠소. 그것으로 장탄, 퇴탄하는법,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는것부터 배우도록 합시다. 총쏘는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총을 쥐여준다고 해도 막대기나 다름이 없지 않겠소. 근거지에 훈련용작탄과 함께 총도 몇정 더 요구해야겠소.》

두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철석이 더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구 임동무, 동무의 임무가 더 무거워지오. 일단 행동이 개시되면 우린 경찰서부터 장악해야겠소. 경찰서 무기부터 손에 쥐여야겠단 말이요. 어떻게 총부터 빼앗아낼수 있겠는가 잘 타산해보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자면 경찰서장놈의 목덜미를 잘 잡는것이 중요할거요. … 그리구 수비대놈들의 무기도 빼앗아야겠소. 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미 해토기의 물먹은 담벽이나 같소. 얼마든지 성사할수 있는 일이요.》

그들은 힘있게 손들을 마주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헤여질 때 장철석은 진심으로 뜨겁게 말했다.

《임동무, 내 재삼 당부하는데 절대로 꼬리가 달리지 않게 하오. 여태껏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해방의 문턱에 와서 쓰러져야 되겠소. 특히 근거지안전에 최대로 각성합시다. 우리의 근거지안전은 곧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작전, 전민항쟁작전구상실현과 직결된 중대사임을 다시한번 깊이 명심합시다. 공작원동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소. 락하산으로 내리실수도 있다고 말이요. … 뭐니뭐니해도 거기서 다른 일이 없어야겠는데…》

6

간이 떨어지게 놀라긴 했어도 《모모—1》, 우메즈 사부로는 광풍을 헤치고 부사산마루에 올라서기라도 한것 같은 기쁨을 느끼였다.

《두더지작전》에 감사를! 하고 몇번이나 입속으로 뇌이였다.

그가 이 산판에 들어선것은 모리무라 다다시로부터 무제한한 권한을 부여하니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라는 긴급극비무전을 받고서였다.

사실 《두더지작전》을 선참 발기한것은 우메즈 사부로자신이였다. 요시가와 이사로—《모모—2》한테 은근히 싹터오른 질투심에서였다. 항일유격대 국내정치공작원 강동무체포작전의 여지없는 참패로 하여 《사냥작전》이라는 고행길에 떠박질리운 그는 상풍광산의 뜨뜻한 방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젊으나젊은 계집년까지 끼고앉아 흔들먹거리는 이사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름가마처럼 끓는 질투감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것은 인적기 전혀 없는 온통 눈의 세계의 잠풍한 산판에서 첫눈에 사내들의 간장을 자글자글 녹여 헤여날수 없는 환락의 세계로 이끌어갈 독특한 체취를 물씬물씬 풍기는 《담뽀뽀》—요꼬다 메구미를 상면한 순간부터 더욱 불길처럼 타올랐다. 미구에 그것은 령하 40도의 엄동에도 무인지경의 산판을 헤매야 하는 억울함과 더불어 마치도 그 운명이 이사로와 메구미때문이기라도 한것 같은 일종의 복수심에 가까운 착란증까지 일으켰다.

(나만이 죽음의 함정에서 헤매일테냐!)

청천벽력같은 도이췰란드의 패전소식과 함께 확고해진 일본의 명백한 패망의 운명앞에 그 불길은 더욱 리성을 잃게 되였다. 다 망한 집안에 가릴게 뭔가. 성공하면 역시 일본의 첩보력사에 길이 남을 자신의 공로요 실패한다 해도 저로서는 솜털 하나 다칠 손해없이 질투의 구토감을 누를수 없게 하던 그 역겨운 이사로와 메구미만을 통쾌히 저세상으로 전송하게 될뿐이였다.

한데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지는건 아닐가?

음충스럽기 그지없는 모리무라 다다시는 왕청같이 《두더지작전》과 《사냥작전》은 다 하나의 목표를 겨눈것만큼 한점으로 일치시키라는 지령을 연방 내리던졌다. 결국은 방위판정까지도 정확히 한 또하나의 긴급지령에 의해 부득불 이 험지, 언제인가 모리무라 다다시가 직접 들려주던 동북의 흔들레판과도 같은 이 산판에 후들후들 떨리는 발길을 들여놓게 되였던것이다.

그가 이 산판에 특히 겁을 먹은것은 결코 끝을 가늠할수 없는 무인지경의 험지여서만이 아니였다. 이 방향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보다는 지난 겨울 이쪽방향으로 네명의 첩자를 들여보냈던 일때문이였다. 한다하는 첩자들이였다는데 두명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종시 흔적도 찾을길 없고 두 첩자만이 온 겨울 밀림의 눈판속에서 향방을 잃고 헤매다가 말그대로 옛전설의 귀신이나 도깨비형체로 겨우 목숨만 붙어가지고 나타났었다. 어찌나 얼혼이 빠졌는지 한놈은 병원에서도 밤낮 공포에 시달리다가 종시 두눈을 지릅뜬채 절명했고 다른 놈은 두다리를 자르고 앉은뱅이가 되여 누구인가를 저주하면서 원한의 눈물을 뿌리며 본국으로 실려갔다.

그 처참한 모습을 제눈으로 직접 확인한 우메즈 사부로이기에 그는 이 산판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라는 모리무라 다다시의 사형선고와도 같은 긴급극비지령을 받은 순간부터 속이 와들와들 떨렸었다.

그 지령 역시 《모모-2》-요시가와 이사로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에 당장 달려가 한판에 멨다꽂고 보기조차 흉한 그 낯짝을 마구 물어뜯기라도 하고싶었다. 이자도 나와 같은 질투감을 품은건 아닐가 하고 생각하면 더욱 참을수가 없었다.

그렇듯 공포와 질투심이 한데 범벅이 된 우메즈 사부로이기에 그는 갈수록 깊어만지는 골안앞에 점점 더 가슴이 떨리고 공포가 먹장구름처럼 머리우에서 드르렁거려 한걸음한걸음 내짚는 걸음이 진짜 다다시가 취중에 들려주던 그 중국 동북 대원시림의 흔들레판으로 들어가는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한편 악이 치받치기도 했다. 내 지금껏 이 밀림속을 헤집어내지

못해서 모리무라 다다시는 물론 요시가와 이사로의 멸시를 받은것이 아니냐는 스스로의 경멸과 환멸감에 의해서였다.

그는 망원초들을 멋지게 속여넘겼다.

하긴 얼마나 품을 들여 세련시킨 《연극술》인가.

그는 자신이 철저히 조선인화된데 대한 만족을 다시한번 가슴이 흐뭍흐뭍하게 느꼈다.

모든 취조도 무사히 넘기였다.

이만하면 됐다. 망원초가 있다는것은 십리안팎에 본거지가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위치만 알아낸 다음에야 문턱안에 들어가보면 어떻고 문밖에서 돌아서면 어떠랴. 이제는 총쥔 사람들한테 달린 일인지고!

어서 돌아가라고, 다시는 이 지대에 얼씬하지도 말라고 엄하게 약조나 받아내고는 돌려보낼줄 알았는데 이 또 무슨 호박이냐.

뜻밖에도 큰 어른이 만나자고 한다면서 본거지안쪽으로 모셔들였던것이였다.

큰 어른이라면 진짜 **김일성**사령관이 직접 파견한 군사간부가 아닐가?

그래서인지 그때부터는 말씨도 공손해졌고 대접도 퍽 륭숭해졌다.

도중에 또하나의 귀틀집이 있었는데 아직 본거지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귀틀집에서 하루밤을 묵게 했다.

그는 그 귀틀집이 곳곳에서 찾아오는 지하조직의 련락원들이나 조직책임자들을 만나는 곳이라는걸 대뜸 알아차렸다.

치밀한 경계, 신속정확한 련락체계…

저으기 놀란것은 귀틀집안에 들어설 때였다.

방안이 깨끗한데다 방금전까지 살림을 하던 집처럼 온기가 있고 건조했을뿐아니라 방바닥의 나무재털이에는 담배꽁초들이 수북했던것이다.

이 집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선가 《일어섯… 다시, 엎드려 사격준비!》 하는 구령소

리가 들려왔다.

사격련습을 하는 모양이였다.

도대체 몇명이나 될가? 무기는 어떤것일가? 사격련습까지 할수 있는 무기라면 그 많은 무기는 어디서 마련했는가?

호기심과 함께 흥분에 가까운 욕망이 왁작 끓기도 했다.

귀틀집앞으로는 키를 넘게 자란 풀숲사이로 어디론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것 같은 오솔길이 나있었다.

그 오솔길로 무엇인가 묵직한 나무상자 하나를 맞들고 두사람이 나타났다.

귀틀집앞으로 지나가면서 주고받는 그들의 말.

《오늘은 작탄 몇개나 만들었어요?》

《마흔개.》

《이젠 다 끝났겠구만요?》

《래일까지면 깨끗이 끝나… 그다음엔 단총을 만들어볼가 해.》

《단총이요?》

《하나 만들어보니 별게 아니더구만 뭐. 그까짓 왜놈새끼나 한놈씩 쏘아잡는거야!》

《야, 대단한데. 형님은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병기공장에 가야겠어요.》

《병기공장이면 병기공장… 하여튼 빨리 해방이 됐음 좋겠다.》

사부로는 정신이 버쩍 들었다.

하루에 작탄 40개!

그럼 이 산중에 정말 《병기공장》까지 차렸놨단 말인가?

듣는 말마다가 호기심을 끌었고 부닥치는 일마다가 놀랍기만 했다.

일이 이왕 이렇게 된바에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배심이 더 왁작 끓었다.

한순간을 위해 한생을 바친다더니 진짜 그 한순간이 차례지는 행운이 아닐가?

그는 오늘아침 이제 만나게 될 어른이 자기의 예측대로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에서 파견되여온 국내공작원이라는 말을

듣고 심장이 터지는것 같았다.
실은 어제밤에 만나기로 계획했었는데 먼길을 다녀온데다 급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오늘로 미루었다는것이였다.
저도모르게 동쪽을 향하여 정중히 고개를 숙이였다.
《우메즈 사부로 대일본제국을 위한 마지막전투를 벌리겠습니다.》
무인지경의 산골짝 외통길에서 제 팔에 총상까지 입혀가며 기어코 《강동무》를 생포하려던 일이 눈앞에 선했다.
이번 길에 이제 만나게 될 그 공작원을 포승지워 끌고갈수는 없을가? 하고보면 이제는 이 산판작전을 인도한 모리무라 다다시와 요시가와 이사로가 고맙기도 하였다.
똑똑똑…
문기척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나들문이 열리면서 한 처녀가 얌전하게 들어섰다. 까만 치마에 흰 당목저고리를 입고 외태로 딴 머리에는 빨간 갑사댕기를 드렸다.
량손에는 군용밥통과 물주전자가 들려져있었다.
《저… 아침식사를…》
살풋이 숙였던 고개를 들며 사부로를 마주보던 처녀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사부로도 깜짝 놀랐다.
(한영옥?!)
사부로는 한순간에 대일본제국의 월계관을 쓰려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감을 느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바로잡으며 처녀를 일별했다.
틀림없이 한인준의 동생 한영옥이였다.
(이년이 어떻게 여길?…)
번개가 일고 뢰성이 우는것 같았다. 아니, 벼락이 치면서 발밑이 갈라져 금시 그 어떤 미궁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을 칠것만 같았다.
처녀의 두눈에서도 적의가 번쩍이였다.

제 오빠를 따라 이미전에 저세상으로 간줄 알았던 사람이 이 밀림속에 나타났으니 어찌 놀랍기만 하겠는가.

사부로는 지금껏 꿈꾸었던 월계관은 고사하고 자기의 운명이 이미 낭떠러지끝에 섰다는것을 직감했다.

(이년을 죽여야 한다. 빨리 도망을 쳐야 해!)

번개처럼 떠오르는것은 그 한 생각뿐이였다.

하느님, 이 사부로를 도와주소소!

사부로는 날이 시퍼런 사냥칼을 뽑아들었다.

《살고싶거든 찍소리 말아!》

사부로는 날쌔게 나들문을 막아서며 처녀를 방안쪽으로 몰아넣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된 영옥이는 어쩔수없이 구석쪽으로 뒤걸음쳤다.

사부로는 한걸음한걸음 처녀앞으로 다가들었다.

그 순간이였다.

《꼼짝 말앗!》

나들문을 박차며 사람들이 뛰여들었다.

네댓명의 사람들과 시커먼 총구… 그들중에는 어제 망원초에서 보았던 연약한 처녀도 있었다.

사부로한테로 마주 돌아서는 영옥의 손에도 어느새 권총이 쥐여져있었다.

사부로는 진짜 벼락이 치고 땅이 꺼지는것 같았다.

그는 아직 영옥이가 광산마을에서의 자기 모습을 똑똑히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부러 그때의 옷차림을 하고 자기앞에 나타났다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망원초의 녀대원 심혜영의 눈길이 처음부터 증오로 펄펄 끓고있었다는것은 더우기 알수가 없었다.

치째진 눈귀와 앞으로 내밀린 턱이 끝내는 일을 그르치고말았던것이다.

7

장철석은 낮때가 지나자부터 몹시 불안스러웠다. 밖으로 활 뛰쳐나가기라도 하고싶었다. 초조감까지 치밀어 좀처럼 앉아있지도 못했다. 여기서 만나자고 이미 약속하지만 않았다면 이미 뛰쳐나갔을지 모른다.

약속한 날자가 옹근 하루가 지났는데도 《참나무》한테서 일체 소식이 없었던것이다.

드디여 놈들의 밀정이 비밀근거지안으로 들어간다는 긴급비상련락을 받은것은 사흘전이였다. 치밀하게 작전한, 광산전역에서 무장폭동준비를 다 안전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결음결음 가슴을 조이며 펴나간 모험적인 유인전술이였다. 정말이지 그 작전을 어떻게 준비했던가! 그 작전에 공헌한 《참나무》의 헌신에 장철석은 탄복하군 했었다.

한데 왜 소식이 없을가? 그 유인전술자체가 화약작전처럼 자체가 또 놈들이 역리용한 함정은 아닐가? 놈들이 이번에도 우리의 작전을 눈치채고 오히려 제놈들의 모략에 리용한것은 아닐가? 그래서 놈들도 대담하게 저들의 밀정을 던지는 대가로 《참나무》를 체포한건 아닐가?

강계와 만포방향으로 보냈던 《소나무》한테서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곳 형편도 심상치 않은가?

한인준이 희생되던 일과 함께 유격대정치공작원 강동지의 최후장면이 자꾸 눈앞에 밟히는것은 어인 일인가. 참으로 귀중한 사람들이 그처럼 바라던 조국해방의 성전을 눈앞에 두고 희생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들기도 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을 앞두고 귀중한 동지들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침식을 잃고 못내 가슴아파하군 하신다고 하던 김봉빈의 말이 생각나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미 당한 상실의 아픔만도 참을수 없는데 이제 또 그런 아픔을 당한단 말인가? 아니, 그래선 안돼. 이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은 응당 내가 맞받아나가야 한다. 이 장철석이가?

그렇게 결심을 해서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강추위에 뼈속까지 얼어드는 밤 페염에 걸린 몸으로도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 덥혀주고 숨이 졌던 어머니의 얼굴이며 북주하양주공장에서 석탄삽을 방망이처럼 내저으며 이찌가와 마끄도를 때려죽이자고 와와 밀려가던 일은 물론 부산시가의 캄캄한 밤 군용풍막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뛰쳐나던 일들이 다 생각났다. 매일저녁 통나무를 한통씩 메여다놓고 도끼로 쩡쩡 빠개주군 하던 혜영이네 집 넓지 않은 마당이며 《거기서 잘못되면 나도 죽고 말겠어요.》하고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쳐다보던 애정이 끓던 혜영의 얼굴도 떠올랐다.

사람이 운명의 마지막시기에도 반드시 한생을 총화하게 된다더니 나한테도 그런 때가 왔는가?

그까짓 죽는거야 뭐 두려울라구!

각오가 비상해지기도 했다. …

그토록 가슴태우며 기다리던 《참나무》는 저녁녘이 다되여서야 성큼 들어섰다.

장철석은 한순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이 사람이 정말 임일광이 옳은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의 인상이 너무 컴컴해보였기때문이였다. 아니, 어찌보면 그 어떤 실망으로 인한 번민이라도 안은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저도모르게 물었다.

《어떻게 됐소?… 잘못됐소?》

임일광은 버릇처럼 경관모부터 벗어던지며 빙그레 웃었다. 우정 늦장을 부리듯 제복의 웃옷단추를 뒤개 벗기고나서 말했다.

《원 잘못되다니…성공적이요, 완전한 성공!》

장철석은 귀안에서 웅—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성공적이요. …완전한 성공!》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다나니 임일광

의 낯색도 제나름으로 잘못 보았다는것을 깨달았다.

《정말이요? 그게 정말인가 말이요?》

묻는 뜻이 아니였다. 무작정 달려들어 언제인가 비밀지점에서 만났을 때처럼 임일광을 버쩍 들어안고 한바퀴 빙그르 돌았다.

임일광이 이번엔 어지럽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다. 그만큼 그도 기쁨이 컸던것이다.

격동이 가라앉자 임일광이 속타던 장철석을 위로하듯 늦어진 사연을 이야기했다.

《련락원과의 상면이 예정시간보다 늦어져서 2차상면시간을 기다려야 했소. 밀정놈을 심문중인데 우리한테 꼭 알려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기때문이였다고 했소. … 제놈들의 밀정이 다 토설했다는걸 알면 총독부 도깨비들이 아마 복통이 터질거요.》

《…그러니 그놈이 〈모모－2〉면 어떻고 〈사꾸라－2〉면 어떻소. 완전히 우리 그물안에서 놀아나는데…》

임일광은 근거지에서 알아낸 새 자료들을 침착하게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장철석은 얼굴빛이 점점 더 적동색으로 변해갔다.

《알겠소. 천하에 어리석고 비렬한 놈들… 그것들이 어디 인두겁이나마 쓴자들이요!》

철석은 임일광의 손을 힘있게 잡아 흔들었다.

때마침 《소나무》도 돌아왔다.

이미 알고있던 소식외 별다른것은 없었다.

다른 정황이 없다는것만으로도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들은 오래간만에 간단히 저녁식사까지 하고 헤여졌다.

어쩐지 인차 헤여지고싶지 않았지만 임일광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던것이다.

《서장 〈나리〉의 눈이 초불이 됐을거요. 그 〈나리〉와도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는 부러 제식동작을 깍듯이 해보이며 돌아섰다.

그가 문앞에까지 이르자 장철석이 부지중 뜨겁게 불렀다.

《임동무!》

그는 급히 걸어가 다시 그의 두손을 모아잡았다.
《임동무, 내 또 한번 부탁하는데 정말 주의하오. 정말!》
목소리가 메인듯싶었다.
임일광의 두눈에서도 뜨거운것이 끓었다.
《소나무》도 뒤따라 다가와 당부했다.
《철석동무의 부탁이자 우리모두의 부탁이요!》
임일광은 서글서글하게 롱처럼 말했다.
《고맙소, 한데 이거 오늘은 왜들 이러오? 임일광이 뭐 체포령이라도 받은것처럼.》
그는 제사 진중해져서 걱정했다.
《난 오히려 철석동무가 안심칠 않소. 그 성미가 말이요.》
장철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알겠소. 나도 명심하겠소.》
임일광은 또한번 경관식으로 인사를 하고나서 돌아섰다. 그가 씨원씨원하게 어둠속으로 사라졌지만 장철석은 한동안이나 선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모모－2〉란 말이지!》
《모모－1》, 우메즈 사부로놈이 체포됐다는걸 알면 이놈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찬바람이 인듯이 주위사방이 서늘해지는감을 느끼였다.
이어 《이깔나무》가 나타났다.
얼굴이 땀에 푹 젖었지만 무척 환희로운 표정이였다.
장철석과 마주앉기 바쁘게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이젠 모두 제법이요. 총신에 소제대를 넣고 다섯걸음밖의 목표를 쏴보게 했는데 모두 정통만 맞혔소.》
장철석은 얼마전부터 조국광복회 회원들중에서 젊고 날파람있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청장년 20여명을 엄선하여 마을에서 십리나마 쑥 들어가있는 깊은 산판에 사격련습장을 정하고 본격적인 사격훈련을 조직했다. 그 책임을 《이깔나무》에게 지웠던것이다.
장철석이 의아해서 물었다.
《총신에 소제대를 넣었다는건 뭐요?》

《이깔나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거 뭐 총소리는 낼수 없구…빈 방아쇠만 자꾸 당겨서야 맞는지 안맞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돌쪼각이나 나무꼬챙이는 넣어볼수 없구. 가만 생각해보니 소제대가 떠오르더구만요. 한번 쏴보니 제격입니다.》

《정신있소? 그러다 격침을 부러뜨리면 어쩌자구. 겨우 두정밖에 없는 총인데.》

그 무기들은 사격훈련을 위해서 근거지에서 김봉빈이 직접 내려보내준것이였다.

《이깔나무》는 이미 각오하고있었던듯 두손을 홰홰 내저었다.

《아아 됐수다 됐어요.… 다시는 절대 안그럴테니 걱정마슈. 그게 어떤 총이라는걸 우리라구 모르우.》

그는 제편에서 무릎을 철석 치고나서 더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구말입니다. 부탁했던 총과 작탄이 왔수다. 보총이 세자루하구 작탄이 한상자…모두 만세를 불렀수다. 이젠 진짜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장철석은 가슴이 터지게 큰숨을 들이쉬였다.

정말이지 이젠 됐다. 보병총 5정에 작탄 한상자!

《이깔나무》는 옷자락을 헤치고 허리춤에 둘러띠였던 묵직한 천주머니를 풀어냈다.

《총알이우다. 이 총알들을 반드시 철석동무가 보관했다가 일이 터지기 바루 직전에 나눠주라는거요.》

노르끼레하고 끝이 예민한 총알들이 손에서 손으로 오갔다.

무슨 말을 더 하랴.

장철석은 문득 나들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금 자기는 오히려 장철석이 걱정된다며 인상깊은 웃음을 남기고 사라진 임일광이 생각나서였다.

이젠 그저 그가 잘해줘야겠는데. 다섯정의 보총과 한상자의 작탄이면 물론 우선 경찰서를 장악하는데는 자신이 있었다. 보다 더 좋기는 임일광이 어떻게든 경찰서 무기고를 손에 넣는것이다. 그 무기들만 손에 넣으면 정말 무서울게 없겠는데!

그한테 진짜 다른 일이 없을가?

장철석의 심정을 알아차린듯 《이깔나무》가 그의 손을 힘있게 당겨쥐며 뜻있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장철석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누를수가 없었다.

8

경찰서 무기고는 T형으로 이어진 널마루복도 북쪽 끝에 있었다. 다른 방들의 두배나 두터운 콩크리트벽체에 손바닥만한 뙤창만 한개 냈다. 뙤창에는 팔뚝같이 굵은 강철살창을 댔다. 육중한 철문에는 소발통만한 자물쇠가 채워져있었다. 열쇠는 서장이 직접 가지고있었다.

복도쪽 창문에도 무기고 뙤살창 못지 않게 굵은 쇠살창을 댔다.

창문앞으로는 가시철조망을 석줄이나 둘러얹은 키를 넘는 벽돌담장이 마주섰다.

담장안에 무기고를 가리우느라고 심었는지 모를 두그루의 전나무가 유난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 창문들은 활짝 열어놓았다.

임일광은 담배를 피우는척 하며 무기고앞의 창문에 마주서서 전나무를 내다보고있었다. 두대째 연거퍼 피우는 담배였다.

아무 생각없이 담배를 피우는것 같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철문에 매달린 자물쇠에 가있었다.

장철석에게서 받은 과업대로 어떻게 하면 유사시 저놈의 철문을 열어제낄가 하는 신통한 방안이 서질 않아서였다.

그 과업뿐이 아니였다. 임일광은 이즈음 몇배 더 정신적긴장상태에 있었다. 비밀근거지에서 유인체포한 밀정으로 해서였다. 장철석은 물론 봉빈공작원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위험을 무릅쓰고 품들여 준비한 그 작전으로 밀정놈을 솜씨있게 유인하여 체포하긴 했지만 그 밀정놈이 박상이로 가장했던 그렇듯 흉측스러운 놈일줄은

전혀 몰랐었다. 정말 교활한 놈들과의 격전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펄쩍 들었다. 놈들의 모략도 보통 아니라는 생각에 자연히 더 긴장해서 주위를 살피게 되고 놈들의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이 날카로와지군 했다.

긴장중의 긴장은 이놈들 역시 내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것은 아닐가 하는 생각이였다. 이놈들이 그렇게도 감쪽같이 제놈들의 화약작전때 나를 끌어들였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 한밤중에 몸서리가 쳐지군 하였다.

더우기 서장놈의 언행이 자못 이상스러웠다. 보는 눈길부터가 이전같질 않았다. 무엇인가 바싹 옹크리고있는듯한 경계심과 함께 칼날처럼 예리한데가 느껴졌다. 때로는 의아하리만큼 그 어떤 기대와 선망의 빛같은것이 어리여 임일광을 어리둥절하게도 만들었다.

놈의 속심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그 생각에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뒤쪽에서 바람새는 휘파람소리같은 쇠붙이 갉히는 소리가 났다. 서장방의 나들문접철에서 나는 소리였다. 서장방의 사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듯 며칠전부터 나기 시작한 기름기 마른 마찰음이였다.

복도로 나오던 오뚜기같이 생긴 서장이 문도 채 닫지 않은채 임일광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임일광은 모른척 하면서 그냥 담배연기만 날리였다.

서장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천천히 고개를 두세번 젓고나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내장이 비틀리우기라도 한듯 얼굴을 험상스레 찡그리였다. 한동안 그러고섰던 그는 이윽하여 뚜걱뚜걱 무거운 소리를 내면서 접수실로 나갔다. 당직순사에게 무어라 귀속말을 몇마디 하고난 그는 인차 돌아서더니 곧바로 임일광의 곁으로 다가왔다.

임일광은 온몸의 피가 멎는듯 했다. 서장이 등뒤로 가까이 왔을때에야 급히 몸을 돌리면서 차렷을 했다.

서장은 한손을 쳐들었다. 그리고나서 자기도 머리쉼을 하려는듯 창문앞에 다가서며 담배를 꺼내물었다.

임일광은 여전히 차렷자세로 절반도 타지 않은 자기의 담배불을

꼈다.
서장이 의미심장하게 권했다.
《왜 그러나? 피우라구.》
《고맙습니다. 다 피웠습니다.》
서장은 부러 천천히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그러면서 일체 말이 없었다.
임일광은 그냥 부동자세였다.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난 서장은 돌연 임일광에게로 고개를 홱 돌렸다. 그 눈길이 여간 날카롭지 않았다.
임일광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은 안했다.
비수처럼 날카롭던 서장의 눈길이 차츰 부드러워졌다. 그는 또 한숨을 깊이 내쉬고나서 자기 방쪽을 향해 눈짓을 하였다. 이어 무슨 일이 있었더냐싶게 태연히 돌아섰다.
임일광은 서장이 자기 방문앞에 다 걸어갈 때까지 꼿꼿이 서있었다.
서장이 다시금 따라오라고 고개짓을 해서야 조심스레 걸음을 뗐다.
무슨 일일가? 정말 눈치를 챘는가?
서장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도 오락가락 책상앞을 거닐었다.
임일광은 등골로 서리가 돋는것 같았다.
서장의 묵중한 량수책상옆에는 은행 대형금고 못지 않는 커다란 철궤가 놓여있었다.
한참동안 철궤앞에 서있던 서장은 책상빼람에서 한줌이나 되는 열쇠묶음을 꺼냈다. 그리고나서 대형금고의 번호를 돌리고 우정 그러듯 열쇠소리를 절그덕거리면서 철궤문을 열었다.
거기서 얄팍한 문건 하나를 꺼냈다. 주저하듯 잠시 문건의 제명에 눈길을 박고있던 서장은 단호히 결심을 한듯 임일광이 마주 서있는 앞상우에 문건을 쑥 밀어놓았다. 총독부 경무국장의 시뻘건 네모꼴도장이 찍혀져있는 《징병제실시준비위원회》가 내려보낸 문건이였다.
임일광은 서장을 면바로 쳐다보기만 했다.

서장은 손을 홱 내리그었다.
그때 벽전화기가 요란스레 울었다.
서장은 펄쩍 놀라 문건을 당겨쥐더니 방안을 황황히 둘러보았다. 이어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임일광이 앞에 밀어놓았다.
전화기가 더 요란스레 울었다.
서장은 급히 전화기앞으로 뛰여갔다.
《하, 하, 알았습니다. … 알았습니다. 하, 하.》
서장은 수화기를 걸어놓기 바쁘게 복도로 달려나갔다.
임일광의 눈빛이 번쩍했다. 서장의 책상우에 열쇠묶음이 그냥 놓여있었던것이다.
유별나게 큰 무기고열쇠가 눈뿌리를 뜨끔 지졌다.
임일광은 저도모르게 서장의 책상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열쇠의 본을 뜨는데는 1분도 안걸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북치듯 했다.
문득 그는 굳어지듯 섰다.
검토? 함정??
강을 다 건너가 여울목에서 넘어지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하던 장철석의 말이 생각났다.
침착하자.
저놈이 제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 열쇠묶음을 저렇게 내놓을수 있을가?
임일광은 돌아섰다. 문건도 펼쳐보지 않았다.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서장이 뛰여들어왔다. 사색이 된듯한 얼굴이였다. 무작정 책상앞으로 달려간 서장은 열쇠묶음부터 덥석 걷어쥐였다.
안도의 낯색이 서장의 얼굴에 퍼졌다.
혹시?… 하는 눈길로 임일광을 쳐다본것은 다음순간이였다.
검토는 아니였다. 놈의 실수가 분명했다.
임일광도 후둑후둑 뛰던 가슴이 진정됐다.
이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일일가?
더욱 명백해진것은 서장이 누구보다 자기를 신임하는것 같지만 속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하긴 이놈도 일본 사무라

이후손이 아닌가.

서장은 스스로도 부끄러웠던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나들문앞으로 다가간 서장은 자물쇠를 절컥 잠그고는 천천히 자기의 등글걸상으로 걸어가서 틀지게 앉았다.

《앉으라구.》

서장은 턱으로 걸상을 권했다.

임일광은 례절있게 앉았다.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자 배심이 더 든든해졌던것이다.

《봤나?》

서장이 문건을 눈짓하며 물었다.

임일광은 단마디로 대답했다.

《안봤습니다.》

《왜?》

《제가 볼 문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서장은 눈을 꾹 감으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임잔 너무 똑똑해.》

침묵.

임일광은 모든것으로 보아 이놈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모모—1》인 우메즈 사부로의 체포는 물론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도 감감 모르는게 분명했다.

배심이 생겼다.

어디 마지막까지 맞붙어보자!

한동안 눈을 감고있던 서장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임일광의 앞에 가까이 옮겨앉았다.

그리고는 임일광을 찌르는듯 여겨보다가 나직이 물었다.

《내가 자넬 우리 일본사람들보다 더 신임한다는걸 인정하나?》

임일광은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황송한 말씀입니다.》

《음, 지난번 화약사건때 도경찰부장과 헌병대 대장앞에서 자네를 보증한건 내 목숨을 내댔던 일이야. 일생에 한번밖에 없을, 비

상시국에 군법이 어떤것이란걸 자네도 알테지?》
《저 역시 목숨으로 서장님을 위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는것이 유감입니다.》
《진정인가?》
《저도 사나이란걸 믿어주십시오.》
《사내대장부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임일광은 다시금 무게있게 고개를 숙였다.
서장도 뜻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고맙네.》
잠시 앞상우에 손을 얹고 똑똑 손가락그루를 박던 서장은 이윽고 임일광의 앞으로 웃몸을 쑥 내밀었다.
《이 방엔 우리 둘밖에 없네.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당직순사에게 일렀소.》
아직 무엇인가 안심치 않은듯 임일광을 찬찬히 여겨보던 서장은 걸상등받이로 몸을 한껏 젖히며 말했다.
《에또…임순사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총명하니 알고있겠지만 우리 일본의 운명도 이딸리아나 도이췰란드와 다를바 없을거요. 불보듯 뻔해.》
임일광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서장의 진심이 분명했다. 이즈음 정세연구에 각별히 몰두하는 서장이였다. 별치 않은 여론에도 여간만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다.
(네놈도 알긴 아는구나!)
쾌재가 터졌으나 더욱 무표정했다.
서장은 또 한참 임일광을 저울대에 올려놓은듯 뚫어지게 마주보다가 물었다.
《우리 일본이 패전을 하는 경우…그래그래. 전쟁에선 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조선사람들이 임자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 같은가?》
어지간히 위협기가 섞인 말투였다.

예상밖의 질문이여서 임일광은 고집스레 침묵으로 대답했다.
서장의 목소리가 타협으로 바뀌였다.
《인생은 엎음갚음이란 말이 있지.》
임일광은 눈이 번쩍 띄였다.
지난번 화약사건때 도경찰부장과 헌병대 대장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보증했노라고 각별히 력점을 찍던 방금전의 말이 생각났다. 그러니 이놈이 그때부터 벌써 앞일을 예견했댔단 말인가?
임일광은 다시금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면서도 그 기색을 감추려고 단호한 어조로 한마디 했다.
《엎음갚음이란 말은 모르겠지만 제가 할바라면 불속에라도 뛰여들겠습니다.》
서장의 두눈이 확 커졌다.
《진심인가?》
《방금 사내대장부는 일구이언을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서장은 책상앞을 돌아 임일광의 옆에 바싹 붙어앉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임순사가 순사옷을 입었지만 이곳 사람들한테 그리 밉게 굴지 않은건 아주 잘한 일이야. 선견지명이지.…내 임순사한테 부탁할건 하나뿐이요. 하나!》
서장은 둘째손가락을 꼿꼿이 펴보였다. 이어 급하게 방안을 둘러보고나서 숨가삐 말했다.
《우리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경우말이요. 임순사가 무슨 방법으로든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만! 대신 내 집과 재산은 모두 임순사에게 넘기겠소. 특히 명심할건 우리 아버진 일본의 손꼽히는 재력가라는거요. 큰 공장만도 일곱개나 가지고있소. 총명한 사람은 앞을 더 중히 내다보는거요.》
임일광은 모욕감을 느끼였다.
(어리석은 놈, 네놈도 꾀를 쓰기엔 머리통이 너무 궁글었어!)
그러나 임일광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선서라도 하듯 차렷자세로 웨쳤다.

《신임을 대의명분으로 여기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이제는 네놈의 숨통을 움켜쥐였다는 승쾌감의 분출이였다.

9

반만년 유구한 력사에서 40년이라고 하면 그리 길다고는 할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한생을 60년전후라고 할 때 그 40년을 념두에 두어보라.

드디여 40여년동안 이 땅의 하늘을 덮고 민족자체를 질식시키려했던 비운이 깨여져나가는 날이 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총진격의 포성을 울리셨던것이다.

8월 6일과 9일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상공에서 쏟아부은 원자탄공격과 쏘련의 대일선전포고로 가뜩이나 반정신이 나갔던 도꾜에서는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할것이며 따라서 조선반도에서의 모든 대책은 아베총독에게 맡긴다는 극비전보를 서울에 날렸다.

당황할대로 당황한 아베총독은 정무총감이하 수하 각료들의 등을 떠밀어 며칠전까지만도 당장 잡아들이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려운형을 비롯하여 조선독립운동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렇듯 하늘 무서운줄 모르게 기세등등했던 총독부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다 넘기겠으니 일본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의 생명재산만 보호해달라고 애걸하였다.

깜찍하기 이를데없는 그놈들은 한쪽으로는 그렇게 살구멍을 찾아 오그랑수를 쓰면서 경무국특별지령실을 비롯하여 비밀전화, 전신, 기밀문서들을 통해서는 도시, 농촌 할것없이 짓뭉개버리라는 명령을 비롯하여 각종 지시들을 연방 내려보냈다.

미치광이의 미친짓에는 론리가 없는 법이다.

가뜩이나 미친놈들이 얼혼까지 빠졌으니 무슨짓인들 못하랴.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너무도 빤히 내다보고있던 총독부 경무국

의 모리무라 다다시의 경우도 다를바 없었다. 일본의 패망을 철저히 일시적인 패전이라고 믿는 이자는 어리석게도 북부조선경내의 첩보망들에 대한 재수습과 재정비에 눈에 피가 져서 돌아쳤다. 특히 《두더지작전》의 적극적이행으로 보다 깊숙이 잠입시킨 《모모－2》의 활동과 함께 제손으로 직접 무전문을 작성하여 대밀림속에 들여보낸 《모모－1》의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자기의 분신이라고도 할만큼 품을 들이고 신임을 아끼지 않던 《모모－1》, 우메즈 사부로가 자기에 대한 배신은 물론 요시가와 이사로에 대한 질투와 반감까지 합쳐 나만 죽겠냐 너희들도 다 망하라는 정신착란자의 단말마적발악으로 이미 모든 작전의 비밀을 물쏟아붓듯이 다 쏟아버렸다는것을 알았다면 제사 복통이 터져 쓰러져버렸을런지 모른다.

허나 소식을 기다리기에도 며칠뿐.

한시간이 멀다하게 벼락치듯 날아드는 일본본영의 숨이 떡떡 막히는 새 지령들로 온통 정신이 빠진 총독부의 미친 바람속에 어쩔수없이 말려든 다다시 역시 언제 하루가 저물고 밤이 새는지 몰랐다.

총독부 울타리안에서는 그렇듯 패망직전의 광풍이 숨통들을 조였지만 서울장안은 물론 그 린근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서울장안이 그랬으니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상풍광산은 더 말할바 없었다.

또 한밤 무더위와 불안에 허덕이던 밤이 지나고 예나 다름없이 조용히 밝아온 8월 15일 아침이였다.

청장년들의 사격훈련을 더 신바람나서 조직진행하는 한편 밤마다 자진하여 광주놈의 집주변에 바싹 접근하여 놈들의 동태를 살피군 하던 《이깔나무》가 장철석에게로 달려왔다.

《일이 터지는것 같습니다. 수비대놈들이 완전전투태세를 갖추고 어디론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병영에는 한개 분대만 남겼습니다. 경찰서놈들도 같이 출동했습니다.》

이미 조선주둔군이 관동군작전관하로 들어간데다 동북조선의 위태로움을 느낀 놈들은 광산마을의 수비대와 경찰까지도 한개 분대력량정도만 남겨놓고 어디론가 끌려간 모양이였다.

《이깔나무》가 더 급해하며 알려주었다.

《광주놈, 로무과장… 도망칠 차비에 정신이 뒤집혔습니다. 갱들과 선광장을 폭파시키려는것 같습니다.》

《뭐요?》

장철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폭파?》

놈들이 무슨 미친짓을 벌릴지 모른다고 하던 봉빈공작원의 말이 생각났다.

미친짓을 막기 위해서도 빨리 놈들의 통치기관부터 타고앉아야 했다. 그러자면 경찰서와 수비대—총쥔 놈들부터 제압하는것이 급선무였다.

시간이 없다. 놈들이 한개 분대력량만 남겼다니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사생결단!

한인준에게서 넘겨받은 권총에 손이 갔다.

우선 봉빈공작원에게 련락을 해야 한다. 지하조직을 총발동해야 한다. 이미 준비했던대로 무장을 갖춘 핵심조직성원들이 들고일어나면서 광부들과 주민들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는 곧 임일광을 호출했다.

《임동무, 빨리 무기고부터 타고앉아야겠소.》

《그건 념려마오. 무기고열쇠는 내 손에 있소.》

《잘했소. 빨리 경찰서로… 봉빈동지와의 련락임무는 〈소나무〉에게 맡깁시다.》

《알겠소. 부디 조심하오. 철석동무가 자주 말하지 않았소. 큰강 건너 여울목에서 넘어지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이요.》

임일광은 뜻많은 웃음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분명 임일광에게 생명을 내대야 하는 중대임무까지 주어 보냈지만 장철석은 도대체 현실로 믿어지질 않았다. 꿈을 꾸는건 아닌가 싶었다. 그도그럴것이 놈들과의 생사결전이 이렇게 빨리 닥뜨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슴이 너무 활랑거려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이미 대기시켜놓은 지하조직성원들을 찾아갔다. 격동으로 하여 떨리는 손으로 매양 품에 안고있다싶이 했던 총알들을 나누어주었다. 총알을 받아 능란하게 장탄을 하는 청년들을 믿음에 찬 눈길로 지켜보았다.

작탄도 나누어주었다. 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하나씩 더 주어 허리춤에 돌려차게 하였다.

총과 함께 작탄까지 갖춘 청년들은 너무 흥분하여 말도 못했다. 당장 총독부라도 들이칠 기세들이였다.

장철석도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새삼스레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몸이 떨리고 말이 굳어진다는것을 느꼈다.

침착하라. 진짜 문턱앞에 섰다.

그는 먼저 지하조직책임자들을 불러 적통치기관들인 면사무소와 광산사무실, 체신소들을 분담했다. 이미 사격련습을 충분히 한 청장년 20여명도 대상에 따라 나누어주어 선봉대를 조직하게 했다.

경찰서는 장철석자신이 직접 맡았다.

대상분담과 력량편성이 끝나자 각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더 구체적으로 주었다.

단호하면서도 명백하게 행동방향과 주의점들을 강조하고나서 철석은 제먼저 권총을 뽑아들었다.

《경찰서를 맡은 조는 날따라 앞으로!》

청년들은 일격에 거리로 달려나갔다. 각자 자기들이 맡은 대상을 향해 장철석을 앞질러나갔다.

《일본은 망했다!》

《일제를 타도하자!》

《일본놈들은 손을 들라!》

제마끔 웨쳤다.

장철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깔나무》의 보고대로 경찰서의 대부분 놈들은 수비대와 함께 어디론가 가고 경찰서에는 몇놈 남아있지 않았다.

《참나무》가 사전에 어떻게 해놓았는지 경찰서장이하 몇명 되

지도 않던 그놈들은 크게 반항하지 않고 인차 손을 들었다.

허리춤에다 작탄을 차고 보병총을 틀어쥔 청년들을 보자 놈들은 가뜩이나 공포에 질렸던 눈이 휘딱 뒤집혀지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특히 유격대대장처럼 권총을 내들고 뛰여드는 장철석앞에 입들이 쩍 벌어졌다.

임일광이 무기고철문을 열어제꼈다. 그것을 본 경찰놈들은 더더욱 사색이 되였다.

무기고에 뛰여들어가 총을 하나씩 든 청년들은 말그대로 하늘을 찌를 기세들이였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떨듯 하는 놈들의 넋을 아주 뽑아버리고말려는듯 누구인가 총소리를 꽝 냈다. 쌓이고쌓였던 분노의 폭발이였다.

두손들고 부들부들 떨던 경관 한놈이 그 총알에 맞기라도 한듯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벌렁 넘어졌다.

《개자식, 우리가 이따위 겁쟁이들한테 이때껏 눌리워 지냈나? 일어섯!》

방금 총소리를 낸 청년이 자빠진 놈의 엉뎅이를 걷어찼다.

와— 웃음이 터졌다. 통쾌한 웃음이였다.

예상외로 손쉽게 경찰서를 제압하고 무기까지 탈취한 청년들은 기세충천하여 수비대병영으로 돌입했다.

사태를 알아차린 시민들이 도끼와 삽, 곡괭이 등 닥치는대로 들고 청년들을 뒤따랐다.

그 수가 급격적으로 늘어나 길을 메웠다.

면사무소와 광산사무실로 갔던 조에서도 필요한 인원만 남겨놓고 장철석이네 조를 지원하려 달려왔다.

정규군이여서인지 수비대놈들은 경찰서놈들과는 달랐다. 한개 분대력량이지만 정문앞에 경기관총까지 걸어놓고 완전전투태세로 사격명령만 기다리고있었다.

류혈참극의 직전이였다.

물밀듯이 밀려가던 시민들은 일시 병영앞길에 멎어섰다. 폭양의 계절인 8월 한낮이였지만 주위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고 팽팽

해졌다.

장철석이 먼저 권총을 내들고 군중앞에 나섰다. 장총과 작탄을 든 청년들이 일제히 그의 량옆으로 진을 치듯 따라나섰다.

길목을 꽉 메운 군중들의 뒤에서 또 함성이 터져올랐다. 소식을 들은 광산주민들이 남편과 아들, 아버지들을 지원하여 끝없이 밀려오고있었던것이다.

장철석은 성큼 앞으로 나섰다. 무슨 힘엔가 떠박질리웠던것이다.

움씰거리던 군중이 와 밀고나왔다. 장철석으로서도 어쩔수 없는 힘의 전진이였다.

장철석은 한걸음 또 한걸음 정문으로 다가섰다. 산악같은 힘을 등뒤로 느낀 그는 발이 땅에 닿는것이 아니라 온몸이 둥둥 떠밀리워나가는것 같았다.

《항복하라!》

그는 저도모르게 목이 터지게 웨쳤다.

《항복만이 살길이다!》

귀가 멍― 해졌다. 얼마후에야 그는 산악처럼 밀고나오는 군중이 한목소리로 자기의 말을 따라 웨쳤다는것을 알았다.

《항복하라!》

《손을 들면 살려준다!》

사태는 호전되였다. 경기관총수가 먼저 두손을 쳐들며 일어났던것이다. 뒤따라 한놈 또 한놈 보병총을 내던지며 손들을 들어올렸다.

또다시 골안이 떠나갈듯한 함성이 터졌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만세!》

《조선해방 만세!》

서로 붙안고 울고 웃고… 그러다가는 또 서로 어깨를 치고 얼굴을 맞비비고…

아, 하늘땅이 뒤바뀐다는 말은 이런 때를 일러 생겨난 말인가?

40여년의 이 나라 억압과 압박의 력사!

드디여 그 천대와 멸시, 암흑의 력사가 끝장나고 창창한 내 나

라의 하늘이 밝게 열리는가?!

만세!

만세!!

만세의 함성은 점점 더 광산마을을 진감하며 련련히 뻗은 산발과 절벽들에 메아리쳤다.

장철석은 목이 터져라 웨치는 그 만세의 함성속에 멀리 산발너머 비밀근거지쪽을 바라보았다.

(봉빈동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수비대놈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두볼을 적시며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봉빈동지, 듣습니까? 저 만세소리, 저 웨침소리!!)

혜영의 얼굴이 보이고 한영옥의 얼굴도 떠올랐다.

10

해방의 열광, 승리의 열광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너무 일렀다.

놈들의 발악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던것이다.

한 녀인이 수비대병영쪽에서 달려오며 사색이 되여 소리쳤다.

《수비대놈들이 와요. 철수해갔던 수비대 한개 중대와 경찰놈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요. 박격포까지 싣고 온대요!》

장철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비로소 병영에 남아있던 수비대놈들이 그렇듯 쉽게 손을 든것은 진짜 항복을 한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 제놈들의 중대와 련락을 취하고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한 속임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물러설 길은 없었다.

장철석은 서둘러 수비대병영뒤쪽의 산등성이로 뛰여올랐다.

압록강대안쪽으로 뻗었다는 큰길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마루였다.

8월의 폭양아래 먼지를 뽀얗게 날리며 3대의 자동차가 광산쪽으

로 달려오고있었다.

(다 죽겠구나!)

철석은 터져라 입술을 짓물었다.

그는 급히 무장인원들을 집합시켰다.

《동무들, … 우리가… 우리 조직은…》

말이 자꾸 막히였다. 가슴속에서 고패치는 말은 많은데 서둘러야 할 시간이 너무도 긴박했던것이다. 철석은 가쁜숨을 두세번 들이긋고나서 한걸음 썩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앉으면 항일유격대의 조국진군의 길이 늦어집니다. 우리의 뒤에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조직된 비밀근거지의 무장대가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놈들을 맞받아나가 싸웁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적은 인원으로 중무장을 한 정규군과 맞서려면 수비대병영에서 얼마쯤 내려가다가 대문처럼 이마빡을 맞대다싶이 하고있는 량쪽 산코숭이이상 없었다.

문제는 빨리 그곳을 먼저 차지하는것이였다.

《동무들!》

장철석은 더이상 말을 못한채 산코숭이를 향해 달리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벌떼처럼 달려드는 수비대와 경찰놈들, 불을 토하는 총구, 아우성치며 쓰러지는 광부들, 땅이 꺼지는듯한 굉음 등이 머리속에 엇갈릴뿐이였다.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산코숭이를 차지해야 한다.

기를 쓰고 달리였다.

하지만 아무리 기를 써도 악을 먹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당해내랴.

산코숭이앞에 미처 닿기 전에 먼저 적들의 자동차가 들이닥쳤다.

철석이네를 발견한 선두차에서 기관총을 냅다 쏘았다. 총탄이 우박처럼 날아왔다.

장철석은 얼결에 길옆의 홈채기에 뛰여들었다. 뒤쪽에서 가슴을 찢는 비명이 터졌다.

장철석은 주먹으로 땅을 쳤다.

그는 마주오는 자동차를 향해 작탄 한개를 힘껏 내던졌다.

땅이 꺼질듯한 폭음과 함께 폭연이 눈앞을 덮었다.

장철석을 따라 달려오던 청년들도 제마끔 길섶에 엎드리며 작탄을 내던졌다. 아직 실전이 처음인지라 그저 장철석이 하는대로 무작정 내던졌다. 너무 덤벼치다나니 태반의 작탄이 선두차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그앞에서 터졌다. 그것을 알아차린 놈들의 자동차들은 급히 뒤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작탄을 아끼라!》

장철석이 피타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더 던지려고 해도 던질 작탄이 없었던것이다.

눈앞을 가리웠던 폭연이 가셔지기 시작하자 놈들은 기다렸던듯 다시 부르릉부르릉 자동차발동소리를 울리며 전진하기 시작했다.

다시금 기판총탄이 줄비처럼 쏟아졌다. 자동차우에서 쏘아대는 총탄도 그만 못지 않았다.

작탄이 떨어진 청년들은 피가 터지게 입술을 깨물며 땅땅 맞총질을 해댔다.

장철석은 또 주먹으로 땅을 치며 웨쳤다.

《총알을 아끼라!》

그 웨침을 사격중지구령으로 들었는지 일시에 총소리가 멎었다. 놈들의 사격만이 더 기승스러워졌다.

장철석은 머리를 싸쥐였다. 눈앞이 캄캄했다.

봉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인준과 혜영의 얼굴도 보였다. 절망의 순간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것은 어인 일인가!

정신이 버쩍 들었다.

(아니, 내가 이래선 안돼. 맥을 놓아선 안돼!)

10여명 무장청년들과 시민들이 오로지 이 장철석만을 지켜보고있다는 생각이 자리를 차고 일어서기라도 할듯한 충격을 일으켰다. 우선 저놈의 자동차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쳤다.

장철석은 침착하게 권총을 쳐들었다.
선두차의 시창안으로 흉물스러운 운전사놈의 상통이 광주리만큼이나 크게 확대되면서 총구앞에 마주쳤다.
철석은 어떻게 방아쇠를 당겼는지 몰랐다.
운전칸 유리창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선두차가 곤두박질하듯 멎어섰다.
중기관총이 더 무섭게 불을 토했다. 바빠맞은 놈들도 사생결단의 사격을 했다.
장철석이 은폐한 홈채기앞의 연자방아돌만한 바위굽에서 돌가루가 뽀얗게 날리면서 숨을 쉴수 없게 매캐한 연기가 솟구쳤다.
《개놈들!》
장철석은 끝내 자리를 차며 일어났다.
그때였다.
난데없이 선두차우에서 화광이 번쩍하며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폭음이 일었다.
뒤따라 연거퍼 울리는 폭음! 폭음!!…
놈들의 사격이 한순간 즘즛해졌다.
그 순간을 노렸던듯 골안을 쩡쩡 울리는 웨침소리.
《철석동무, 산으로 오르라.》
장철석은 두눈을 꽉 감았다.
사태를 예견하고 사전에 광산마을로 긴급출동했던 근거지무장대가 도중에서 마침 장철석이 파견한 련락원과 만났던것이다.
진짜 꿈인가?
또다시 울리는 낯익은 목소리.
《철석동무, 뭘하오? 빨리!》
틀림없는 봉빈공작원의 목소리였다.
철석은 그제서야 청년들쪽으로 돌아섰다.
《동무들, 우리 동지들이 왔소. 우리 무장대요!》
철석은 저를 부르는쪽으로 올리뛰였다.
한 청년이 손을 잡아 이끌었다.
집채같은 바위밑이였다.

철석은 숨을 톺을새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웃쪽에서 계속 달려내려오는 무장대원들!
달려오는 차제로 제나름의 지형지물을 리용하며 총을 쏘고 작탄을 던졌다.
수비대놈들도 그저 죽자고는 하지 않았다.
앞뒤 자동차들의 바퀴가 주저앉은 놈들은 기를 쓰고 산기슭에 달라붙었다.
누구인가 날아들면서 철석을 콱 덮쳐안았다.
귀전에서 휘파람같은 소리가 나더니 등뒤의 바위모서리가 부서져나갔다.
장철석은 그것이 어디선가 자기를 겨냥하여 날아온 총알이란것을 알지 못했다.
《조심해요. 큰일날번 했네.》
장철석은 그때에야 자기를 덮쳐안았던 사람이 처녀라는것을 알아보았다.
혜영이였다.
하지만 철석은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혜영이 역시 같았다.
혜영이는 얼른 자기의 허리춤에 찼던 작탄 한개를 내주었다. 인사였다.
《고맙소.》
철석은 산밑에 바싹붙어 기여오르는 놈들을 향해 작탄을 힘껏 던졌다.
쾅!
폭음, 폭연,
철석은 또 손을 내밀었다.
혜영은 즉시 작탄을 쥐여주었다.
장철석은 얼마후에야 그 작탄이 바로 자기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산으로 보낸 그 화약과 도화선으로 만든 무기라는것을 생각했다.
골안은 점점 더 폭음과 폭연속에 불바다로 번져졌다.
쾅! 쾅! 짜르릉 쾅 쾅!!…

마감이야기

울먹이는 소리로 일본천황 히로히또가 제 육성으로 항복을 알리는 방송을 했다는 소식이 광산마을에 알려진것은 점심때가 퍽 지나서였다.

남녀로소는 물론 몇년째 자리에 누워있던 병약한 녀인도 저고리 고름마저 못맨채 맨발로 뛰여나와 만세를 불렀다. 두볼로 눈물이 좔좔 흘러내렸다.

어느 집에선가는 뜨락에 뛰쳐나와 목이 터지게 만세를 부르던 백발로인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만 졸도를 하여 한동안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산도 들도 숲도 일거에 솟구쳐 일어나는것 같았다.

식당과 사진관들에서의 기쁨 또한 류달랐다.

모두 무료봉사라는것이였다.

사진사들은 네거리복판에 사진기를 메고나와 손을 저었다. 해방만세의 그 모습을 천년만년 자자손손 전하라는것이였다.

식당들에서는 주방칸의 그릇가시던 녀인들까지 뛰쳐나와 무료봉사를 하겠으니 어서 오시라고 손님들을 불러들였다.

내포국집도 같았다. 주인량주가 광산마을해방전투에 참가한 무장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에게 특별봉사를 하겠으니 부디 사양말아달라는 청원을 해왔던것이다.

김봉빈은 쾌히 접수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식당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마당안에 전체 무장대원들과 광산반일조직성원들을 모이게 했다.

식당마당이 무장대원들과 광산반일조직성원들로 꽉 들어찰무렵 박준보와 리순철을 비롯한 농산조성원들이 나타났다. 기별을 늦게 받고 떠나서 숨차게 달려왔지만 광산지구해방전투에 참가하

지 못해 무척도 손맥이 풀려하는 기색들이였다.
리순철이 특히 더 볼이 부은 인상이였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미리 좀 알려줄게지.》
그는 성까지 왈칵 냈다.
김봉빈이 그러는 순철이와 박준보, 농산조성원들을 의미있게 지켜보다가 뜻있는 표정으로 장철석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자, 이젠 정식으로 소개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소?》
《해야지요.》
장철석의 대답은 바위돌처럼 무거웠다.
비분과 격정, 분노에 떠는듯싶었다.
봉빈의 눈에서도 푸른 섬광이 번쩍했다. 그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전에없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농산조책임자를 찾았다.
《박준보동무.》
《옛!》
대답소리와 함께 박준보와 또 두명의 대원—농산조대원들이 옆에 서있던 한사람을 붙잡아 단호히 봉빈의 앞으로 끌어냈다.
리순철이였다.
모두 아연했다.
순철이 어떻게 했는지 그를 붙잡고있던 두사람이 단번에 뿌리쳐졌다. 세련되고 숙달된 솜씨였다.
박준보가 다시 날쌔게 순철에게 다가들어 억센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였다.
《이건 뭐예요? 왜 그래요?》
순철이 다시금 세사람한테 붙잡힌채 봉빈에게 항거했다. 이어 장철석에게로 얼굴을 돌렸는데 억울하여 울음이라도 터뜨릴 표정이였다.
장철석의 두눈에서는 그냥 증오가 펄펄 끓고있었다.
그의 입에서 벼락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요시가와 이사로. 〈모모—2〉!》
순철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형님!》

《닥쳐!》

장철석의 추상같은 목소리에 이어 봉빈의 칼날같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요시가와 이사로, 모리무라 다다시가 누구지? 우메즈 사부로, 요꼬다 메구미는?》

요시가와 이사로는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다시 벌떡 일어나며 악을 썼다.

《몰라요. 난 그런 사람 몰라.》

《추태를 부리지 말아, 교활한 놈!》

장철석이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물론 난 부산에서부터 네놈한테 감쪽같이 속히웠댔다. 풍막앞에 네놈의 상관들이 나타나 전지불로 〈탈출〉신호를 했다는것도… 〈담뽀뽀〉인 요꼬다 메구미와 부부로 가장하고 이 량림산일대에 침투하기 위해 그렇게도 교활한 수를 썼을줄은 몰랐댔다.》

장철석은 증오가 펄펄 끓는 눈길을 요시가와 이사로에게 박으며 불소나기처럼 내쏘았다.

…강동지의 체포작전에서 여지없이 실패한 모리무라 다다시는 난생처음이다싶이 충실한 첩자 《모모－1》－우메즈 사부로를 저능아, 밥통으로까지 몰아붙이며 온갖 모욕을 다 들씌웠다. 당장 상풍광산에서 손을 떼라고 욱박지르긴 하면서도 비게덩어리와 같은 광산지구작전을 어떻게 할것인가 앙앙불락의 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럴 때 뜻밖에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생겼다. 늙마같은 이찌가와 노리아끼가 그와 마주앉은 어느 한 연회탁에서 구창광산의 《형제계》와 《친목회》패들을 충돌시켜 그 조직성원들을 말짱 알아낸 후 하루아침에 징병, 징용으로 모두 뽑아보냈노라고 자랑을 했던것이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슨 객담이냐는듯 묵묵부답으로 듣는척 했지만 모리무라 다다시는 《형제계》의 책임자 장철석이란 인물에 각별히 관심을 두었다. 즉시 서울시내에서 빈둥거리던 요꼬다 메구미와 부부로 가장시켜 중부산악지대인 황해도 린산일대에 박아넣었던 첩자 요시가와 이사로를 호출했다. 자연스럽게 징용으로 끌려가는 청장년들속에 섞이여 장철석이

란 인물을 손에 넣은 후 무슨 수를 써서든 그와 함께 상풍광산에 깊숙이 들여박히라는 특별임무를 주었다. 정말이지 다다시가 자기 정탐사의 한페지를 충분히 장식할만큼 품을 들인 잠복작전이였다. …

장철석의 목소리는 더욱 서리발같았다.

《이놈아, 이 모든 사실을 누가 토설했는지 알아? 네놈보다 먼저 우리 광산조직에 발붙였던 〈모모—1〉인 우메즈 사부로야. 더러운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다 토설을 했다 하긴 네놈들에 대한 질투심에서라고도 했다. 더러운 놈들… 또 한가지 알려줄가? 네놈이 언제 우리한테 정체를 드러냈는지 알고싶지 않아?》

장철석은 갑자기 역스러운것이 치밀어 봉빈이를 쳐다보았다.

김봉빈은 진정하고 어서 계속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철석은 주먹을 떨며 계속했다.

《우리의 귀중한 동지인 한인준동지가 희생된 때부터였다. 죽일 놈 같으니!》

장철석은 너무도 억이 막혀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숨죽이고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순철》을 쏘아보았다.

장철석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놈아, 네놈의 실수는 그날밤 나한테 통닭을 삶아준거야. 날 이불속에 밀어넣고 마취약을 뿌린걸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네놈이 밤중에 통닭을 구하러 가는척 하면서 수비대에 들렸다는걸 우리 동지들이 알아냈다. 조국광복회특수회원들이… 네놈은 한인준동지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런 요술을 부렸지? 네 졸개놈의 실수로 한인준동지가 희생됨으로써 그 모략도 실패했구, 그래 우리가 그걸 다 모르고있는줄 알았어?》

사람들속에서 차창일이 앞으로 불쑥 나섰다. 손에 들고있던 변장용인공수염 하나를 이사로앞으로 내던졌다.

《이놈아, 이따위걸로 변장을 하고다니면 사람들이 네놈을 차창일로 볼줄 알았어? 네놈이 떠난 후 네놈이 살던 집에서 기어코 찾아낸거다. 더러운 놈.》

모여섰던 사람들은 그때에야 차창일이 화약마차습격사건이 있은 후 술에 《취》해서 늘 《순철》이한테 붙어돌아간거며 영옥이

와 《파혼》을 선언했던 일들이 다 그놈을 감시하고 뒤를 캐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였을뿐아니라 한영옥이를 비밀근거지로 들여보내기 위한 광산조직의 치밀한 작전이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차창일은 언제 술주정군이 돼서 우둘쩍거렸던가싶게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론리정연하게 이어나갔다.

《이놈아, 네놈들의 〈두더지작전〉내막을 한번 이야기해볼가? 우리의 비밀근거지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어리석은 작전… 네놈들은 그 작전을 위해 같은 밀정인 요꼬다 메구미— 〈담뽀뽀〉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모략을 꾸몄지? 철수하는 경찰놈들한테 륜간을 당하구 자살을 한것처럼 꾸며서 말이야. 그러군 우리의 동정을 얻어서 근거지로 들어가려구. 물론 이 내용도 다 우메즈 사부로가 토설을 한거야.》

차창일은 말하기조차 역겨운듯 침을 내뱉았다.

장철석이 기침을 몇번 하고나서 다시 사람들앞에 나섰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왜놈족속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스럽고 야수적인가를 좀더 들어보시오. 〈모모—1〉의 토설에 의하면 우리 조직이 좀처럼 제놈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놈은 한인준동지의 안해를 험한 벼랑으로 유인하여 죽였습니다. 박상이로 가장했던 그 사부로놈이 말이요. 그렇게 되면 한인준동지한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것이라고 타산했단 말입니다.》

울음이 터졌다.

한영옥이였다.

혜영이가 그를 품에 안으며 같이 눈물을 머금었다.

주위가 소란해졌다.

뒤쪽에서 조용하라는 목소리가 터졌다.

장철석이 이사로앞으로 돌아섰다.

이제는 그의 입에서 분노와 증오만이 아닌 야유와 조소의 말이 튀여나왔다.

《이놈아, 수년간 네놈들의 본토와 중국동북 특수기관에까지 뛰여다니며 첩보활동을 배웠다는 놈이 판단력이 그게 다냐? 우리 련락원동무가 네놈을 속이기 위해 하루면 갈 길을 사흘동안이나 험한 산판으로 실컷 끌고다닌것 또 이곳 광산지구 지하조직의 활

동과 투쟁을 위해서 조국해방의 결정적시기를 앞두고 네놈을 산속의 농산조에 끌어다 옴짝 못하게 비끌어매놓았던것… 물론 모험적인 작전이긴 했지만.》

장철석은 화약마차습격사건이 있은 후 놈들이 부러 《순철》이를 《체포》하여 고문을 하는척 하면서 그를 더 믿음직하게 위장시키려 했던 사실까지 낱낱이 폭로하고나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지하조직에서 놈들의 《두더지작전》을 역리용하여 무장폭동준비를 아주 안전하게 본격적으로 다그친 투쟁내용을 더 세세히 알려주었다.

…요시가와 이사로가 결정적으로 비밀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요꼬다 메구미까지 사살했다는것을 알게 된 장철석은 이 사실을 즉시 봉빈공작원에게 통보하고 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농산조에 끌어들여다 옴짝못하게 수족을 얽어맬 대책을 세웠었다. 물론 이 작전 역시 차창일이 주동적으로 맡아나서도록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다. 말그대로 무장폭동의 최후작전을 안전하게 준비해나갈 작전이였다.

요시가와 이사로를 근거지로 유인하는 날 광산조직에서는 또한 뜻밖의 횡재를 했었다. 차창일이 요꼬다 메구미의 묘앞 상돌밑에서 요시가와 이사로가 우메즈 사부로를 통하여 모리무라 다다시에게 보내는 비상련락쪽지를 찾아냈던것이다. 자기가 드디여 비밀근거지로 들어가는바 자기의 위치는 주변 십리안팎의 수림속 나무들에 남쪽방향으로 한뽐가량의 껍질을 벗겨놓는것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였다.

그 련락쪽지는 며칠 안있어 모리무라 다다시의 책상우에 놓이게 되였고 《모모—1》, 우메즈 사부로에게는 그 즉시 《사냥작전》과 《두더지작전》을 한점에서 일치시키라는 극비명령이 떨어졌다.

《모모—2》, 《순철》의 나무껍질표식신호는 그 일거일동이 박준보를 비롯한 농산조대원들에 의해 걸음걸음 장악되였다. 그것을 알바없는 놈들은 결국 비밀근거지의 그물안에 《모모—1》, 우메즈 사부로까지 밀어넣는 내장이 터질 실책을 범하게 되였던것이다. …

자초지종을 설명한 장철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또 한번 숨통을 조이듯이 물었다.

《또 한가지 알려줄가? 박준보동지랑 농산조대원들이 왜 늦게야 여기 도착했는지 의심스럽지 않아? 네놈이 싸움판에서 무슨 왕청같은짓을 할지 모르기때문에 우정 그렇게 한거야. 그런것도 모르는 주제에 밀정이랍시구… 창피하지 않아?》

김봉빈이 조용히 나섰다.

《요시가와 이사로, 할말이 없는가?》

이사로가 고개를 홱 들었다. 그 눈은 이미 인간의 눈이 아니였다. 아니나다를가 그놈은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였다.

《옳다.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이 광산에 침투하기 위해… 장철석 너를 멋지게 붙잡았다는 쾌감에 그만 자만도취되여서 해이됐댔어. 우리가 졌어. 하지만 안돼.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가 보잔 말이야.》

봉빈은 역겹게 웃었다.

《아직도 속은 살아서… 이봐, 우리도 네놈들, 일본제국주의의 본성은 천년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걸 알아. 천년만년 대대손손 네놈들과 계산도 해야 할거구… 명백한건 네놈들이야말로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거야. 네놈들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야… 그리구 네놈들이 무엇을 몰랐는지 알아? 조선혁명의 사령부 **김일성**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려는 우리 조선사람, 조선민족의 그 불같은 진심과 진정이야. 장군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백전백승한다는것, 그 어떤 원쑤의 모략도 짓부실수 있는 힘과 지혜, 묘술과 방법도 다 나온다는것, 그래서 우린 오로지 장군님만을 믿으며 장군님을 한목숨 다 바쳐 결사옹위하는거야. 알겠어? 바로 그 신념, 그 충정이 우리모두를 승리자로 만드는거다. 그러니 네놈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 이놈을 끌어가시오.》

박준보와 두명의 대원이 이사로를 마당밖으로 끌어내갔다.

물결처럼 설레이는 사람들앞으로 또 한명이 걸어나왔다. 내포국집주인이였다. 그뒤로 아직 경찰복장을 하고있는 임일광이 바싹 따라섰다.

술렁거리던 사람들이 긴장하여 김봉빈과 장철석을 바라보았다.

장철석이 내포국집주인과 임일광을 나란히 사람들앞으로 내세우

며 큰소리로 말했다.

《동지들,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인 〈참나무〉와 〈소나무〉동지들을 소개합니다. 이 동지들의 보호속에 난 마음놓고 놈들과 싸울수 있었으며 또 이 식당의 지하실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할수 있었습니다.》

두사람이 사람들앞에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박수가 터졌다.

장철석은 다시금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싱글벙글 웃고있는 차창일의 손을 잡아 임일광의 옆에 내세우며 말했다.

《그리구 이 차창일동무가 〈이깔나무〉란 대호를 가지고 활동했다는것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또다시 터지는 박수.

봉빈공작원과 장철석도 손바닥이 터지게 박수를 쳤다.

내포국집주인—〈소나무〉가 격정에 넘쳐 말했다.

《자, 어서들 들어갑시다. 우리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식당안에는 이미 성의껏 차린 식탁이 마련되여있었다. 안주인이 예전보다 더욱 상냥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김봉빈이 기어코 심혜영과 한영옥을 끌어다 장철석과 차창일의 옆에 앉혀주었다.

한인준이 자주 앉군 하던 식탁이였다.

모두 자리에 앉자 김봉빈이 천천히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몇번이고 뜨거운것을 삼키고나서 입을 열었다.

꽉 잠긴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동지들, 해방된 조국을 위하여… 이날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을…》

봉빈이는 그다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굽에 물기들이 번쩍이였다.

랑림의 굽이굽이 산줄기, 백두의 대밀림과 곤장덕의 이깔나무숲, 눈보라 세찼던 동북의 아득한 광야가 눈앞에 떠올랐다.

이 시각 두만강을 건너 웅기(당시)와 라진, 청진항을 향하여 노

도와 같이 진격해올 동지들의 모습이 보였다.

김봉빈은 종시 들었던 잔을 놓았다.

장철석도 불뭉치같이 뜨거운것을 삼키며 잔을 놓았다.

그 잔을 들기에는 아직 걸어야 할 길이 너무도 멀었던것이다. 아니, 그 잔이 너무도 무거웠던것이다.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난히도 태양이 빛나고있었다.

이즈음이면 흔히 장마가 지기 쉬웠다.

허나 날씨는 무척도 맑았다.

산판의 록음도 무성히 푸르렀다.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 주체34(1945)년 8월 15일의 그 하늘은 근 반세기의 비운을 가셔내고 다시 찾은 내 나라의 맑고 푸른 창창한 하늘이였다.

× ×

그 시각 서울 조선총독부 직원들의 사택 침침한 방에서는 제딴에 목욕까지 깨끗이 한 모리무라 다다시가 일본땅을 향해 정중히 앉아 제손으로 배를 가르고 쓰러졌다.

며칠후 어느 한 일간신문에는 도경찰부장 구로지마 가메도가 처와 자식 3명에게 강제로 독약이 든 음식을 먹여 독살을 시킨 후 저자신은 권총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실려 사람들이 침을 뱉게 했다.

침략자 강도 일제의 패망상을 보여주는 당시로서는 너무도 례사롭고 비일비재했던 악행, 악취의 일단이였다.